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2019년 가야사 기획학술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Planning of Gaya History in 2019

학술심포지엄

경계의 가야

호남과 영남



책임운영기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책임운영기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학술 심포지엄

2019.07.11.(목) - 12.(금)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11.(Thu)

13:00~13:10	등록	
13:10~13:30	개회사 최종덕(국립문화재연구소장) 축사 정재숙(문화재청장) 환영사 김영록(전라남도지사) 허석(순천시장)	사회 전용호(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부〉 금강 및 섬진강 유역의 가야 문화	사회 강동석(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3:30~13:55	발표1 금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축조 세력	발표 양숙자(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토론 류창환(국동문화재연구원)
13:55~14:20	발표2 토기를 통해 본 금강 상류지역 가야	발표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토론 김낙중(전북대학교)
14:20~14:45	발표3 섬진강유역 가야 문화의 형성과 변천	발표 조근우(마한문화연구원) 토론 홍보식(공주대학교)
14:45~14:50	휴식	
	〈2부〉 남강 유역의 가야 문화	사회 정경성(전남도청)
14:50~15:15	발표4 남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입지와 분포패턴	발표 강동석(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토론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15:15~15:40	발표5 남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축조 세력	발표 하승철(경남발전연구원) 토론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
15:40~16:05	발표6 남강 상류 가야 토기의 생산과 유통	발표 조성원(부경대학교) 토론 박승규(가야문화연구원)
16:05~16:20	휴식	
16:20~18:00	〈1·2부〉 종합토론	좌장 조영제(경상대학교)

12.(Fri)

	〈3부〉 영·호남 경계의 가야사 위치 및 성격	사회 전용호(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0:00~10:30	발표7 영·호남 경계지역 가야 정치체의 성격	발표 백승욱(국립해양박물관) 토론 곽장근(군산대학교)
10:30~11:30	발표8 日本からみた嶺南・湖南境界地域の加耶 - 『日本書紀』における加耶の範囲 -	발표 田中俊明(시가현립대학) 토론 이동희(인제대학교)
11:30~12:00	발표9 기문(己汶)과 반파(伴跋)의 역사적 위치 및 성격	발표 김재홍(국민대학교) 토론 박천수(경북대학교)
12:00~13:30	점심	
13:30~15:30	〈3부〉 종합토론	좌장 임영진(전남대학교) 이영식(인제대학교) 토론 최인선(순천대학교)
15:30~15:40	폐회사	국립나주·가야문화재연구소장

【차례】

제1부 금강 및 섬진강 유역의 가야 문화

- 【발표1】 금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축조 세력 9
발표 양숙자(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토론 류창환(극동문화재연구원)
- 【발표 2】 토기를 통해 본 금강 상류지역 가야 33
발표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토론 김낙중(전북대학교)
- 【발표 3】 섬진강유역 가야 문화의 형성과 변천 51
발표 조근우(마한문화연구원) 토론 홍보식(공주대학교)

제2부 남강 유역의 가야 문화

- 【발표 4】 남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입지와 분포패턴 81
발표 강동석(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토론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발표 5】 남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축조 세력 105
발표 하승철(경남발전연구원) 토론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
- 【발표 6】 남강 상류 가야 토기의 생산과 유통 125
발표 조성원(부경대학교) 토론 박승규(가야문물연구원)

제3부 영·호남 경계의 가야사 위치 및 성격

- 【발표 7】 영·호남 경계지역 가야 정치체의 성격 149
발표 백승옥(국립해양박물관) 토론 곽장근(군산대학교)
- 【발표 8】 일본에서 본 영남·호남 경계지역의 가야 175
발표 다나카 도시아키(시가현립대학) 번역 강은영(전남대학교)
토론 이동희(인제대학교)
- 日本からみた嶺南・湖南境界地域の加耶 189
発表 田中俊明(滋賀県立大学)
- 【발표 9】 기문(己汶)과 반파(伴跛)의 역사적 위치 및 성격 207
발표 김재홍(국민대학교) 토론 박천수(경북대학교)

제1부

금강 및 섬진강 유역의 가야 문화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발표 1】

금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축조 세력

양숙자(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I. 머리말
- II.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 고분 현황
- III. 장수 동촌리 고분군 발굴조사
- IV. 금강 상류 가야 고분의 특징
 - 장수·장계분지 고분을 중심으로
- V. 맺음말

I. 머리말

일반적으로 호남지역의 고대문화권은 크게 전북 서부 해안 및 평야지역, 영산강유역, 전남 서남해안 지역, 호남 동부지역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호남 동부지역은 호남정맥과 금남정맥, 백두대간의 산줄기로 둘러싸인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호남 동부지역을 수계와 분지,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금강수계권, 섬진강수계권, 남강수계권, 전남 동부동남권의 4개의 지역권으로 세분된다.

금강은 장수군 장수읍의 신무산에서 발원하여 진안, 무주, 금산, 영동, 옥천, 대전 등지를 지나 군산을 거쳐 황해로 빠져나가는 하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번째, 남한에서는 3번째로 긴 하천이다. 호남 동부지역의 금강수계권은 금강의 상류지역으로 선사시대 이래 줄곧 교통의 중심지 및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던 지역이었다. 특히 백두대간의 육십령은 가야를 비롯한 가야세력과 백제의 중앙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간선교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이 지역은 마한 이래로 백제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장수, 장계분지에서

[1] 곽장근, 2009, 「금강 상류지역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한국상고사학보』 66, p46.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발굴조사에 힘입어 백제뿐만 아니라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가 존재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호남과 영남의 경계, 즉 호남 동부지역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 상류지역의 정치체 특히 가야계 고총고분 축조세력이 누구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금강 상류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가야 고분의 분포와 현황을 검토하고(Ⅱ장),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고총고분군인 장수 동촌리 고분군의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검토하며(Ⅲ장), 이를 바탕으로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고분군 중 가야 고분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장수지역 가야 고분의 특징을 도출한 후(Ⅳ장) 마지막으로 장수지역 가야 고분 축조세력이 누구인가를 검토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Ⅱ. 금강 상류지역 가야 고분 현황

금강 상류지역은 행정구역 상 전라북도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과 충청남도 금산의 일부 지역이 해당되는데, 자연환경과 인문지리, 삼국시대 문화유적의 분포양상을 바탕으로 장수·장계분지의 장수권, 진안고원과 금산고원의 금산·진안권, 무주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

1. 유적현황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을 통해 금강 상류지역에서 확인된 가야계 고총고분은 약 240여기로 대부분은 장수군의 장수분지와 장계분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분군은 6개 유적으로 진안지역에서 1개 유적, 장수, 장계분지에서 5개 유적이 발굴조사 되었다. 2018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무주 대차리 고분군이 조사되어 주목 받은 바 있으나 2기를 제외하고는 신라계 수혈식석곽묘로 확인되어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1) 진안 황산리 고분군^[3]

진안 황산리 고분군은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황산마을 동쪽 구릉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금강변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뻗은 산줄기의 정상부와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데, 모두 17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고분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등고선과 평행하였다. 석곽의 벽석은 주로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였으며,

[2] 광장군, 앞 글, p47~50.

[3] 군산대학교박물관, 2001, 『진안 오룡리 고분군』.

4~6단 정도를 쌓고 개석을 덮었다. 바닥면은 특별한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나 소형분인 3기의 경우에는 바닥에 할석편과 강자갈을 시설하였다. 출토유물은 토기류, 철기류 등 100여점에 가깝게 출토되었는데, 특히 토기류는 다양한 양식의 백제토기와 가야토기가 혼재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2) 장수 호덕리 고분군^[4]

장수 호덕리 고분군은 백화산에서 뻗어 나온 구릉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총 30여기의 고총고분이 확인되었다. 1999년 전북대학교박물관의 2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11기의 고분이 조사되어, 총 13기의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되었다. 고분은 다곽묘의 구조로 벽석 축조방법, 등고선과 나란한 장축방향, 유물 부장양식 등에서 가야계 요소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장경호를 비롯한 고려 양식의 토기류와 철검, 철부, 철촉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2018년에는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4기의 봉토분이 조사되어, 총 8기의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되었다.

3) 장수 노하리 유적^[5]

금강 상류지역인 장수분지에 자리한 유적으로 주민 신고에 의해 알려져 문화재청의 긴급 발굴조사비를 지원 받아 2016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조사하였다. 총 6기의 석곽이 조사되었으며 봉토는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개석은 남아 있지 않으며, 벽석은 3~4단 정도가 잔존하고 있다. 3호 석곽묘의 타원형 주구에서 많은 양의 토기가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조사단에서는 종래 마한의 분구묘적 요소로 추정된 바 있다. 종형투창이 뚫린 발형기대, 장경호, 단경호, 대부장경호, 발 등의 토기류와 철도, 철도자, 철검, 살포, 금제이식 등의 금속류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류는 재지계, 백제계, 금관가야계, 소가야계, 대가야계가 혼재되어 있다.

4) 장수 삼고리 고분군^{[6][7]}

장수 삼고리 고분군은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삼장마을 북쪽을 감싸는 구릉에 분포하고 있다. 고분은 북쪽 사면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남쪽 사면부의 일부

[4] 윤덕향·이민석, 2000, 「장수 호덕리 고분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문화유산발굴 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장수 가야고분군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장수 호덕리고분군」.

[5]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장수 노하리 가야고분군 긴급발굴조사 약보보고서」.

[6] 광장근·한수영, 1998, 『장수 삼고리 고분군』, 군산대학교박물관.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장수 삼고리고분군B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7] 2019년에도 장수 삼고리 고분군 내 8~10호분 3기를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조사하였다.

는 1995년도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남동쪽 사면부는 2018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2017년 장수군 일원에 분포한 가야고분에 대한 분포조사가 이루어져 삼고리 고분군에는 7기의 봉토분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5년 군산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서 19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다. 봉토는 대부분 유실되었으며, 장축방향은 주로 등고선과 평행한 동서방향이었으나 삼족기가 출토된 7호분을 비롯한 4기는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고 있었다. 다곽식 고분으로 출토유물은 토기류가 대부분이며, 일부 철기류와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2018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의 조사는 남동쪽 사면부에 자리한 1~3호분, 3기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2기의 수혈식석곽묘와 15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2호분에서는 2기 석곽묘가 나란히 확인되었는데,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이었다. 1호 석곽묘에서는 금제이식과 옥 등의 장신구와 방추차가, 2호 석곽묘에서는 오각형환두도, 철촉, 철검 등의 무기류와 재갈 등이 출토되었다.^[8]

3호 석곽묘에서는 석곽묘 8기와 토광묘 11기가 조사되었는데, 한 봉분 내에 석곽묘를 중심으로 주변에 토광묘를 다량 매장한 형태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주석곽에서는 대가야계, 백제계, 소가야계, 신라계 고배 등이 출토되었으며, 10호 토광묘에서는 장경소호와 공반되어 유공소호가 출토되었다.

5) 장수 삼봉리 고분군^[9]

금강 상류지역인 장계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34기의 고총고분이 확인되었다. 구릉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직경 20m 내외의 대형분과 10~15m 내외의 중형분이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었고 주변에 소형분이 자리하고 있다. 2003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가야계 중대형 고분이 처음 확인되었으며,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걸쳐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총 5기의 고총고분이 조사되었으며, 매장시설은 14기의 수혈식 석곽묘와 1기의 옹관묘, 2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삼봉리 2호분 주석곽의 양장벽 가까이에 각각 4개씩 모두 8기의 목주흔이 확인되었으며, 삼봉리 3호분의 주석곽 내에서도 8개의 목주흔이 확인되었다. 봉토 주위에서 호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출토유물은 유개장경호, 단경호,

[8] 조사자는 삼고리 2호분의 두 석곽을 부부묘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전상학, 2018, 「장수 삼고리·삼봉리 발굴조사 성과」, 『2019 가야문화유산 최신조사성과』, 국립나주·가야문화재연구소.

[9] 군산대학교박물관, 2000, 『삼봉리고분군』.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 『삼봉리고분군』.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장수 가야고분군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장수 삼봉리고분군」.

심발형 토기와 같은 토기류와 교구, 등자, 재갈, 안교, 운주 등의 마구류, 철촉, 철모, 철부 등의 철제무기류, 목관을 결구하는 꺾쇠가 출토되었다. 최근에 조사가 이루어진 16호분에서는 봉토와 주석곽의 축조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였는데, 장수 동촌리 고분군 28호분, 30호분 등에서 관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지표와 생토면을 정지하고 1차성토를 한 이후 묘광을 마련하여 석곽의 축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6) 장수 동촌리 고분군

장수 동촌리 고분군에 대해서는 III장에 따로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겠다.

III. 장수 동촌리 고분군 발굴조사^[10]

1. 유적개요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금강의 상류지역인 장수분지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고분군 중 하나이다. 장수읍은 삼국시대 백제의 우평현(雨平縣)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분지에 입지한 이 지역의 중심고분군 중 하나이다. 마봉산(해발 723.9m)에서 북서쪽으로 뻗어나온 구릉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80기 이상의 중대형 고총이 자리하고 있는데, 직경 10~15m 내외의 중형분과 20m 내외의 대형분이 정상부와 돌출부를 따라 자리하고 있으며, 구릉의 하단부와 고총 주변에 소형분이 산재하고 있어 전체적인 입지는 장수지역의 다른 고분군과 유사한 양상이다.

장수 동촌리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2000년, 2012년, 2016년의 3차례에 걸친 지표조사를 통해 그 규모와 수량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2002~2003년, 2015년, 2017년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고분의 구조, 조성방법, 운영시기 등 고분의 축조와 관련된 정보들이 확인된 바 있다(표1, 삽도 1·2).

【10】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 『동촌리 고분군』.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장수 동촌리 고분군-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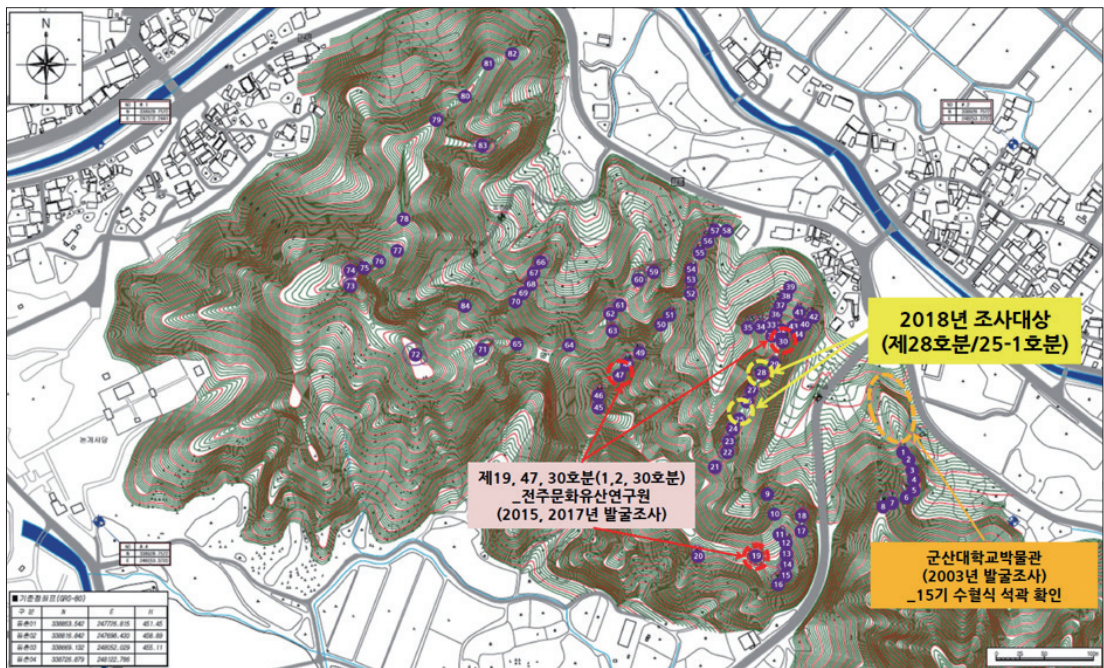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 고분군 — 30호분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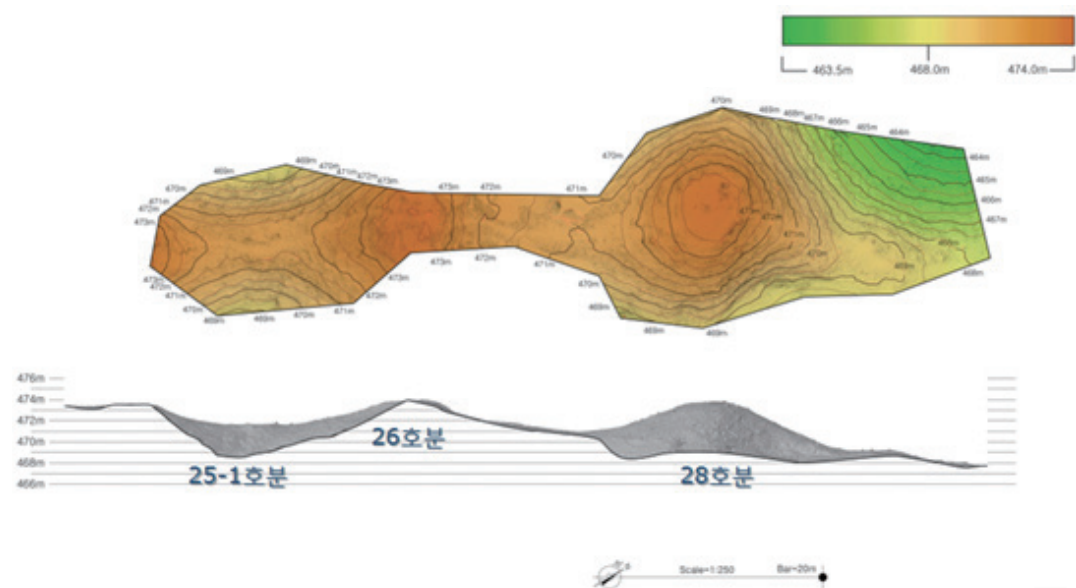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8, 「장수 동촌리 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



삽도 1. 장수 동촌리 고분군 전경



삽도 2. 장수 동촌리 고분군 조사현황도(장수군, 2017, 『장수군의 고분문화』 수록 도면 일부 수정제)



삽도 3. 장수 동촌리 고분군 25-1호분, 26호분, 28호분 기록도

표 1. 장수 동촌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황

조사년도	조사기관	조사대상	매장시설	장축방향	출토유물
2002~2003	군산대학교 박물관	가, 나지구	수혈식석곽 15기		광구호, 병형토기 등 가야토기와 백제 토기가 출토, 철도자 등의 철기류 출토
2015	전주문화유산연구원	1호분	주석곽, 석곽 2	주석곽(동-서)	말뼈, 철제편자, 토기류 (단경호, 발형기대, 발 등)
		2호분	주석곽, 석곽 3	주석곽(동서-남동)	토기류(파수부완, 기대, 개, 배 등), 금속류(대도, 철도자, 금제이식 등)
2017		30호분	주석곽, 석곽 2	주석곽(북서-남동)	토기류(기대, 유개장경호, 고배 등) 마구류(재갈, 등자, 운주 등)

2002년부터 2017년에 걸쳐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통해 고분군의 동쪽 첫 번째 구릉과 두 번째, 세 번째 구릉에 위치한 고분 축조 양상이 확인된 바 있으나, 장수 동촌리 고분군의 정확한 구조, 조성 및 운영시기,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고분들이 열을 지어 밀집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호남 동부지역 가야고분의 첫 번째 조사대상으로 장수 동촌리 고분군 중 22기의 고분이 밀집분포하고 있는 두 번째 구릉의 중심고분인 28호분을 선정하였다. 또한 28호분에 대한 사전 조사 중 28호분 남쪽 산책로에서 매장시설이 노출된 석곽 1기가 추가로 확인되어 25-1호분으로 명명하고 유구 보호 차원에서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8년 5월 23일에 착수하여 11월 12일까지 진행하였다.

2. 조사내용

1) 28호분

봉분의 규모는 남북 20m, 동서 15m, 잔존높이 4m 내외로, 평면형태는 남북이 긴 타원형을 띠고 있다. 남쪽사면에 비해 동·서·북사면이 비교적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완경사를 띠고 있는 남쪽사면을 제외한 동·서·북사면에는 석곽 축조 후 남은 석재를 활용하여 보강(해발 472.5m지점)하고 있는데, 급경사에 따른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토 제거 과정 중 봉토 정상부에서 3개의 도굴갱과 2기의 석곽이 확인되었다.

봉토는 부곽 상부가 지표에 바로 노출되었을 정도로 유실이 많이 되어 있었으나, 분구 서쪽과 북쪽탐색갱 조사를 통해 봉분의 축조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봉분의 축조는 묘역 조성(생토면 굴착) → 1차 성토(분구 조성) → 매장주체부 축조(묘광 굴착, 석곽 축조) → 개석 설치 및 밀봉 → 2차 성토**의 순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의 봉토 축조는 점토가 거의 섞이지 않은 모래에 가까운 풍화암반토를 이용하였다.

28호분 봉토에 대한 탐색조사와 도굴갱 정리를 통해 봉토 중앙부에서 대가야계의 주부곽식 수혈식석곽 2기를 확인하였으며, 추가 조사 과정에서 28호분의 북동쪽 29호분과의 경계지점에서 1기의 수혈식 석곽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삽도 4.
28호분 전경(표토 제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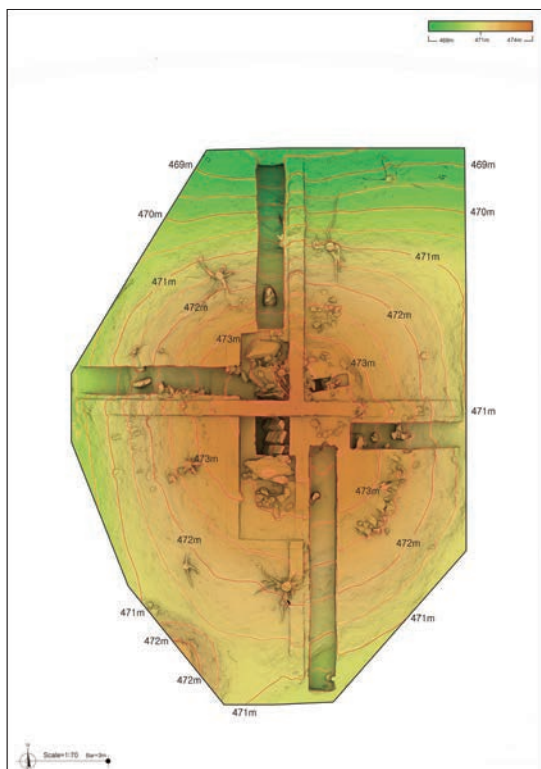


삽도 5.
봉토보강석재(남동사면)



표 2. 장수 동촌리 고분군 28호분 유구현황표

유구명	장축	규모 (길이×너비×높이)	출토유물	기타
1호석곽(주곽)	북-남	540×105×180cm	장경호, 금제이식, 장식대도, 도자, 철부, 철모, 철검, 화살촉 및 화살통, 재갈, 등자편, 교구, 관정 등	도굴갱 2개, 개석 8매, 석곽의 서쪽 벽석 붕괴, 도굴 안됨
2호석곽(부곽)	북동-남서	228×80×(110)cm	단경호, 도자, 은제이식	도굴된 상태 (내부 퇴적토에서 담배갑 확인)
3호석곽	북서-남동	332×73×(95)cm	없음	28호분과 29호분의 경계부근에서 확인



삽도 6. 28호분 봉토 3D기복도(개석 노출 후)

1호석곽은 28호분의 주곽으로 총 8매의 개석(길이 130~150cm)이 상부를 덮었으나 조사 당시에는 가장 남쪽의 개석 1매를 제외하고는 서쪽 방향으로 45°정도의 각도로 함몰되어 있었다. 개석 상부는 점성이 강한 적갈색 사질점토를 3~4cm 정도의 두께로 발라 밀봉하였다.

석곽은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남, 석곽 내부는 서벽의 붕괴에 따라 벽석들이 가득 차 있었다. 석곽 바닥의 북단벽에서 남쪽으로 110cm지점, 남단벽에서 북쪽으로 70cm지점에서 길이 15~20cm가량 되는 관정 17점이 수습되었다. 가장 높은 지점에서 수습된 관정은 벽석에 붙어서 세워진 상태로 수습되었는데, 그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70cm 지점이다. 석곽 바닥의 관정 수습 위치에서 총 3매의 관받침석(북쪽 2매, 남쪽 1매)가 확인되었다.

이로 미루어 목관의 크기는 길이 320cm, 너비 78cm, 높이 70cm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받침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바닥시설 없이 생토면을 다듬어서 바닥으로 활용하였다. 주곽 바닥에서 출토된 유물의 상황은 삽도 9와 같다.

1호석곽(주곽)은 도굴을 시도하였으나 그 시점이 서벽이 무너지고, 개석까지 함몰된 이후에 진행된 관계로 처녀분의 상태로 발굴조사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유물매납상황 및 장송의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출토상황으로 볼 때 두침방향은 북쪽이며, 마구류는 목관의 북쪽에, 대도와 도자는 피장자의 왼쪽, 화살통은 피장자 머리 왼쪽 상부, 철부와 철검, 토기류는 피장자의 발치 쪽에 매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토유물 중 특히 장송의례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물은 동쪽 벽에 붙어서 출토된 철모 1점과 주곽 내부 남편에서 확인된 장경호 4점이다. 철모 1점은 길이가 27cm 가량으로 바닥에서 0.7m 가량 상부 동쪽 벽에 붙어서 출토되었는데, 봉부는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목관의 위에 높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경호 4점 중 2점은 바닥에서, 2점은 바닥에서 약 0.7m~0.9m 가량 상부 지점에서 수습되었다. 바닥에서 출토된 장경호 2점의 경우에는 제작수법을 볼 때 재지 즉 장수지역에서 고령지역의 토기를 모방해서 만든 대가야계 토기(일명 재지계토기^[11])이며, 상부

【11】 본고에서 재지계는 가야토기의 속성이 파악되지 않거나 가야토기의 속성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호남의 동부지역에서만 출토된 기종을 지칭한 광장근의 분류를 차용하다.

광장근, 2004, 「호남 동부지역 가야세력과 그 성장과정」, 『호남고고학보』 20.



삽도 7. 1호석곽 개석 노출모습(북→남)



삽도 8. 개석 상부 밀봉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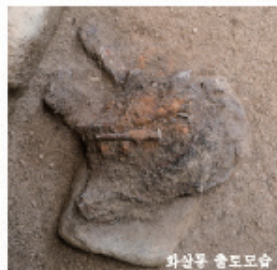
2점은 대가야산 토기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매장과 관련하여 장례의식의 마지막 절차로 목관 안치 후, 목관의 상부에 철모 1점과 고령에서 수입한 장경호 2점을 매납하였을 정황을 유추할 수 있었다.

1호석곽(주곽)에서 출토된 주요유물은 대가야계 장경호를 비롯하여 장식대도, 등자, 재갈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거의 완형으로 출토된 재갈의 경우에는 내만타원형판비로 대가야형 재갈^[12]로 분류되는 유형이다. 그 형태가 고성 송학동 1-A 출토품과 거의 유사하여 소가야지역과도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함께 출토된 화상통은 성시구(화살통꾸미개)뿐만 아니라 유기물(가죽 혹은 목재)로 만들어진 본체(화살수납부)가 화살이 담긴 채로 함께 출토되어 향후 고대 화살통 연구에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토기류를 제외한 다른 출토유물은 현재 보존처리 및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1호 석곽은 처녀분이나 다른 동시기 수혈식석곽묘에 비해 출토유물의 수량이 많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 바로 동쪽에 위치한 2호석곽이 부곽의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짐작^[13]되나, 2호 석곽의 경우에는 바닥까지 도굴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2호 석곽에서는 단 1점의 개석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내부는 완전히 도굴된 상태로 조사되었

【12】 柳昌煥, 2007, 「加耶馬具의 研究」, 東義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3】 이와 관련해서 28호분의 축조시기에 장제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조사된 동촌리 고분군의 다른 석곽들의 장축방향은 대체로 동-서방향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28호분의 경우에는 봉토나 석곽의 축조수법은 유사하나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을 이루고 있으며, 주곽 내에 토기가 단 4점 밖에 부장되지 않는 박장의 양상을 보이는 점, 28호분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6세기 전반기에 축조된 다른 수혈식석곽묘에 백제토기가 부장되는 등의 점에서 28호분 축조 당시부터 백제의 영향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볼 수 있으나 동촌리 고분군 중에서도 일부만이 발굴조사된 상황으로 이후 보다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삽도 9. 1호석곽 바닥 유물 출토상태



삽도 10. 2호석곽 출토 은제이식



삽도 11. 3호석곽 내부 관고정석 노출양상(동→서) 및 세부

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천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바닥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석곽 중앙부 바닥 퇴적토에서 은제이식 1쌍과 도자 1점이, 북서쪽 벽석 하부에서 소형 단경호 1점이 수습되었다(삽도 10).

3호석곽은 주구 및 호석 유무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석곽으로 28호분의 북동쪽에 있는 29호분과의 경계부분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중앙부에 소나무 1그루가 자라고 있어 전체적으로 훼손이 많이 이루어졌다. 벽석은 천석과 일부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28호분의 주곽과 부곽의 장축방향이 남-북방향임에 비해 동-서방향을 이루고 있다. 내부에서 유물은 1점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석곽 내부 양장벽에 붙어서 관고정석으로 추정되는 천석들이 세워져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삽도 11).

2) 25-1호분

25-1호분은 25호분과 26호분 사이 산책로에 석곽이 노출되어 처음 확인된 고분으로 기존 유구번호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25-1호분으로 명명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동북-서남방향의 석곽(290×80×65cm) 1기가 조사되었다. 석곽은 전체적으로 파괴가 심한 상태였으며, 내부도 도굴된 상태였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천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벽석의 최하



삽도 12. 25-1호분 조사완료 모습 및 바닥 시설



삽도 13. 26호분과 25-1호분 사이 추정 주구시설

단을 석곽 내부로 한단 빼는 특이한 형태의 바닥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서남쪽 벽석 하부에서 단추형 꼭지를 가진 개 1점이 뒤집힌 채로 수습되었다. 25-1호분과 26호분의 사이에서 1차 성토층과 암반층을 파고 마련한 최대너비 1.2m 가량의 주구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되었다.

3. 조사성과

- 1) 봉토와 석곽의 축조방식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였다. 28호분과 25-1호분 모두 이전에 조사된 장수 동촌리 고분군이나 인근의 삼봉리 고분군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묘역 조성(생토면 굴착) → 1차 성토(분구 조성) → 매장주체부 축조(묘광 굴착, 석곽 축조) → 개석 설치 및 밀봉 → 2차 성토**의 순서로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2) 다른 금강 상류지역에서 조사된 고총고분과 마찬가지로 봉토 주위에서 호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급경사에 따른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강시설을 확인하였다. 또한 25-1호분과 26호분의 사이에서 주구로 추정되는 시설을 확인하였다.

- 3) 목관의 네 모서리에 관받침석을 시설하는 방법, 천석을 세워 관고정석으로 사용하는 방법, 벽석의 하단을 석곽 내부로 돌출하는 방법 등 석곽 내부 다양한 바닥시설을 확인하였다.
- 4) 비록 서쪽 벽석이 붕괴되어 축조 당시의 완형 석곽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도굴되지 않은 주석곽을 조사할 수 있었다. 관정의 출토로 목관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계분지에 위치한 삼봉리 고분군에서는 꺾쇠가 출토되었으나 28호분에서는 관정만이 출토되었다. 또한 관정의 출토 상태와 관받침석의 위치를 통해 목관의 크기를 유추할 수 있었으며, 유물의 출토위치를 통해 축조 당시의 유물 매납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동촌리 고분군을 포함하여 인근 장수분지, 장계분지에서 확인된 가야계 고분의 주석곽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고 있으며, 동촌리 고분군에서 발굴된 고분들은 모두 장축방향이 동-서를 이루고 있다. 이는 28호분의 북쪽에 위치한 동촌리 30호분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나 동촌리 고분군에서도 대형분에 속하는 28호분 주석곽의 장축방향은 남-북을 이루고 있다. 비록 동촌리 고분군 중 일부만이 조사된 상태라 명확하지는 않으나 장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요소로 주목된다.
- 6) 대가야계 장경호를 비롯하여 장식대도, 등자, 재갈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완형으로 출토된 재갈의 경우에는 대가야뿐만 아니라 소가야와의 교류 가능성을 보여주며, 완형으로 출토된 화살통과 화살촉은 고대 화살통 연구에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8-2호석곽(부곽)에서 출토된 은제이식은 가야권에서도 드물게 확인되는 은제이식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는 형태가 확인되어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 7) 봉토 및 석곽의 형태와 구조, 출토유물 들로 미루어 동촌리 28호분의 조성시기는 6세기 전반 경으로 추정된다.

IV. 금강 상류 가야고분의 특징— 장수·장계분지 고분을 중심으로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금강 상류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가야 고분들과 2018년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장수 동촌리 고분군 조사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금강 상류지역 중 가야 고총고분군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장수지역의 가야고분 특징을 고분의 입지와 봉토, 매장시설과 출토유물, 조성시기로 나누어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1) 입지와 봉토 축조 방법

금강 상류지역에서 확인되는 가야계 고총고분은 대체적으로 하천이 흐르고 주변에 충적지가 발달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고분은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산줄기의 정상부 또는 능선의 등줄기를 따라 입지하고 있다. 특히 고분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장수지역의 고분 중 대형분은 분지의 중심으로 뻗은 구릉의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다. 고분군 내에서 지류의 정상부와 돌출부에는 대형분과 중형분이 일정 간격을 두고 자리하며, 소형분은 사면부와 대형분 주위에 산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4]

금강 상류지역에서 조사된 가야 고분 중 봉토가 확인되는 고분들은 그 평면형태가 대체로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주위에 호석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15] 일부 고분(장수 노하리, 동촌리 고분군)에서는 봉토 주위에 주구가 시설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봉토의 축조 양상은 일부 봉토가 잔존하고 있는 고분을 통해 확인되는데, 대체로 묘역 조성(생토면 굴착) → 1차 성토(분구 조성) → 매장주체부 축조(묘광 굴착, 석곽 축조) → 개석 설치 및 밀봉 → 2차 성토의 순서로 축조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장수, 장계분지에 입지한 가야계 고총고분의 공통된 봉토 축조방법으로 일부 고분에서 확인되는 주구시설과 함께 종래 마한의 분구묘적 요소가 잔존하는 양상으로 보고 있다.

2) 매장시설

금강 상류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총고분은 대부분이 1기의 봉토에 여러 기의 매장시설이 들어가는 다곽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1기의 주곽과 그 주변에 1~3기의 부곽 혹은 배장곽이 배치되는 양상으로 확인되나, 장수 삼고리 3호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18기의 매

[14] 전상학, 2017, 「장수 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호남고고학보』 57.

[15] 장수 동촌리 28호분의 경우 급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의 봉토에 할석재를 활용하여 시설을 하였으나 봉토의 주위에 시설되는 호석과는 그 양상을 달라 조사단에서는 급경사에 따른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봉토보강시설로 추정하고 있다.

장시설이 1기의 봉토에 배치되는 양상도 확인된다.

대부분의 매장시설은 수혈식석곽묘로 천석 또는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석벽을 축조한 후 개석을 덮어 마무리하였다. 바닥시설은 대부분 생토면을 별다른 시설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장수 동촌리 고분군 28호분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관받침석이나 관고정석을 시설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목관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장수 삼봉리 고분군에서는 꺾쇠가, 장수 동촌리 고분군에서는 관정이 확인되고 있어 목관의 결구수법에서도 고분군 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수 삼봉리 2호분과 3호분의 주석곽 바닥면에서 목주흔이 확인되는데, 이는 벽석을 견고하게 축조하기 위한 것으로 호남 동부지역에서는 남원 두락리 32호분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영남지역의 가야 수혈식석곽묘에서도 확인되는 양상이다.

3) 출토유물

장수·장계분지에 위치하고 있는 가야의 고총고분은 240여기에 달하며, 그 중 일부분만이 발굴조사 되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이 잔존상태가 좋지 않거나 도굴이 이루어진 상태로 정확한 출토 양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장수·장계분지 가야 고분 출토유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유물은 토기류이다. 토기류는 재지계, 대가야계(고령양식), 소가야계, 백제, 신라, 마한, 왜계토기 등이 확인되고 있어 재지계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재지계 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고령양식 토기는 5세기 중반 이후 집중적으로 부장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데, 금산권에서 출토되는 가야토기들이 종래에는 대가야와의 교류관계의 산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장수·장계분지에 위치한 가야 고분의 활발한 발굴조사 성과에 힘입어 장수·장계분지에 자리한 가야세력과의 연관성을 추정하기도 한다.^[16]

금속류는 금제이식을 비롯한 장신구와 장식대도, 철검, 철부, 철도자, 성시구 등의 무기류, 살포를 비롯한 농공구, 안고, 재갈, 운주, 편자 등의 마구류가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오각형환 두대도, 방울 달린 금제이식, 채색옥, 은제이식(동촌리 28호분) 등 다른 지역에서 출토 예가 거의 없는 위신재가 부장되기도 하였다. 또한 동촌리 1호분에서는 말뼈와 함께 편자가 출토되어 주목되었다. 그러나 남원 운봉고분의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바 있는 수대경, 금동신발, 화려하게 장식된 환두대도 등의 최고급 위신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6] 전상학, 2018,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9.

4) 조성시기

금강 상류지역 가야 고분의 상한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유물이 장수 노하리 3호분의 주구에서 출토된 종형투창을 가진 발형기대이다.^[17] 종형투창을 가진 발형기대는 박승규의 분류안에 따르면 고령 양식의 대가야 토기 성립기에 출현하는 기종으로 연대는 5세기 2/4분기로 추정되고 있다.^[18] 출토수량이 적어 단언할 수는 없으나 장수 삼고리 고분군과 장수 노하리 고분군에서 수집, 출토된 종형투창이 뚫린 발형기대의 존재와 장수 삼고리 고분군에서 발굴조사된 토기의 조합상 등을 볼 때 5세기 2/4분기를 전후한 시기에 장수지역과 고령지역과의 교류가 시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19]

기존 연구를 보면 토기류의 분석 결과를 통해 대체로 5세기 초엽에 고령양식이 등장하기 시작해 재지계와 혼재되다가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엽까지는 고령양식 토기류가 절대량을 차지하며,^[20]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부터 삼족기, 직구호, 병형토기 등 백제토기가 수혈식 석곽묘에 본격적으로 부장되기 시작하고 있어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점부터 백제의 영향권 하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1]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 고분 중 발굴조사된 유적이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조사된 고분의 경우에도 대부분 도굴된 상태로 확인된 경우가 많아,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성과 및 기존 연구성과를 종합해보면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 고분은 5세기 초엽에 축조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총고분의 경우에는 대체로 6세기 전반기까지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V. 맺음말

호남 동부지역은 호남과 영남의 경계지역이며, 접이지대이다. 그 중 금강 상류지역은 선사시대 이래 줄곧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왔는데, 영남지역의 신라, 가야세력과 백제의 중앙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간선교통로 역할을 수행하며, 교통의 중심지 및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

[17] 장수 삼고리 고분군에서도 종형투창을 가진 발형기대 1점이 채집된 바 있다.

이희준, 2017,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대가야 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18] 박승규, 2010, 「加耶土器 樣式 研究」,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군산대학교박물관, 2004, 『전북동부지방의 가야문화유산』, p174.

[20] 조인진, 2011, 「全北 東部地域 石槨墓 出土 土器 研究」, 全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1] 곽장근, 2003, 「錦江 上流地域으로 百濟의 進出過程 研究」, 『湖南考古學報』 18.

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금강 상류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전라북도 장수군과 무주군, 진안군이 해당되며, 충남 금산군의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그 중 장수군의 장수·장계분지에는 가야의 고총고분이 밀집분포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40여 기의 가야 고분이 확인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가야계 고총고분의 축조세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II장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 고분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III장에서는 최근(2018년) 발굴조사 되었으나 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장수 동촌리 28호분을 비롯한 장수 동촌리 고분군의 발굴조사 성과를 검토하였다. IV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고분군 중 가야 고분이 밀집분포하고 있는 장수·장계분지 가야 고분의 특징을 도출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미약하나마 장수지역 가야 고분 축조세력이 누구인가를 검토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현재까지 장수·장계분지에서는 가야 고분을 제외한 가야세력과 관련된 생활유적, 생산유적, 관방유적 등 다른 성격의 유적이 거의 발굴조사 되지 않았다. 일부 이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지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봉수유적, 성곽유적, 제철유적의 운영주체를 장수·장계분지에 위치하고 있는 가야 고분의 축조세력으로 보는 연구 성과^[22]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고분유적을 제외한 다른 유적들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장수, 장계분지의 가야 고분 세력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가야 고분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축조세력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추정해보자면, 고분의 봉토 축조수법, 주구의 시설, 대가야계의 주부곽식 매장시설도 확인되고 있으나 장수 삼고리 3호분과 같이 1기의 봉토 내에 다량의 매장시설이 들어가는 다곽식 전통 등 종래의 마한계 분구묘 축조수법과 유사한 양상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봉토의 축조수법과 달리 세장방형의 수혈식석곽묘의 채용, 다량의 대가야계 유물의 부장 등은 마한계 전통과 가야문화가 융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재지계 토기 및 고령 양식 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유적에서 확인되는 소가야계, 아라가야계, 신라계, 백제계, 왜계토기들의 출토는 이 지역 가야 고분 축조세력들이 재지계의 전통 하에 대가야 정치세력과의 친연성이 두드러지기는 하나, 교통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주변세력과의 교류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장수 동촌리 고분군과 삼봉리 고분군은 길이가 5m가 넘는 대형의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된 대형의 고총고분들이 밀집분포하고 있으며, 매장시설의 구조와 크기, 출토유물 등을 볼 때 이 지역의 수장급 분묘로 추

[22] 전상학, 2017,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호남고고학보』 57.

조명일, 2018,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59 등.

정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장수지역(장수·장계분지)의 가야 고분의 축조연대는 빠르면 5세기 초엽까지 그 연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하한연대는 6세기 전반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금강 상류지역 중 가장 활발하게 가야계 고분이 조성된 장수·장계분지의 대규모 가야고분군의 축조세력 금강 상류지역 가야고분^[23]은 재지계 전통을 간직한 세력으로 영남지역의 가야세력과 높은 친연성을 가진 주변세력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였던 세력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 축조연대는 5세기 초엽~6세기 전반 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운봉고원의 가야고분에서 확인되는 금동신발, 장식대도와 같이 최고위급의 위신재가 부장된 고분이 현재까지 장수, 장계분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그 위세는 운봉고원의 가야고분 축조세력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론해본다. 향후 이 지역의 가야 고분뿐만 아니라 관방유적, 생활유적, 생산유적 등에 대한 조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지역 가야 고분의 축조세력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실증자료가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23] 금강 상류지역 가야고분 축조세력과 관련하여 상기문(김재홍 2011), 반파(곽장근 2011) 등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곽장근, 2011, 「금강 상류지역의 교통망과 그 재편과정」,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김재홍, 2011, 「전북 동부지역을 둘러싼 백제·가야·신라의 지역지배」,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 상류지역』,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참고문헌

- 곽장근, 2004, 「호남 동부지역 가야세력과 그 성장과정」, 『호남고고학보』 20.
- , 2009, 「금강 상류지역 교룡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한국상고사학보』 66.
- , 2003, 「錦江 上流地域으로 百濟의 進出過程 研究」, 『湖南考古學報』 18.
- , 2011, 「금강 상류지역의 교통망과 그 재편과정」,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곽장근·한수영, 1998, 『장수 삼고리 고분군』, 군산대학교박물관.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8, 「장수 동촌리 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
- 군산대학교박물관, 2000, 『삼봉리고분군』.
- , 2001, 『진안 오룡리 고분군』.
- , 2004, 『전북동부지방의 가야문화유산』.
- , 2005, 『삼봉리고분군』.
- , 2005, 『동촌리 고분군』.
- 김재홍, 2011, 「전북 동부지역을 둘러싼 백제·가야·신라의 지역지배」,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 상류지역』,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柳昌煥, 2007, 「加耶馬具의 研究」, 東義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박승규, 2010, 「加耶土器 樣式 研究」,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덕향·이민석, 2000, 「장수 호덕리 고분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문화유산발굴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 이희준, 2017,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대가야 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 전상학, 2017, 「장수 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호남고고학보』 57.
- , 2018, 「장수 삼고리·삼봉리 발굴조사 성과」, 『2019 가야문화유산 최신조사성과』, 국립나주·가야문화재연구소.
- , 2018,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9.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장수 동촌리 고분군 — 1호분』.
- , 2016, 「장수 노하리 가야고분군 긴급발굴조사 약보고서」.
- ,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
- , 2017, 「장수 동촌리 고분군 — 30호분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 2018, 「장수 가야고분군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장수 호덕리고분군」.
- , 2018, 「장수 삼고리고분군B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 , 2018, 「장수 가야고분군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장수 삼봉리고분군」.
- 조명일, 2018,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59.
- 조인진, 2011, 「全北 東部地域 石槨墓 出土 土器 研究」, 全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금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축조 세력」 토론문

류창환(극동문화재연구원)

주지하듯이 호남 동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이른바 가야계 고분군은 김해와 함안, 고령 등을 중심으로 성장·발전했던 고대국가 가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분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유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계 고분군은 1982년 88올림픽 고속도로공사를 계기로 원광대학교에 의해 M1호분과 M2·M3호분이 발굴조사되면서 학계의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두락리와 삼봉리, 동촌리 등에 있는 고분군이 잇따라 발굴조사되어 이제는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계 고분군은 영남지역의 가야고분군과 더불어 고대국가 가야를 조사·연구하고 복원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오늘 양숙자 선생님의 「금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축조세력」에 대한 발표문은 그 일환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학계의 성과를 잘 반영하여 금강 상류 가야 고분의 분포 현황과 장수 동촌리 고분군의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고분군 중 가야 고분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장수지역 가야 고분의 특징과 그 축조세력에 대한 여러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숙자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호남 동부지역 가야계 고분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한다.

1. 고분군의 입지

발표자는 금강 상류지역에서 확인되는 가야계 고분군의 특징으로 우선 하천 주변의 충적지가 발달한 지역에 사방을 조망하기 좋은 산줄기의 정상부 또는 주능선의 등줄기를 따라 입지하고 있는데, 특히 고분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장수지역의 고분 중 대형분은 분지의 중심으로 뻗은 구릉의 정상부에, 소형분은 그 사면부 또는 대형분 주위에 산재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이미 파악되어 있듯이 가야의 중심지인 김해와 함안, 고령을 비롯하여 함천, 산청, 함양 등 가야의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가야고분군의 입지적 특징이기도 하다. 즉, 가야고분군은 백제, 신라와 달리 사회구성원을 내려다보거나 사회구성원이 언제나 바라 볼 수 있는 생활공간과 가까운 탁월한 구역에 입지하여 그 정상부에는 왕, 그 주변에는 상위 지배층, 그 아래 경사면에는 하위 지배층의 고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그렇다면 금강 상류의 가야계 고분군과 영남지역의 가야고분군은 입지적인 측면에서 공통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금강 상류의 가야계 고분군에서 파악되는 입지적 특징이 그 이전 시기부터 이어져 온 재래의 전통인지? 아니면 외부의 영향에 따른 가야계 고분군의 조성과 동시에 나타난 현상인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봉토 축조 방법

발표자는 금강 상류지역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분의 봉토는 대체로 평면 타원형으로, 대체로 묘역 조성(생토면 굴착) → 1차 성토(분구 조성) → 매장주체부 축조(묘광 굴착, 석곽 축조) → 개석 설치 및 밀봉 → 2차 성토의 순서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특히 장수, 장계분지에 입지한 가야계 고총고분의 공통된 봉토 축조방법으로 보아 일부 고분에서 확인되는 주구시설과 함께 종래 마한의 분구묘적 요소가 잔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표자의 견해에 의하면 금강 상류지역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분의 출현 배경에는 마한 분구묘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좋은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토론자가 파악하기로는 금강 상류지역 가야계 고총고분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된다는 평면 타원형의 봉토와 호석과 주구, 봉토 축조방식 등의 특징은 가야의 여러 지역 고총에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축조 세력의 성격

발표자는 장수·장계분지의 대규모 가야고분군의 축조세력은 재지계 전통을 간직한 세력으로 영남지역의 가야세력과 높은 친연성을 가진 주변세력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였던 세력으로 추정하고 그 연대는 5세기 초엽~6세기 전반경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발표자의 신중한 고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론자가 파악하기로는 금강 상류를 비롯한 호남 동부지역 가야계 고총의 분포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 발표자와 같이 가야세력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지세력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견해와 묘제와 토기, 무기, 마구 등을 대가야계로 보아 대가야가 남원, 장수, 임실, 순천, 여수 등 호남 동부지역까지 그 세력을 확장한 결과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기타

발표자는 동촌리 28호분에 대한 조사 내용 중 봉분의 동·서·북사면에서 발견된 석재에 대해 “완경사를 띠고 있는 남쪽사면을 제외한 동·서·북사면에는 석곽 축조 후 남은 석재를 활용하여 보강(해발 472.5m지점)하고 있는데, 급경사에 따른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이를 ‘봉토보강석재’라 이름 짓고 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혹시 영산강유역의 고창 칠암리고분, 담양 성월리 월전고분, 함평 금산리 방대형 고분,

그리고 가야지역의 의령 경산리 M1호분과 M2호분, 거제 장목고분 등에서 확인된 이른바 ‘좁석’일 가능성은 없는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촌리 28호분 주곽에서 출토된 내만타원형판비에 대해 ‘대가야형 재갈’로 분류하면서도 그 형태가 고성 송학동 1-A1호분 출토품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소가야지역과의 교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아직 동촌리 28호분 주곽 출토 재갈을 관찰하지 못한 상황이라 확실히 말하기 어려우나 아마 고성 송학동 1-A1호분 출토품과 인수의 형태가 유사한 것에 주목한 해석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고성 송학동 1-A1호분 출토 마구는 자체 개발·제작된 마구는 아니며 외부에서 이입된 마구로 파악된다. 더구나 인수가 유사하기는 하나 송학동 출토품은 철제품인 동촌리 출토품과 달리 철제의 지판과 얇은 은판, 용문 또는 당초문이 투조된 상판을 조합하여 만든 장식마구라는 점에서 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동촌리 28호분 출토품 역시 동촌리 30호분 출토 f자형판비나 삼봉리 3호분 출토 X자형환판비와 마찬가지로 대가야지역 마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표 2】

토기를 통해 본 금강 상류지역 가야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I. 머리말

II. 권역설정과 주요 유적

III. 유적별 토기양식

IV. 토기를 통해 본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

V. 맺음말

I. 머리말

금강 상류는 삼국시대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으로 이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또한, 최근 분묘, 생산, 관방유적 등의 고고자료의 증가로 장수·장계분지에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정치체의 존재가 드러나 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토기에 대한 여러 연구자의 견해가 있다. 곽장근(1999)은 호남 동부지역 수혈식 석곽묘 출토 토기를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재지계, 백제토기, 가야토기 등으로 토기양식을 설정하고 수계별 양상을 파악하였다. 특히, 토기의 조합상에 주목하였으며 금강수계권은 북서부와 동부권의 차이를 보이는데 백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인진(2001)은 전북 동부지역 석곽묘에서 출토된 토기[광구장경호·유개장경호·기대]에 대한 형식분류를 하고 편년을 설정하였다. 주로 명목적 속성과 계층치를 이용하여 토기의 변화상을 검토하여 시간적·공간적 양상을 추론하였다. 금강 수계권은 3·4단계[5세기 4/4~6세기 1/4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정용(2002)은 금강 상류인 금산지역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토기를 검토하면서 백제, 신라, 가야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특히, 5세기~6세기 전반대의 금산지역의 토기문화는 내륙 교통로의 중요 경유지로서 지정학적 입지를 배경으로 백제와 대가야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희준(2008)은 대가야 토기양식을 설정하고 분포권 확산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금강 상류 지역의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또한 대가야의 발전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장수 삼고리고분군 채집품인 고배형기대를 5세기 전반대로 보고 있으나 대가야의 본격적인 금강 상류 진출은 5세기 3/4분기 이후로 파악하고 있다.

전상학(2011·2017)은 진안고원에서 조사된 가야계 수혈식석곽묘에서 출토된 토기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지계와 백제, 대가야·소가야, 신라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수·장계분지를 중심으로 발전한 가야세력^[1]이 조영한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를 중심으로 양식을 구분하여, 삼국시대 여러 세력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토기양식의 조합상을 통해 금강 상류지역의 백제, 신라 등의 진출과정과 여러 지역과의 역학관계 등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금강 상류 가야세력의 시작과 발전과정 등을 추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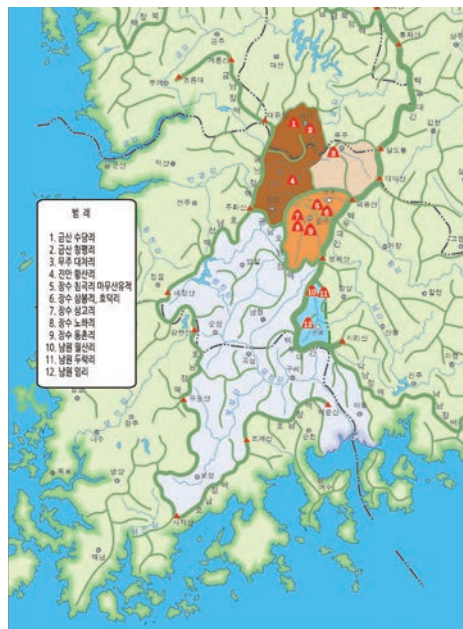
II. 권역설정과 주요 유적

본고에서 검토하고자하는 금강 상류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전라북도 장수군·진안군·무주군, 충청남도 금산군이 포함되며,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진안고원’이라 불리운다. 진안고원은 문화의 접이지대, 고대 교통의 중심지,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이자 불리우고 있는 지역으로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사이에 형성된 해발 400m 내외의 산악지대이며, 호남의 지붕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 지역은 지정학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던 곳이다(곽장근 2011). 이 지역은 종래 삼국시대 백제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의해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정치체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강 상류지역은 도면 1과 같이 크게 북동부의 무주권, 북서부의 진안·금산권, 남부의 장수권으로 구분되며, 각 권역은 여러 세력에 의한 시기적 변화양상이 나타난다.

금강 상류지역에서 조사된 가야 고분군과



도면 1. 금강 상류지역과 주요 유적

[1] 발표자는 전고에서 ‘진안고원의 가야’, ‘장수가야’로 명명한 바 있으나, 금번 학술대회의 주제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금강 상류의 가야로 부르하고자 한다.

관련 유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남부의 장수권은 고총이 밀집 분포하면서 주변에 관련 유적이 자리하며, 북동부는 가야와 신라, 북서부는 가야와 백제, 신라와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인되었다.

표 1. 금강 상류지역 주요 유적

	유적명	유구	유물	구분
1	금산 수당리유적	석곽묘, 주거지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광구장경호, 장경호, 완, 구형호	금산 진안권
2	금산 창평리유적	파괴분	장경호, 유개고배(삼각투창 1, 무투창3)	
3	진안 황산리 고분군	수혈식 석곽묘 17기	유개장경호·광구장경호·장경호·대부장경호·통형기대·고배·삼족토기, 철촉·철부·철검 등	
4	무주 대차리고분군	석곽묘 11기	대부장경호, 장경호, 단경호, 유개고배, 발, 금동이식, 철제무기류 등	무주권
5	장수 침곡리 마무산유적	토광묘	원저단경호, 이중구연호, 직구호, 평저호, 개	장수권
6	장수 노하리 고분군	수혈식 석곽묘 6기	기대·고배·개배·파배·장경호·단경호·대부호, 철도·철도자·철검·철부·철촉·살포, 금제이식 등	
7	장수 동촌리 고분군	봉토분 84기 (수혈식 석곽묘)	기대·고배·개배·파배·장경호·단경호, 환두대도·마구류·편자·화살통장식, 금·은제이식 등	
8	장수 삼고리 고분군	고총 7기 (수혈식 석곽묘)	기대·고배·개배·파배·장경호·단경호·유공광구소호, 환두대도, 금제이식, 채색옥 등	
9	장수 삼봉리 고분군	고총 34기 (수혈식 석곽묘)	기대, 고배, 유개장경호, 단경호, 마구류, 꺾쇠, 금제이식 등	
10	장수 장계리 고분군	고총 63기 (수혈식 석곽묘)	기대편, 개배편, 장경호편 등	
11	장수 호덕리 고분군	고총 34기 (수혈식 석곽묘)	유개장경호, 단경호, 철제무기류, 금제이식 등	

III. 유적별 토기양식

토기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변천하며, 국가 또는 지역별로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토기의 분포범위를 통해 정치체의 영역이나 문화적 권역, 대외교류관계의 확산 다양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시대에 따라 기종의 변화·형태의 변화·기술적 요소의 변화 등을 잘 보여주고 있어 고고학에서 편년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토기양식의 구분과 분포범위의 설정은 정치체의 존재와 그 세력범위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이희준 1995 ; 박천수 1996 ; 박승규 1998)이 되어져 왔다. 토기 양식의 분포를 정치적 영역으로 해석하는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생산·분배체계의 분석을 통한 토기양식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이성주 2003)하기도 하였으며, 토기양식은 고유의 특징적인 형식을 가진 기종조합을 가리키며, 특정집단의 전통적인 제작기술로 생산된 토기복합체가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지면서 전개되는 독특한 문화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박승규 2008).

금강 상류지역의 주요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재지계·대가야계·소가야계·마한·백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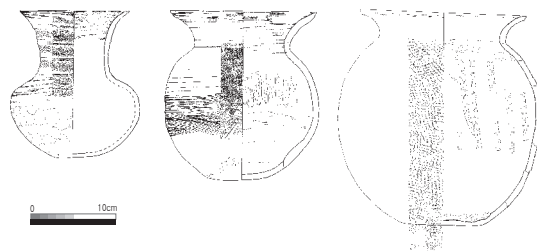
라·고구려 토기 등이 있으며, 이를 권역에 따라 각 유적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재지계토기는 가야토기의 속성이 파악되지 않거나 가야토기의 속성을 일부 담고 있더라도 호남의 동부지역에서만 출토된 기종(곽장근 1999)과 외부에서 반입된 토기를 현지에서 모방하여 제작한 토기도 포함하였다.

1. 금산·진안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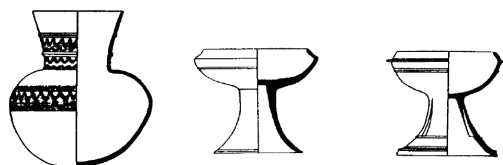
1) 금산 수당리유적

M-2호 석곽묘에서 장경호 1점이 광구장경호·광구호·완 등과 공반되어 출토되었다. 장경호는 고령 역사관부지 58호 석곽묘(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0), 합천 봉계리 14호 토광묘와 87호 석곽묘(심봉근 1986)출토 토기와 공반되는 토기들의 비교양상을 통해 5세기 전엽의 늦은 시점으로 편년된다(성정용 2007). 공반된 광구장경호는 한성양식으로 5세기 전반 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박순발 2002).

이는 금강 상류에 백제의 진출과 금산 지역을 통한 대가야권의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이해(성정용 2002)되고 있다.



도면 2. 금산 수당리유적 석곽묘 출토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2)



도면 3. 금산 창평리유적 출토(성정용 2002)

2) 금산 창평리유적

금산읍 창평리 산52번지에서 석재채취 작업 중 발견되었다. 유구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장경호와 유개고배 등 6점의 토기와 대도, 도자, 꺾쇠 등이 출토되었다. 강인구(1973)는 장경호를 6세기 중엽 경의 가야양식 토기이며, 삼각투창고배는 함안에서 낙동강을 타고 북상하여 성주·영동을 거쳐 금산에 정착한 형식으로서, 이들을 가야토기의 북쪽 한계선으로 보았다. 이 중 삼각투창고배는 서부경남 지역의 소가야권이 중심분포 권역으로 5세기 전반(조영제 1990 ; 박순발 2000) 또는 중·후반(하승철 1999 ; 성정용 2001)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금강 상류지역에서는 다소 이질적인 기형으로 서부경남지역의 가야와 교류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3) 진안 황산리고분군^[2]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황산마을 동쪽 구릉 정상에 위치하며, 금강변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뻗은 능선의 정상과 남쪽 경사면에 자리한다.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 17기가 조사되었으며, 토기류는 유개장경호·광구장경호·장경호·대부장경호·통형기대·고배·삼족토기·심발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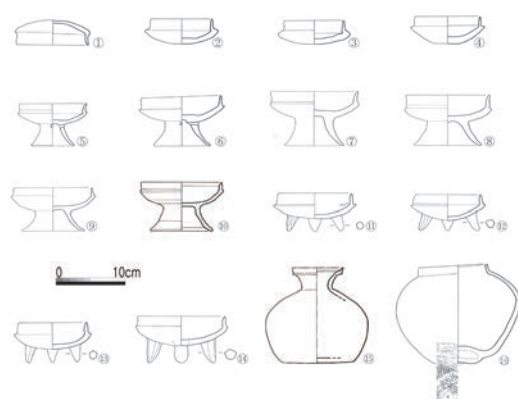
대가야계 토기(도면 4 : 1~8)는 저평통형기대, 일단투창고배, 유개장경호가 있으며, 나지구의 17호 석곽묘의 일단투창유개고배와 저평통형기대는 지산동 44호, 백천리 1호 출토품과 비교하여 5세기 4/4분기의 이른 시기로 비정되었다(곽장근 2004).

신라토기는 대부장경호 2점과 파수부잔이 있으며, 소가야계 토기로 일단장방형투창 고배가 출토되었다(도면 4 : 10~13).

백제토기(도면 5)는 고배, 원형투창고배, 개배, 삼족토기, 병형토기, 직구호 등이 있다. 삼족토기는 6호분·11호분에서 출토되었으며, 배신이 깊고 뚜껑받이가 높다. 고배는 무투창고배와 원형투창고배가 있으며, 금강 중·하류에서 석실분이나 석곽묘에서 출토되는 백제계 고배이다. 개배는 개의 중앙에 꼭지가 없고, 배의 뚜껑받이가 직립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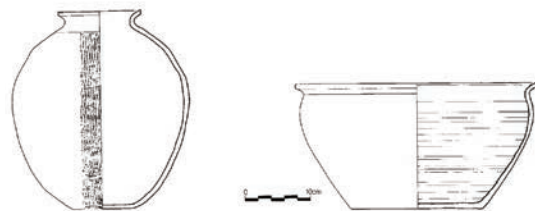
도면 4. 진안 황산리고분군
(대가야계·소가야계·신라토기)
(1:17호, 2~3:5:14호, 4·6·12:6호, 7:16호,
8:13호 10:11호, 11:1호, 13:14호)



도면 5. 진안 황산리고분군 출토 백제토기
(1~4·16:4호, 5·11~13:11호, 6:7호,
7~9·14:6호, 10:13호, 15:1호)

[2]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400m 정도 떨어진 금강 변에 월계리 와정토성이 자리한다.

이외에도 2호분에서 출토된 대호는 황갈색연질의 이질적인 기형인데, 한강 유역의 보루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토기와 유사한 형태이다(도면 6). 인접한 와정 유적에서도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된다.



도면 6. 고구려계 토기
(左: 황산리 2호분, 右: 와정토성 5호주거지)

2. 무주권

1) 무주 대차리고분군

무주의 북쪽에 위치한 향로봉(해발 420m)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와 말단부에 고분군이 위치한다. 유적에서 남쪽으로 650m 가량 떨어진 지점에는 금강 상류인 남대천(南大川)이 흐르며, 천변에는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사람이 거주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진 1. 무주 대차리고분군 출토

발굴조사를 통해 11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으며, 내부에서는 대부장경호, 단경호, 개, 고배, 발 등의 신라 및 재지계 토기와 철검, 철도자, 철촉 등의 철기가 출토되었으며, 대형석곽(6, 8호)에서 금동이식 4점이 출토되었다. 재지계토기는 장수권의 석곽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기종이다. 석곽묘의 구조 및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무주 대차리 고분군은 5세기 말~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8).

3. 장수권

1) 장수 삼고리고분군(군산대학교박물관 1998,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삼고리고분군에서 재지계토기는 능선의 하단부에서 조사된 소형이면서 바닥석을 시설한 1~5호 석곽묘의 출토품이 재지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들 토기는 대체적으로 5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대가야계 토기는 고배형기대, 저평통형기대, 방형투창고배, 유개장경호, 광구장경호, 중경호, 편구호 등이 있다. 고배형기대와 유개장경호와 세트로 수습되었으며, 고배형기대는 지산동 32호분 단계에 속하는 유형(조인진 2001)이고, 유개장경호는 지산동 35분 출토유물과 비교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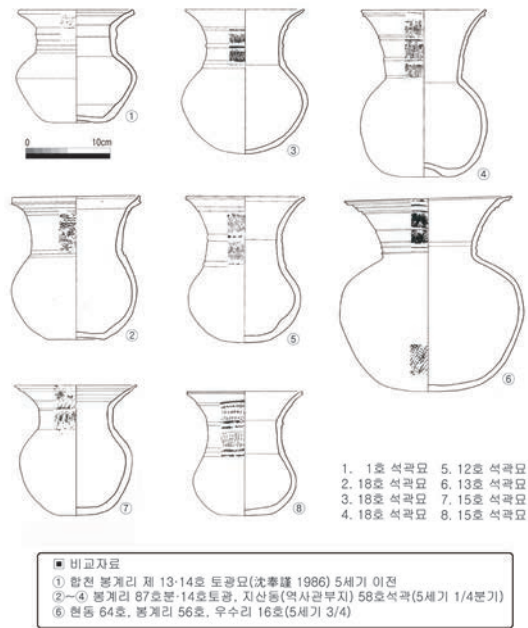
광구장경호는 재지계·대가야계·소가야계 토기가 있으며, 18호 석곽묘에서 재지계와 대가야계 토기가 공반되어 출토되었는데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의 시기가 5세기 중반

이전에 해당된다.

유개장경호는 대가야계와 이를 모방하여 제작한 재지계 토기가 확인되며, 재지계토기는 진안 황산리와 임실 금성리 출토품과 유사하다. 11호에서 출토된 유개장경호는 이중의 뚜껑받이턱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운봉고원과 산청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관련성을 보여준다.

백제토기는 6호에서 출토된 삼족토기 1점이 있으며, 배신의 깊이가 낮은 형태이다. 논산 모촌리 12호분 출토품과 기형이 매우 유사하여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다(곽장근 1999).

2018년 조사된 삼고리 1~3호분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재지계, 대가야계, 소가야계, 마한(영산강유역·만경강유역), 신라, 백제 토기 등이 혼재된 양상이다(사진 2). 5세기 전반 이후부터 5세기 후반까지 여러 지역의 토기가 반입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배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면 7. 장수 삼고리고분군 광구장경호(전상학 2013)

2) 장수 노하리고분군

고분군에서는 6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는데, 3호는 석곽의 축조기법이 목곽에서 이행하는 단계에 해당되며 주위에 주구가 시설되었다. 3호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대, 광구호, 장경호, 단



사진 2. 장수 삼고리 3호분 주석곽 출토(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사진 3. 노하리고분군 3호 석곽묘 출토(左:석곽, 右:주구)

경호, 고배, 철검, 철도, 철촉, 철부, 금제이식 등이 있다(사진 3).

광구호는 만경강유역 마한 분묘유적인 완주 상운리(전북대학교박물관 2010)·수계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와 백제 고분인 논산 표정리(안승주·이남석 1988) 등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기대는 석곽에서 1점과 주구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석곽에서 출토된 기대는 무문으로 영남지역의 양식복합기(4세기 말~5세기 초)에 나타나는 형태이며, 주구 출토 기대는 침선으로 구획되고 파상문이 시문되었으며 ‘종형(아치형)’의 투창이 2단으로 배치되었는데, 삼고리 고분군 채집품과 지산동 73호분(대동문화재연구원 2012)·지산동 30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이다.

고배는 석곽 내에서 1점이 출토되었는데 대각은 ‘八’자형으로 장방형의 투창이 2단으로 배치되었다.

이외의 석곽묘에서도 백제·마한·소가야·대가야계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1-1호에서 출토된 대부장경호는 구형의 동체에 수평으로 외반된 구연과 요면 처리된 구연단은 형태가 2호 석곽 수평구연호와 거의 유사한 형태이다. 동체 하위에 붙은 대각부가 ‘八’자로 내려오다 대각단에 이르러 넓게 외반하며, 대각부의 문양대에는 종모양과 원형의 투창이 배치되어 있다. 형태적 속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근에서 유사자료를 비교하자면 군산 산월리 8호분 출토품이 있다. 대부단경호는 서부 경남의 소가야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며, 노하리 출토품은 금강하류의 웅포리 고분군 92-7호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다(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3) 장수 동촌리고분군(군산대학교 박물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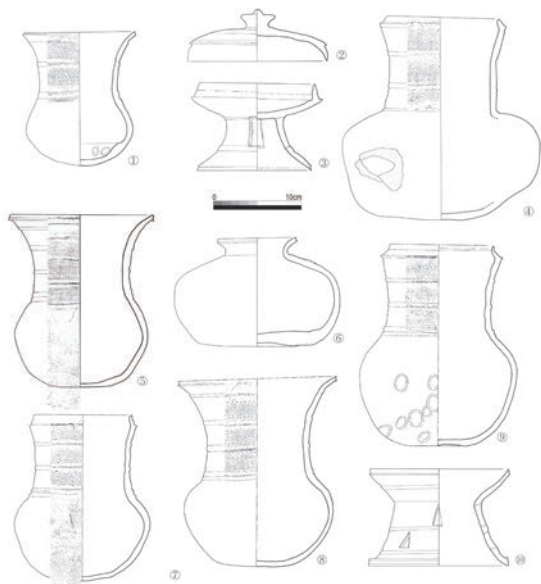
고분군내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가’지구와 ‘마’지구에서 14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장경호·광구장경호·편구호·대부직구호·직구호·병형토기·통형기대·고배·개배 등의 토기류와 철검·철모·철부·철촉·철도자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재지계토기가 주종을 이루며, 퇴화된 대가야계 토기와 백제토기가 공반되어 출토된다(도면 8·9).

대가야계 토기는 유개장경호·광구장경호·개배·방형투창고배·통형기대·편구호 등이 있다. 유개장경호는 6-1호분·8-1호분^[3]·8-2분에서 출토되었는데, 지산동 44호분·생초 22-1호분(경상

대학교박물관 2006)과 비교할 수 있다. 편구호는 2호분과 3-1호분에서 출토되었는데, 반계제 가3호분(국립진주박물관 1987) 출토품과 속성이 동일하다. 저평통형 기대는 6-1호와 8호분에서 출토되었는데, 삼고리 6호와 생초 15호분·평촌리 155호분(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 출토품과 비교가 가능하며 생초 2단계인 6세기 1/4분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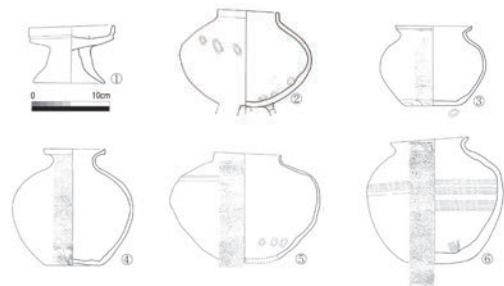
백제토기는 직구호·대부직구호·무투창고배·대호 등이 있다. 3-3호분의 무투창고배는 진안 황산리, 익산 웅포리(최완규 1995)·입점리(조유전 외 1989), 군산 산월리(곽장근 외 2003)와 9호분의 직구호는 진안 황산리, 남원 척문리·초촌리(전영래 1981)출토품과 속성이 상통한다.

이후 2015년(1·2호분), 2017년(30호분), 2018년(28호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많은 양의 토기류가 출토되었으며 재지계·대가야계·소가야계·백제 토기가 혼재되어 부장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5세기 중반 이후부터 6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 8-2호 석곽묘, 2-4: 8-1호 석곽묘, 5-6: 3-1호 석곽묘, 7: 9호 석곽묘, 8-9-10: 6-1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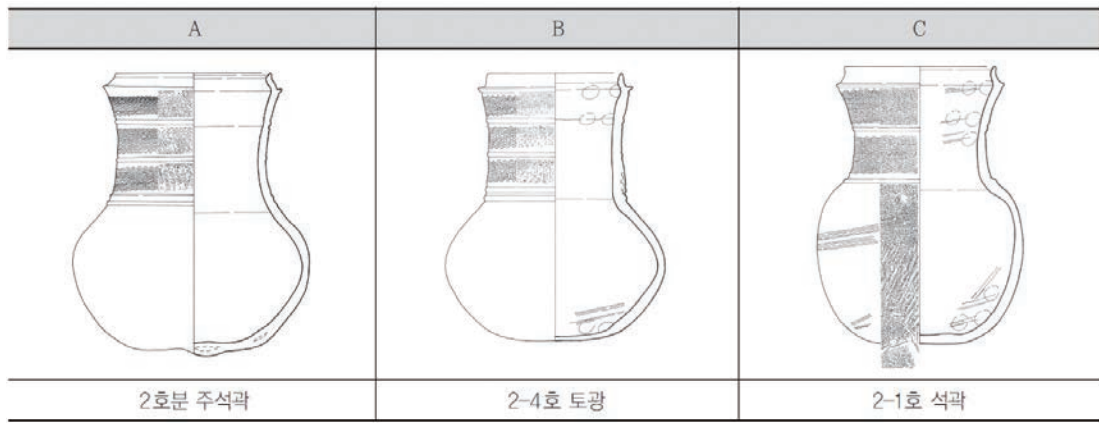
도면 8. 장수 동촌리고분군 대가야계 토기
(전상학 2013)



1: 3-2호 석곽묘, 2: 9호 석곽묘, 3: 8-4호 석곽묘, 4: 4호 석곽묘, 5: 8-4호 석곽묘, 6: 8-1호 석곽묘

도면 9. 장수 동촌리고분군 백제 토기
(전상학 2013)

- [3] 보고자는 8-1호분 출토 유개장경호를 고령 지산동 35호분(金鐘徹 1981) 출토품과 매우 흡사해 고분의 조성시기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유물의 속성은 대략 비슷하나 퇴화된 형태로 재지계로 보여지며, 공반하는 유물의 양상이 다소 늦다.



도면 10. 장수 삼봉리고분군 출토 유개장경호(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4) 장수 삼봉리고분군(군산대학교박물관 2005·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삼봉리고분군에서는 유개장경호·광구장경호·고배형기대가 출토되었다. 유개장경호는 주석곽에서 출토되었으며, 지산동 44호분(고령군 1979)·중반계 4호분(조영제·박승규 1987) 출토품과 흡사하다. 고배형기대는 옹관^[4] 내부에서 출토되었으며, 그 속성은 수부와 하부에는 밀집파상문이 시문되었고, 대각부에는 4구획되어 삼각형투창이 교차배열되었다. 이는 고령 지산동 44호분 남석실 출토품과 유사하다.

삼봉리 3호분 출토 유개장경호는 대가야계 토기와 재지계토기가 뚜렷하게 대별되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양자 간에는 형태적 속성의 차이 뿐 아니라 태토 및 소성도에서도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후자는 전자에 비해 돌대나 뚜껑받이 처리가 미약하고 문양은 조잡하다. 태토는 고르지 못하며, 색조는 외면과 속심 모두 동일하게 회색을 띠고 있다. 2-1호 석곽 출토 토기 동체 외면에는 단사선문이 타날되어 있어 이 또한 재지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반면 대가야계의 토기는 그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기형과 크기나 구경/동최대경의 비율로 보았을 때 지산동 45호분, 합천삼가 1호분 출토품과 비교 가능하다(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4】 고배형기대가 출토된 옹관은 아래의 연구에서 III단계로 분류되었으며, 그 시기는 4세기 중엽~5세기 말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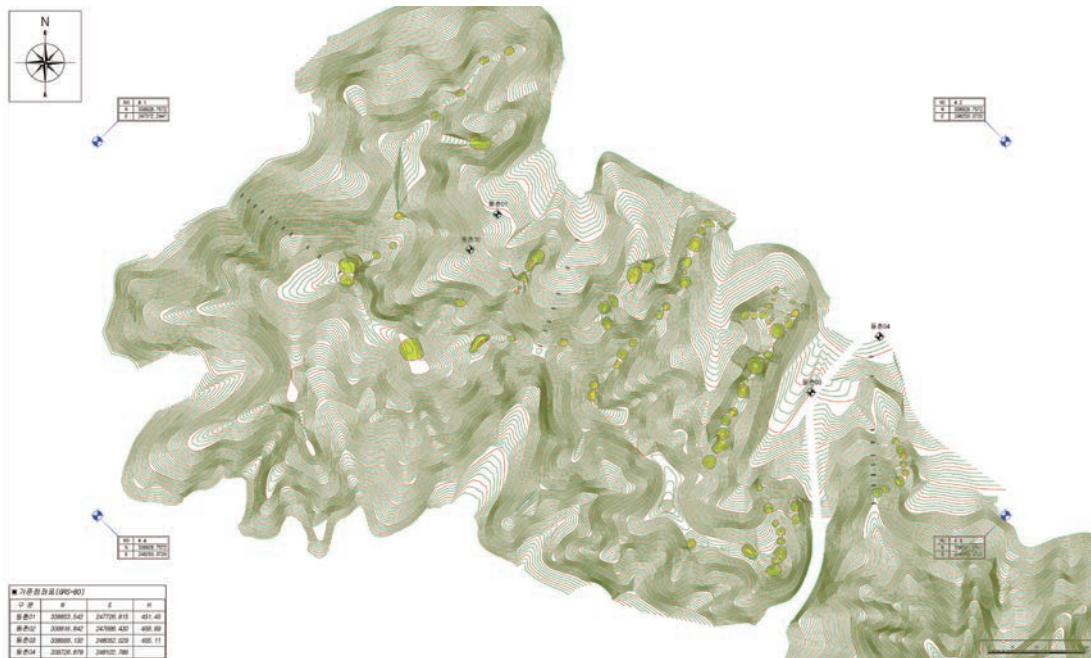
이승태, 2008, 『錦江流域 原三國~三國時代 甕棺墓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IV. 토기를 통해 본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

금강 상류지역인 진안고원은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삼국시대 때는 백제와 가야, 신라가 진안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쳐 이들 세력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비록 외부 정치체의 영향으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였으나 그 기반에는 독자적인 문화이기에 가능하였다. 독자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백제, 가야, 신라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정치체로서 성장하였던 것이다(김재홍 2011).

금강 수계권은 4세기에서 5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금산 수당리, 진안 와정토성, 장수 침곡리·침곡리 마무산유적 등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마한(백제)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전상학 2018). 금강 상류지역은 금산·진안권, 무주권, 장수권으로 구분되는데, 권역에 따라 백제를 비롯한 삼국시대 여러 세력과의 관계가 확인된다.

장수권은 금강 상류 가야세력의 중심지로 장수·장계분지가 해당된다. 금강이 발원하는 뜬봉샘에서 시작되는 장수천과 장계천 주변으로 충적지가 형성되어있다. 장수군 일원에는 240여기의 가야계 고총고분이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백두대간 서쪽에 유일한 가야계 고총으로 재지세력이 가야문화를 수용하여 발전한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최근 확인되고 있는 제철유적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전상학 2018). 장계분지의 침곡리산성과 삼봉리고분군, 장수분지의 함미산성과 동촌리고분군은 규모가 큰 산성과 가야계



도면 11. 장수 동촌리 고분군 고총 현황(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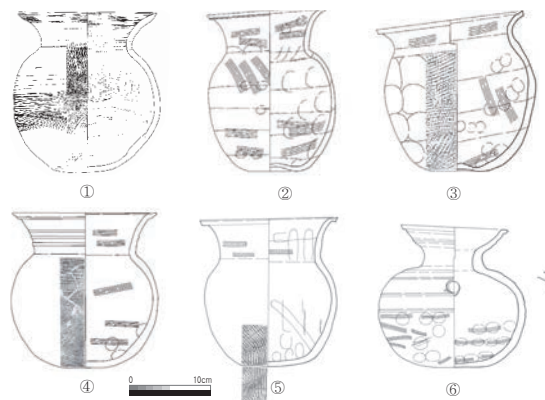
고총고분이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 장수가야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안고원에는 장수·장계분지를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50여 개소의 봉수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종착지는 고총고분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장수·장계분지이다. 최근 조사를 통해 봉수의 운영시기는 삼국시대이며, 출토유물은 중심고분군인 동촌리·삼봉리고분군과 상통한다.

장수분지에 자리한 노하리고분군 3호

석곽묘는 주위에 주구[도랑]가 시설되었고 매장시설은 목곽묘에서 석곽묘로 변해 가는 과도기적 양상이 확인된다. 출토유물 중 기대는 영남지역의 양식복합기에 나타나는 형태와 대가야 지역에서 이른 단계로 보고된 종형[아치형] 투창이 주목 된다. 전자는 석곽 내부에서 출토되었고, 후자는 주구에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는 재지문화 속에 가야문화가 결합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전상학 2018). 석곽 내부에서 출토된 연질의 광구호는 만경강유역 최대 마한 분묘유적인 완주 상운리(전북대학교박물관 2010)·수계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등에서 주로 출토되는 기종이다. 마한계 토기는 논산·연산 일원과 영산강유역의 토기들도 이른 단계부터 확인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도면 12).

진안·금산권은 금산 수당리·창평리 출토 토기를 통해 한성기 백제와 대가야 또는 서부 경남지역의 소가야와의 교류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금산지역에 백제의 진출이 일찍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진안 황산리고분군에서는 재지계·대가야계·백제·신라·소가야계·고구려계 토기가 혼재되어 출토된 양상이 확인된다. 재지계토기는 장수권에서 주로 출토되는 기종이 대부분이다. 이 고분군이 위치한 주변은 고대 교통로가 지나가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삼국시대 여러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산·진안권에서 출토된 토기의 양상을 통해 시기적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금산지역의 삼국시대 토기편년(성정용 2011)을 토대로 기존 연구성과와 비교·검토하면 토기의 변화상은 크게 1기는 5세기 전반(한성기 백제토기 + 가야계토기), II기는 5세기 중후반~6세기 전후(재지계+대가야계+백제+(신라·고구려·소가야))으로 구분할 수 있다. II기를 세분하면 재지계와 대가야계토기가 주종을 이루다가 6세기 대에 이르러 백제토기의 부장량이 증가한다. 이후 6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신라후기 토기양식에 해당하는 토기들이 확인되고 있다. 진안 와정토성과 황산리고분군의 고구려계토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문헌에 등장하는 대산성(帶山城)과 이림(爾林)과의 연관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주권은 금강의 상류의 북동부지역에 위치하며, 자연·지리적으로는 신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무주 대차리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토기들은 신라토기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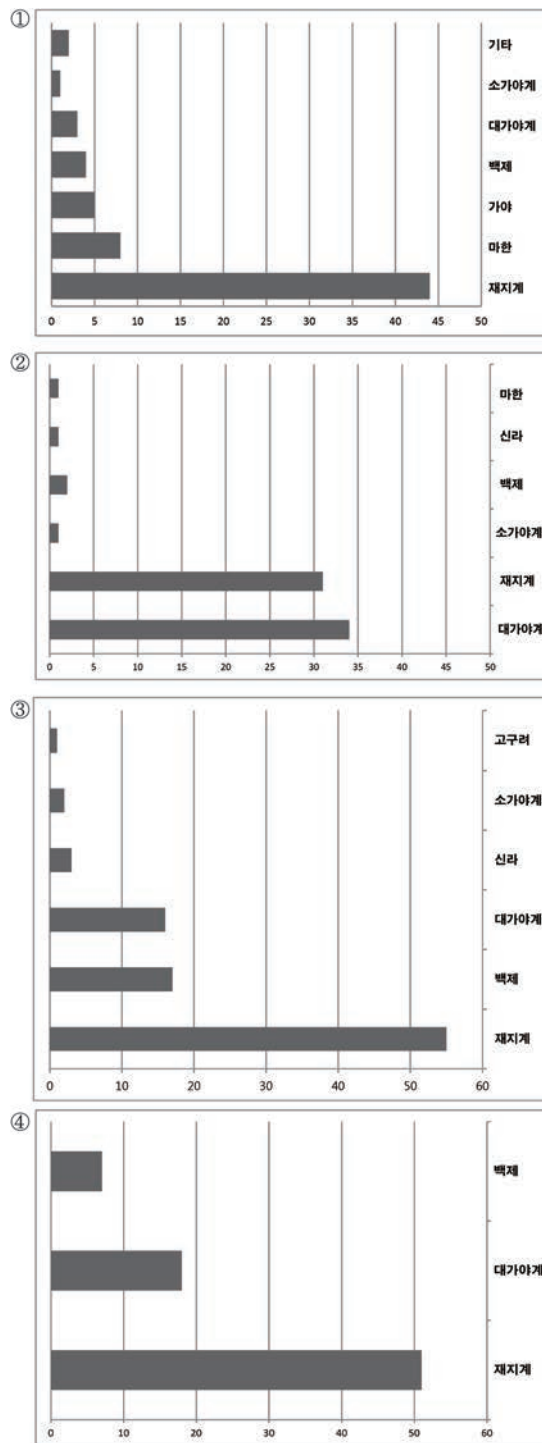
도면 12. 금강 상류 마한·백제 광구호
(1: 금산 수당리, 2~5: 장수 노하리, 6: 장수 삼고리)

종을 이루면서 장수권 가야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재지계토기가 확인된다. 신라토기는 5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강 상류지역에 대한 신라의 진출과정과 장수권의 가야와 신라와의 역학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금강 상류지역 토기의 시기별 변화상은 다음 고분군에 부장된 토기 양식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도면 13). 이른 시기부터 여러 양식의 토기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재지계토기가 주종을 이루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대가야계토기 또는 백제토기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이 파악된다.^[5]

이러한 양상은 대가야토기의 양식 확산을 통해 분포유형을 구분한 연구(박승규 2003)에서 III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가야토기의 대다수 기종이 확산되고 재지토기가 함께 존속하는 유형으로 지역 집단의 독자성이 유지된 연맹권이다. 다만, 금강 상류지역의 장수권에서는 대가야토기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지계토기가 다수를 점하고 여러 양식의 토기가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대가야와 정치적인 관계보다는 교류관계를 통한 토기양식의 유통과 관련된 양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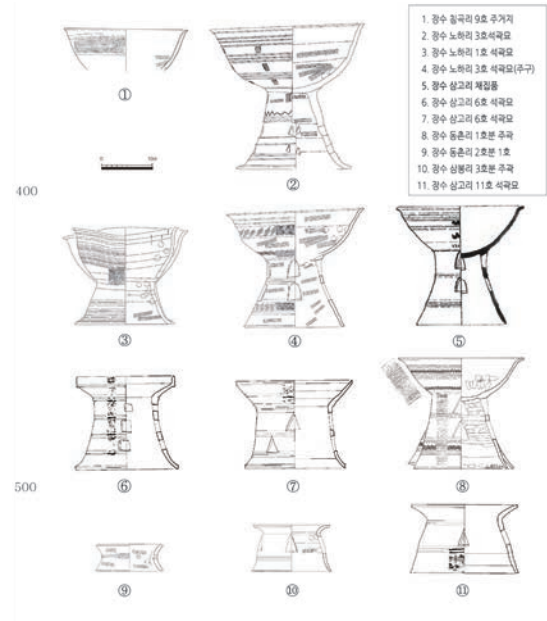
기대의 변화상(도면 14)을 통해 금강상류의 가야 토기의 시간성을 일부나마 추정할 수 있다. 장수 침곡리 9호 주거



도면 13. 금강 상류 가야고분군 토기양식
(1: 장수 노하리, 2: 장수 삼고리,
3: 진안 황산리, 4: 장수 동촌리)

[5] 동촌리 고분군은 2005년 발간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후 조사된 토기양상은 반영하지 않았다. 소가야계 토기가 일부 반입되고 있다.

지와 노하리 3호 석곽묘 출토품은 4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기형으로 금강 상류에서 가야계 속성을 지닌 토기 중 가장 이른 단계에 해당한다. 발형기대는 장수 노하리 3호 석곽묘 주구와 삼고리 채집품은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합천 옥전 36호묘, 고령 지산동 30호분·73호분, 남원 아영면 수습품 등과 유사한 형태이다. 5세기 중 후반에 해당하는 중형의 통형기대와 발형기대가 확인되며, 발형기대의 경우 동촌리 1호분 주곽 출토품은 5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함양 백천리 1-3호분, 지산동 44호분, 옥전M3호분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후 비교적 시기가 늦은 저평통형기대가 출토된다.



도면 14. 금강 상류지역 가야계 기대

앞서 살펴본 금강 상류지역 출토 토기류의 변화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1기(4세기 후반 ~ 5세기 전반) | 재지계(마한)와 여러 지역의 토기가 혼재
재지계 + 가야토기 속성 |
| — 2기(5세기 중반 ~ 5세기 후반) | 재지계 토기와 대가야계 토기 공반 |
| — 3기(6세기 전반) | 재지계 + 대가야양식, 백제토기 부장 |

V. 맺음말

전북의 동부지역은 백제, 신라, 가야라는 커다란 세력이 부딪히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하면서 형성한 문화가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곳이다(김낙중 2014). 특히, 금강 상류지역은 이러한 양상이 권역별로 시기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백제는 근초고왕 대에 이르러 중앙집권화를 완비하고 대외적인 팽창을 시작할 수 있었다(김태식 1997). 이는 전남 서해안과 경남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마한 및 가야제국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400년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정을 기점으로 백제, 신라, 가야, 마한 등 제 세력들의 재편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각자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가야의 경우 토기에 있어 ‘범영남양식’이 4세기 4/4분기에 지역양식의 복합을 이루는 전환기 변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양식복합기가 전개되고 이후 각지의 토기양식이 성립된다(박승규 2015). 전라북도 동부지역 특히, 금강 상류에 자리한 가야의 시작은 이러한 역사적 정황과 고고학적 현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가야 고분은 분구 축조기법, 주구, 추가장 등 재지세력(마한) 묘제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어 재지문화(마한) 속에 가야문화가 결합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이 지역에는 가야문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발전하면서 지배층의 무덤인 고총이 대규모로 조영된다.

토기를 통해 본 금강 상류의 가야는 5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6세기 전반에 이르는 오랜 기간동안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다양한 토기 양식의 공존을 통해 여러 지역과의 역동적인 교류관계가 확인되었으며, 대가야와도 친연성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토기류의 변화상을 통해 금강 상류지역에 대한 백제와 신라의 진출과 그리고 고구려, 서부경남지역의 가야와의 관계 등을 일부나마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곽장근, 1999,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研究』, 書景文化社.
- , 2004, 「湖南 東部地域 加耶勢力과 그 成長過程」, 『湖南考古學報』 20, 湖南考古學會.
- , 2011, 「삼국시대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제24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 한국고대사학회.
- , 2011, 「금강 상류지역의 교통망과 그 재편과정」,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김낙중, 2014, 「남원지역 고분군의 보존과 활용 방안」, 『가야와 백제, 그 조우의 땅 ‘남원’』, 학연문화사.
- 김세기, 2003,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연구』, 학연문화사.
- 김재홍, 2011, 「전북 동부지역을 둘러싼 백제·가야·신라의 지역지배」,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김태식, 1997,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교섭과 정복」, 『백제의 중앙과 지방』, 백제연구논총 5.
- 박승규, 2003, 「대가야토기의 확산과 관계망」, 『한국고고학보』 49, 한국고고학회.
- , 2015, 「대가야토기의 생산체계와 유통」, 『대가야 문물의 생산과 유통』, 고려군 대가야박물관·(재)영남문화재연구원.
- 박천수, 1999, 「考古學 資料를 통해 본 大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韓國考古學會.
- , 2007, 「5~6세기 호남동부지역을 둘러싼 大伽耶와 百濟」, 『교류와 갈등』, 제15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 , 2009,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大伽耶와 百濟 — 任那四縣과 己汝, 帶沙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65, 韓國上古史學會.
- 성정용, 2002, 「금산지역 삼국시대 토기편년 — 백제와 가야 세력 사이의 내륙교통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호남고고학보』 16, 호남고고학회.
- 이희준, 2008, 「대가야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 1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전상학, 2013,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호남고고학보』 43, 호남고고학회.
- , 2015, 「섬진강유역 고분의 성격」, 『섬진강유역의 고고학』 57, 제23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 2017,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호남고고학보』 57, 호남고고학회.
- , 2018,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 조명일, 2018,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 조인진, 2001, 「전북 동부지역 석곽묘 출토 토기 연구 — 장경호와 기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승철, 2014, 「남원지역 가야 고분의 구조와 변천」, 『가야와 백제 그 조우의 땅 ‘남원’』, 남원시·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토기를 통해 본 금강 상류지역 가야」 토론문

김낙중(전북대학교)

1. ‘재지계 토기’에 대하여

발표문에서는 재지계토기를 ‘가야토기의 속성이 파악되지 않거나 가야토기의 속성을 일부 담고 있더라도 호남의 동부지역에서만 출토된 기종과 외부에서 반입된 토기를 현지에서 모방하여 제작한 토기’로 정의하였다.

양식을 설명하면서 대가야계, 소가야계 등과 병렬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면 재지계 토기도 하나의 양식으로 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외부의 토기양식을 모방하거나 일부 요소를 적용한 경우 ~계(系)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를 들면 스에키계 토기, 낙랑계 토기가 그것이다. 외부 토기 양식의 영향으로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체의 토기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일정 기간 독특한 형식의 기종 조합을 이루며 발전했다면 양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스에키의 일부 요소가 가미되었지만 독특하게 발전한 영산강양식토기를 들 수 있겠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강 상류지역에서 대가야의 토기를 모방하거나 일부 요소를 받아 들여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토기류를 하나의 양식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형화되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대가야양식의 지역양식으로 볼 수는 없는지?

사족이지만 ‘재지’라는 낱말은 고고학자들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국어사전에 등재된 것이 아니므로 현지 등 적당한 단어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가야계, 백제계 양식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다. 대가야양식, 백제양식이라고 하던지, 전형적인 대가야 토기 등과 다른 점이 있다면 대가야나 백제의 지역양식(금강유역)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여러 계통의 토기류가 혼재된 현상에 대한 이해

진안 황산리 고분군 등 금강 상류의 고분군에는 가야 계통의 부장품 이외에도 백제, 소가야, 왜 등 기원이 다양한 토기류와 현지화된 대가야양식 토기 등이 다양하게 조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 집단의 성장에 다양한 외부 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이 대가야문화권에 통합된 일원이면서도 지역의 자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웅진기에 백제는 진안 와정토성을 근거지로 대가야가 금강 상류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흔적은 토성과 같은 군사시설만이 아니라 진안 황산리, 장수 삼고리·삼봉리 고분군 등에서 가야 토기와 함께 출토되는 백제 토기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금강 상류지역은 백제와 대가야 세력이 서로 부딪치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이 와정토성의 폐기나 기능 상실 등 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사비기까지 이어지는 토성 내 물질문화의 연속성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아서다. 백제토기류가 사비기까지 이어지는지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백제와 대가야의 정세에 따라 현지세력이 적절히 대응한 현상으로 볼 여지를 넓혔다고 생각한다.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고분군, 그중에서도 진안 황산리, 장수 삼고리·노하리 고분군에서 보이는 대가야, 백제 등의 유물이 혼재하는 현상은 소가야 고분군에서 보이는 대가야와 신라 토기 공존 현상을 ‘신라 세력과 대가야 세력의 치열한 외교 공세 속에 놓여 있었음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해석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진다. 즉, 정세 변화에 따라 백제 및 대가야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맺어가며 살아남고자 한 현지세력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발표자는 금강 상류지역 고분군에서 보이는 다양한 토기 양식의 혼재 현상을 대가야와 정치적인 관계보다는 교류 관계를 통한 토기양식의 유통과 관련된 양상으로 이해하고 지역 집단의 독자성이 유지되는 대가야권 연맹의 일원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제시해 주기 바란다.

3. 발표문에는 고분별 혹은 금강 상류 전체적으로 주요 기종의 시간적인 변천이나 계통별 조합 양상의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러한 변화상에 대해 보완 설명을 해 주기 바란다.

4. 기타

- 와정토성에서 출토된 동이는 고구려 토기가 확실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한 점만으로 대산성이나 고구려 땅 이림과 연결하여 보는 것은 무리 아닌가?
- 신라 토기가 출토된 무주 대차리 고분군을 가야 권역의 무덤으로 볼 수 있는가?
- 장수 삼고리 고분군 등 금강 상류지역 고분군 부장 토기류 중 4세기 후반~5세기 전반으로 추정된 것들의 연대 추정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발표 3】

섬진강유역 가야문화의 형성과 변천 — 호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조근우(마한문화연구원)

I. 머리말

II. 섬진강유역 가야계 유적 현황

III. 섬진강유역 가야문화의 유입과 형성

IV. 섬진강유역 가야문화의 변천과 성격

V. 섬진강유역 가야문화의 두 가지 논점

VI. 맺음말

I. 머리말

섬진강유역은 낙동강이나 영산강유역과 달리 4~5세기대 무렵까지 독자적인 고분 및 토기 문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는 낮은 농업생산력에 따른 경제적 요인, 포구로 기능하기 힘든 지형적 여건, 그리고 내륙으로 진출하기 힘든 여건 때문이었을 것(조영제 2018)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진강유역은 고대 이래 여러 세력간에 영토 쟁탈의 각축장이었으며, 특히 6세기 초반 백제가 본격적으로 섬진강에 진출하면서 가야세력과 충돌하였고 이후 신라와 쟁패를 벌이기도 한 곳(양기석 2008)이다.

1983년 남원 월산리고분군이 조사되면서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문화가 주목을 받은 이래 꾸준히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또 2006년 순천 운평리고분에서 다수의 가야계 무덤과 유물이 확인되면서 섬진강과 전남 동부지역으로의 대가야 진출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섬진강은 하구의 경남 하동지역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호남 동부지역에 해당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호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섬진강유역 가야문화의 형성과 변천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섬진강유역 가야계 유적 현황

1. 주거지^[1]

1) 섬진강유역

섬진강유역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숫자는 극히 일부분이며, 섬진강과 합류하는 지류들까지 포함해도 그 숫자는 많지 않다.

섬진강 상류 유적은 험준한 호남정맥의 준령들로 둘러싸여 있는 산간지대로 임실 석두리 유적 등이 있다. 모두 방형계이며, 출토유물에서 4세기 후엽에 해당하는 가야계 유물이 소량 확인되었으나 일상용 토기는 서부의 마한계 취락과 별반 차이가 없다(김은정 2019).

섬진강 중류 유적은 충적평야가 발달한 요천 일대의 남원 세전리와 대곡리유적, 곡성 구성리유적이 있다. 섬진강 상류와 중류의 주거지에서는 소수의 가야계 토기만 출토되고 있어 가야와의 교류는 극히 한정되었던 것(김은정 2019)으로 보인다.^[2]

곡성 구성리유적은 마한계 주거지를 비롯해 마한계 주거지와는 구별되는 가야계 주거지가 함께 확인되어 주목된다. 가야계 유물은 대부분 방형계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이들 가야계 주거지를 가야에서 이주한 집단의 주거지로 보고 있다(가경고고학연구소 2016).

섬진강 하류 유역은 광양과 하동읍 일대에 넓은 평야와 낮은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다. 섬진강의 동안인 하동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 하동 평사리, 동산리, 횡천리유적은 섬진강의 지류인 횡천강에 합류되는 여의천변에 위치하며, 남강 수계의 진주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에 위치한다.

[1] 마한·백제주거지와 가야계 주거지를 구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야계 유물이 출토된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남원 천사동유적의 수혈에서도 가야계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2기의 주거지는 백제문화가 섬진강유역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출현한 백제주거지로 본다.

표 1. 섬진강유역의 가야계 유물 출토 주거지

연번	유적명	평면형태		가야계 유물	비고
		원형계	방형계		
1	임실 석두리		60	통형고배, 호	아라가야계
2	남원 세전리			장경호, 개, 하지키	대가야계, 왜계
3	남원 대곡리		2	개, 기대	대가야계
4	곡성 구성리	15	11	호, 장경호, 고배, 개	아라가야계, 대가야계
5	하동 평사리	2	9	저평통형기대, 개배, 개, 광구소호, 컵형토기	
6	하동 동산리	9		통형고배, 주조철부, 철정	
7	하동 횡천리	121		고배, 완, 컵형토기, 단경호	

2) 전남 동남부해안

섬진강유역의 가야문화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유적들이 집중되어 있다.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에서 원삼국~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지금까지 1,863기가 조사되었다(박미라 2019). 다른 지역과 달리 평면 원형계 주거지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4세기대까지 경질무문토기가 지속되다가 타날문토기로 대체되며 다양한 가야계 유물도 함께 출토된다.

가야계 유물이 출토된 유적으로는 순천 덕암동유적, 광양 도월리, 석정유적, 여수 미평동, 화장동, 차동, 둔전유적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순천 덕암동, 광양 인동리, 석정유적은 많은 숫자의 주거지가 확인된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유적이다.^[3]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계와 방형계로 구분되나 원형계가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순천·광양·여수지역에서는 원형계가 압도적으로 많다. 순천지역과 광양지역은 4세기 후엽 이후 방형계가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원형계 주거지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여수지역은 가장 늦게까지 원형계가 유지된다(박미라 2019).

주거지에서 출토된 가야계 유물은 금관가야계, 아라가야계, 소가야계, 대가야 등 다양하다. 소가야계 유물이 출토된 유적의 숫자가 가장 많으며, 일부 유적에는 아라가야계+소가야계 또는 아라가야계+소가야계+대가야계 등 다양한 계통의 유물이 출토된다. 이처럼 다양한 계통의 가야계 유물이 확인되는 유적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대규모 주거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가야계 유물이 출토된 주거지는 그 숫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유적의 분포범위가 뚜렷하게 구별된다. 즉 대가야계 유물은 백제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순천 성산리 대법유적과 순천 송산유적 등이 있으며, 바다와 접하고 있는 광양 도월리유적 등 지역적으로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확인된다.

[3] 최근 광양 목성지구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전남 동남부해안에서는 가장 많은 약 280기의 삼국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두류문화재연구원, 2019,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결과 보고서」.

표 2.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의 가야계 유물 출토 주거지

연번	유적명	평면형태		가야계 유물	비고
		원형계	방형계		
1	광양 점터	14		승문타날호, 고배	아라가야계
2	광양 원적		8	고배, 파배	소가야계
3	광양 지원리 창촌	4	1	고배, 기대	소가야계
4	광양 용강리 기두		3	기대, 고배	아라가야계
5	광양 칠성리	26	14	고배, 개, 파배	소가야계
6	광양 인동리(전)	76	8	고배, 승문타날호	아라가야, 소가야계
7	광양 도월리 II	53	14	수평구연호	아라가야계, 소가야계, 대가야계
8	광양 목성리	8	15	고배, 개, 기대	소가야계, 창녕계
9	광양 석정	4	1	광구소호, 대각	아라가야계
10	광양 석정(대)	32		고배, 승문타날호, 대부호	아라가야계, 소가야계, 왜계
11	광양 용장	21	1	고배	소가야계
12	순천 덕암동	158	64	고배, 파배, 광구소호, 기대	아라가야계, 소가야계, 왜계
13	순천 덕암동(영해)	2	1	호	아라가야계
14	순천 덕암동 구암 75-3	3	2	개, 기대	아라가야계, 소가야계, 창녕계
15	순천 성산리 대법	35	7	고배, 대부호	소가야계, 대가야계
16	순천 성산	22	2	대부호, 단경호	소가야계
17	순천 성산 II	66	9	고배	소가야계, 대가야계
18	순천 송산(마)	20	1	고배, 파배, 기대	소가야계, 대가야계
19	순천 송산(전)	22	4	고배, 장경호	소가야계, 대가야계
20	순천 용당동 망북	7	1	고배	소가야계
21	여수 화장동	51	30	개, 광구소호	소가야계
22	여수 죽림리 차동3	9	11	고배, 개, 기대, 장경소호	아라가야계, 소가야계
23	여수 고락산성	9	1	양이부호	아라가야계
24	여수 화동	12		파배, 승문타날호	소가야계
25	여수 둔전	44	2	고배, 개, 파배	금관가야계, 아라가야계, 소가야계, 왜계
26	여수 월산리 호산	45		대부호, 양이부호	아라가야계, 소가야계
27	여수 웅서	1		고배	소가야계
28	여수 웅동	2	1	대각	소가야계
29	여수 모전	1	4	고배, 광구소호	소가야계

2. 고분

1) 섬진강유역

섬진강유역의 고분은 금강유역과 남강유역에 비하면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극히 소수이다. 금강유역권의 장수 삼봉리고분군은 131기, 장수 동촌리고분군은 109기, 남강유역의 남원 두락리와 월산리고분군은 10기의 고총고분이 분포하고 있어 섬진강유역의 고분과 비교된다(전상학 2019).

섬진강 상류 유적은 장수 봉서리고분군, 임실 석두리, 금성리고분군이 있다.^[4] 상류유적의 특징은 소가야계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에 비해 금강유역의 장수 삼고리고분과 남강 발원지에 인접한 남원 월산리고분에서는 소가야계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중류 유적은 남원 고죽동유적만 알려져 있으나 추후 더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하류 유적은 주로 구례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구례 대산리, 갑산리, 용두리유적이 있다. 섬진강 동안의 유적은 하동 흥룡리와 고이리유적이 있다. 흥룡리 고분군은 고령지역에서 제작된 토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섬진강수계와 남해안이 연계되어 대가야권역을 형성하였던 것(박천수 2012)으로 본다. 또 하동 우복리유적에서는 소가야계의 토기들이 발견되었고, 특히 주구묘는 서부경남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호남지역과의 관계를 상정하는 자료이다(조영제 2018).

표 3. 섬진강유역의 가야계 유물 출토 고분

	유적명	유구	출토유물	기타
1	임실 금성리 고분군	고분 3기	유개장경호, 철제대도, 철부 등	발굴
2	임실 석두리유적	석곽묘 4기	개, 병, 금동이식, 옥	발굴
3	장수 봉서리 고분군	석곽묘	대부장경호	발굴
4	남원 고죽동 황죽고분	석곽묘	단경호, 중경호, 개배, 기대	발굴
5	구례 대산리 고분군		고배, 장경호, 대부파수부호	지표
6	구례 갑산리유적		장경호	지표
7	구례 용두리유적	목곽묘 3기	단경호, 장경호, 대부호, 고배	발굴
8	하동 흥룡리고분	석곽묘 21기	장경호, 대부파수부호, 단경호	발굴
9	하동 우복리고분	석곽묘 7기, 석실묘 1기	유개고배, 광구호, 고배	발굴
10	하동 고이리고분	석곽묘 18기, 석실묘 1기	수평구연호, 고배, 광구호	발굴

2) 전남 동남부해안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에서 순천 운평리고분을 제외하면 봉분을 가진 가야계 고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순천 운평리고분은 직경 10~20m의 봉분을 가진 5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5] 다수의 목곽묘, 수혈식석곽의 매장주체부를 가진 순천 운평리고분은 5세기 말의 대가야양식 토기와 금

[4] 남원시, 순창군, 곡성군 일대에 말무덤이라 불리는 고분이 40여기 정도 분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고분을 재지계의 세력이 축조한 고분으로 보기도 하지만 정식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모두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면에서 가야계 고분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곽장근, 2010, 「전남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와 백제』, 호남고고학회.

[5] 순천 운평리고분은 지금까지 5기가 발굴되었고 이 외에도 다수의 고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발굴조사 결과 기준에 발굴조사된 5기 이외의 봉분을 갖춘 고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천대학교박물관, 2018, 「순천 운평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4차) 자문위원회 자료집」.

제 수식부이식, 묘제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M2호분의 봉토상에서 확인된 고령지역산 대형 통형기대는 고령지역과 동일한 의례가 행해졌음을 알려주며, 금제 수식부이식 또한 고령산으로 장수 봉서리고분군, 곡성 방송리고분군 출토품과 함께 대가야산 위신재가 섬진강수계를 따라 남해안 일대까지 이입된 것(박천수 2012)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순천 죽내리, 성암고분은 남해와 내륙으로 드나드는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하며, 백제계와 가야계가 혼용되어 있어 변화과정을 살피기에 매우 좋은 자료이다.

광양 도월리고분은 봉분을 갖추고 있으나 확실한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평지에 입지하고 있어 다른 고분과 차별화된다. 소가야계의 개, 수평구연호, 유공광구소호, 신라계의 개배, 원통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여수 죽림리 차동고분은 석곽묘와 석실묘 31기가 확인되어 이 지역에서 가장 밀집된 고분군이다. 가야계 석곽묘는 모두 수혈식이며, 소형 할석을 쌓아 만든 형태가 주를 이룬다. 죽림리 차동2지구 10호에서는 갑주와 철촉일괄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표 4. 전남 동남부해안지역의 가야계 유물 출토 고분

	유적명	유구	출토유물	기타
1	순천 운평리고분군	고분 5기	수평구연호, 기대, 고배, 유개장경호, 개배, 대부파수부완, 기대, 파수부완, 마구로, 금제이식	발굴
2	순천 왕지동고분군	석곽묘 8기	유개장경호, 대부장경호	발굴
3	순천 덕암동유적	석곽묘 1기	대부장경호, 장경호, 광구호, 단경호, 철부, 철검	발굴
4	순천 죽내리유적	석곽묘 7기	대부직구호, 광구소호, 장경호	발굴
5	순천 죽내리 성암고분군	석곽묘 5기	장경호	발굴
6	순천 서평리 쌍암	석곽묘 2기	대부장경호, 단경호	발굴
7	순천 용당동 망복유적	석곽묘 1기	파배	발굴
8	순천 송산유적(전)1	석곽묘 7기, 석실묘 1기	단경호, 고배	발굴
9	여수 죽포리고분		수평구연호, 장경소호	지표
10	여수 죽림리 차동고분	석곽묘 13기	고배, 장경호, 파수부호	발굴
11	여수 미평동 양지유적	석실묘	고배	발굴
12	여수 미평동유적		단경호, 장경호, 대부단경호	지표
13	광양 도월리고분		개, 수평구연호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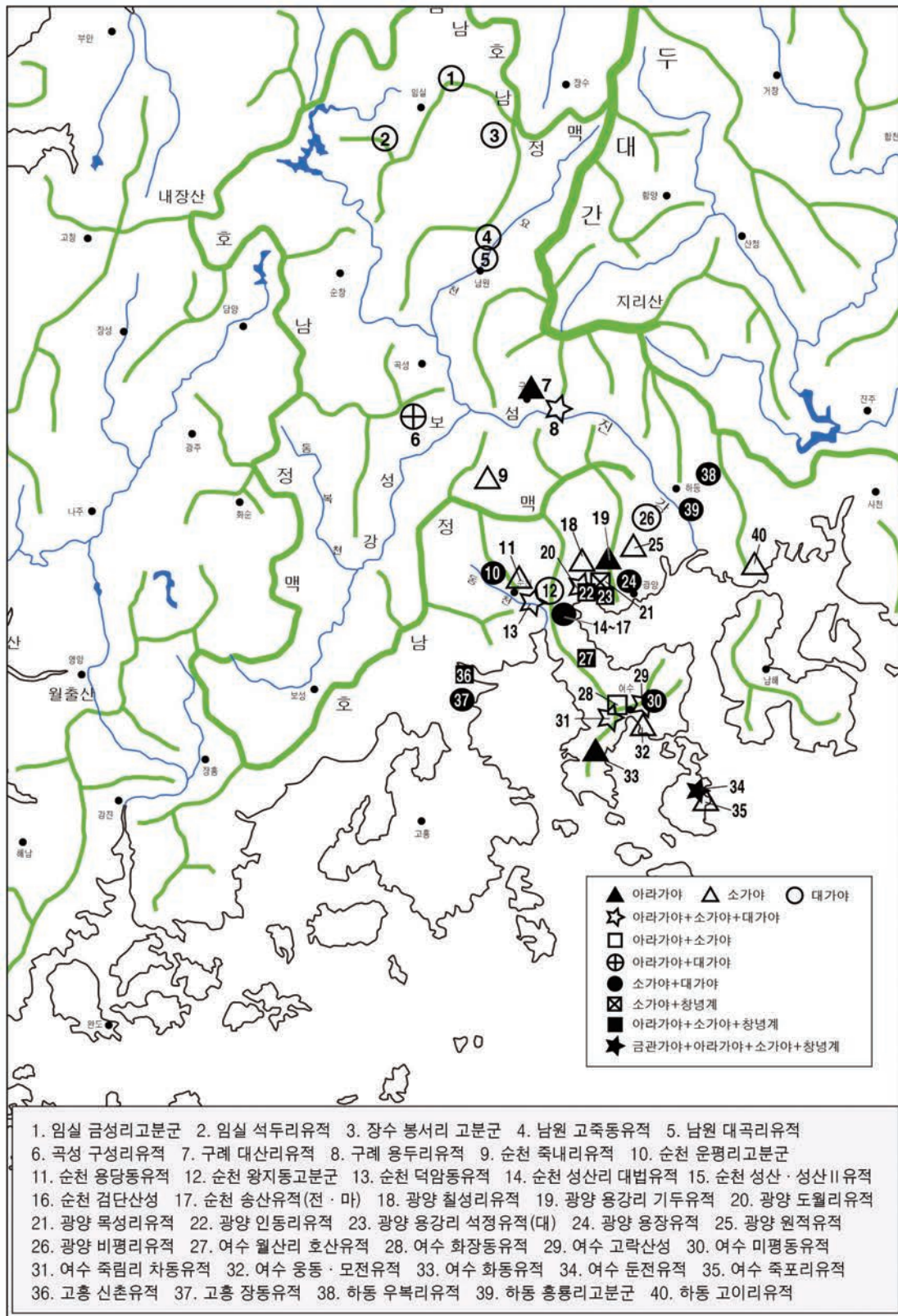


그림 1. 섬진강유역 가야계 유적 분포도

III. 섬진강유역 가야문화의 유입과 형성

섬진강유역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6년 순천 운평리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면서 호남 동부지역으로의 가야진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학술대회도 개최되었다.^[6]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물론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경남 서부지역과 전남 동부지역의 성격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곽장근 2004, 이동희 2010).

여기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야계 유적과 토기유물을 중심으로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문화의 유입과 형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금관가야계

금관가야계 유물은 섬진강유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남 동남부해안에 해당하는 고흥지역의 토광묘와 목곽묘에서 4세기 후엽에 극히 일부만 확인되었다. 유물은 고흥 신촌리 9호의 외절구연고배(그림 2-1), 광구소호(그림 2-3, 4), 양이부단경호(그림 2-6) 등이며, 고흥 장덕리 장동유적 M2-1호의 유개대부파수부호(그림 2-5), M2-2호의 광구소호(그림 1-5) 등이 해당한다.

그런데 고흥반도의 장동유적과 신촌유적은 남해안이 육지로 깊게 들어와 닿는 곳으로 해양 교류의 거점 취락이 입지하기 좋은 환경이다(하승철 2018). 여수반도의 여수 둔전 10호주거지에서는 소형기대(그림 2-2)가 출토되었다. 연안항로를 따라 남해에서 서해안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금관가야계 유물은 주로 무덤유적과 주거지에서 확인되었고,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서만 확인되어 대체로 해안항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금관가야계 유물 출토현황

유적명	유구	유물	시기	기타
고흥 신촌리	토광묘	외절구연고배, 광구소호, 양이부단경호	4세기 후엽	9호
고흥 장덕리 장동	목곽묘	유개대부파수부호, 원저광구소호	4세기 후엽	M2-1호 M2-2호
여수 둔전	주거지	소형기대	4세기 후엽	10호

[6] 호남고고학회에서는 2008년 「전남 동부지역의 가야문화」, 2010년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와 백제」, 2015년 「섬진강유역의 고고학」, 2019년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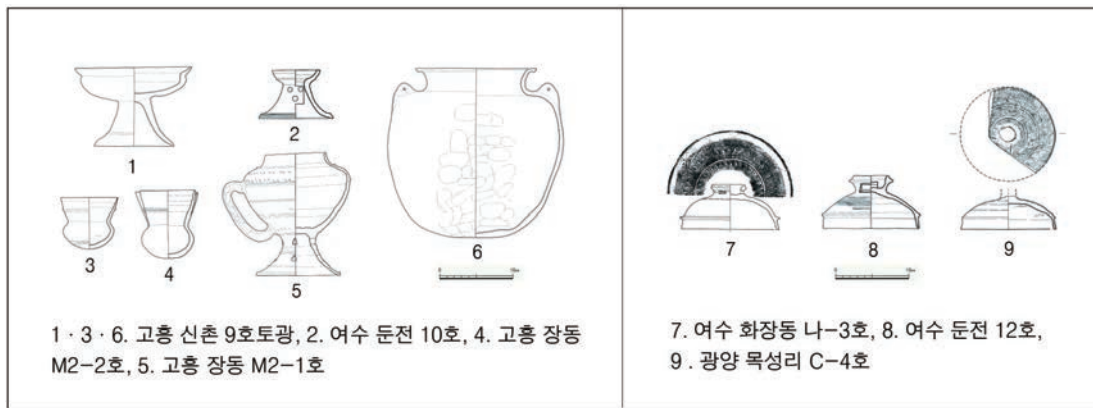


그림 2. 금관가야계(좌), 창녕계(우) 토기

2. 아라가야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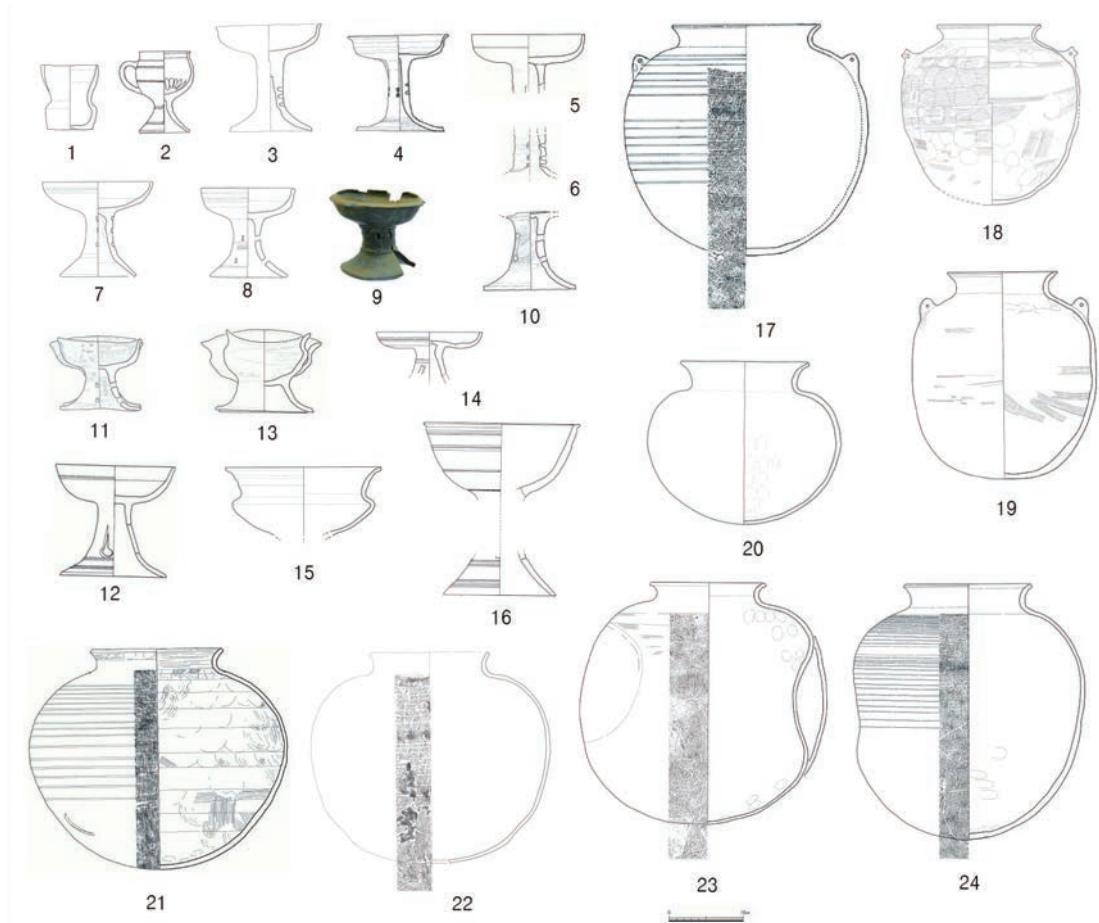
아라가야계 토기는 삼진강유역의 임실 석두리, 구례 용두리, 곡성 구성리에서 확인되었다. 금관가야계 토기와 달리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출토되며 유구는 주거지와 토광묘가 주를 이룬다. 광양 점터 1호주거지, 인동리 75호주거지 출토품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4세기 중엽으로 보인다. 이후 삼진강유역인 임실 석두리 III-24호 출토 통형고배(그림 3-3)와 IV-20호 주거지 출토 승석문호, 구례 용두리 지표 고배(그림 3-10), 곡성 구성리 12호주거지 출토 고배와 15호주거지 출토 호 등이 4세기 후엽에 해당한다. 또 동남부해안의 주거지 출토품은 대부분 4세기 후엽에 해당하는 호, 양이부단경호, 승석문호(그림 3)가 주를 이루며 광양 지원리 창촌 2호 주거지에서는 노형기대(그림 3-14, 15)가 출토되었다. 또 광양 용강리 기두 13호주거지 출토 화염형투창고배(그림 3-16)는 5세기 전엽에 해당하며 현지에서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흥 장덕리 장동 M2-1호(그림 3-2)와 한천리 신촌 1호에서는 광구소호(그림 3-2)가 출토되었다.

아라가야계 토기는 전남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지만, 고흥, 광양, 여수 등 전남 동남부해안에서의 출토비율이 높다. 그런데 전남 서부권인 영산강유역 일대의 영암 만수리유적과 장흥 상방촌유적에서도 철정과 함께 출토되어 아라가야와의 활발한 교류흔적(홍보식 2008)을 찾아볼 수 있다.

전남 동남부해안지역 아라가야계의 유물은 여수 고락산성내 3호주거지 출토 승석문타날 호(그림 3-17)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에 한정되어 출토된다. 여수 화동, 둔전, 차동유적, 광양 도월리, 용강리유적 등에서도 출토(그림 3) 되었으며, 기종은 호, 고배, 기대 등이다.

아라가야계의 유물은 주거지와 무덤 등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되고, 함안지역과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힘들다.

금관가야계 유물이 전남 남해안과 해안쪽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라가야계 유물은 삼진강유역의 임실, 구례, 곡성지역까지 분포범위가 확산된다. 전남지역에서 출토



1. 고흥 장동 M2-1호, 2. 구례 대산리, 3. 임실 석두리Ⅲ 24호, 4. 여수 둔전 24호, 5. 광양 도월리Ⅰ 폐기장, 6·11. 순천 덕암동 지표, 7. 광양 석정(대) 5호, 8. 여수 차동2지구 6호토광, 9. 구례 웅두리 지표, 10. 순천 덕암동 49호, 12. 광양 기두 2호수혈, 13. 광양 도월리Ⅱ 10호수혈, 14·15·20. 광양 창촌 2호, 16. 광양 기두 13호, 17. 여수 고락산성 3호주거지, 18·19. 여수 화동 4호, 21. 여수 둔전 44호, 22. 임실 석두리Ⅳ 20호, 23. 여수 화동 6호, 24. 광양 도월리Ⅱ 34호

그림 3. 아라가야계 토기

된 아라가야계 유물은 아라가야의 철을 수입하면서 토기도 함께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홍보식 2008)는 점에서 아라가야와의 교역에 있어 주도적인 집단은 마한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아라가야의 쇠퇴는 5세기 전엽을 전후하여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이 시기부터 아라가야양식 토기는 소가야양식 토기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이는 아라가야가 구축한 관계망이 와해되고 소가야에 의해 남강수계와 남해안일대에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되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에서는 창녕계 유물도 일부 출토되었다. 순천, 광양, 여수 등에서 소수의 개만 확인되었다.

표 6. 아라가야계 유물 출토현황

유적명	유구	유물	시기	기타
임실 석두리	주거지	통형고배, 승석문호	4세기 후엽	III-24, IV-20호
구례 용두리	지표	고배	4세기 후엽	지표
구례 대산리	지표	유개대부파수부호	4세기 후엽	
곡성 구성리	주거지	고배, 호	4세기 후엽	12, 15호
순천 성산 II	주거지	통형고배	4세기 후엽	63호
순천 덕암동	주거지, 지표	고배, 호	4세기 후엽	49, 92, 178호, 지표
순천 덕암동 구암(영해)	주거지	호	4세기 후엽	1호
순천 성산리 대법	주거지	호	4세기 후엽	11, 24호
여수 둔전	주거지	통형고배, 승석문호	4세기 후엽	24, 44호
여수 화동	주거지	양이부단경호, 승석문호	4세기 후엽	6호
여수 월산리 호산	주거지	양이부단경호	4세기 후엽	40호
여수 고락산성	주거지	양이부단경호	4세기 중엽	3호
여수 죽림리 차동2	토광묘	통형고배	4세기 후엽	6호
광양 지원리 창촌	주거지	노형기대	4세기 후엽	2호
광양 도월리 II	주거지	승석문호, 양이부단경호, 통형고배	4세기 후엽	34, 41호, 폐기장
광양 용강리 기두	수혈, 주거지	통형고배, 화염형투창고배, 기대	5세기 전엽	수2호, 13호
광양 점터	주거지	승석문호	4세기 중엽	1호
광양 인동리(전)	주거지	통형고배	4세기 중엽	75호
광양 용강리 석정(대)	주거지	통형고배	4세기 후엽	5, 20, 28호
고흥 한동	수혈, 주거지	고배	5세기 전엽	수1호, 34호
고흥 한천리 신촌	토광묘	광구소호	4세기 후엽	M2-1호
순천 덕암동	주거지	통형고배	4세기 후엽	49호
순천 덕암동 구암75-3	주거지	개	5세기 후엽	2호, 창녕계
여수 화장동	주거지	개	5세기 중엽	나-3호, 창녕계
여수 둔전	주거지	개	5세기 중엽	12호, 창녕계
광양 목성리	주거지	개	5세기 중엽	C-4호, 창녕계

3. 소가야

섬진강 상류유역은 소가야계 유물이 극히 드물다는 점이 특징인데 금강유역과 남강 발원지인 장수 삼고리, 남원 월산리고분에서는 다수의 소가야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섬진강유역과 차별화 된다.

섬진강 하류의 구례 용두리에서는 수평구연호, 고배, 대부직구호 등이 지표수습 되었다. 하동지역에서는 하동 고이리(그림 4-16), 우복리(그림 4-1, 50, 57), 흥룡리고분에서 고배와 수평구연호(그림 4-47), 개, 고배 등이 출토되었으며, 대체로 5세기 후엽에 해당하는 토기이다.

전남 동남부해안에서 출토된 소가야계 토기(그림 4)는 크게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7]

[7] 이동희는 전남 동부지역 가야문화 단계를 설정하면서 소가야계 토기는 II단계에 두면서 IIa(5세기 전엽에서 중엽), IIb(5세기 후반~6세기 전반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동희, 2007, 「남해안 일대의 가야와 백제문화」, 『교류와 갈등』, 호남고고학회.

표7. 소가야계 유물 출토현황

유적명	유구	유물	시기	기타
구례 용두리	고분	수평구연호, 고배	5세기 후엽	지표
하동 고이리	고분	고배, 수평구연호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나-3, 10, 16, 17호
하동 우복리	고분	개, 고배, 기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2, 4, 8호
하동 흥룡리	고분	수평구연호	5세기 후엽	2호
순천 운평리	토광묘	수평구연호	5세기 전엽	2호
순천 용당동 망복	고분	고배, 개	6세기	1호 구
순천 죽내리	고분	대부직구호	6세기 전엽	6호
순천 송산(마)	주거지, 수혈	고배, 개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11, 12호, 2호수혈
순천 성산	주거지, 수혈	호, 개	4세기 후엽	9호, 15호, 32호수혈
순천 성산리 성산Ⅱ	수혈, 주거지, 토광묘	완형무투창고배, 고배	4세기 전엽~5세기 전엽	2호수혈, 56호, 7호
순천 성산리 대법	주거지	고배, 대각	5세기	29, 40호
순천 덕암동	주거지	고배, 개	5세기 전엽	78호, 209호
여수 모전	주거지	개	5세기 중엽	5호
여수 월산리 호산	주거지	개	5세기 중엽	10호
여수 화장동	주거지	컵형토기, 개	5세기 중엽	나-15, 나-1호
여수 고락산성	건물지, 집수정	개	6세기 중엽	건물지 6호
여수 둔전	주거지	고배, 개	5~6세기	7, 37, 12, 24, 25호
여수 죽림리 차동3	주거지	무투창고배, 개, 고배	4세기 후엽~5세기 중엽	10, 15호
여수 죽림리 차동2	고분	대부장경호	6세기 전엽	10호
여수 미평동	고분	고배, 기대	6세기	
여수 웅동	토광묘	개, 배	5세기 후엽	1호
여수 죽포리	고분	수평구연호	5세기 중엽	
광양 원적	주거지, 폐기장	고배, 개	5세기 중엽	3, 6, 폐기장, 6호
광양 용장	주거지	고배, 개	5세기 후엽	6, 22호
광양 용강리 석정(대)	주거지	고배, 파배	4세기 중엽~5세기 전엽	14, 17호
광양 칠성리	주거지, 수혈	완형무투창고배, 고배, 개	4세기 전엽~5세기 후엽	1, 10, 6, 20-1, 30, 31, 20-1, 28, 31호
광양 목성리	주거지, 지표	개, 고배, 기대	5세기 중엽~5세기 후엽	6-7, C-14, 15호, 지표
광양 도월리Ⅱ	주거지	완형무투창고배	4세기 중엽	Ⅱ-11, 41호
광양 인동리(전)	주거지	개	5세기 중엽	13호
고흥 장동	목곽묘	수평구연호, 파수부배	4세기 후엽~5세기 전엽	M1-1, M1호
고흥 한천리 신촌	토광묘	수평구연호	4세기 후엽~5세기 전엽	1호

전기는 완형무투창고배가 출토되는 시기이다. 완형무투창고배의 경우 극히 한정된 유적에서만 확인되는데, 광양 도월리 Ⅱ-11호(그림 4-4), 순천 성산리 성산Ⅱ-56호 주거지와 2호수혈 출토품(그림 4-2)은 4세기 중엽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연구자간의 연대 차이를 고려하여도 4세기 후엽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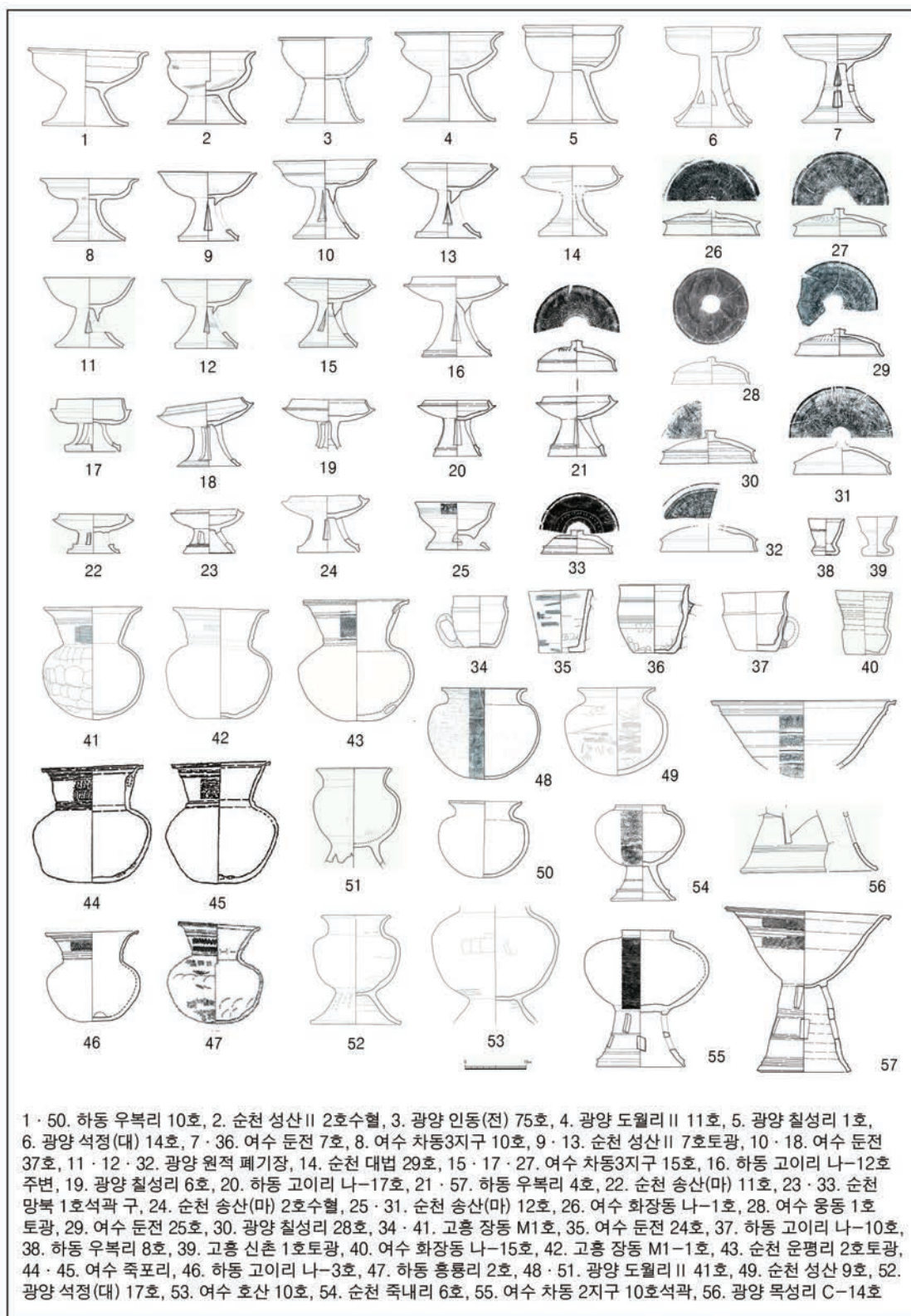


그림 4. 소가야계 토기

중기는 5세기 전엽부터 중엽까지로 고흥 장동 M1, M1-1호의 수평구연호(그림 4-41)와 광구호, 여수 죽림리 차동3지구 10호주거지 무투창고배(그림 4-8), 순천 성산Ⅱ 7호토광묘 삼각투창고배(그림 4-13) 등이 있다. 또 순천 운평리 2호토광묘 등과 같이 토광묘와 목곽묘에서 수평구연호(그림 4-43)가 출토된다. 후기는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중엽으로 소가야계 석곽묘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삼각투창고배와 함께 개의 출토빈도가 높아지며 분포범위도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특히 섬진강 하류인 하동지역 고분에서 소가야계 토기가 확인된다. 여수, 순천, 광양지역의 주거지에서도 1~2점의 소가야계 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여수 고락산성 등에서 6세기 중엽경까지 꾸준히 사용된다.

섬진강 상류유역에서 소가야계 유구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으나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은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출토된다. 또 섬진강 동안인 하동의 고이리, 우복리유적에서 소가야계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고이리와 우복리고분에서는 마한·백제의 매장례와 관련된 관외부장이 이루어지고, 고이리 12호묘에서는 조족문타날단경호가 출토되어 마한·백제지역과의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하동지역의 집단들이 남해안을 통해 마한·백제와 교류하고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하승철 2018). 그러나 흥룡리고분은 주로 대가야계 유물이 출토되어 고이리, 우복리고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편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에서 확인되는 5세기 중후엽 이후의 소가야계 묘제와 토기의 변천이 경남 서부지역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전남 동부지역은 서남부가야연맹체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보는(박천수 2006, 이동희 2010, 하승철 2018) 주장이 대체적이다.

그런데 5세기 이후 백제는 소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열도와의 교섭을 위해 고흥반도를 확보하여 남해안 항로를 이용하였다는(김규운 2011)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백제와 소가야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집단은 백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하동 고이리와 우복리고분에서 출토되는 토기양상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에서 소가야계 토기(그림 4-8, 15, 17, 27, 55)와 소가야계 석곽묘가 확인되고, 장흥 지천리유적 등에서 소가야계 토기가 출토되는 자료를 토대로 소가야가 남해안 일대에 일종의 포상팔국연합과 같은 관계망을 형성하였을 것(박천수 2009)으로 보기도 한다.

4. 대가야계

대가야계 유물(그림 5)은 5세기 후엽부터 섬진강 상류유역인 임실 석두리, 금성리유적(그림 5-30), 장수 봉서리 등 고분유적에서 확인되며, 남원 대곡리와 구례 용두리(그림 5-29), 하동 우복리(그림 5-25)와 흥룡리유적(그림 5-36) 등에서도 확인된다. 소가야계 유물이 섬진강 상류유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과 달리 대가야계 유물은 섬진강 전 지역에서 확인되며, 고분은 소형의 석곽묘만 일부 확인된다. 전남 동남부해안 역시 주로 고분에 한정되며, 숫자도 제한적이다. 또 소가야계 토기가 주거지 내에서 일반적으로 1~2점 출토되는 것과 달리 주거지에서 대가야계

표8. 대가야계 유물 출토현황

유적명	유구	유물	시기	기타
임실 석두리	고분	개	6세기 전엽	1-3호
임실 금성리	고분	유개장경호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장수 봉서리	고분	대부장경호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남원 대곡리	수로, 주거지	유개장경호, 저평기대	6세기 전엽	가·수로1, 나·1 주거지
구례 용두리	고분	유개장경호, 대부호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지표
하동 우복리	고분	유개장경호, 개, 고배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1, 5, 9호
하동 흥룡리	고분	유개장경호, 대부파수부호, 고배, 기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2, 3-3, 13호
곡성 구성리	주거지	개, 대부파수부호, 유개장경호, 고배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2, 3, 5, 17, 28호
순천 운평리	고분	개배, 유개장경호, 귀걸이 발형기대, 통형기대, 대부파수부완, 단경호	5세기 후엽~6세기 중엽	M1~M5호
순천 성산리 성산 II	수혈	유개장경호, 개, 기대	5세기 후엽	17, 19호
순천 덕암동	고분, 지표	유개장경호, 기대	6세기 중엽	6호, 지표
순천 왕지동	고분	기대, 유개장경호	6세기 중엽	2, 5, 8호
순천 죽내리 성암	고분	유개장경호	6세기	
순천 송산(마)	주거지, 수혈	유개장경호, 개	6세기	1-5, 11호, 32호 수혈
순천 검단산성		유개장경호	6세기 중엽	
여수 죽림리 차동2	고분	대부파수부완	6세기 중엽	15호
여수 미평동	고분	유개장경호, 단경호	6세기 중엽	
여수 고락산성	건물지, 구	개, 완, 유개장경호, 기대	6세기 중엽	2호건물지, 구
광양 비평리	추정고분	개, 완	6세기 중엽	
광양 도월리 II	주거지, 폐기장	개	6세기 중엽	22호, 폐기장

유물이 출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가야계 고분은 삼진강유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나 그 숫자는 많지 않다. 삼진강유역은 소가야계 유적에 비해 분포범위가 다소 확장되는 양상이며, 하류지역인 하동지역에는 5세기 후엽부터 대가야 유적과 유물이 나타난다.

하동 흥룡리고분이 대표적으로 재지계 91점, 대가야 45점, 백제 11점, 소가야 2점, 신라 1점 등 다양한 계통의 토기가 출토되었다(하승철 2018). 특히 대가야 토기 외에 백제계 토기도 출토되었는데, 6세기 이후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에서도 유사한 예가 확인되어 공통점을 보인다. 한편 흥룡리고분과는 달리 진주와 사천에 가까운 고이리와 우복리에는 대가야 유물의 파급이 크지 않은데 이는 대가야가 삼진강을 통해 순천과 여수 쪽으로 진출하려는 목적을 말해준다(하승철 2018)고 볼 수 있다.

전남 동남부해안에서는 순천 운평리고분을 제외하면 봉분이 있는 대가야계 고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대가야계 유물 역시 다른 가야계 토기와 혼재되어 소수만 출토된다. 출토되는 기종 역시 고배를 비롯한 일부 기종에 한정된다. 분포범위가 소가야계 비해 넓어지는 삼진강유역과는 달리 여수와 광양지역은 오히려 현저히 좁아지며, 유물의 수량도 대폭 감소한다. 이는 전남 동남부해안이 대가야의 영향을 받은 시간이 지극히 짧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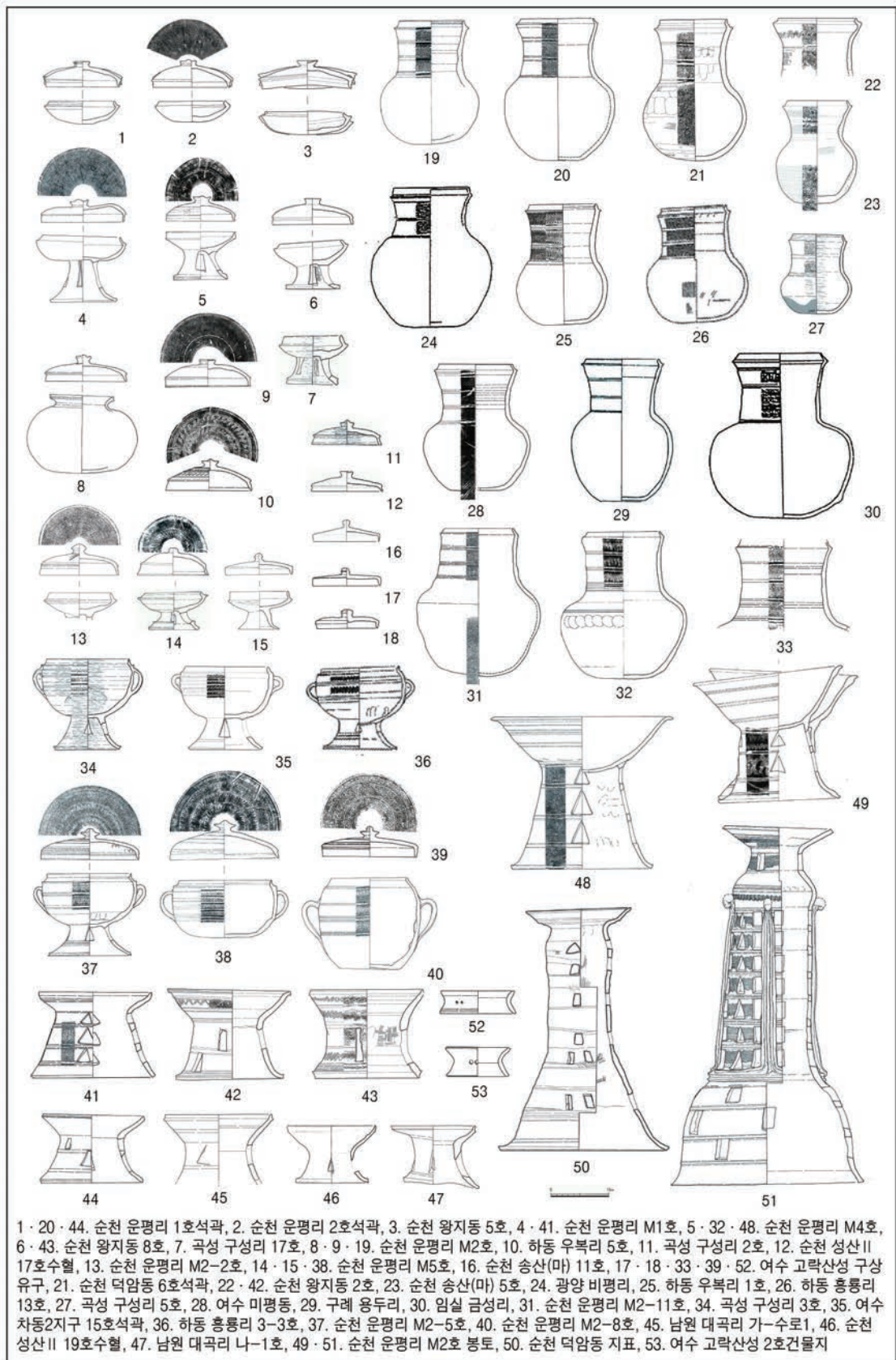


그림 5. 대가야계 토기

나 한정된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가야계 고분은 6세기 중엽 이후에는 단절되나 대가야계 유물은 백제 요소들과 절충되면서 산성이나 고분에서 꾸준히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순천 운평리고분군에 반입되는 대가야계 유물(그림 5)은 순천지역 수장층과 대가야 수장층의 직접적인 교섭을 반영하는 것(하승철 2018)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운평리 고분은 재지, 소가야, 대가야, 백제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M1호분과 M2호분은 묘제에 있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며, 특히 M2호분과 M5호분은 소가야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장방형석실을 채용(하승철 2018)하고 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운평리고분 축조집단이 대가야에 한정하지 않고 소가야, 백제 등 다양한 문화요소를 채용하였다(하승철 2018)는 점에서 운평리고분에 나타나는 대가야계 요소를 반드시 정치적인 관계로만 해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는 운평리고분을 제외하면 중소형고분군의 존재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대가야와 관련된 유적도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IV. 삼진강유역 가야문화의 변천과 성격

삼진강유역에는 4세기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가야계 토기가 나타난다. 대체적인 토기의 양상은 아라가야계토기→소가야계토기→대가야계토기의 순으로(이동희 2004) 나타난다.

가야계 유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4세기대, 소가야계 문화요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5세기 전엽~중엽, 대가야계 요소가 확산되는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백제 문화요소가 등장하면서 가야계 요소와 절충되는 6세기 중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8]

1. 4세기대

이 시기에는 금관가야계와 아라가야계의 유물이 주로 해안에 인접하여 확인된다. 금관가야계 유물은 주로 삼진강유역이 아닌 고흥반도의 초입부에 해당하는 지역의 무덤유적에서 확인된다. 이곳은 연안항로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륙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내륙의 교통로와 연결되는 지역이다.

^[8] 유물의 교차편년을 통해 안정된 토기의 편년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나 이번 발표문에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언급하는 연대는 보고자와 기존 연구자들의 연대관을 참고하였다. 일부 유물은 편차가 심한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중심연대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음을 밝혀둔다. 추후 토기의 편년안을 마련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

아라가야계 유물은 섬진강유역의 임실 석두리와 구례 용두리, 곡성 구성리에서 확인되며, 주로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에서의 아라가야계 유물은 여수 고락산성 내 3호주거지 승석문타날호(그림 3-17)를 제외하면 주로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임실, 곡성, 구례 섬진강유역 뿐만 아니라 순천과 여수지역까지 긴 분포범위를 보이니, 해안에 접해 있는 여수와 광양지역에 주로 집중된다. 여수 둔전(그림 3-4), 죽림리 차동(그림 3-8), 광양 도월리(그림 3-5, 13, 24), 기두유적(그림 3-7) 등 대부분 주거지에서 출토되며, 기종은 호, 고배, 기대 등이다.

4세기대에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남강수계와 호남 동부지역을 포함하는 광역분포권을 형성하고, 금강수계와 남강 상류역, 남해안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아 아라가야 세력이 내륙뿐만 아니라 남해안의 관계망을 장악하였다(박천수 2008)고 보기도 한다.

아라가야계 유물은 독립된 유구에서 출토되기 보다는 다른 유물과 함께 공반되는 경우가 많아 유물만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전남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양의 철정이 출토되고 있다. 금관가야 쇠퇴이후 철을 공급하는 중심지로 아라가야가 부상하였고, 철을 확보하는 과정속에서 아라가야의 토기도 함께 전해졌을 가능성이 많다(홍보식 2008). 철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이 지역 집단이 주도하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토기도 반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세기대에는 소가야계 유물도 출토된다. 완형무투창고배(그림 3-2, 3, 4, 5, 8), 통형고배(그림 3-6, 7), 단경호(그림 3-48, 49) 등으로 경남 서부지역 출토품과 구별하기가 힘들다(하승철 2018). 대부분 반입품으로 판단된다.

2. 5세기 전엽 ~ 5세기 중엽

5세기대에 섬진강유역에서 출토된 가야계 유물은 고배, 개, 광구소호, 발형기대, 장경호 등이 주를 이룬다. 이 시기에는 소가야계, 창녕계 토기 등 다양한 계통의 가야계 토기가 나타나며, 왜계 유물과 공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아라가야계의 유물이 급격히 소멸되고 소가야계 유물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소가야계 유물은 4세기대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유구에서 출토되지 않고 재지계의 유물과 함께 출토된다. 그런데 이전 시기에 아라가야계 유물이 분포하던 구례와 곡성 등 섬진강유역 서안에서는 소가야계 유물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 순천, 여수, 광양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라가야와의 교류가 단절되고 새롭게 소가야와의 교류가 이루어진 결과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순천 덕암동, 성산, 여수 월산리 호산, 광양 원적, 용강리 기두유적 등 주로 주거지 유적에서 출토된다.

한편 소가야계 유물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남 동남부해안에서는 왜계 토기가 출토된다. 광양 석정유적(대) 5호, 순천 덕암동 210호, 여수 둔전 34호와 37호 출토품이 해당한다. 한편 5세기대 고분인 고흥 안동고분은 왜와의 교섭을 나타내 주는 많은 자료들이 확인되어 백제는 왜와 활발한 교섭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고흥반도가 중요한 역

할을 하였으며, 소가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김규운 2011). 백제-소가야-왜의 교역루트에 위치하는 전남 동남부해안에 거주하는 집단들도 여기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5세기 중엽 무렵에는 창녕계 토기(그림 2-7, 8, 9)가 출토된다. 한정된 기종을 중심으로 소수만 확인되어 토기 자체의 유통으로 해석(이동희 2007)해야 할 것이다.

3. 5세기 후엽 ~ 6세기 전엽

5세기 후엽에 이르러 섬진강유역에 대가야 고분과 유물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유적의 분포 범위는 소가야에 비해 넓어졌으나 밀집도는 현저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유적은 순천 운평리고분군으로 직경 10~20m의 고총 5기가 분포하고 있다. 박천수(2009)는 섬진강 중상류역을 거쳐야 도달할 수 있는 순천 운평리고분군에서 대가야양식 묘제와 유물이 확인되고, 고령에서 하동을 연결하는 반월형 교통로상에서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므로 섬진강유역 및 광양만, 순천만 일대의 호남 동부지역을 대가야가 영유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가야와 관련되는 고분의 숫자는 극히 드물며, 대가야계 유물이 출토되는 주거지의 숫자 역시 소가야계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양상이다. 즉 순천 운평리 수장총과 대가야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 범위는 극히 일부에 한정될 뿐 넓은 지역까지는 영향력을 확대하지는 못하였던 것(하승철 2018)으로 보인다.

한편 6세기 이후에는 소가야계 토기의 토착화가 진전되어 재지에서 제작된 변형된 소가야계 토기가 등장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며 이 시점은 대가야계 토기의 등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이동희 2004).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대가야가 섬진강유역에 진출한 이유를 왜와의 교섭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즉 순천 운평리고분군, 하동 흥룡리고분군의 대가야식 묘제와 토기로 보아 대가야는 섬진강 하구의 교역항인 하동을 확보하였고 그와 동시에 임나사현에 해당하는 여수, 순천, 광양지역을 확보하였다(박천수 2009, 김규운 2011)고 본다.

그런데 섬진강 하구의 경우 지형적 요건으로 인해 강폭이 좁고 안정적인 포구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섬진강 하구와 가까운 광양, 순천 그리고 여수 등 해안지역이 포구로 각광받았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조영제 2018).

이 시기의 대가야계 유물이 출토된 주거지 가운데 곡성 구성리유적이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마한계 주거지와 가야계 주거지가 함께 조사되었으며 평면형태도 원형계와 방형계가 함께 확인되었다. 그런데 가야계 유물이 출토되는 주거지는 평면형태 원형계가 아니라 방형계의 구조이다. 출토된 가야계 유물은 일부 아라가야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가야계 유물이다. 이들 유물은 반입품이 아니라 현지에서 모방하여 만들었으며, 보고자는 가야집단의 이주로 추정(가정고고학연구소 2016)하고 있다.

4. 6세기 중엽 이후

6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순천 왕지동고분군(그림 5-3, 6, 43), 순천 성산·송산유적(그림 5-23), 광양 비평리(그림 5-24), 여수 미평동(그림 5-28), 여수 고락산성에서 유개장경호(그림 5-33), 개(그림 5-17, 18, 39), 완 등 한정된 기종이 출토되어 대가야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대가야계 유물은 주로 백제의 유물과 절충되는 특징을 지니며, 무덤유적과 생활유적에서 출토된다.

여수 고락산성 2호 건물지에서 6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대가야계의 개와 배가 확인되었고, 구상유구에서도 기대와 장경호(그림 5-33) 등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여수 고락산성은 늦어도 6세기 중엽경 백제에 의해 축성된 산성이다. 순천, 광양, 여수지역에 백제산성이 집중적으로 축성되기 시작할 때 함께 축성된 산성으로 축성의 주관은 당연히 백제였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가 주도하여 축성한 고락산성 내에서 출토된 대가야계 유물은 여수반도에 대한 대가야의 장악을 설명하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고락산성 출토토기는 당연히 백제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소가야계 토기와 대가야계 토기도 함께 출토되었다.^[9]

한편 고락산성 아래의 여수 미평동 일대에서 출토된 대가야계 토기(그림 5-28)는 백제 토기와 함께 출토되었고, 일부 토기는 대가야계 요소와 백제계 요소가 혼용되어 제작되었다(이순엽 1999). 따라서 미평동 출토 대가야계 토기 역시 여수반도에 대한 대가야의 장악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순천 검단산성에서 출토된 대가야계 유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여수 고락산성과 동일한 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파악된 순천 검단산성 내에서 출토된 대가야계 유물 역시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한 이후의 대가야계 유물인 것이다.

[9] 고락산성 내에서 출토된 대가야계 토기에 대해 고락산성 축조이후 대가야계 토기를 쓰던 재지민이 남겨 놓은 유물로 판단하는 견해(이동희 2007)가 있다. 그러나 고락산성 건물지와 유구에서는 대가야계 뿐만 아니라 소가야계 토기도 확인되고 있어 고락산성을 축조한 백제인에 의해 선택적으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V. 섬진강유역 가야문화의 두 가지 논점

1. 섬진강유역 타원형계 주거지의 정체성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에 걸쳐 섬진강을 경계로 호남 동부지역과 경남 서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원형계 주거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동희 2007, 김나영 2007, 이은정 2008, 김진철 2008, 권오영 2008, 박천수 2008, 공봉석 2008, 유병록 2009, 박미라 2008·2010, 조근우 2010, 왕지훈 2014, 이동희 2015).

평면 원형계의 유사성을 들어 전남 동부지역의 주거지가 경남 서부지역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였다는 견해(권오영 2008, 박천수 2008, 공봉석 2008)와 전남 동부지역 원형계 주거지는 송국리형 주거지부터 이어져 온 문화양상이라는 견해(이동희 2015)가 있다. 또 비사주식 원형계 주거지가 금강 상류를 거쳐 섬진강과 보성강유역으로 파급되었을 가능성도 제시되었다(김승욱 2004).

섬진강 중하류 유역을 주거문화를 경남 서부지역과의 동일한 문화권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김은정 2019), 순창과 임실을 포함한 섬진강 상류권과 진안 일대의 금강 상류권은 마한의 영역으로 판단된다(김은정 2019).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의 원형계 주거지는 산지가 많은 지역에서 성행한 것으로 정치적 영향권과 관련짓기는 어렵다(이동희 2015). 하지만 4세기 이전의 타원형 주거지는 평면형태를 비롯해 구들식 노시설, 벽주식 기둥배치, 경질무문토기의 사용 등 경남 서부지역 주거지의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박미라 2019). 따라서 4세기 이전의 양상은 평면 타원형계 주거지의 범주에 포함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은 경질무문토기를 거쳐 4세기대에 타날문토기로 대체되고, 4주식과 마한계 토기 등 마한요소가 나타나고 있어 4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마한권에 포함되었음이(박미라 2019) 확실하다.

4세기 후엽이후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에 마한계의 사주식 방형주거지가 유입된다. 경남 서부지역에서도 일부 사주식 방형계가 유입되기는 하지만 그 예가 많지 않아 마한의 주거문화는 대체로 섬진강의 서안까지만 미쳤음을 알 수 있다(이동희 2015). 한편 마한계 유물로 알려진 조형토기가 임실 도안리와 광양 석정유적에서 출토되었고, 연통형토기는 여수 미평동, 화장동 나-1호, 둔전유적, 순천 덕암동, 광양 칠성리, 용강리 석정 등에서 광범위하게 출토되었다.

한편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에서 가야계 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는 주거군 내에서의 입지, 규모, 구조 등에서 다른 주거지와 차별화가 보이지 않는다(박미라 2010). 토기도 일상용 토기가 아닌 일부 기종에 한정되어 있고, 제작기법과 기형에 차이가 있어 교류에 의한 반입품이거나 자체 제작한 모방품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5세기 후엽에 이르러 전남 동남부해안 주거지에서는 횡방향의 태집선과 내면에 내박자문양 있는 일상용 토기가 급속하게 증가한다. 이러한 요소를 갖춘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파수부호 등을 가야계 일상용 토기로 구분(조성희 2019)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마한계 일상용 토기와 함께 소수만 확인되며, 원형계 주거지 뿐만 아니라 방형계 주거지에서도 출토되고 있으므로 마한문화권에 속한 집단이 가야문화권의 토기제작 기법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조성희 2019) 제작한 토기로 판단된다. 즉 5세기 후엽경 가야계 일상용 토기 제작기술이 호남 동남부해안 지역에 전파되어 성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마한계 주거지로 알려진 4주식 주거지 내에서 가야계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예가 있어 주목된다. 여수 죽림리 차동3지구 15호주거지에서는 고배, 개 등 약 26점에 달하는 많은 양의 가야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인접한 여수 죽림리 차동2지구 10호석곽묘에서는 왜계 갑주, 대부직구호 등 다양한 계통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15호주거지의 거주자는 가야계 토기를 포함한 외래 물품을 주변지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섬진강의 종류에 해당하는 곡성 구성리유적은 이와 반대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총 31기의 주거지 중 1기를 제외한 모든 주거지가 방형계이다. 보고자(가경고고학연구소 2016)는 16기의 주거지를 가야계 주거지로 분류하고 그 특징으로 마한계 주거지에 비해 주거지의 모서리가 각이진 점, 화덕시설에 석재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토기의 형태와 크기, 시루 증기공 형태, 타날의 처리, 외면처리방식 등에서 마한계 토기와 구별된다. 그러나 대가야의 전형적인 토기로 보기 어렵고 모방·제작한 토기이다. 주거지의 구조까지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이주를 상정하고, 그리고 생활형태는 원 거주지생활형^[10]에 속한다(가경고고학연구소 2016)고 보았다.

섬진강유역과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은 경남 서부지역과 소가야 토기양식은 물론 주거지의 형태와 구조, 묘제 등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들어 소가야 문화권(박천수 2006, 이동희 2010, 하승철 2018)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수 둔전유적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총 48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원형계가 42기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라가야계, 소가야계, 창녕계 등 다양한 가야계 토기가 출토되어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후엽까지의 취락으로 판단된다. 가야계 유물은 총 18기에서, 백제계 유물과 왜계 유물은 2기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41호주거지에서는 마한계 59점, 가야계 21점, 백제계 6점, 왜계 1점^[11] 등 87점이 넘는 많은 양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또 7호주거지에서는 마한계 24점, 가야계 12점이, 34호주거지에서는 마한계 16점, 가야계 11점, 왜계 1점

[10] 원 거주지생활형은 주거양식과 생활도구, 제사, 매장시설과 장송의례 등이 원 거주지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재현해서 생활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보식, 2013, 「삼국시대의 이주와 생활 유형」, 『한국고고학보』 제87집, 한국고고학회.

[11] 왜계 내만 용에 대해 재지의 자비 용기와 왜계 자비 용기는 자비하는 자비물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고, 완성된 음식물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며, 이는 곧 왜인의 정주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홍보식, 2013, 「삼국시대의 이주와 생활 유형」, 『한국고고학보』 제87집, 한국고고학회.

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1가구에서 사용하기에는 토기의 양이 너무 많고, 다양한 계통의 토기가 섞여 있으며 한정된 기종의 토기만 출토되었다. 따라서 차동 3지구 15호주거지의 예와 같이 외래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 주거지 내의 일상용 토기는 마한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집단의 성격은 마한계 토기를 바탕으로 한 재지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여수 둔전유적과 차동3지구 주거지의 경우 소가야 문화권으로 묶어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2. 대가야의 삼진강유역 진출과 대가야연맹체

삼진강유역의 고고학적 자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대가야의 삼진강유역 진출에 관한 내용이다. 백제지역으로의 대가야 확산은 물론 대외교섭로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는 대가야가 백두대간을 넘어 삼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다(박천수 1999, 김세기 2003)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대가야가 금강의 금산·진안권으로 진출하였다(이희준 2008)는 견해와 전북의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에 가야계 중대형 고총을 조영했던 가야세력이 삼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다(곽장근 1999)는 반론도 제시된 바 있다.

박천수(2006)는 대가야가 삼진강로와 남해안 제해권의 확보로 인해 일본열도와의 교역과 교섭을 주도하며 대외관계에서도 가야의 맹주로 군림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동희(2007)는 대가야연맹체의 성격을 대가야가 맹주국이고 각 구성국은 독립성을 유지하되 어느 정도의 상하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 전남 동부지역은 고령에서 원거리이며 대부분 거점지역에서만 대가야계 토기나 묘제가 확인되므로 수장총을 중심으로 한 연맹관계로 보았다.

물론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엽에 걸쳐 순천 운평리 일대를 중심으로 대가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대가야의 묘제와 유물을 받아들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가야계 토기와 묘제가 확인되는 거점지역(박천수 2009)이 순평 운평리고분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에서는 순천 운평리고분과 왕지동고분을 제외하면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고분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순천 운평리고분의 축조집단과 대가야와의 관계를 정치적 연맹관계로만 해석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구례 용두리유적은 지표에서 다수의 대가야계 유물이 수습되어 대가야의 삼진강 진출을 뒷받침하는(이동희 2008, 박천수 2009) 고분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 3기의 소규모 목곽묘만 확인되었다. 대가야계 고분이 군집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다양한 계통의 토기가 매납된 소수의 목곽묘만 확인되었다. 물론 앞으로 대가야계 고분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지만 발굴자료만으로 본다면 대가야와의 관련성 보다는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 등 다양한 문화를 수용한 재지집단의 고분으로 파악된다.

또 대가야가 남해안을 통한 안전한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 순천, 광양, 특히 여수반도의 장악을 시도하였다(박천수 2006)고 보는데, 여수반도에서 대가야계 고분은 물론 대가야계 유물도

매우 드물다. 오히려 여수 죽림리 차동고분군과 같이 5세기부터 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소가야계 군집고분만 확인되고 있어 고고학적 자료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섬진강유역에서는 대가야계의 고총고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남 동남부해안을 포함하여도 순천 운평리고분 이외에는 중소형의 고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순천 죽내리고분, 여수 죽림리 차동고분은 소가야계 고분에서 대가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백제 고분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섬진강유역과 여수반도 일대가 대가야의 영향력 아래에 놓였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전남 동남부해안을 포함한 섬진강유역의 가야문화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섬진강유역에는 4세기대를 시작으로 해로를 통해 가야계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대체로 금관가야계토기·아라가야계토기→소가야계토기→대가야계토기의 순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5세기 후엽에는 순천 운평리고분과 같은 대가야계 고분이 축조되는 등 대가야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섬진강유역과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을 대가야권역으로 포함하거나 정치적인 연맹관계로 파악하기에는 고총고분의 부재, 대가야계 유적과 유물의 빈약 등 고고학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섬진강유역을 비롯한 전남 동남부해안 지역이 백제에 편입된 이후에도 가야계 토기는 계속해서 사용되었고, 한편으로는 백제 토기요소와 절충되고 변형되면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 섬진강 상류유역은 금강, 남강일대와 함께 백제와 가야의 치열한 영토쟁탈전이 벌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는 전혀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추후 보완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가령고고학연구소, 2016, 『곡성 구성리유적』.
- 곽장근, 2004,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세력과 그 성장과정」, 『호남고고학보』 20집, 호남고고학회.
- , 2010,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와 백제』, 호남고고학회.
- 국강고고학연구소, 2016, 『하동 평사리유적』.
- 권오영, 2008, 「섬진강 유역의 삼국시대 취락과 주거지」,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 김규운, 2011, 「5세기 한성기 백제와 가야관계」, 『중앙고고연구』 제9호, 중앙문화재연구원.
- 김양훈, 2015, 「4~5세기 남부가야제국과 전남동부 지역집단의 상호관계」, 『한국고대사연구』 77, 한국고대사학회.
- 김은정, 2019, 「전북지역 주거구조 비교분석을 통한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호남고고학회.
- 김태식, 1985, 「5세기 후반 대가야의 발전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12.
- 두류문화재연구원, 2019,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결과 보고서」.
- 박미라, 2010, 「전남 동부지역 가야계토기 출토 주거지의 성격」, 『문화사학』 제33집, 문화사학회.
- , 2019, 「전남지역 주거구조 비교분석을 통한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호남고고학회.
- 박성배, 2018, 「섬진강 서안의 가야계토기 출토 생활유적」, 『섬진강의 고고학』, 경상대학교박물관.
- 박천수, 2006, 「임나사현과 기문, 대사를 둘러싼 백제와 대가야」, 『가야, 낙동강에서 영산강으로』, 김해시.
- , 2012, 「아라가야와 대가야」, 『고고학을 통해본 아라가야와 주변국』,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 양기석, 2008, 「섬진강에 깃들 백제의 숨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 유우창, 2005, 「대외관계로 본 가라국의 발전」, 『지역과 역사』.
- 이동희, 2004, 「전남 동부지역의 가야계 토기와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제46호, 한국상고사학회.
- , 2007, 「남해안 일대의 가야와 백제문화」, 『교류와 갈등』, 호남고고학회.
- , 2008, 「전남동부지역의 가야문화 — 순천 운평리 유적을 중심으로」, 『전남동부지역의 가야문화』, 호남고고학회.
- , 2010, 「전남동부지역 가야문화의 기원과 변천」, 『호남동부지역의 가야와 백제』, 호남고고학회.
- 장상갑, 2018, 「섬진강 동쪽의 가야마을」, 『섬진강의 고고학』, 경상대학교박물관.
- 장수남, 2015, 「웅진기 백제의 가야·왜와의 관계 변화」, 『백제문화』 53.
- 전북대학교박물관, 2003, 『남원 대곡리유적』.
- 전상학, 2019, 「호남 동부지역 가야고분의 유형」,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호남고고학회.
- 전영래, 1985, 「백제남방경역의 변천」, 『천관우선생한력기념 한구사학논총』.
- 조성희, 2019, 「취락 출토 일상토기 비교분석을 통한 마한·백제·그리고 가야」,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호남고고학회.
- 조영제, 2018, 「하동의 가야·선사문화」, 『섬진강의 고고학』, 경상대박물관.
- 하승철, 2018, 「전남지역 마한·백제와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제58집, 호남고고학회.
- , 2018, 「하동의 가야유적·유물」, 『섬진강의 고고학』, 경상대학교박물관.
- 홍보식, 1998, 「백제와 가야의 교섭」, 『백제문화』 제27집, 백제문화연구소.
- , 2008, 「문물로 본 가야와 백제의 교섭과 교역」, 『호서고고학』 16, 호서고고학회.
- , 2013, 「삼국시대의 이주와 생활 유형」, 『한국고고학보』 제87집.

【토론문】

「섬진강유역 가야문화의 형성과 변천」 토론문

홍보식(공주대학교)

발표자는 장기간에 걸쳐 호남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격의 유적조사와 함께 이 지역의 문화 특성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호남 동부지역의 조사와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발표자의 논지를 정리한 논문으로 평가된다.

이번 발표 논지는 섬진강유역 호남 동부지역 일대의 주거지 평면형태와 출토 유물 등이 매우 다양하고, 가야계 유물의 구성이 선별적인 점, 시기와 지역에 따라 가야계 문화 계통에 차이가 있고, 순천 운평리고분군을 제외하면, 중소형 규모의 고분군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 집단들은 마한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다만 가야와 지리적으로 인접되었고, 또 남해와 서해를 이어주는 가교지역으로서 재지의 마한계 문화는 물론 가야·백제·왜 등의 문화가 복합된 지역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섬진강유역의 집단들을 이해하는 소재로서 주로 매장 유구와 그곳에서 출토한 가야계 유물, 특히 토기의 존재에 주목하여 왔고, 생활유적의 유구와 유물에는 주목하지 않았었다. 매장유구와 부장품 못지않게 생활유적(유구)과 유물의 성격에 대한 검토와 의미 부여는 매우 중요하다. 발표자께서 생활유적과 유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점을 엿볼 수 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발표 논지 전반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1. ‘형성’이란 용어는 어떤 형상(물질적 또는 비물질적)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는 주체성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섬진강유역 가야문화의 형성이란, 섬진강유역에서 가야문화가 외부로부터 이입되었거나 수용되었다는 의미보다 섬진강유역에서 주체적으로 성립되었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소지가 있다. 섬진강유역, 특히 전남 동남부지역은 마한문화권으로서 이곳의 재지집단이 가야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발표 논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
2. 물질자료의 역연대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이견이 존재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적절한 기회는 아니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4세기 전반과 중엽에 이미 섬진강유역에 가야계 토기가 확인된다고 하였다. 현재 가야권역에서 4세기의 가야문화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낙동강 하구와 함안을 중심으로 한 경남 남중부지역이고, 서남부 지

역의 양상은 다소 불분명하다. 발표자께서 4세기 전반에 호남 동부지역에 가야문화가 존재한다고 본 연대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란다.

3. 호남 동부지역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크게 방형계와 원형계로 구분되는데, 방형계는 마한계 주거지, 원형계는 가야계 주거지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 내용에서도 원형계 주거지의 분포와 계통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가야계로 이해하고 논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4세기 후엽에 이미 임실지역(석두리유적)에 가야문화 요소가 존재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주거지 평면형태 외의 가야문화 요소가 존재한다면 추가 설명 바란다.
4. 가야계 토기의 분포를 보면, 4세기 후엽에 금관가야계 토기가 전남 동남부 해안지역, 특히 연안항로를 따라 남해에서 서해안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위치에 분포하지만, 아라가야계 토기는 임실·구례·곡성·광양 등 섬진강 유역 인근지역에 분포하여 분포상에 차이가 있다. 금관가야계 토기와 아라가야계 토기의 분포 차이는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와의 교류 대상지 및 상대를 달리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또 금관가야와의 교류 루트와 아라가야와의 교류 루트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밝혀주길 바란다.
5. 호남 동부지역은 5세기 후반 이후 대가야의 범위에 포함되어 대가야 국가 발전의 주요한 논거로 활용되어 온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대가야의 영향은 부정할 수 없지만, 대가야 영역에 포함되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발표자께서 표현한 ‘영향력’이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란다.
6. 호남 동부지역중 남원의 아영분지와 임실, 장수 등지에는 수혈식석곽으로 이루어진 고분군이 다수 분포하고, 대가야계 토기를 중심으로 소가야계 토기와 백제 토기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전남 동남부지역에는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수 십기 이상의 석곽으로 구성된 고분군이 보편적이지 않을 뿐더러 재지적인 특징을 가진 토기와 함께 소가야계 토기, 대가야계 토기, 왜계 토기, 신라계 토기 등 다양하여 차이가 있다. 호남 동부지역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인정한다면, 이 양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7. 호남 동부에서 가야계 문화의 창출·수용·소비가 재지집단의 자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가야로부터 충격압인지에 따라 이 지역 가야문화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부

남강 유역의 가야 문화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발표 4】

남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입지와 분포패턴

— GIS를 이용한 경관고고학적 해석과 상호작용 네트워크 분석

강동석(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II. 남강상류권 가야고분군의 분포 현황

III. 남강상류권 가야고분군의 입지와

경관고고학적 해석

IV. 남강상류권 가야고분군의 분포 패턴

V. 맺음말

I. 머리말

남강은 낙동강의 제1지류에 해당하는 하천으로, 대체로 진주 남강댐을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로 나누어진다. 남강상류권은 행정구역상 함양군, 산청군, 그리고 진주시, 의령군, 합천군, 남원시 일부지역에 해당하는데, 본 발표에서는 이 하천권역에 분포하는 가야고분군의 입지와 분포패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남강상류권은 5세기~6세기에 대가야와 소가야의 지역정치체가 시기를 달리하며 일정한 세력권을 유지하거나 공존하였던 권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체의 존재는 남강상류권역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 고고학적 조사 성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고분군의 분포와 발굴조사 결과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고분은 피장자의 매장시설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설들이 집중 조영된 공간이 고분군에 해당된다. 한편, 경관고고학적 입장에서 보면, 고분군의 입지와 분포 패턴은 매장공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작용한 당시의 사회적·이념적 맥락, 수장층의 정치권력 유지와 확대 전략, 고분군을 조영한 공동체 간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 네트워크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분

군이 가지는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남강상류권은 가야 각국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대가야와 소가야 정치체가 역동적으로 활동하였던 무대로서, 각 지역수장층은 사회경제적·이념적 차원에서 지배 권력을 확대하고, 공동체 내의 정체성 확립과 관계망을 형성·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정치체의 정치권력 형성과 확대 과정을 고분군의 입지와 분포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고분군에 대한 지형입지분석을 실시하여 입지적 특징을 고찰해 보고, 이 가운데 중심고분군을 중핵으로 하는 국지적 단위의 경관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가시권분석과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한 고분군 분포 패턴 분석을 통해 각 지역정치체의 세력권과 상호작용 관계망을 추정해 보기로 하겠다.

II. 남강상류권 가야고분군의 분포 현황

기존의 연구에서 남강상류권은 함양권, 산청권, 합천권 등, 대체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분되거나 명확한 권역 구분 기준이 없이 설정되어 왔다(김지연 2013, 박승규 2010, 여창현 2013, 하승철 2015). 본고에서는 하천유역단위에 따라 지형적인 경계가 설정되고, 가야유적의 분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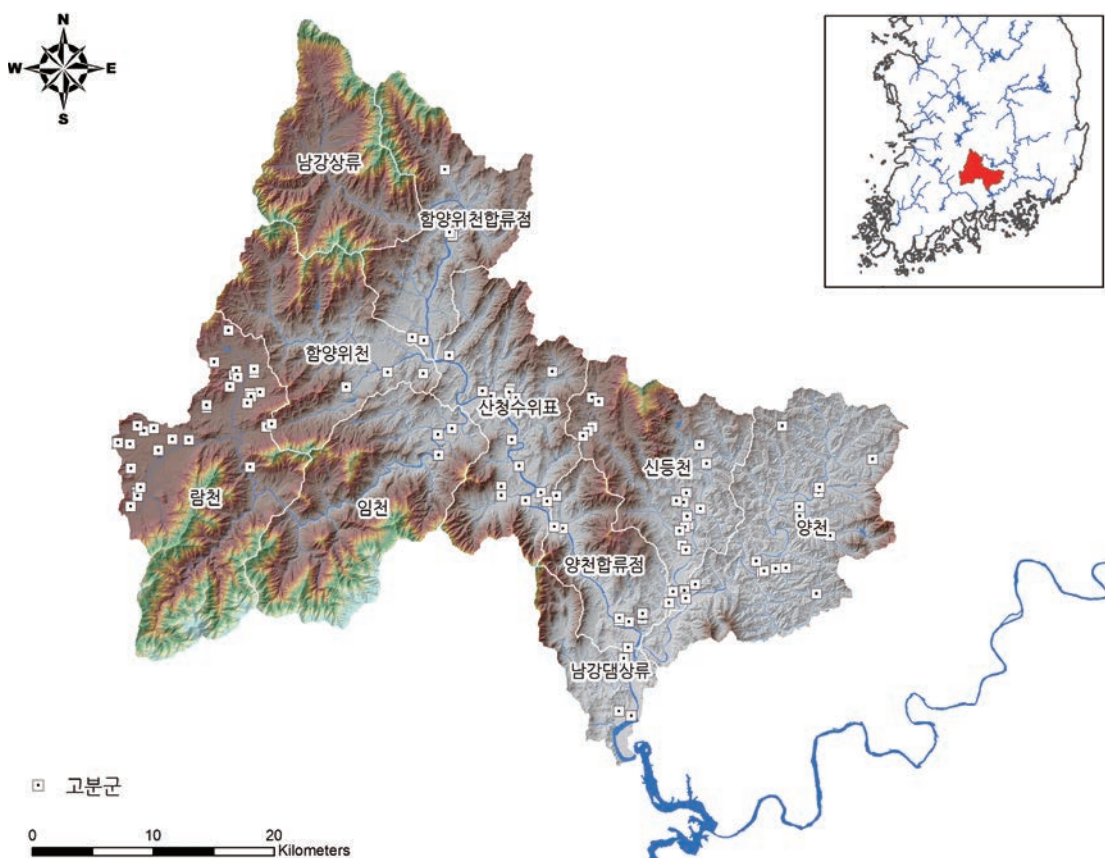


그림 1. 남강상류권 하천유역단위와 고분군 분포

표 1. 남강상류권 고분군 발굴조사 현황

유적명	시기	계통	규모	묘제	주요출토유물
남원 건지리 고분군	5세기중반~6세기초	대가야	소형	석곽묘	유개장경호, 발형토기, 병형토기
남원 봉대리 고분군	5세기중반~6세기중반	대가야	소형	석곽묘	광구장경호, 유개단각고배, 병형토기
남원 북천리 고분군	6세기중반			횡구식석곽묘, 석실묘	단각고배, 단경소호
남원 월산리 고분군	5세기중반~5세기말	대가야	대형	석곽묘	환두대도, 꺾쇠, 청자계수호, 갑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5세기말~6세기초	대가야	대형/중형/소형	석곽묘, 석실묘	기꽃이, 청동수대경, 식리, 운주
남원 임리 고분군	6세기중반	대가야/백제		석곽묘	광구장경호, 개배
남원 행정리 고분군	6세기초	대가야		석곽묘	광구장경호, 발형토기, 철검, 철부
산청 명동 유적	5세기말~6세기초	소가야	중형/소형	석곽묘	유공광구소호, 수평구연호, 대호, 이식
산청 묵곡리 유적	5세기~6세기	소가야/대가야	중형/소형	목곽묘/석곽묘/석실묘	발형기대, 환두대도
산청 생초 고분군	5세기~6세기	대가야	대형/중형/소형	석곽묘	스에끼, 용봉문환두대도, I자형판비, 축소모형철기, 검릉형행엽, 동경
산청 소남리 유적	6세기	대가야		석실묘	장동웅, 병
산청 옥산리 유적	5세기~6세기	소가야/대가야	중형/소형	목곽묘/석곽묘/옹관묘	장경호, 철모, 금박유리옥
산청 중촌리 고분군	5세기초~6세기초	소가야	대형/중형/소형	목곽묘/석곽묘/석실묘	수평구연발형기대, 단봉문환두대도, 재갈
산청 평촌리 유적	5세기말	소가야/대가야	중형/소형	석곽묘/석실묘	수평구연호, 발형기대, 재갈, 안장
함양 공배리 고분군	6세기중반	대가야	대형/중형/소형	석곽묘/석실묘	세한이식, 철촉
함양 도천리 유적	6세기중반	대가야	중형/소형	석곽묘	소도, 철탁, 금동세한이식
함양 백천리 유적	5세기~6세기	대가야	대형/중형/소형	석곽묘	기대, 이식, 장식대도, 성시구
함양 상백리 고분군	5세기~6세기	대가야	중형/소형	석곽묘	사형상철기, 판갑, 찰갑
함양 손곡리 유적	5세기말	소가야/대가야	중형/소형	목곽묘/석곽묘	수평구연호, 발형기대, 환두대도, 이식, 철부
함양 이은리 유적	5세기~6세기	소가야/대가야	중형/소형	석곽묘	장동웅, 노형기대, 시루
합천 삼가 고분군	2세기말~6세기초	소가야/대가야	대형/중형/소형	목관묘,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재갈, 조형장의기, 수형구연호, 환두대도
합천 안계리 고분군	6세기초	대가야	대형	석곽묘	환두대도, 철부, 철검
의령 천곡리 고분군	5세기말~6세기후반	소가야/아라가야	중형	석곽묘/옹관묘	단경호, 기대, 대도

표 2. 출토유물과 묘제에 의한 남강상류권 고분군의 편년안

연대	박천수 (1998)	윤정희 (1997)	하승철 (2001·2010)	김두철 (2001)	박승규 (2000·2010)	전상학 (2007)	김규운 (2009)	여창현 (2013)	김지연 (2013)	김승신 (2016)
5C	1/4					행정11·12 월산M1-A· M3-M4	옥산70			백천 상백 생초
	2/4	목곡 26·43·53·55	목곡4·13 중촌3북 목곽		중촌3서 옥산38 43·70		옥산 21·40·80		중촌3남토· 북 옥산41	
	3/4	백천 I 3	중촌3동		중촌3동 석곽	행정1 월산M1-F ·M2	중촌3동석곽 명동 2지구 7·10·11·12·13	옥산21·40	중촌3- 동석곽 평촌167 (삼가)	백천 상백 생초
	4/4		목곡 56·61	목곡61 중촌21동	월M1-A			명동 I 16·II 12	명동 I 16 평촌148 (삼가)	생초M13 백천 I 3 상백4
6C	1/4		목곡6·56 (중촌3표토)	백천리 I 3		두락1·3·5 건지B5- 1·4	명동1지구 69·1·78- 3·88-1· 2지구12	명동 I 59·18·88- 1·17·34	명동 I 17·31·41, III 37·38 평촌157	
	2/4						명동 1지구74	명동 I 7·1·78·3· 20·1·74· II-21	명동 I 5·2·58· 76	

가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역단위를 기준으로 남강상류권역을 설정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에는 함양군 일대의 남강상류, 함양위천, 함양위천합류점과 남원시에 포함된 람천, 산청군에 속한 임천, 산청수위표, 양천합류점, 그리고 진주시, 산청군, 함천군, 의령군의 일부지역에 해당하는 남강담상류, 신등천, 양천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남강상류권에 대한 지표·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분군은 모두 103개소이다.^[1] 이 가운데 22개소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고분군의 규모와 묘제, 축조시기, 조영집단과 관련한 기초적인 자료가 축적되었다(표 1). 묘제는 목관묘, 목곽묘가 확인된 사례도 있지만, 수혈식석곽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횡구식·횡혈식 석실분도 조사되었다. 이러한 묘제와 출토유물에 근거하여 남강상류권에서 고분군이 조영된 시기는 대체로 5세기~6세기로

[1] 본 발표문의 남강상류 가야고분군 분석자료는 『문화유적분포지도』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가야 자료 총서』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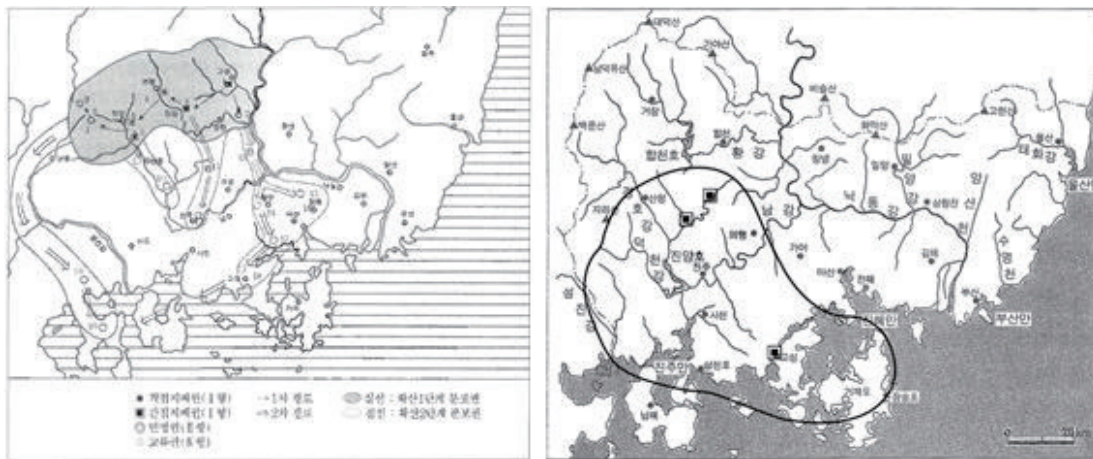


그림 2. 5세기후반~6세기초 대가야·소가야 토기분포권(좌: 박승규 2010, 우: 하승철 2015)

보고 있으며, 특히, 5세기 중반~6세기 초반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표 2>에서 정리한 기존 연구자들의 편년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고분군의 축조 세력은 유역단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동안의 고고학적 성과에 기초해 보면, 소가야와 대가야의 각 지역정치체가 일정 권역에 대한 정치권력을 형성·유지하며 고분군을 축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고분군에서 보이는 묘제와 출토유물에 기초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 걸친 남강상류권의 가야 지역정치체 세력권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대가야와 소가야양식의 토기분포권을 통해 설정되고 있다. 대체로 남강댐과 상류의 산청군, 함천군 일원은 소가야권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함양군, 남원시 일원은 대가야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6세기 중반 이후에는 대가야양식 토기가 남강상류권 전역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에는 대가야 세력이 지배적인 지역정치체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박승규 2010, 하승철 2015). 이와 같은 남강상류권 고분군의 시기별 축조양상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5세기 중반~6세기 초에 조영된 고분군을 대상으로 각 가야 지역정치체의 정치권력 확장 과정과 유지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발굴조사 결과, 6세기 중반에 축조된 고분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분군에 대해서는 6세기 중반에 축조된 고분군이 소수인 점, 대규모 고분군을 제외하면 목관묘 또는 목곽묘 단계의 고분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III. 남강상류권 가야고분군의 입지와 경관고고학적 해석

1. 고분군의 지형입지적 특징

가야고분군은 정상부를 포함하는 구릉 혹은 능선, 산지 혹은 구릉의 사면과 하단부, 구릉성 대지와 선상지 등에 입지한다(이성주 2017:39). 이러한 다양한 입지적 특징은 피장자의 계층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이념적 여건을 고려한 수장층의 정치적 의도와 이에 따른 공간 구조를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고분군의 입지적 요소 중에서 고도, 하천과의 거리, 분포지형 등 지형 조건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남강상류권 고분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형입지 분석결과를 살펴보겠다. 고분군의 고도에 대해서는 각 고분군의 상대적인 고도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발고도가 아닌 하상비고(河床比高)를 분석하였다. <그림 3>은 고분군의 하상비고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작성한 것인데, 평균 35m의 비고를 보이고 있으며, 비고 5m이하의 평탄지에 조성된 고분군은 소수에 불과하다. 산청 목곡리·평촌리 고분군, 함양 손곡리·화산리 고분군 등 주로 중소형의 석곽묘로 구성된 고분군이 평탄지에 입지한다. 한편, 해발 80m이상의 비교적 높은 곳에 입지하는 고분군은 7개소인데, 규모를 추정할 수 없는 유적도 있지만, 산청 지리 새내머리 고분군과 같이, 20여기 이상의 중대형 봉토분이 분포하는 고분군도 있다. 특히, 여기에는 소가야와 대가야 지역정체로 인식되고 있는 산청 중촌리고분군, 산청 생초 고분군이 속해 있어 중심고분군의 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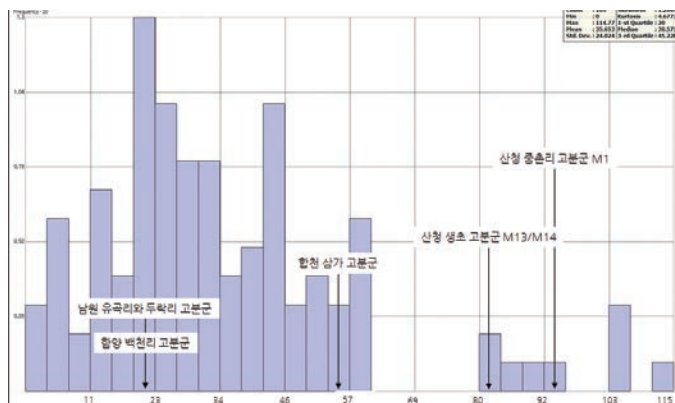


그림 3. 남강상류권 고분군의 하상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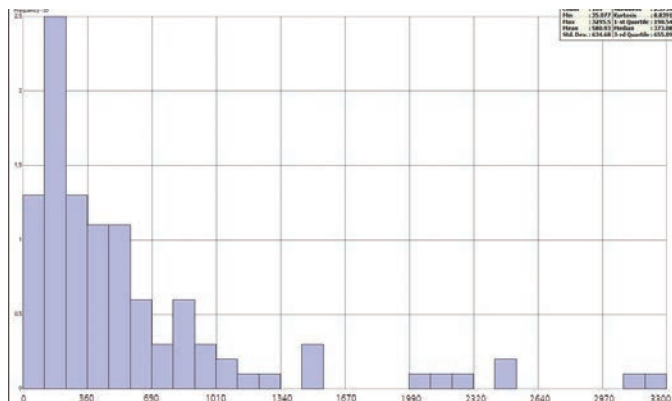


그림 4. 남강상류권 고분군-하천과의 거리

(高地) 선택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함양 백천리 고분군,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과 같은 중심고분군의 경우, 비고 23m이하의 비교적 낮은 지점에 입지하고 있어 각 고분군이 분포한 지역의 공간적 맥락과 함께 입지선택 의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분군-하천과의 거리는 직접거리를 계측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그림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히스토그램에 의하면, 1,340m 이내에 분포하는 고분군을 비교적 근거리에 축조된 것

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전체의 90.5%가 이에 해당된다. 고분군-하천과의 거리가 1,500m 이상에는 남원시 운봉·아영면 일대의 고분군만이 해당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람천유역권이 산지의 협곡을 따라 형성된 하천유역단위와 달리, 분지지형을 이루고 있는 지형적인 조건이 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고분군이 분포한 지형을 살펴보면(그림 5), 구릉지 49%, 산악지 22% 등, 전체 고분군의 71%가 비교적 높은 지형에 입지하고 있다. 이것은 고분군 입지선택 과정에서 의도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선상지, 하성평탄지, 산록경사지에 당시 가야 지역정치체의 취락이 분포하고 있는 지형인 점을 감안하면 매장의례공간과 취락공간을 분리하여 조성하는 공간 조직적인 입지 선택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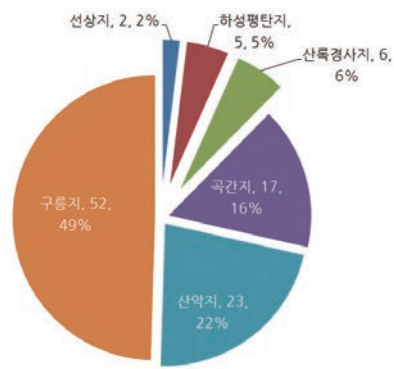


그림 5. 남강상류권 고분군의 분포지형

2. 중심고분군의 입지적 특징

남강상류권 가야고분군의 지형입지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묘역과 거주역이 분리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하천과 인접한 지점에 고분군을 조성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몇몇 중심고분군의 경우, 현저한 입지를 선택하여 축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입지적 특징은 각 지역정치체의 수장층이 정치권력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을 구사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중심고분군을 중핵으로 하는 국지적 차원 경관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남강상류권에서 중심고분군은 고분군의 규모와 대형 봉토분의 존재, 마구류, 무구류 등에서 보이는 위신재 등에 근거하여 산청 중촌리고분군, 함천 삼가고분군, 산청 생초고분군, 함양 백천리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남원 월산리 고분군을 가야의 각 지역정치체를 대표하는 중심고분군으로 인식하고 있다(곽장근 1999, 김승신 2016, 박승규 2010, 전상학 2006, 하승철 2015). 이 고분군들은 그동안의 조사 성과에 의하면, 소가야와 대가야의 각기 다른 가야 정치체로 존재하였으나, 대체로 5세기 중반~6세기 전반에 걸친 공시적 공간에 독립된 지역정치체로 세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림 6>의 고분군 분포밀도 분석결과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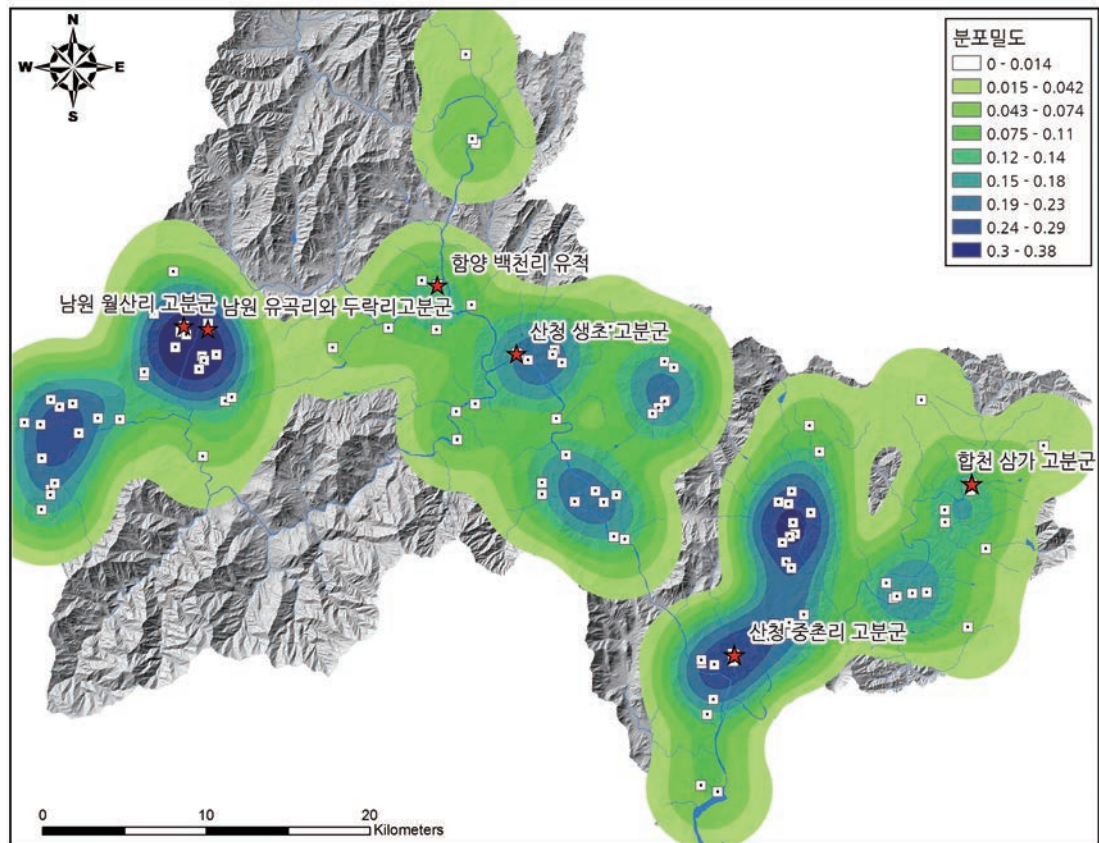


그림 6. 남강상류권 가야고분군 분포밀도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밀도구간을 제외하면, 각각 하나의 밀집권을 형성하는데, 이 권역들 내에 중심고분군에 해당하는 산청 중촌리·삼가 고분군, 산청 생초·백천리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월산리 고분군이 분포한다. 점분포패턴에 대한 밀도분석이 특정권역을 설정하기 위한 분석법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고분군 밀집분포권은 정치경제적·종교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역정치체의 권역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중심고분군은 이러한 정치체의 대표하는 기념물로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묘역을 중심으로 한 ‘의미화된’ 경관의 조성을 통해 정치권력을 확대·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경관 조성전략을 가시권분석과 공간조직 모델링을 통해 살펴보겠다.

경관을 매개로 한 정치권력과 피지배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가시성과 접근성이다(강동석 2018:179). 이 가운데 가시성은 특정한 형태의 경관을 보게 하거나 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시선을 통제하여 경관을 해석·체험하게 하는 권력성을 지닌다(김종일 2017:116). 이러한 가시성과 관련한 경관고고학적 분석과 해석은 주로 GIS를 이용한 가시권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남강상류권에 존재하였던 가야의 지역정치체를 대표하는 산청 생초·중촌리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월산리 고분군을 대상으로 가시권분석을 실시하여 매장의례공간의 입지선택 과정에서 작용한 경관의 권력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산청 생초 고분군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림 7〉은 생초 고분군을 구성하는 군집에

대한 가시권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것을 보면, 고분군이 조영된 지점을 기점으로 남쪽면 대부분이 조망되는 위치에 고분군이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상적인 자원개척영역 또는 국지적 공동체의 상호작용 영역으로 상정할 수 있는 고분군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 구역의 가시권을 보면, 고분군의 가시권역은 보다 광범위하게 형성된다. 이것은 <그림 8>의 도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공간고고학에서 반경 5km는 단위공동체 내에서 정치적·경제적·종교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영역 안에서 수장권력을 대표하는 고분군의 가시권이 지배적인 양상을 보인다면, 이러한 상시적인 가시성 확보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수장권력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상시 노출된 대형고분군의 존재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하는 역할도 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관고고학적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 구성원 생활공간, 즉 거주와 생업이 이루어지는 취락의 위치 추정 필요하며, 이후 고분군-취락 간의 시인관계를 검토해야한다. 남강상류권에서 거주·생업공간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생초 고분군과 인접한 평촌리·하촌리·갈전리유적이다. 이 유적들은 반경 500m 이내에 인접해 있어 복수의 단위취락으로 구성된 복합형취락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150기 이상의 수혈주거지와 논, 밭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유적들이 입지한 구역은 하상평탄지에 해당된다. 산악지나 비교적 높은 구릉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남강상류권에서는 이들 유적에서 볼 수 있듯이 충적지에 해당하는 하상평탄지가 주거와 생업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근거로, 본고에서는 분포지형이 하상평탄지이면서 토양토에서 논과 밭으로 이용을 추천한 구역을 거주·생업공간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8>을 보면, 생초 고분군으로부터 반경 5km 영역 내의 거주·생업공간은 고분군의 남쪽면에 해당되며, 평촌리·하촌리·갈전리 유적 모두 여기에 입지하고 있다. 한편, 이 도면을 통해 생활공간과 고분군 간의 시인관계도 살펴볼 수 있는데, 고분군에서 생활공간 전체가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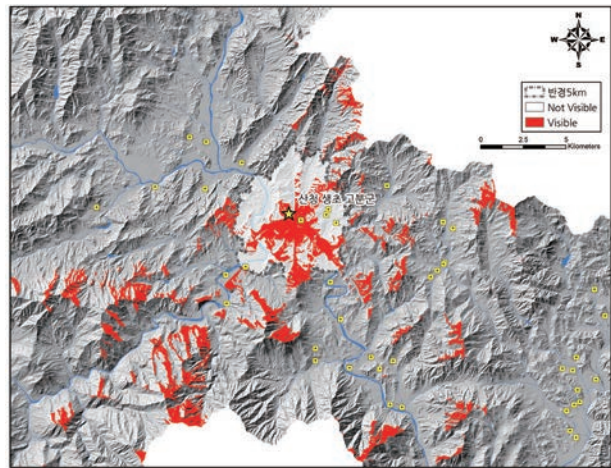


그림 7. 산청 생초 고분군의 가시권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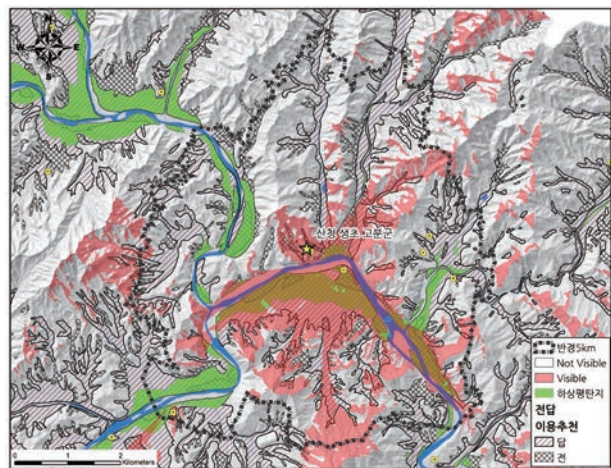


그림 8. 산청 생초 고분군 주변 지형과 토지이용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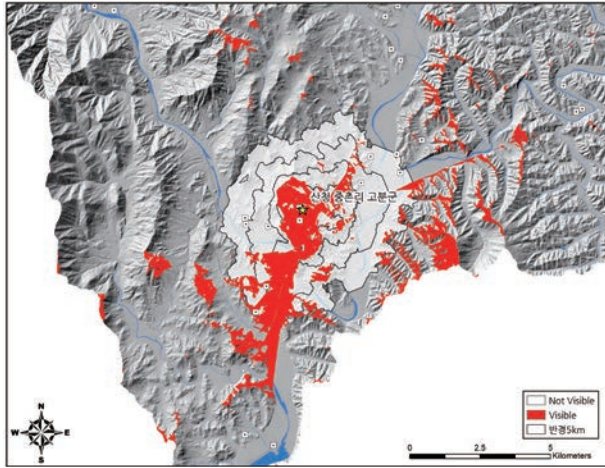


그림 9. 산청 중촌리 고분군 가시권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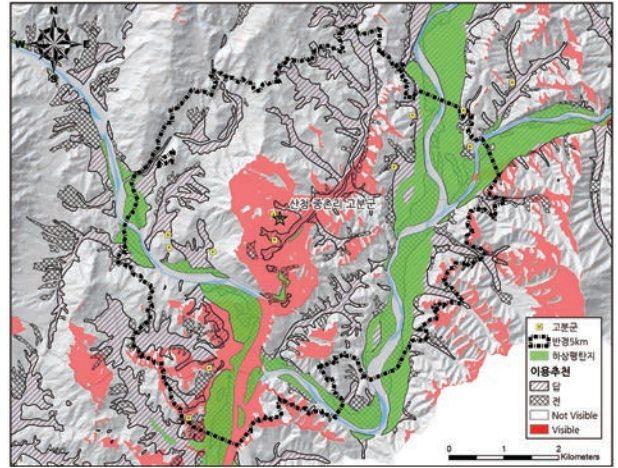


그림 10. 산청 중촌리 고분군 주변 지형과 토지이용추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생활공간에서 고분군에 대한 상시적인 가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수장권력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기념물로서 고분군, 그리고 공동체 생활공간으로서의 취락 간에 시인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수장층은 매장의례공간의 입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인관계가 확보될 수 있는 입지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고분군을 조영하였던 것이다. 이는 수장층의 입장에서는 경관을 소유화하여 권력의 신성함과 지배의 정당성을 극대화하고, 구성원에게는 지역정치체의 기념물을 상시적으로 체험·기억하게 하는 경관을 조성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정치권력 확대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접근성을 매개로 한 경관의 권력화에 대해서는 생초 고분군과 생활공간 사이의 지형적 입지 양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그림 8〉에서는 최상위 수장층의 매장공간과 생활공간이 분포한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공간은 하천을 경계로 공간분할이 이루어져 있다. 평촌리유적에서 확인된 중소형석곽묘를 하위계층의 집단묘로 상정한다면(경남발전연구원 2007), 최상위 유력자와 하위계층의 매장공간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

며, 하천을 이용하여 지역정치체 수장층의 매장의례공간으로의 접근을 통제하여 정치권력의 신성성과 차별성을 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생초 고분군의 경관 조성은 소가야의 지역정치체를 대표하는 중촌리 고분군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9〉는 중촌리 고분군을 구성하는 3개 군집의 가시권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것을 보면, 고분군으로부터 반경 10km 내외 지역까지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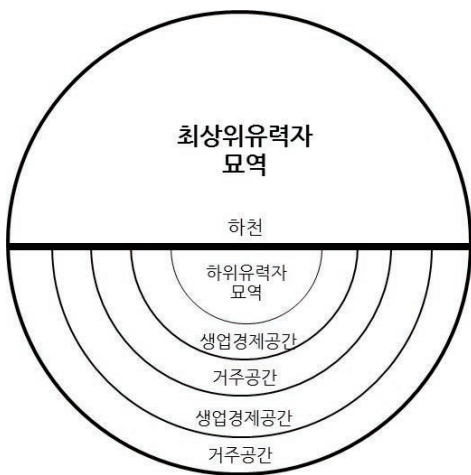


그림 11. 산청 생초·중촌리 고분군 축조집단의 경관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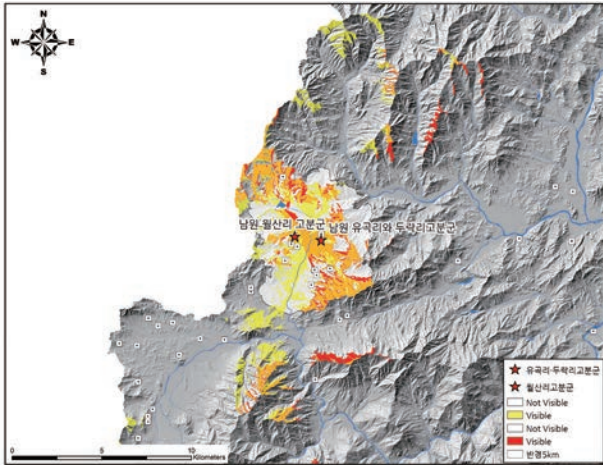


그림 12. 산청 중촌리 고분군 가시권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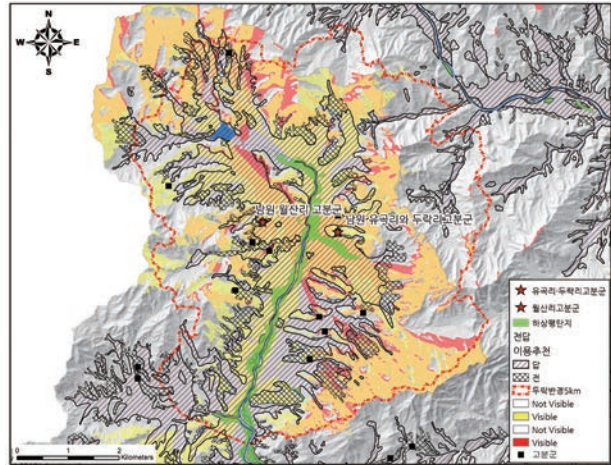


그림 13. 산청 중촌리 고분군 주변 지형과 토지이용추천

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고분군이 조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경 5km 국지적 영역의 약 50%에 가까운 권역에 대한 가시권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매장의례공간과 생활공간 간의 시인관계를 살펴보면(그림 10), 경작지와 거주공간 입지로 적합한 하상평탄지·논·밭이용 추천지는 생초와 마찬가지로 고분군의 남쪽편에 집중되어 있고, 이 구역의 대부분은 중촌리 고분군의 가시권역 내에 위치한다. 또한, 생활공간과 매장의례공간이 하천을 경계로 구분되는 양상도 생초와 유사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초고분군은 대가야, 중촌리 고분군은 소가야의 지역정치체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치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고분군의 입지 선택과 경관 조성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상위 수장층을 상징하는 기념물인 고분군을 정치권력화하여 지배의 정당성과 공동체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경관을 의도적으로 조직화하고 구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지적 공동체의 공간조직을 간단히 모델링해 보면, 〈그림 1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생초 고분군·평촌리 유적·갈전리·하촌리 유적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수장층에 해당하는 최상위유력자의 묘역과 생활공간을 하천을 경계로 구분하는 기본적인 경관 구조를 배경으로 하고, 수장층의 묘역은 단독공간을 구성한 반면, 생활공간에는 하위유력자의 묘역과 논·밭과 같은 생업경제활동공간, 복수의 단위취락이 거주공간이 구성하는 이른바 ‘복합공간’으로서의 구조를 이룬다. 이와 같은 공간조직은 중심고분군을 중핵으로 하는 국지적 단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저한 지형의 입지선택을 통해 수장층의 묘역을 별도로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산청 생초·중촌리 고분군과 같은 남강 본류가 아닌, 북서쪽 발원지에 해당하는 람천유역단위에 분포하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월산리 고분군의 입지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 상사성과 상이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이 두 고분군은 약 1.5km 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의 편년안에 따르면(곽장근 1999, 전상학 2006), 월산리 고분군이 먼저 조성된 이후 유

곡리·두락리 고분군이 조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두 고분군이 인접해 있다는 점과 두 고분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그림 12〉은 두 고분군의 가시권을 분석한 결과이다. 고분군이 근접한 관계로 가시권역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앞서 산청의 예와 마찬가지로, 반경 5km를 대상으로 한 국지적 공동체 영역의 50% 이상이 고분군의 가시권에 해당한다. 특히, 5km 반경 내에 분포하는 중소형고분군 모두에서 월산리,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조망되는 특징을 지닌다.

다음으로 하상평탄지와 토지이용추천도에 근거하여 추정한 생활공간과 고분군 간의 시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3〉을 보면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과 근접한 곳에 논토양과 하상평탄지가 분포하여 생활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남강상류권의 본류와 달리, 람천유역단위에는 경사도가 낮은 저평한 곡간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어 경작지나 거주공간으로 이용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거의 전역에서 고분군을 조망할 수 있는 시인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고분군의 입지는 남강본류와 마찬가지로, 고분군 조성 경관이 지역정치체의 권력화를 위한 의미화된 공간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경관조직은 남강본류의 경우, 본류하천을 경계로 하여 수장층의 묘역이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람천유역에서는 1~3차수의 소규모 하천이 고분군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 묘역과 생활공간이 별도 분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 남강상류권에 분포하는 중심고분군의 입지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심고분군은 모두 국지적 공동체 생활권을 조망하기 유리한 지점에 축조되어 있었으며, 남강본류에 근접한 산청 생초·중촌리고분군의 경우에는 하천을 이용하여 수장층의 묘역과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공간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최상위유력자의 묘역에 대한 가시성 확보와 접근성 통제를 통해 경관 자체를 정치권력의 확대와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V. 남강상류권 가야고분군의 분포 패턴

고분군의 분포는 고분군을 조영한 공동체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취락 분포유형의 설정과 당시 사회의 조직체계 또는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희준(2000)은 4~5세기의 고분군이 삼한시대의 읍락체계를 잇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국읍-읍락-촌-소촌으로 구성되는 취락관계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르면, 박대제의 대국 구조(2018)도 유사한 취락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고분군이 단순히 매장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락의 분포 패턴과 조직체계를 재구성하는 자료로서 활용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강상류권 중심고분군을 소가야 또는 대가야의 지역정치체로 인정하는 기존의 연구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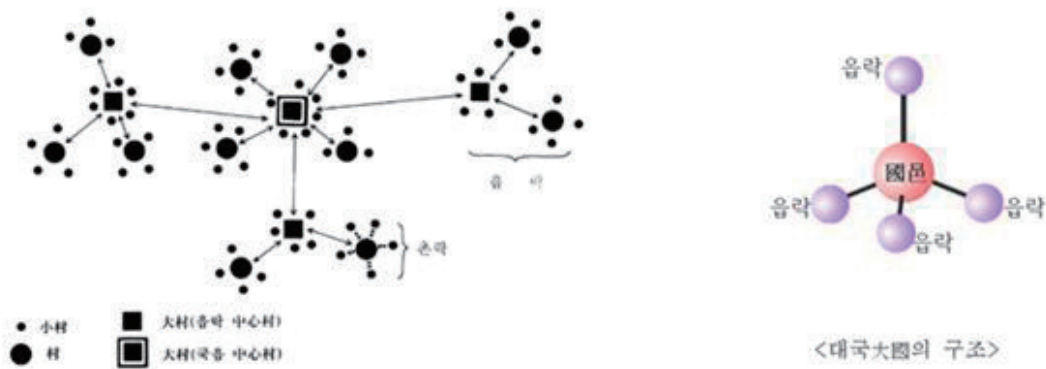


그림 14. 삼한 소국의 취락 분포유형(이희준 2000)과 삼한 대국의 구조(박대제 2018)

에 근거해 보면, 계층적 취락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정치체의 수직적·수평적 상호작용 네트워크와 정치경제적 관계망을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세기 중반~6세기 초의 남강상류 소가야권의 관계망은 토기분포권에 근거하여 김지연(2013)과 하승철(2015)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유적만을 대상으로 설정된 것인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남강상류에서 고분군이 집중 조성된 시기를 감안하면, 고분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권역 추정도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중심고분군의 가시권 분석 결과를 기초로, 이 고분군을 중핵으로 하는 국지적 단위를 지역정치체의 세력권으로 상정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 그 다음, 공간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하나로서, 입지-배분모델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적 관계망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분군은 지역정치체의 수장권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성된 경관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물리적인 경관 구조에서 중심고분군의 가시권은 정치체 내 단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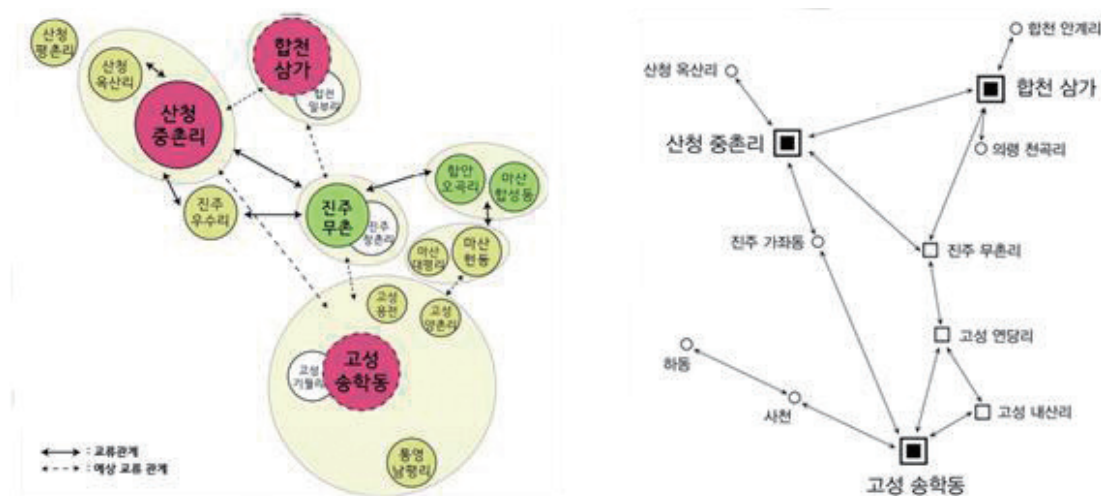


그림 15. 5세기 중후반~6세기 초 소가야 토기분포권과 내부구조(좌: 김지연 2013, 우: 하승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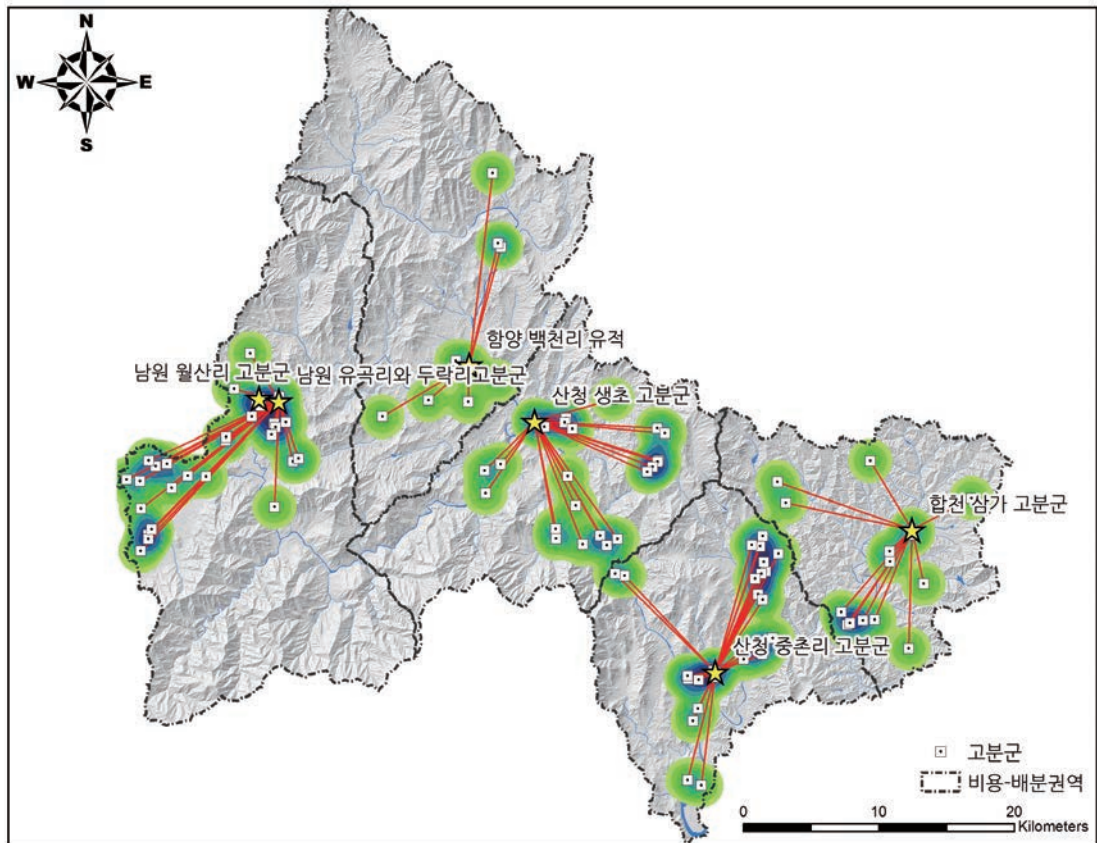


그림 16. Maximum coverage 함수를 이용한 남강상류권 중심고분군의 입지-배분모델 분석결과

간의 상호연결성과 근접성을 의미하는 시각적인 공간을 구성하여 공동체 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중심고분군의 가시권은 남강상류에 존재하였던 가야의 지역정치체가 단위공동체와 정치경제적·종교적으로 상호작용하였던 권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6〉은 앞 장에서 보았던 각 중심고분군의 가시권 분석결과를 광역적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다. 그림을 보면 가시권역의 범위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시권을 공유하는 구역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각 가시권의 외곽이 겹치는 경우는 있지만, 각 중심고분군 간의 시인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가시권역의 분포를 티센폴리곤을 응용한 비용-배분 분석(location-allocation analysis)결과와 중첩해 보면, 가시권을 공유하는 지점을 경계로 대체로 구역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각 중심고분군의 가시권은 지역정치체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영역, 즉 세력권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남강상류에서 가야의 각 지역정치체의 세력권 또는 지배권은 상호균형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공간적 범위는 중심고분군으로부터 반경 약 10km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각 중심고분군을 대표로 하는 남강상류권 가야 지역정치체의 세력권은 네트워크 분석방법인 입지-배분모델을 이용한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입지-배분모델은 각 중심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간적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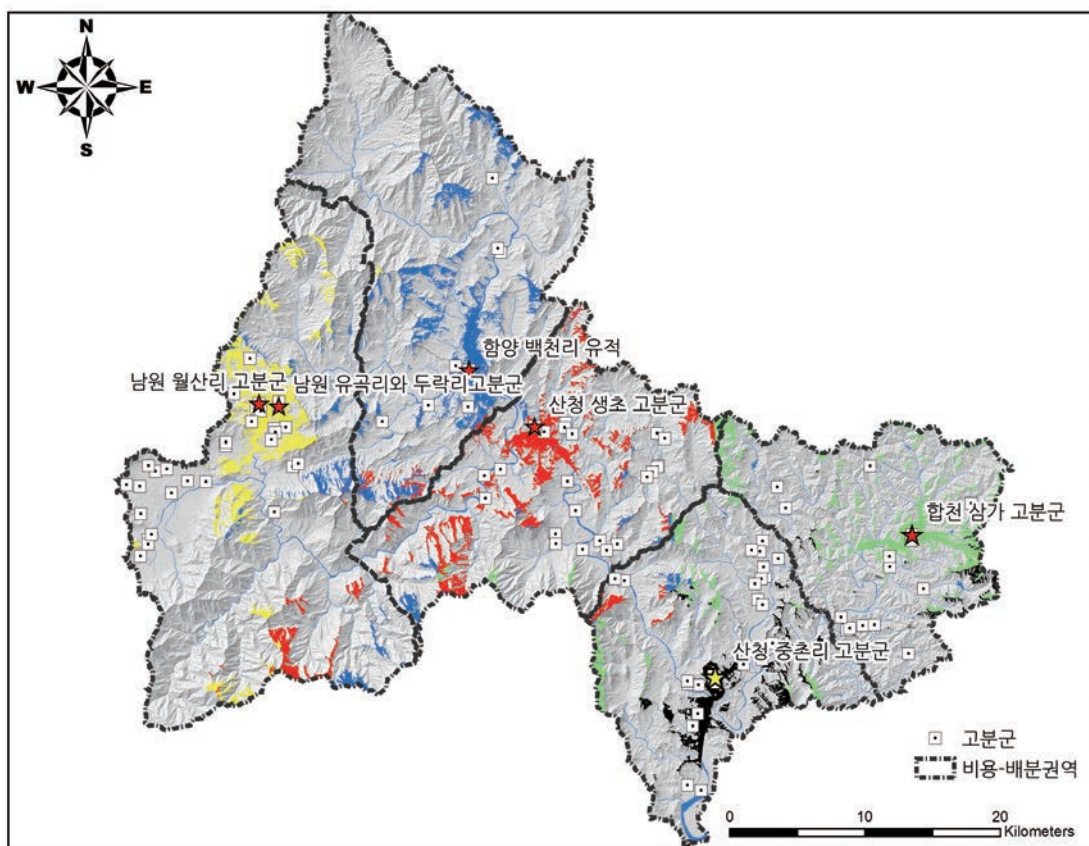


그림 17. 남강상류권 중심고분군의 가시권과 권역 배분

위해 적용되는 분석법이다. 각각의 중심고분군이 조영된 지점을 지역정치체의 중심지로 본다면, 이 중심취락은 주변취락에 정치적·경제적·종교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점에 입지하였을 것이며, 주변취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서비스권역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본고에서는 입지-배분모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상호작용 관계망과 서비스권역을 설정하기 위해 함수로서 maximum coverage와 maximize market share를 적용하였다. 〈그림 17〉은 maximum coverage함수에 의한 입지-배분모델 적용 결과로서, 각 중심-주변고분군의 상호작용 관계와 그 공간적 범위를 보여준다. 이것을 비용-배분권역과 중첩해 보면, 〈그림 16〉에서 보는 것과 동일하게 권역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입지-배분모델 적용 결과에서는 가시권분석 결과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중심-주변고분군과의 관계망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중심고분군과 연계된 고분군들은 하나의 단위정치체로 설정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공간분석에 의해 설정한 관계망으로, 실제 유적의 성격에 대한 검토 결과와 함께 검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산청 옥산리 유적의 경우, 토기양식을 근거로 중촌리고분군의 조영집단과 동일한 세력으로 판단하는 견해가 우세하나(김지연 2013, 여창현 2013, 하승철 2015), 함양 백천리 고분군, 산청 생초 고분군의 대가야 세력과의 관계성이 강조되기도 한다(경상대박물관 2013). 위의 가시권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면, 적어도 5세기 말~6세기 초 옥산리 유적을 대표로 하는 단위공동체는 생초 고분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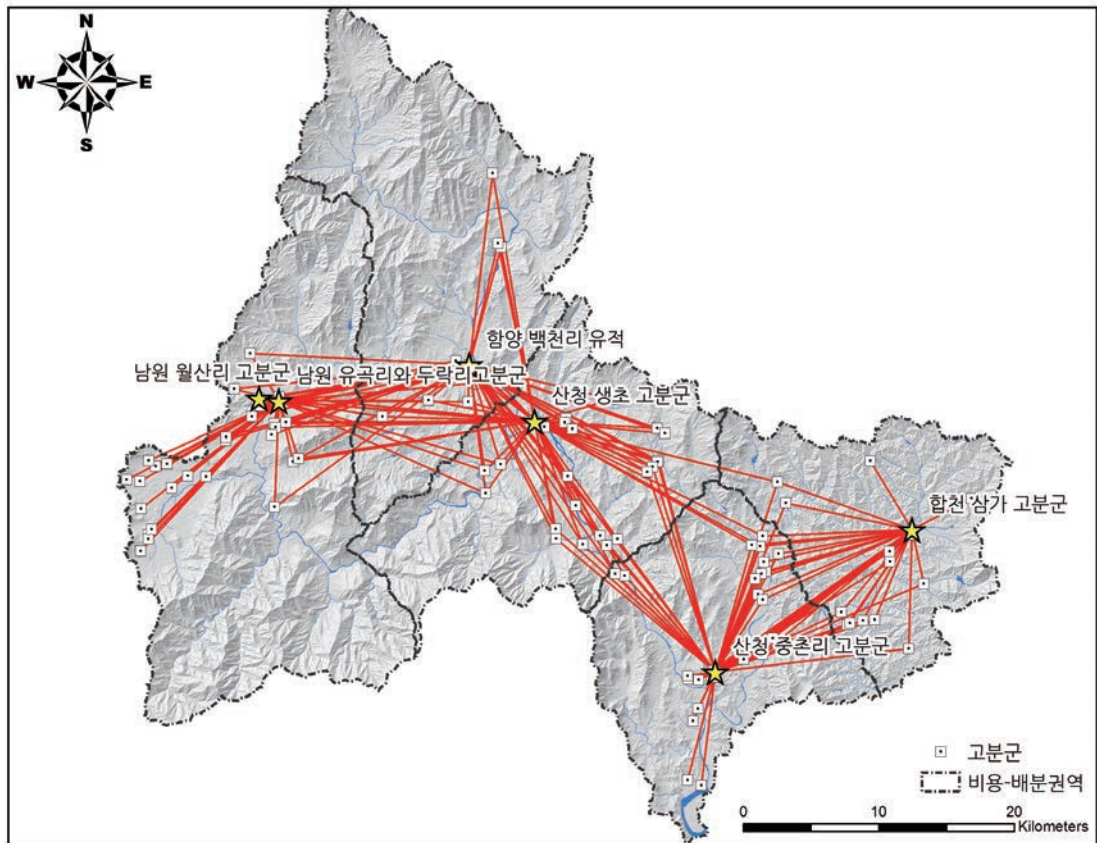


그림 18. maximize market share 함수를 이용한 남강상류권 중심고분군의 입지-배분모델 분석결과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림 17>에서는 각 중심고분군은 상호작용 권역 내에서 주변고분군과 각각 연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분군에 대한 밀도분석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보면, 이희준이 제시한 것과 같은 취락 분포유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이희준은 각 고분군이 ‘촌(村)’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17>에서 3개소 이상의 고분군이 밀집한 지점을 상위의 촌 단위로 본다면, 각 지역정치체 내에는 최소한 4단계의 중층적 계층 구조를 지닌 취락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직적 사회 구조는 중앙집중형의 정치경제모델(Hare 2001)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납체계에 의한 잉여의 생산과 소비, 분배가 정치적으로 관리되고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합천 저포리 유적에서 출토된 ‘下部恩利利’ 명문 토기를 근거로 제기된 가야의 부체제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중층적 중앙집중형의 공납체계에 의해 남강상류 지역정치체의 정치경제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체제에서는 최상위 중심취락에 의례나 향연에 필요한 잉여의 저장공간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는데(Delgado-Espinoza 2002), 생초 고분군에 인접한 갈전리·하촌리 유적에서 대규모 주거지와 함께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유구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이러한 사회시스템의 맥락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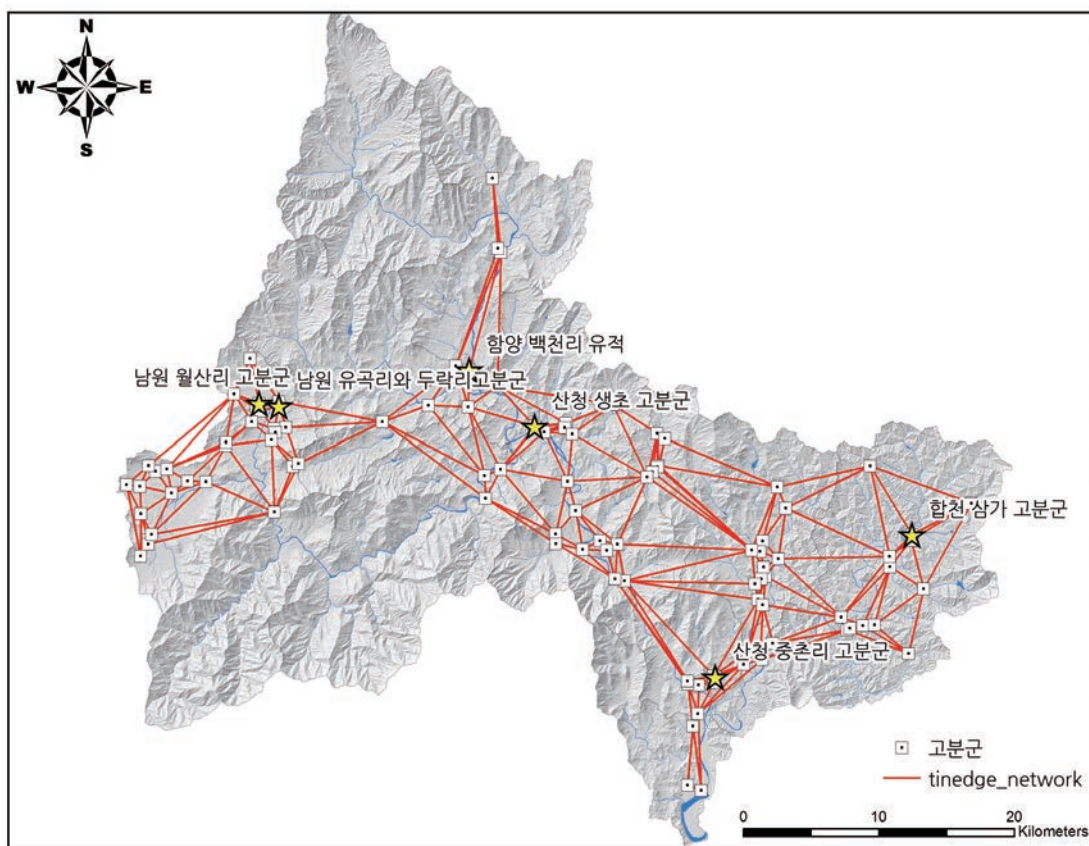


그림 19. 남강상류권 가야고분군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모델

이상 중심고분군의 가시권분석과 중심-주변고분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근거로 각 중심고분군을 중핵으로 하는 지역정치체의 세력권 내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남강상류권의 대가야·소가야 토기양식의 출토양상을 보면, 지역정치체 간의 대외적인 상호작용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생초 고분군 조영집단의 중심취락으로 판단되는 평촌리·갈전리·하촌리 유적, 옥산리 유적에서 대가야 토기와 함께 소가야 토기도 다수 출토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지역정치체간 상호작용을 염두해 두고, 입자-배분모델의 maximize market share 함수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광역적 차원의 공간분석에서 일일생활권으로 상정하고 있는 반경 20km, 즉 하루 동안 왕복 가능한 거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8〉은 분석 결과인데, 생초-삼가 고분군을 제외한 모든 중심고분군이 직접적인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적 관계망을 배경으로 남강상류의 각 가야 지역정치체는 적대적인 관계보다는 소위 ‘연합’ 또는 ‘연맹’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남강상류는 본류와 지류로 이어지는 하천망을 이용하여 접근이 용이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가야의 정치경제시스템을 대변하는 ‘수지형 교역체계’(권학수 2003)를 통한 직·간접적 상호작용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차후 각 고분군에 대한 성격 규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히 되겠지만, 위에서

간략하게 검토한 고고학적 현상과 공간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남강상류권 단위공동체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모델을 상정해 보면, 〈그림 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물론, 각 지역정치체의 중층적 사회 구조 내에서 작용하는 정치권력에 의해 단위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은 통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이나 정보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러한 관계망은 남강상류에서 가야문화권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V. 맺음말

본 발표에서는 고분군이 ‘어디에’ 입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와 관련한 입지론과 분포론에 의거, 당시 고분군을 조영하였던 정치체의 공간 조직화 배경과 관계망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남강상류에서 역동적인 성장과 발전 과정을 거쳤던 대가야와 소가야 세력의 정치권력 확대전략과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남강상류권은 5세기중반~6세기초에 산청 생초고분군, 함양 백천리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월산리 고분군을 중심고분군으로 하는 대가야의 지역정치체와 산청 중촌리 고분군, 함천 삼가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소가야 세력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고분군을 조영한 지역정치체는 국지적 차원에서 경관의 의도적인 조직화를 통해 수장권력의 차별화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정치권력 확대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것은 지형입지분석과 가시권분석을 이용한 중심고분군-생활공간 간의 시인관계분석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각각의 중심고분군은 국지적 영역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공간에서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가시성 확보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생초·중촌리 고분군의 경우, 하천을 경계로 생활공간과 별도 분리되어 독립된 입지를 보였다. 이러한 입지적 특징은 고분군을 매개로 경관 자체를 정치권력화하여 권력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수장층의 경관 조성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남강상류의 중심고분군은 대부분 가시권을 공유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이것은 각 지역정치체가 독립된 영역을 차지하며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입지-배분모델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중심고분군은 주변고분군과 대체로 반경10km 내외 범위에서 상호작용하는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고분군의 분포밀도 분석결과와 함께 고려해 보면, 단위세력권 내에서는 최소한 4단계의 중층적 계층 구조를 지닌 취락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강상류에서는 산청 평촌리·옥산리 유적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가야·소가야양식 토기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남강상류 수계를 따라 인적·물적 자원의 흐름이나 정보의

교환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경 20km에 해당하는 1일 생활권을 기준으로 입지-배분모델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중심고분군이 상호작용 권역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남강상류는 소위 ‘수지형 교역체계’를 기반으로 가야의 각 지역정치체가 ‘연합’ 또는 ‘연맹’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동석, 2018, 「고김해만 일대 금관가야의 도시 경관」, 『토지 활용과 경관의 고고학』, 제4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 『산청 평촌리 유적Ⅱ』.
- 경상대학교박물관, 2013, 『산청 옥산리 유적 — 석곽묘』.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가야 자료 총서』.
- 곽장근, 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 권학수, 2003, 「가야의 사회발전 동인과 발전단계」,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 김규운, 2009, 「고고자료로 본 5~6세기 소가야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철, 2001, 「대가야고분의 편년 검토」, 『한국고고학보』 45, 한국고고학회.
- 김승신, 2016, 「대가야권 고분 출토 무장의 유형과 전개에 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일, 2017, 「경관고고학적 관점에서 본 대가야 고분군의 의미와 중요성」, 『가야고분군의 보존·관리·활용방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김지연, 2013, 「소가야양식 토기의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대제, 2018, 「삼한의 국읍을 통해 본 구야국」, 『김해 봉황동유적과 고대 동아시아 — 가야 왕성을 탐구하다』, 제24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박승규, 2000, 「고고학을 통해 본 소가야」,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 학술총서1, 한국고고학회.
- , 2010, 「가야토기 양식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천수, 1998, 「대가야권 분묘의 편년」, 『한국고고학보』 39, 한국고고학회.
- 윤정희, 1997, 「소가야토기의 성립과 전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창현, 2013, 「소가야연맹체의 고고학적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주, 2017, 「가야고분군 형성과정과 경관의 특징」,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적 가치 비교연구』, 경남발전연구원.
- 이희준, 2000, 「삼한 소국 형성 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 — 취락 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43, 한국고고학회.
- 전상학, 2006, 「전북 동부지역 수혈식 석곽묘의 구조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승철, 2001, 「가야서남부지역 출토 도질토기에 대한 일고찰」,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2010, 「5~6세기 고성지역 고분문화의 이해」, 『경남의 가야고분과 동아시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 2015,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Delgado-Espinoza, F., 2002, Intensive Agriculture and Political Economy in the aguachi Chiefdom of the lower Guayas Basin, Coastal Ecuador, University of Pittsburgh.
- Hare, T.S., 2001, Political Economy, Spatial Analysis, and Postclassic States in the Yauhtepec Valley, Mexic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남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입지와 분포패턴」 토론문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발표자는 최근 2편의 논고^[1]를 통해 유구·유물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GIS를 활용하여 입지·공간구조 분석을 거쳐 지리학적 이론 및 정치경제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경관고고학적 측면에서 가야유적의 입지·분포·공간조직에 관한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있다. 금번 발표문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시리즈 논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분석 대상지역인 남강 수계 중 특히, 상류역의 5세기 중반~6세기 초 고고학적 현상은 대가야의 세력권 확대와 소가야의 독자적 지배체제가 시기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고대 남강 상류역에 분포한 중심고분군과 하위고분군간의 상관관계를 지형입지분석과 가시권 분석을 적용, 지역 정치체의 중심고분군이 왜 그곳에 입지하였는가에 대해서 발표자는 「의도적인 경관의 조직화 과정」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정치권력 확대전략」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남강상류의 각 가야 지역정치체의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대가야·소가야 양식 토기의 공존 양상 등은 인적·물적 자원의 교환으로 보고,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회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발표자의 분석방법과 결론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토론자의 책무로서 조금은 지엽적일지라도 본문 중에 보완 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다.

1. III장 2절 ‘중심고분군의 입지적 특징’에서 남강 상류권 중심고분군으로 「산청 중촌리고분군, 합천 삼가고분군, 산청 생초고분군, 함양 백천리고분군,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 남원 월산리고분군」을 선정하였는데, 함양 백천리고분군의 경우는 봉토분 20여기와 소형석곽묘

【1】 강동석, 2018, 「고김해만 일대 금관가야의 도시 경관」, 『토지 활용과 경관의 고고학』, 제4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강동석, 2019, 「아라가야 ‘國’의 공간구조」, 『아라가야의 역사와 공간』,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아라가야 학술총서 1, 도서출판 선인.

수백기로 이루어진 고분군으로 봉분의 규모는 직경 15m 정도 급이며, 출토 유물과 봉토분 규모 등으로 볼 때 인근한 생초고분군의 하위 위계 집단으로 대가야와 관계있는 재지 유력자의 고분군으로 평가된다. 본문의 그림 6에 제시한 분포밀도 도면에서도 다른 중심고분군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생초고분군과는 거리상으로도(수계를 통한) 동일 생활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함양 백천리고분군을 중심고분군으로 선정한 근거에 대해 보완 설명을 듣고 싶다.

2. 발표자는 각 중심고분군의 묘역을 의미화 된 경관으로 보고, 이러한 경관을 통해 (수장층이) 정치권력을 확대·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하면서, 가시권분석을 통해 경관의 권력성을 검토하였다. 즉 지역정치체가 생활공간에서 상시적인 가시권이 확보되는 공간을 선택해서 정치권력의 기념물인 중심고분군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심고분군으로 선택된 입지는 물론이거니와, 정치권력의 가시화된 기념물인 봉토분의 규모와 분포밀도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함양 백천리고분군을 제외하면 중심고분군이 대체로 20~25m 급의 봉토분으로 조성되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시화된 기념물로 인지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바가 있는지? 혹시 봉토분 규모에 비례한 가시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산청 생초고분군과 중촌리고분군 축조집단의 경관조직의 모델링(그림 11)은 고고학적 자료를 패턴화 하여 당시 사회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런데,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중촌리고분군은 시종일관 소가야의 중심 집단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생초고분군의 경우는 평촌리·손곡리고분군 등 소가야관련 소형고분군만 일정기간 조영되다가 5세기 후반 대가야에 의해 대형 고총고분인 생초고분군이 조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고분군은 시간의 누적에 의해 축적되기 때문에 경관의 형성은 한순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고분군의 성장과정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는 생초와 중촌리고분군의 경우 동일한 경관조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발표자는 정치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유사성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사례가 있다면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3번째 질문에 덧붙여서, 남강상류역 중심고분군은 대가야와 소가야의 정치적 변화와 상호 세력권을 이해하는데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대가야와 소가야의 핵심유적인 지산동고분군과 송학동고분군의 경관조직에 대해서도 상호 비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추가 설명을 듣고 싶다.

5. 발표자는 이전 논문(2018)에서부터 하루 왕복 가능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 일일생활권으로 반경 20km를 상정하고 직접적 상호작용 네트워크 형성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체간의 평면적인 거리보다는 고대 교통로라든지 계곡, 하천, 구릉, 산맥과 같은 지형적 조건 등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생초-삼가고분군만 20km 범위

를 넘어서고 있어 이를 제외한 각 중심고분군 간에는 적대적인 관계보다는 ‘연합’ 또는 ‘연맹’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20km 내에 인접한 동시기 고분군은 모두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발표자의 분석을 뒷받침할 고고학적 현상 등이 있으면 추가 설명을 듣고 싶다.

6. 끝으로 분석 대상 100여 개소(그림 1에 마킹된 유적수) 고분군 중에서 실제 발굴조사된 고분군은 23개소에 불과하다. 지표조사된 고분군의 경우 시기와 고분군의 성격과 위계 등 분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자료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발굴조사된 동시기 생활취락유적까지 포함한다면 자료의 수는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발표문을 통해 볼 때, 앞으로 가야 유적을 고고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는데 상당히 유효한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고분군 등 동일 성격 유적만이 아닌 동시기 취락·관방·생산유적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GIS 분석방법이 있다면 소개 부탁한다.



【발표 5】

남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축조 세력

하승철(경남발전연구원)

I. 머리말

II. 남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분포

III. 남강 상류 토기양식과 묘제

IV. 남강 상류 가야 집단의 성격

V. 맺음말

I. 머리말

가야는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고령군, 호남 동부지역과 부산광역시 일부지역에 걸쳐 있었다. 가야의 주요 정치세력은 낙동강과 그 지류인 황강, 남강으로 연결된다. 남강은 경남 서부지역의 동맥으로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남덕유산(1,508m)에서 발원하여 함양분지의 안의면·수동면을 거쳐 산청군 생초면·단성면으로 이어지며, 진주시에서 방향을 바꿔 동쪽으로 흘러 함안군 대산면에서 낙동강에 합류한다. 남강의 총 길이는 189km이다. 남강 상류는 전라북도 남원 운봉고원과 함양군·산청군을 포함하는 범위이고, 남강 하류는 진주시·의령군·함안군이 포함된다. 경남 서부지역의 주요 가야유적은 대부분 남강수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간적 범위는 남강 상류 지역과 황강수계의 거창군을 포함한다. 황강 상류의 합천댐 수몰지구와 거창군, 남강 상류의 함양군, 산청생초면, 남원 운봉고원은 한 쪽으로 열린 공간이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공통의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가야 북부 산간지대에 고립된 이 지역들은 고령이나 합천 옥전 집단을 통해야만 낙동강 교역로로 나아갈 수 있었고, 운봉고원을 거쳐 섬진강 교역로를 이용하거나, 남강 하류의 집단을 통해 대외교역이 가능하였다. 독자적인 교역로를 확보할 수 없는 약점은 집단의 성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5세기 이후 대가야문화권에 포함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남강 상류 가야 집단에 대해서는 토기양식이나 묘제를 통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3~4세기 자료는 극히 부족하여 그 성격이나 문화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조사된 거창

송정리유적이나 함양 화산리유적을 보면 함안이나 김해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권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자세히 연구된 바는 없다. 반면 5~6세기는 토기양식^[1]과 묘제,^[2] 장신구^[3]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대가야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대가야문화의 확산과정이나 집단의 정치적인 변동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데, 남강 상류지역은 5세기 후반부터 대가야의 영역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거나,^[4] 묘제와 유물의 유형 분류를 통해 지배와 연맹 또는 연합 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5] 등이다. 필자 역시 5~6세기 남강 상류는 대가야문화권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남강 상류의 가야유적 조사현황을 살펴보고, 대가야양식 토기의 확산과정과 묘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묘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견해를 보충하여 대가야 유형 묘제를 재설정하였다. 대가야 고분문화의 확산과정은 고령과 재지 집단의 관계변화를 반영한다^[6]는 인식과 큰 차이는 없다. 남강 상류지역은 대가야 지배영역으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II. 남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분포

1. 거창군

거창군의 북쪽은 덕유산, 가야산 등 해발 1,000m이상의 산으로 차단되어 있고, 동쪽은 대가야의 중심지인 경북 고령군과 접하며, 남쪽은 합천군, 서쪽은 함양군과 접한다. 생활권은 거창분지와 가조분지로 나뉘어져 있다. 거창분지의 북부는 위천과 황강에 의해 형성된 넓은 충적지가 펼쳐져 있고, 남부는 완만한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다. 황강은 거창군 고재면 삼봉산(1,254m)에서 발원하여 거창분지를 관통하고 합천군을 가로질러 낙동강에 합류한다. 거창군의

【1】 이희준은 1995년 남강 상류 대가야토기의 확산과정을 발표하였고 2017년 이를 보완하여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글 전체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본 글에서는 2017년 단행본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희준, 1994, 「고령양식 토기 출토 고분의 편년」, 『영남고고학』 15, pp.89~113 ; 이희준, 1995, 「토기로 본 大伽耶의 圈域과 그 변천」, 『加耶史研究—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경상북도, pp.365~444 ; 이희준, 2017,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pp.101~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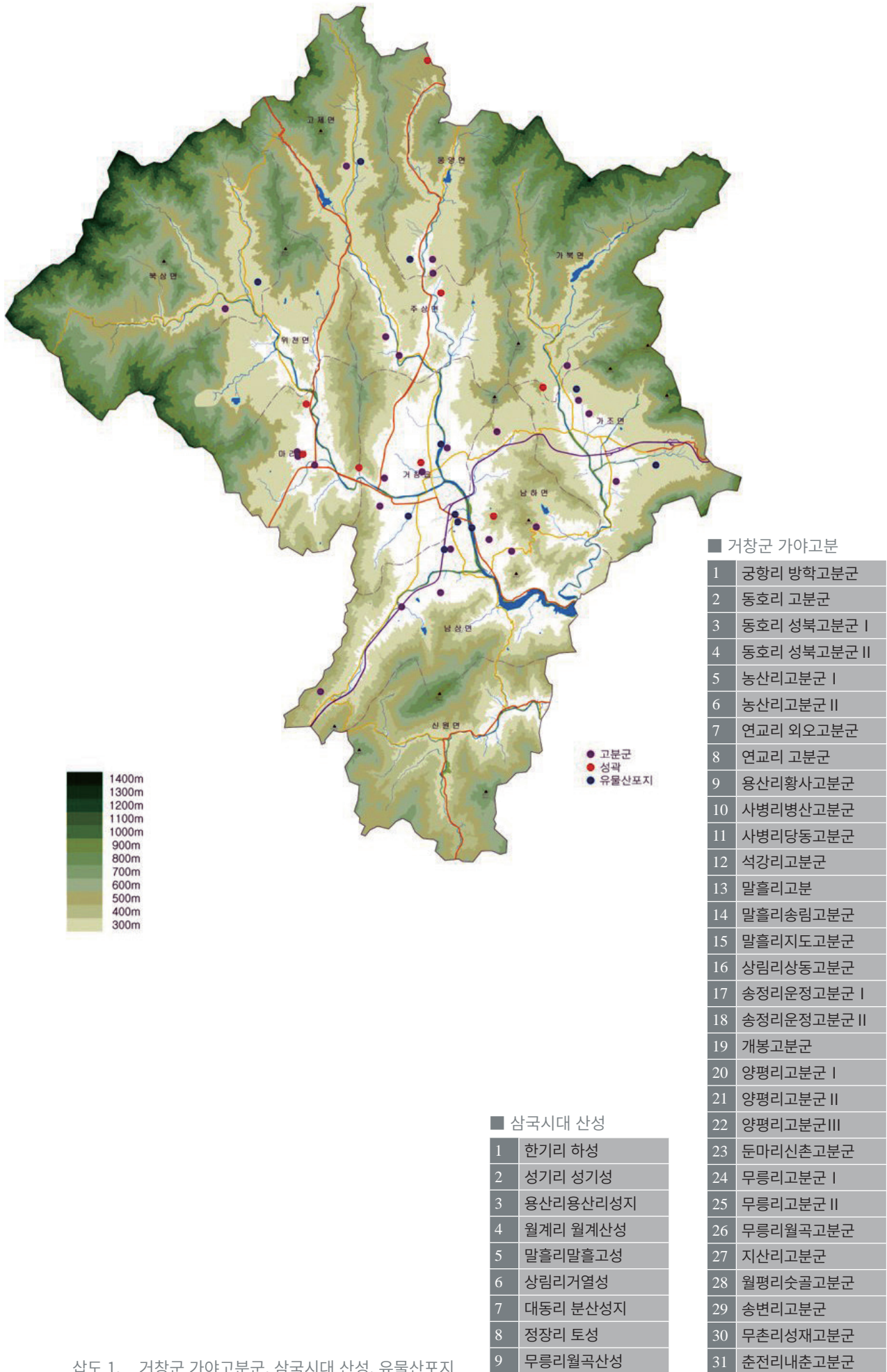
【2】 김세기, 1995, 「大伽耶 墓制의 變遷」, 『加耶史研究—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경상북도, pp.301~364.

【3】 이한상, 2004, 「대가야의 장신구」, 『大伽耶의 遺蹟과 遺物』, 대가야박물관, pp.251~271.

【4】 이희준, 앞의 책, pp.154~170.

【5】 조영제, 2007,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해안, pp.326~327.

【6】 이희준, 앞의 책, pp.53~67.



삽도 1. 거창군 가야고분군, 삼국시대 산성, 유물산포지

가야유적은 위천과 황강, 가조천 수계를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고분군은 28개소, 생활유적과 유물산포지 10여 곳이 확인되었다. 가야시기의 생활유적은 1986년 합천댐 수몰지구에서 조사된 대야리유적과 거창읍 양평리유적과 송정리유적, 가조면 동례리유적, 남하면 월곡유적과 지산리유적, 남상면 송변리유적 등이 있다. 이 중 2014~2015년 조사된 송정리유적은 위천 남안의 충적지에 형성되어 있고, 4~5세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266동, 고상건물지 48동, 수혈유구 475기 등이 조사되었다. 대가야문화권에 편입되기 이전의 거창지역 문화를 알려주는 유적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분군은 구릉지의 정선부와 사면에 주로 분포하는데 대표적인 고분은 거창읍 개봉고분군과 양평리고분군, 남상면 송변리고분군, 남하면 무릉리고분군, 마리면 말흘리고분군, 가조면 석강리고분군, 웅양면 동호리고분군이다. 이 중 거창분지는 무릉리고분군, 가조분지는 석강리고분군이 최고 지배층 묘역이다.

개봉동고분군은 거창분지 중심지로 뻗은 낮은 구릉지에 위치한다. 당초 직경 20m 정도의 고총 10여기가 분포하고 있어 거창군의 중심고분군일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2006년 조사결과 고총 1기는 능선의 돌출부를 오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주변에서 조사된 석곽묘 1기와 화장묘도 가야 이후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남아있는 고총 역시 성격이나 축조시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말흘리고분군은 위천의 상류에 위치한 고분군으로 1985년 진주박물관, 2010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해 고총 1기와 목곽묘 2기, 석곽묘 5기가 조사되었다. 목곽묘는 4세기, 석곽묘는 5세기에 해당하며, 출토된 토기는 지역색이 강한 토기와 대가야양식 토기가 혼재한다. 2010년 조사된 고총(4호분)은 주곽 1기와 소형석곽 2기로 이루어진 다곽식고분이다. 고총에서 등자·재갈 등 마구와 철촉·철모·철검·철부 등 무기가 다량 출토되었다. 대가야양식 토기가 확산되고 대가야 무기와 마구가 일괄로 부장되는 상황은 집단의 정치적 변동과 관련될 것으로 추측된다. 말흘리고분군은 마리면 일대를 관장하던 수장들의 무덤으로 판단한다.

무릉리고분군은 거창분지를 장악한 최고 지배층 묘역으로 능선을 따라 86기의 고총이 축조되어 있다. 고총 2기가 발굴조사 되었다. 고총은 다곽식구조로 세장방형 수혈식석곽이 축조되어 있고, 토기는 대가야양식이다. 무릉리 2호분에는 찰갑을 비롯하여 철제무기가 다량 출토되었다.

석강리고분군은 가조분지를 장악한 최고 지배층 묘역으로 능선을 따라 다수의 고총이 축조되어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고총의 입지와 형태는 무릉리고분군과 유사하며 지표에서 대가야양식 토기가 수습되고 있다.

발굴조사 현황을 보면 4세기부터 5세기 전반에는 합천댐 수몰지구나 남강 상류와 유사한 토기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5세기 후반부터 대가야토기문화권에 포함된다. 5세기부터 수장층 고분군이 조성되고 대가야 무기, 마구가 다량 부장되는 것은 고령집단과의 관계가 한층 진전된 결과로 보인다. 고령-거창-함양으로 이어지는 육상 교통로에 조성되어 있는 무릉리고분군의 입지도 고령집단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함양군

함양군은 남쪽으로 지리산, 북쪽과 서쪽은 남덕유산을 비롯하여 1,000m 이상의 고봉으로 둘러싸인 분지상의 지형이다. 하천은 북쪽의 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강과 서쪽 백운산에서 발원한 위천이 분지를 휘감아 돌아 수동면에서 합류하고, 남쪽 지리산에서 발원한 임천은 산청군 생초면에서 남강과 합류한다. 함양군의 동북쪽은 소하천과 곡간평야로 거창군과 연결되고, 남쪽은 남강을 따라 산청군 생초면으로 열려 있다. 함양군은 경상남도과 전라북도를 연결하는 내륙교통의 요충지로 가야는 함양과 남원을 통해 백제와 교섭하였다. 대가야가 일찍부터 이 지역으로 진출한 이유도 백제와의 교역, 섬진강 교역로의 확보에 있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함양군에서 가야시기 생활유적은 20여 곳 알려져 있으나 정식으로 조사된 유적은 함양읍 백천리유적과 이은리유적, 수동면 화산리유적과 우명리유적 4곳에 불과하다. 생활유적은 4~6세기에 해당하며 주거지의 형태는 타원형에서 방형주거지로 변하고 부뚜막과 고래시설이 확인된다. 함양읍 신관리유적에서 토기가마 4기, 안의면 신안리유적에서 토기가마 2기가 조사되었는데 대가야양식의 통형기대와 소가야양식 삼각투창고배, 발형기대가 출토되었다. 함양군은 거창지역보다 소가야토기의 출토 비율이 높다.

고분군은 함양읍 백천리고분군, 수동면 상백리고분군, 안의면 내동고분, 지곡면 공배리고분군, 유림면 손곡리고분군과 옥동고분군 등 10여 곳이 분포한다.

백천리고분군은 함양지역 최고 지배층의 묘역이며 고총 20여기와 소형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고총 5기와 소형분 21기를 조사하였고, 토기 200여점, 철기 190여점, 장신구 400여점, 마구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의 대부분은 대가야양식이다. 고총은 주곽과 1~2기의 석곽으로 구성된 다곽식구조이다. 2호분은 주곽과 유물부장곽이 나란히 축조되어 있다. 2-1호묘에서 축소모형 철검이 출토되었다. 1호분은 길이 740cm, 너비 120cm 규모의 세장방형 석곽이며 은장대도와 이식, 성시구, 마구가 부장되어 있다. 1-3호묘에서 출토된 이식은 금제 세환이식으로 球形 중간식에 긴 사슬로 수하식을



삽도 2. 상백리고분군 출토 판갑(부산북천박물관), 백천리고분군 출토 토기(대가야박물관)

■ 가야 고분 10

유적명	번호
하원리 내동 고분	②
상백리 고분군	⑧
상백리 고분군	⑥
공배리 고분군	⑬
백천리 고분군	⑭
옥매리 옥동고분	②⑥
손곡리고분군	③⑩
신안리유적	③
도천리유적	⑫
화산리유적	⑮

■ 유물산포지 20

유적명	번호
신안리 유물산포지	①
도림리 유물산포지-1	④
당본리 유물산포지-1	⑤
상백리 유물산포지	⑦
남효리 유물산포지	⑨
개평리 유물산포지	⑩
창평리 유물산포지	⑪
백천리 유물산포지-1	⑮
백천리 유물산포지-2	⑮
백천리 유물산포지-3	⑮
신관리 유물산포지-1	⑮
신관리 유물산포지-2	⑮
신관리 유물산포지-4	⑮
신관리 유물산포지-6	⑮
화산리 유물산포지-1	⑮
백연리 유물산포지-1	⑮
삼산리 유물산포지	⑮
국계리 유물산포지	⑮
서주리 유물산포지	⑮
손곡리 유물산포지	⑮



삽도 3. 함양군 가야고분군, 유물산포지

연결한 것으로 대가야계이다. 1호분·2호분·4호분의 축조시기는 지산동 44호분과 동일한 5세기 4/4분기이다.

상백리고분군은 상백리마을 앞 남계천 상류의 넓은 충적지에 구성되어 있다. 1972년 경지정리 도중에 고분이 발견되어 긴급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모두 8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대가야양식 토기와 등자·사행상철기·대도·철모·삼환령 등 특징적인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특히 횡장판정결판갑(橫長板釘結板甲)과 충각부주(衝角付冑)는 그 제작지가 일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곡리유적은 남강의 지류인 임천강 충적지에 형성되어 있다. 모두 3차례 조사되었는데, 1993년에는 석곽묘 4기, 2015~2016년에는 목곽묘 15기, 석곽묘 145기, 옹관묘 2기, 2017년에는 목곽묘 6기, 석곽묘 57기,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대부분 길이 4m 이하로 소형

이며 소가야양식 토기의 비율이 높다.

공배리고분군은 1997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석곽묘 15기와 횡구식석실묘 1기를 조사하였다. 석곽묘는 단곽식, 2~3기로 구성된 다곽식이 혼재한다. 석곽묘는 6세기에 해당하고 대가야양식 개배와 장경호, 철도자·철촉·철검 등이 출토되었다.

함양지역 가야고분은 남강수계와 임천강 수계의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 남강수계에 위치한 백천리고분군과 상백리고분군에는 대가야 유물이 대부분인 반면, 임천강 수계의 손곡리고분군에는 소가야토기가 다수이다.

3. 남원 운봉고원

소백산맥 서쪽에 위치한 남원·임실·순창군 지역과 금강 상류인 무주·진안·장수군에 가야계 고분이 분포한다는 주장^[7]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나 발굴조사의 부족으로 현재로선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다. 금강수계는 백제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북서부의 금산·진안군과 가야문화권에 포함된 동부의 장수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8] 장수군의 최고 지배층 묘역은 120여 기의 고총이 밀집분포하고 있는 삼봉리·월강리·호덕리·장계리 고분군과 83기의 고총이 확인된 동촌리고분군이다.

남원 운봉고원은 가야와 백제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이다. 최고 지배층 묘역은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월산리고분군이며, 하위 집단의 묘역은 건리·임리·행정리·봉대고분군이다.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운봉고원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직경 20m 내외의 고총을 포함하여 40여기가 분포한다. 1999년 4기의 석곽묘(1, 3~5호분)와 1기의 횡혈식석실묘(2호분)를 발굴조사하였고, 2013년에 32호분을 발굴하였다. 두락리 1호분은 직경 20.5m의 고총으로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이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860cm, 너비 130cm로 세장방형이며, 깊이는 180cm로 깊다. 대가야양식 토기와 마구가 출토되었다. 횡혈식석실묘인 2호분은 궁륭식 천장이며, 바닥에는 판상석을 깔아 관대시설을 마련하였고 벽면과 관대에는 灰를 두텁게 발랐다. 연도는 좌편수식이며 1매의 문비석이 남아 있었다. 신라양식 단각고배 뚜껑이 출토되었다. 두락리 3호분은 봉분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510cm, 너비 100cm로 세장방형이며, 깊이는 157cm이다. 유물은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었고 시루를 부장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토기의 형식으로 보면 두락리 1호분→두락리 3호분→두락리 2호분 순서로 축조되었다. 월산리고분군 출토품과 비교하면 두락리 1호분은 6세기 2/4분기에 해

【7】 곽장근, 1990, 「全北地方의 伽倻墓制에 對한 一考察 — 5,6세기 古墳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pp.1~2.

【8】 곽장근, 2004, 「湖南 東部地域 加耶勢力과 그 成長背景」, 『호남고고학보』 20, 호남고고학회, p.92.

당하고, 석실분인 두락리 2호분은 출토된 신라토기로 보아 대가야 멸망후인 6세기 3/4분기에 해당한다.

월산리고분군은 9기의 고총과 소형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982년에 M1호분~M3호분, 2010년에는 M4호분~M6호분을 조사하였다. M1호분의 매장주체부는 지하식 수혈식석곽묘인 반면 M4호분~M6호분은 지상식이다. 월산리고분군은 매장주체부 축조와 동시에 봉분 성토가 이루어지며 단곽식에서 다곽식으로 변화한다. 주곽은 길이 8m 이상으로 길고 세장하며 깊이도 180cm 정도로 깊다. M1-A호분에는 재지양식의 장경호와 발형기대가 부장되었고, 축소모형철기가 부장되었다. 인근의 광평유적은 월산리고분군에 포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목곽묘 2기와 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고 소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었다. 월산리 M1-A호분·M5호분·M4호분은 5세기 4/4분기, 월산리 M6호분은 6세기 1/4분기에 해당한다. 토기는 재지양식에서 대가야양식으로 변화한다.

봉대고분군은 소형분으로 구성된 하위 집단의 묘역으로 8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이 중 1호분·2호분과 7호분·8호분은 다곽분이다. 장신구, 철기의 부장이 극히 빈약하며 토기는 대가야계, 신라계, 소가야계가 혼재한다.

행정리고분군도 소형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광묘 1기, 삼국시대 석실묘 1기(4호분)와 석곽묘 9기, 소형 석관계 석곽묘 3기가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대부분 다곽분이다.

건지리고분군은 1998년 가지구에서 17기, 나지구에서 5기, 다지구에서 17기 등 40여 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길이 4m 이하의 소형분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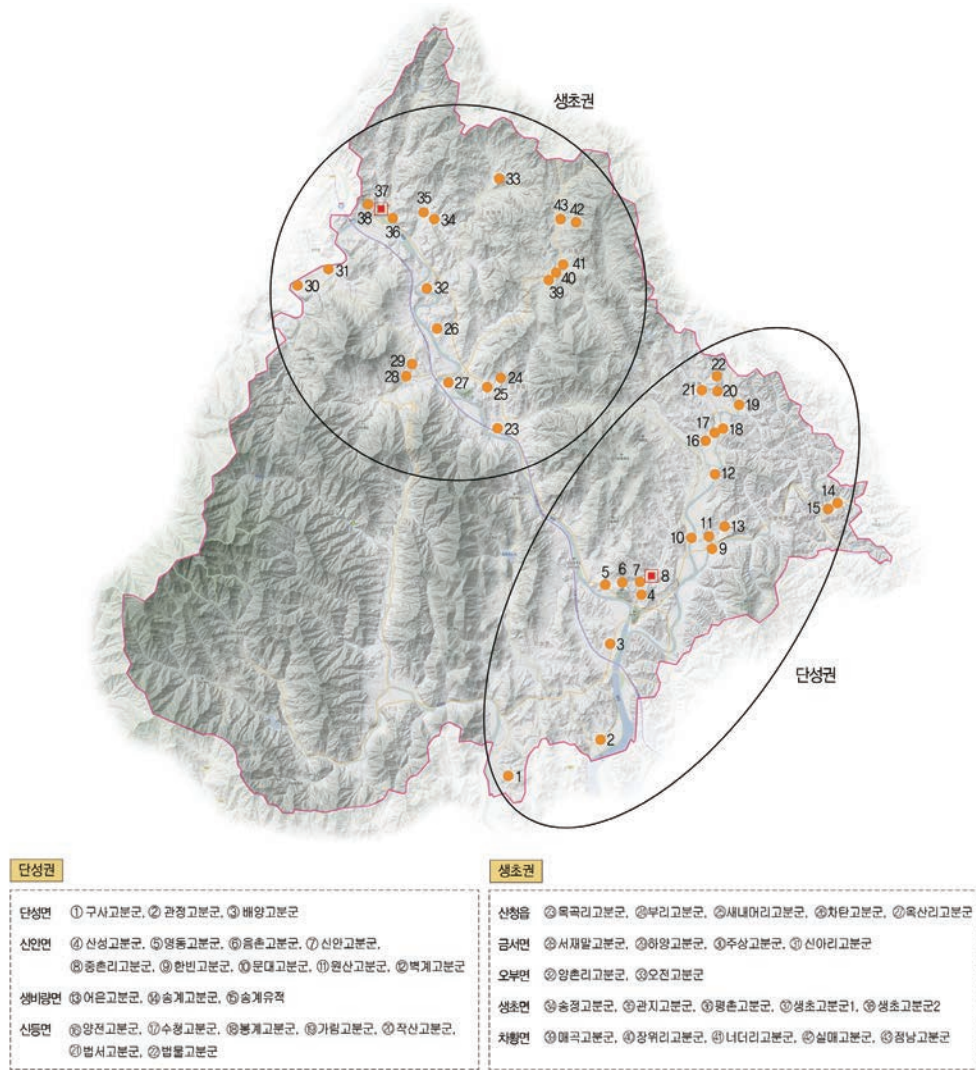
사석리고분군은 10기의 봉토분이 분포한다. 2012년 조사된 3호분은 횡혈식석실분이다. 현실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규모는 길이 320cm, 너비 118cm, 높이 130cm이다. 석실내부에 단경호와 주조철부가 부장되었고 주구에서 배 3점이 출토되었다. 모두 백제계 토기이다.

4. 산청군

산청군의 서부와 동부는 높은 산지로 이어져 있고, 남강은 군의 중앙을 남북으로 흐른다. 남강은 산청군의 최남단에 위치한 단성면에서 양천강과 합류한다. 양천강은 가야 내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주요한 하천 중 하나인데 산청군 단성면과 신안면, 생비량면을 거쳐 합천군 삼가면으로 이어진다. 소가야의 지배층 묘역인 단성면 중촌리고분군과 합천 삼가고분군은 양천강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산청의 가야유적은 남강과 양천강 유역에 집중하는데 삼국시대 고분군은 40여 곳이다. 이중 발굴된 유적은 중촌리고분군, 명동고분군, 옥산리고분군, 생초고분군, 목곡리유적, 평촌유적이다. 산청지역 고분군은 단성권과 생초권으로 구분된다.

생초면은 함양군 수동면에서 흘러온 남강과 유림면에서 흘러온 임천강이 합수되는 지점으로 넓은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최상위 지배층 묘역인 생초고분군은 남강을 내려다보는 구릉지에 입지하는데, 20여기의 고총이 분포하고 사면부에 소형분이 밀집한다. 2002년에는



삽도 4. 산청군 가야고분군 분포도

사면부에 조성된 고분 80기가 조사되었고, 2004년에는 정상부에 있는 고총 2기가 조사되었다. 최상위 수장묘로 평가되는 M13호분은 직경 23m, 높이 3.2m 규모이며 주곽과 부곽이 나란히 축조되어 있었다. 주곽은 길이 680cm, 부곽은 길이 450cm이다. 내부에서 단봉환두대도, 은장식이 베풀어진 공부팔각형철모와 물미, 금동으로 장식된 재갈, 검릉형행엽, 청동제 말방울 등이 출토되었다.

생초면 일대에는 생초고분군을 중심으로 하위 집단의 묘역인 평촌고분군, 관지고분군, 송정고분군 등이 밀집분포하고 있다. 평촌리고분군은 경호강의 범람퇴적에 의해 형성된 하중도에 조성되어 있는데, 목곽묘 7기, 석곽묘 170여기, 횡구식석실묘 5기, 옹관묘 12기가 조사되었다. 목곽묘 출토 토기는 소가야양식이지만 석곽묘 출토 토기는 대부분 대가야양식에 속한다.

산청읍에 위치한 옥산리고분군은 1996~1997년 조사되었는데 목곽묘와 석곽묘 227기가 조사되었다. 대부분 길이 4m 이하의 소형이고 직경 10m 내외의 봉토분도 3기 조사되었다. 대가야양식 토기와 소가야양식 토기가 혼재하고 있어 양 세력의 경계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성면 일대는 남강, 양천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수장층 묘역인 중촌리고분군을 중심으로 명동고분군, 음촌고분군, 신등면의 양전고분군, 수청고분군 등이 분포한다. 중촌리고분군은 10여기의 고총과 200여기의 소형분이 남아있다. 중촌리고분군은 3차례 발굴조사 되었는데, 1982년 에는 석실분 3기와 석곽 5기, 목곽 3기가 조사되었다. 이때 조사된 3호 목곽묘에서는 금동장식 마구, 봉황 장식대도 등이 출토되었다. 21호분과 50호분은 세장방형 석곽묘이고 소가야양식 토기가 부장되었다. 1호분과 3호분은 6세기 중엽에 축조된 횡혈식석실분으로 연도는 양수식이며 장방형 현실과 평천장구조를 갖추고 있다.

명동고분군은 남강변의 낮은 구릉지에 구성되어 있다. 2002년, 2007년 2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소형 봉토분 157기를 조사하였다. 고분군은 등고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조영되었는데 1~3기의 석곽묘로 구성된 다곽식고분이다. 소량의 철기와 소가야양식 토기를 부장하였다.

단성권과 생초권의 토기양식은 차이가 확연하다. 단성권은 소가야양식 토기 일색이지만, 생초권은 5세기 후반부터 대가야양식 토기로 바뀐다.

III. 남강 상류 토기양식과 묘제

1. 토기양식

1) 3~4세기 토기양식

남강 상류는 3~4세기에 지역색이 강한 토기문화가 생성되었고, 5세기에는 재지계토기와 소가야양식 토기, 대가야양식 토기가 혼재하며 5세기 후반부터 대가야양식 토기 일색으로 바뀐다.^[9] 소가야양식 토기는 함양군과 운봉고원에서 출토되는데 남강 상류지역과 남강 하류의 소가야세력이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뒷받침된다. 그러나 대가야권역으로 바뀌는 5세기 후반부터 소가야양식 토기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남강 상류지역 3~4세기 토기문화에 대해서는 정효은^[10]의 연구가 있다. 대부분 생활유적에서 출토되어 고분 출토품과 차이가 있으나 특징을 간략히 언급해둔다. 토기는 기벽이 두텁고 정지상태에서 깎거나 물손질로 성형하며 고속회전에 의한 기벽 조정은 구경부에 국한된다. 낮은 온도에서 소성되어 기벽이 무르다. 적갈색 연질의 발·시루·옹·단경호가 다량 출토된다. 완형무투창고배의 출토 비율이 높고, 4세기 후반부터 장각의 투공고배가 등장한다. 기대는 많지 않지만 발부가 깊은 노형기대나 대각이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형태가 제작된다. 평저

[9] 박승규, 2003, 「大加耶土器의 擴散과 관계망」, 『한국고고학보』 49, pp.84~85.

[10] 정효은, 2016, 「경남 서부지역 삼국시대 생활용 토기의 변천과 의미」, 『영남고고학』 75집.

에 황침선을 돌린 승석문타날단경호나 격자타날단경호가 제작된다. 시루는 평저에 다수의 원형 증기공을 뚫었고 뭉뚝한 우각형파수가 부착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각이 부착된 단경호나 장동옹도 주요한 기종으로 제작된다. 남강을 따라 유사한 토기문화권이 형성되는데 대표적인 유적은 거창 송정리유적, 함양 화산리유적, 산청 소남리유적, 진주 내촌리유적, 진주 평거동유적, 사천 봉계리유적이다.

2) 대가야양식 토기의 확산

5세기 초에 고령에서 성립한 대가야양식 토기는 황강과 남강 상류지역으로 급속히 확산한다.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된 거창 무릉리 2호분과 합천 반계제 가A·가B호분, 함양 백천리 1~3호분, 남원 월산리 M1호분·M3~M5호분은 연구자에 따라 25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5세기 3/4분기에서 4/4분기로 편년된다.^[11] 남강 상류지역 토기는 5세기 전반에는 재지토기와 대가야양식 토기가 혼재하지만 5세기 후반부터 대가야양식 토기 일색으로 변한다.

이희준^[12]은 대가야양식 토기는 5세기 1/4분기에 성립하여 5세기 2/4분기에 남원의 운봉고원까지 확산하며 이는 고령 집단의 지배영역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5세기 2/4분기에 대가야양식 토기는 거창군, 함양군, 산청 생초, 운봉고원까지 분포하며 대가야양식과 재지계토기가 복합된다. 5세기 3/4분기는 거창까지, 5세기 4/4분기는 운봉고원까지 대가야양식 토기 일색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대가야양식 토기의 확산 배경은 고령을 중심으로 황강과 남강 상류 일대가 대가야연맹체를 이룬 것과 관련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때 고령은 연맹의 맹주국이며 각 구성국은 독립성은 유지하되 어느 정도의 상하관계 속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연맹관계는 간접지배 형태로 변하는데 5세기 3/4분기는 합천댐 수물지구와 거창군, 5세기 4/4분기는 함양, 운봉고원까지 간접지배 하에 된다. 그는 재지토기와 대가야양식 토기가 혼재하면 연맹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고, 대가야양식 일색으로 바뀌는 시점은 간접지배로 전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대가야양식 일색이고 고층이 소멸되는 지역은 고령에 의한 직접지배 권역으로 설정하였다.^[13] 박천수^[14]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확산의 범위는 훨씬 넓게 보고 있다. 즉, 대가야양식 토기는 5세기 중엽에 이미 남강 상류지역을 넘어 호남 동부지역까지 파급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대가야는 운봉고원을 중시하여 월산리M1호분 시기에 소가야를 대신하여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토기편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이희준과 박천수의 견해에 대부분 동의한다. 단, 연맹관계나 간접지배, 직접지배의 증거가 불명확하게 제시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

[11] 박천수, 2018, 『가야문명사』, 진인진, pp.79~90.

[12] 이희준, 앞의 논문, pp.365~444.

[13] 이희준, 앞의 책, pp.161~162.

[14] 박천수, 2016, 「가야사 연구 서설 — 소국에서 영역국가로」, 『가야고고학개론』, pp.43~56.

나 이는 고고학 자료의 한계에 기인하므로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한 가지 부연하자면 섬진강유역이나 여수·순천·광양에서 출토되는 대가야양식 토기를 남강 상류지역과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하여 대가야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남강 상류지역은 오랫동안 형성된 지리, 문화적 관계를 통해 단기간에 지배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전남 동부지역은 제반 여건에서 차이가 있다. 남강 상류지역은 고령을 중심으로 수장층이 결집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확인된다. 고층이 축조되고 위계화된 고분군이 조성되며 대가야양식 토기는 물론 무기와 마구의 부장이 증가한다. 이런 변화는 중하위층 고분군으로 확산되는데 5세기 말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한다. 전남 동부지역도 수장층 고분을 중심으로 대가야양식 토기가 확산되고 대가야 무기, 마구, 이식 등이 부장된다. 하동 흥룡리고분군, 순천 운평리고분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섬진강유역의 거점 수장층과의 관계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방식은 남강 상류지역과 동일하다. 그러나 대가야와 섬진강유역 수장층의 관계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한정된다. 대가야문화가 섬진강유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도 주어지지 않았고, 고령과 섬진강유역 수장층의 정치적인 관계변화가 더욱 진전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 시기 고령과 섬진강유역 수장층의 관계는 연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2. 묘제

대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이른바 ‘대가야식 묘제’^[15]도 대가야의 영역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대가야식 묘제는 피장자를 매장한 主室을 설치하고, 주실 옆에 副槨이나 殉葬槨을 설치한 다음, 묘역을 둘러싸는 호석을 쌓았으며, 석곽은 길이 대 너비의 비율이 5:1 이상인 점이 특징이라 정의되었다. 이를 근거로 대가야식 묘제가 확인된 거창, 함양, 산청, 운봉고원을 대가야의 영역으로 파악하였다. 묘제 연구의 초창기와 달리 수많은 가야고분이 조사된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상기의 정의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길이 대 너비의 비율이 5:1 이상인 세장방형석곽묘는 대가야를 비롯하여 소가야, 아라가야 수장층 고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므로 대가야 묘제만의 특징으로 보긴 힘들다. 그렇지만 주곽과 나란히 부곽 또는 순장곽을 축조하는 방식은 대가야 고분의 특징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단, 다곽식고분을 세분화하고 유형화하여 대가야 묘제의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곽과 다수의 석곽이 함께 축조되는 다곽식고분은 가야, 신라 고분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가야 묘제는 지산동고분군에서 축조되는 방식과 주변으로 확산된 방식이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 고령과 황강·남강 상류지역 가야고분의 묘제에 대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5】 김세기, 앞의 책, pp.315~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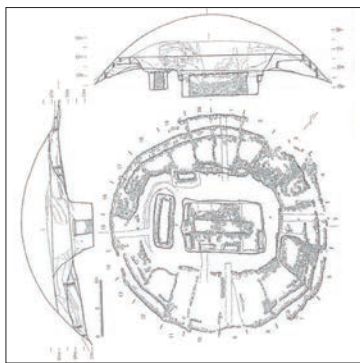
1) 고령 지산동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대가야 묘제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1유형은 주곽을 중심으로 소형 석곽이 ‘T’자 또는 ‘ㄷ’자 형태로 배치된다. 지산동 30호분이 대표적인 형식이다. 2유형은 주곽과 나란히 소형 석곽이 배치되는데, 소형 석곽은 부곽 또는 순장곽이다. 지산동 32호분이 대표적인 형식이다. 확산형은 배장곽이 축조되기도 한다. 3유형은 봉분 가장자리에 다수의 소형 석곽을 배치하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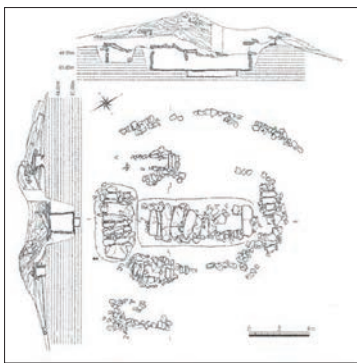
1유형은 지산동고분군에 수혈식석곽묘가 도입되는 73호분부터 나타나며, 75호분, 30호분, 44호분으로 이어진다. 주·부곽식 목곽묘 축조전통이 수혈식석곽묘 축조 단계까지 이어지고 다곽식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목곽묘 축조 단계에 발생한 부곽이 5세기 말에 축조된 지산동 44호분까지 이어지고, 주곽 주위에 축조되었던 순장곽이 별도의 순장석곽으로 발전한 형식이다.

남강 상류지역이나 소가야에도 다곽식고분이 축조되지만 1유형의 배치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1유형은 지산동고분군의 왕릉에만 적용된 축조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2유형은 지산동고분군에서 성립하여 황강과 남강 상류지역에 확산된 형식이다. 고령에서 주곽과 부곽이 나란히 배치된 2유형은 지산동 32호분과 본관동 36호분이다. 대가야 고분은 다른 가야고분에 비해 부곽과 배장곽, 순장곽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지산동고분군에서는 73호분, 75호분, 518호분의 발굴조사를 통해 부곽과 배장곽, 순장곽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이견이 있던 지산동 44호분과 45호분의 순장곽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산동고분군에서 부곽과 배장곽, 순장곽의 구분은 73·75호분부터 적용되었고, 30호분·44호분·45호분·518호분으로 이어진다. 남강 상류지역의 고분은 대부분 과거에 발굴조사 되어 축조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부곽과 배장곽, 순장곽의 구분도 확실치 않다. 단, 고분의 축조 층위나 바닥면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부곽이나 순장곽으로 구분할 수 있어 지산동고분군과 유사한 점이 많다. 산청·진주·고성 등 소가야 고분에는 부곽이나 순장곽은 확인되지 않고 1~3기의 배장곽이 축조되어 있어 대가야 묘제와 차이



고령 지산동 73호분



고령 지산동 30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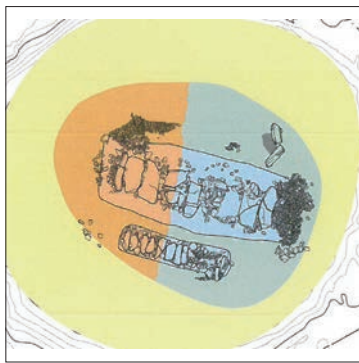


고령 지산동 44호분

삽도 6. 대가야 묘제 1유형



고령 지산동 32호분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



산청 생초 M13호분

삽도 7. 대가야 묘제 2유형

가 있다. 따라서 주곽과 함께 부곽 또는 순장곽이 축조되는 묘제는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영향을 받은 대가야 묘제로 분류할 수 있다. 2유형의 묘제는 지산동 32호분이 축조되는 5세기 중엽부터 정형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주곽과 부장곽이 나란히 축조된 산청 생초 M13호분과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이 주목된다. 생초 M13호분과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은 주곽과 부장석곽이 병렬 배치된 것으로 대가야의 영향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6] 석곽구조가 지산동에서 정형화되어 남강 상류지역에 확산되었다면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남강 상류지역은 지산동 32호분이 축조되는 5세기 중엽부터 이미 고령의 지방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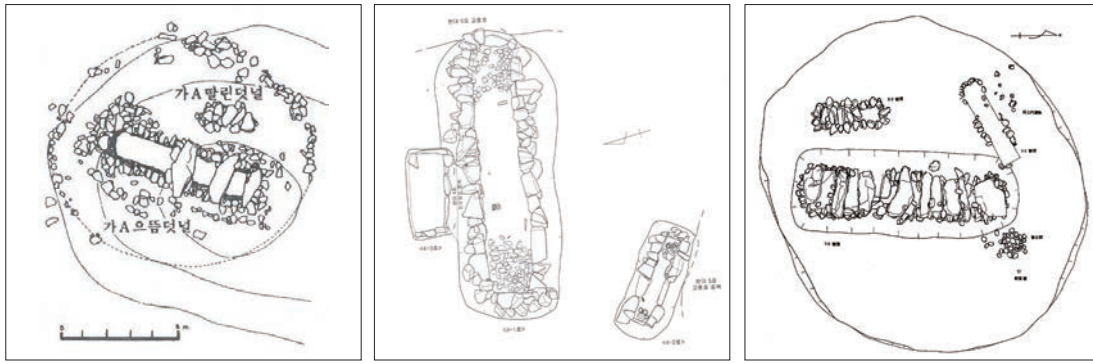
3유형은 부곽과 순장곽의 배치가 가장 발달된 형식으로 대가야 왕릉의 특별한 유형이 될 수 있다. 지산동 44호분, 45호분, 518호분이 해당한다. 성토된 분구에 다수의 배장곽을 축조하는 소가야 왕릉이나 세장방형석곽 1기만을 축조하는 아라가야 왕릉과 비교된다.

2) 대가야 묘제의 확산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묘제는 3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3유형은 지산동고분군에서 축조되는 형식이고 2유형은 지산동에서 성립하여 주변으로 확산된 형식이다. 2유형의 확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합천댐 수몰지구는 좁은 곡간 평야가 발달해 있고 소규모의 고분군이 밀집한다. 수장층 고분은 반계제 가A·가B호분과 다A·다B호분, 봉계리 대형분이 있다. 고분의 규모는 직경 15m 내외이다. 반계제 가A호분과 다A·다B호분, 봉계리 대형분은 주곽과 순장곽 1기를 나란히 축조한 2유형이고, 가B호분은 단독곽이다. 주곽과 소형의 순장곽이 나란히 배치된 반계제 가A

[16] 전북대학교박물관, 2015, 『南原 西谷里 및 斗洛里 32號墳』.



합천 반계제 가A호분

거창 말흘리 4호분

함양 백천리 1호분

삽도 8. 황강, 남강 상류지역 대가야 묘제 2유형

호분은 고령 지산동 32호분과 동일하다.

거창군의 가야 묘제는 발굴조사가 부족하여 전모를 알기 어렵지만 고총은 대부분 다곽식으로 추정된다. 무릉리 2호분은 두기의 석곽이 약간 이격되었으나 다곽식고분이며 배치방식은 고령 본관동 36호분과 유사하다. 말흘리 4호분은 중앙에 세장방형 석곽을 축조하고 측벽에 붙여 소형 석곽을 축조하였다. 주곽과 소형석곽의 배치는 2유형으로 분류된다. 배장곽이 추가되는 것은 함양 백천리 1호분과 유사하다.

함양 백천리고분군은 고총 20여기와 소형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5호분은 주곽과 부곽을 나란히 축조하였고, 1호분은 주곽과 소형 석곽 2기를 축조하였다. 주곽과 소형 석곽을 먼저 축조하고 추가로 배장곽을 축조하였다. 주곽과 소형 석곽은 전형적인 2유형의 모습으로 지산동 32호분과 동일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청 생초 M13호분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도 주곽과 부장석곽이 병렬 배치된 것으로 대가야의 영향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 생초 M13호분의 부곽은 지산동 32호분과 달리 규모가 크다. 이는 M13호분 피장자의 위상이 반영되어 변형된 결과이다.

2유형 대가야 묘제는 5세기 중엽에 합천댐 수몰지구와 거창군에 확산되었고, 5세기 후엽에는 함양군과 산청 생초면, 운봉고원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축조된다.

IV. 남강 상류 가야 집단의 성격

5세기 가야는 지리, 문화적으로 연결된 수계를 중심으로 다수의 정치세력이 결집하면서 보다 강력한 세력권을 형성하였다. 고령과 황강, 남강 상류지역이 결집하면서 대가야 권역을 형성하였고, 남강 하류지역과 남해안이 결집하면서 소가야 권역을 형성하였다. 아라가야는 함안을 중심으로 동심원상의 세력범위를 형성하였다. 이에 반해 낙동강 동안 지역은 정치세력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존속하였는데 이는 신라의 영향력이 작용한 때문으로 짐작된다.

남강 상류는 해양으로 향한 진출로가 막혀있어 낙동강 교역로를 확보하고 있는 고령 집단과의 결합을 통해 집단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정치세력의 결집은 철, 소금 등 전략물자의 독점과 교역체계가 일원화되는 결과를 낳았고, 집단끼리 또는 집단 내부의 위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남강 상류의 정치세력은 급속히 고령 대가야 영역으로 편입되어 갔다. 집단의 정치적 변동은 토기양식과 위세품, 묘제, 매장습속의 공유를 통해 표출된다. 5세기 초에 성립한 대가야양식 토기가 남강 상류지역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재지의 토기문화를 소멸시키는 현상은 상호 느슨한 관계의 연맹구조에서 일어나기 힘든 현상이다. 또한 정형화된 2유형의 대가야식 묘제가 5세기 후엽에 남강 상류지역 수장층 묘제로 채택되는 것은 정치적 상하관계를 상징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들다. 고령 지산동 73호분과 44호분, 합천 반계제 가A호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에서 확인된 馬齒, 馬頭는 대가야권 전체에서 공유된 매장습속의 하나로 파악된다. 축소모형철기도 대가야권역 매장습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 일찍부터 지적되어^[16] 왔다. 고령 쾌빈동 1호 목곽묘에서 따비형, 철서형, 철부형, 닳형 등 16점의 축소모형철기가 출토된 사례가 있고, 지산동 35호분, 합천 반계제 다A호분, 함양 백천리 2호분, 남원 월산리 M1호분과 두락리 32호분의 사례를 보듯 고령을 중심으로 남강 상류지역에 의미있는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다. 임실 금성리와 순천 운평리 M3호분·M5호분에서 출토된 축소모형철기도 대가야와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부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의 정치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수장층이 공유한 복식체계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17] 복식체계를 구성한 요소로 관·이식·대금구·장식대도를 들 수 있다. 지산동고분군 출토 복식품과 공통 양식을 띠는 것은 남강 상류지역에 다량 출토되며, 호남 동부지역의 장수, 곡성, 순천에도 이식 등 일부 품목이 출토된다. 6세기에는 진주, 고성 등 소가야지역과 함안의 아라가야, 창원 등지에도 대가야 복식품이 출토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남강 상류지역 대가야 복식품을 보면 합천 반계제고분군 출토 이식과 대도, 함양 백천리고분군 출토 이식과 대도, 남원 월산리고분군과 유곡리·두락리고분군에서 이식과 대도가 출토되었다. 수장층 고분에 공통으로 부장되는 대가야 복식품은 대가야에서 사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산청 생초 M13호분 출토 장식대도도 대가야에서 사여된 것으로 상하 지배관계를 상징하는 유물로 판단된다.

【16】 김재홍, 2018, 「가야 생업」, 『가야고분군Ⅱ』,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3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pp.285~291.

【17】 이한상, 2015, 「지산동고분군의 복식품」,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대가야박물관, pp.347~365.

황강과 남강 상류지역은 대가야양식 토기 일색으로 변하였고, 대가야 유형 묘제가 축조되며, 대가야 복식품이 사여되고 매장습속이 공유된다. 따라서 이 지역은 대가야의 영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배관계는 지산동 30호분·32호분이 축조되는 5세기 중엽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순천 운평리고분군과 같이 대가야양식 토기 일색이 되고 대가야 묘제, 대가야 이식 등 간단한 복식품이 부장되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는 경우는 대가야 영역으로 치환하기 힘들다. 이러한 경우는 수장층의 교섭이 진전된 연맹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V. 맺음말

가야는 낙동강과 그 지류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교통로의 결절지에는 일찍부터 유력한 세력이 성장하였다. 남강 상류는 함양군과 산청, 운봉고원이 포함된다. 거창군은 황강 상류에 해당하지만 함양군과 소하천, 곡간평야로 연결되어 있어 공통의 지리, 문화적 범위를 형성하였다. 황강과 남강 상류에 위치한 각각의 분지는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낙동강유역의 가야세력과 백제를 이어주었다. 고령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중시하여 남강 상류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대가야의 세력확장 과정은 토기양식, 묘제, 위세품, 매장습속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가야양식 토기는 5세기 초에 성립하고, 5세기 중엽에는 합천댐 수몰지구와 거창군에 확산되며, 5세기 3/4분기에는 운봉고원을 포함한 남강 상류지역 전체에 분포권을 형성한다. 5세기 전반에는 재지토기와 혼재하지만 곧이어 대가야양식 토기 일색으로 바뀐다. 대가야식 묘제는 3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3유형은 지산동고분군의 왕릉에 축조되는 형식이고, 2유형은 주변으로 확산되는 형식이다. 2유형은 5세기 중엽에 남강 상류지역 전체에 확산되고 정형화된다. 대가야 복식품과 매장습속도 5세기 후반에는 남강 상류지역에 정형화된 분포권을 형성한다. 남강 상류에 전개된 대가야 고분문화의 확산은 독자성을 지닌 정치세력 관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고령을 중심으로 각지의 정치세력이 결집해가는 과정은 대가야 영역의 확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 곽장근, 1990, 「全北地方의 伽倻墓制에 對한 一考察 — 5, 6세기 古墳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 , 2004, 「湖南 東部地域 加耶勢力과 그 成長背景」, 『호남고고학보』 20, 호남고고학회.
- 김세기, 1995, 「大伽耶 墓制의 變遷」, 『加耶史研究 —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경상북도.
- 김재홍, 2018, 「가야 생업」, 『가야고분군Ⅱ』,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3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박승규, 2003, 「大加耶土器의 擴散과 관계망」, 『한국고고학보』 49.
- 박천수, 2016, 「가야사 연구 서설 — 소국에서 영역국가로」, 『가야고고학개론』.
- , 2018, 『가야문명사』, 진인진, pp.79~90.
- 이한상, 2015, 「지산동고분군의 복식품」,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대가야박물관.
- 이희준, 1994, 「고령양식 토기 출토 고분의 편년」, 『영남고고학』 15.
- , 1995, 「토기로 본 大伽耶의 圈域과 그 변천」, 『加耶史研究 —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경상북도.
- , 2017,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 전북대학교박물관, 2015, 『南原 西谷里 및 斗洛里 32號墳』.
- 정효은, 2016, 「경남 서부지역 삼국시대 생활용 토기의 변천과 의미」, 『영남고고학』 75집.
- 조영제, 2007,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혜안.

「남강 상류 가야 고분군의 축조 세력」 토론문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

발표문은 지금의 함양, 산청과 남원 운봉고원이 위치한 남강상류와 황강 상류인 거창과 합천댐 수몰지구 내의 고분 축조세력에 대해 검토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발표자께서 대상으로 삼은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가야양식 토기의 확산, 대가야 묘제의 분포를 통해 대가야연맹 또는 대가야의 영역화 과정이라는 관점에 집중되어 왔다. 연구자에 따라 시기 차이는 있으나 5세기 후반, 말에는 합천댐수몰지구—거창군—함양군—산청 생초면—남원 운봉고원이 대가야영역에 속하거나 연맹체를 형성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중 합천댐수몰지구-거창군-함양군-산청 생초면 일대가 단계적으로 대가야영역에 편입된다는 견해는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다. 단 남원 운봉고원 정치체의 성격은 독립적인 정치체로 보는 견해와 대가야영역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발표자는 5세기 후엽에 남원 운봉고원까지 대가야 영역에 편입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발표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궁금점이 들어 보충 설명을 듣고자 질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기존의 대가야양식 토기의 분포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지만 대가야 묘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 부분이다. 발표자께서는 단순히 주부곽식이나 다곽식의 구조를 대가야묘제로 치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산동고분군에 축조되는 1, 3유형과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2유형으로 대가야 묘제를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2유형, 즉 주부곽이 나란히 축조되는 묘제를 전부 대가야식 묘제로 볼 수 있는가이다. 이런 형식이 대가야권역을 벗어난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지 묻고 싶다. 만약 이를 전제한다면 보다 세밀한 차이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보충 설명을 부탁 드린다.

둘째, 발표문에서는 대가야토기양식에 대해 남강상류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대가야 호남동부지역(섬진강유역) 전체를 대가야영역으로 보는 이희준, 박천수선생과는 견해 차이가 있어 보인다. 발표자께서는 운봉고원까지 대가야 영역으로 보고 섬진강유역은 연맹체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발표자의 입장을 보충 설명해 주길 바란다. 즉 기존 견해와 다르게 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셋째, 발표문에서는 지면의 제한 상 운봉고원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가야사 복원이라는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호남 동부지역 조사 성과를 반영하여 대가야 영역에 편입되었는지, 계속해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수 있는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표 6】

남강 상류 가야토기의 생산과 유통

조성원(부경대학교 박물관)

I. 머리말

II. 생산기술의 검토

III. 소비유적을 통해 본 토기의 유통

IV. 남강 상류의 토기 생산과 유통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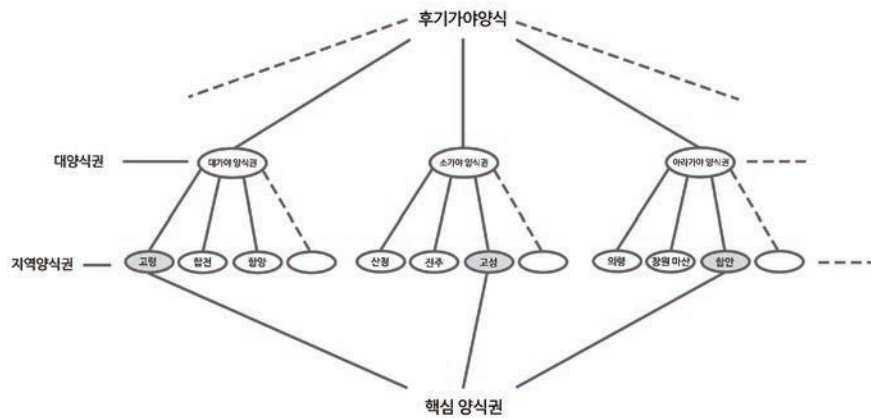
V. 맺음말

I. 머리말

경남 일대의 삼국시대 토기-특히 도질토기-는 특정 지역의 자료를 기반으로 양식이 설정되고, 그 양식권이 가야 각국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양식의 분포변화가 정치체의 영역이나 주변 정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피력해왔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해서 ‘토기문화’가 과연 정치적인 문제들과 직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1]되었지만, 여전히 삼국시대 영남 각지의 토기문화를 정치적 문제와 직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창녕 여초리 유적의 발굴조사 이후 영남 각지에서 추가된 토기생산 유적 자료는 토기제작기법이나 가마의 구조, 토기 소성 방식 등과 같은 토기 생산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 이러한 토기 생산(이하 생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토기 문화권≒정치체’라는 기존 通念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토기의 유통(이하 유통)이 다시 양식문제로 귀결되면서 유통범위를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타개하고, 생산과 유통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그것이 정치적이든 비정치적이든—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양식권-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1】 이성주, 2003, 「伽耶土器 生産·分配體系」,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해안.



도면 1. 후기가야양식의 구성(조성원 2010, 김지연 2013 참조로 재구성)

소가야-을 기초로 각 양식의 경계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2]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와 같이 핵심 양식권을 기준으로 삼아 주변지역으로 확장해가는 방식이 아닌 소지역 단위의 연구결과를 묶어나가는 상향식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강 상류인 경호강 수계 일대는 후기 가야의 대표적인 토기 양식권인 대가야양식권^[3]과 소가야양식권^[4]이 접촉하고 있고,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 각종 유적이 군집해 있으므로 소지역 단위의 분류가 가능하여 생산과 분배 연구에 좋은 소재가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지역에 대한 검토는 개별 발굴보고서의 고찰에서 다루어지거나 소가야양식권 혹은 대가야양식권 내에서의 검토가 대부분이고, 이 지역 자체의 종합적 연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생산과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역 재래의 생산기술의 특징과 계통, 변화과정 등은 물론이고, 토기가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가도 논의된 적이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남강 상류, 그 중에서도 경호강 일대에 분포하는 삼국시대 생산유적 및 소비유적^[5]을 대상으로 해서 가야토기의 생산과 유통방식에 대한 일단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2] 가야 국명을 씌운 양식명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가야양식권, 소가야양식권, 아라가야양식권과 같이 몇 개의 지역이 하나로 묶인 양식권을 ‘대가야양식권’, 그 내부에서 양식변화를 주도하는 집단의 양식권을 ‘핵심양식권’이라고 명명한다(도면 1).

[3] 이하 대가야양식권과 관련해서는 이희준, 2017,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 박천수, 2010, 『가야토기-가야의 역사와 문화』, 진인진 등을 참조하였다.

[4] 이하 소가야양식권과 관련해서는 김지연, 2013, 『小加耶樣式 土器의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하승철, 2015, 『小加耶의 考古學的 研究』, 慶尙大學校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를 참조하였다.

[5] 생산된 토기를 여러 이유로 다양하게 소비했던 유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취락, 분묘, 제사유적 등을 들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분묘 출토품을 다루고 있으나, 생산과 유통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향후 자료의 증가를 고려해 소비유적이라고 하겠다.

II. 생산기술의 검토

지금까지 가야토기 연구가 양식론적인 문제에 천착하고 있었던 것은 생산유적의 조사가 미진했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 남강 상류 일대에도 분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비유적은 조사되었지만, 생산유적의 조사성과는 적은 편이다. 그나마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남강 최상류에서 합류하는 위천 수계의 함양 신관리 유적과 경호강 상류에 해당하는 산청 어서리 유적의 자료가 보고됨에 따라,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물론 이 두 유적이 남강 상류 전체의 생산기술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량인지에 대해서 의문은 있지만, 두 유적의 비교검토를 통해 상사점을 파악한다면 재래생산기술과 그 계통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함양 신관리 유적의 생산기술(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함양 신관리 유적』)

1) 가마의 구조와 특징

신관리 유적에서 확인된 생산 관련 유구는 가마 4기, 폐기장 1기, 작업수혈 1기 등 총 6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 가마는 반지상식인 1호를 제외하면 모두 지하식이고, 구조적 차이 때문인지 1호는 다른 가마와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구조를 살펴보면 연소부의 상면 각도도 18~23°로 거의 비슷하고, 평면형태가 세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차이점도 확인되는데, 지하식은 연도부의 경사가 급하고 평면형태가 사두형으로 처리된 반면, 반지하식은 연도부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평면형태가 둥글다. 또한 소성부의 종단면의 형태에서도 지상식은 직선적이지만, 지하식은 곡선적으로 처리한 차이가 보인다. 폐기장은 2~4호의 요전부 아래에서 넓게 확인된 것으로 보아, 4기의 가마가 하나의 폐기장을 공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마의 조업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지만, 1호의 경우 소성실에서 2매의 상면이, 3호 연소실에서는 2매의 소결면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가마에서 수차례 조업이 진행되었던 것 같다. 2·4호에서는 연소실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보수흔이 확인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차례 조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작업횟수와 관계없이 가마 내부와 폐기장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형식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조업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1회 조업 시 몇 개의 가마가 동시에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인데, 보고자는 2~4호 요전부 아래에 위치한 폐기장의 퇴적양상을 통해 3·4호가 선축, 2호가 후축으로, 2호가 조성될 당시에는 3·4호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1회 조업 시 최대 2~3기의 가마가 조업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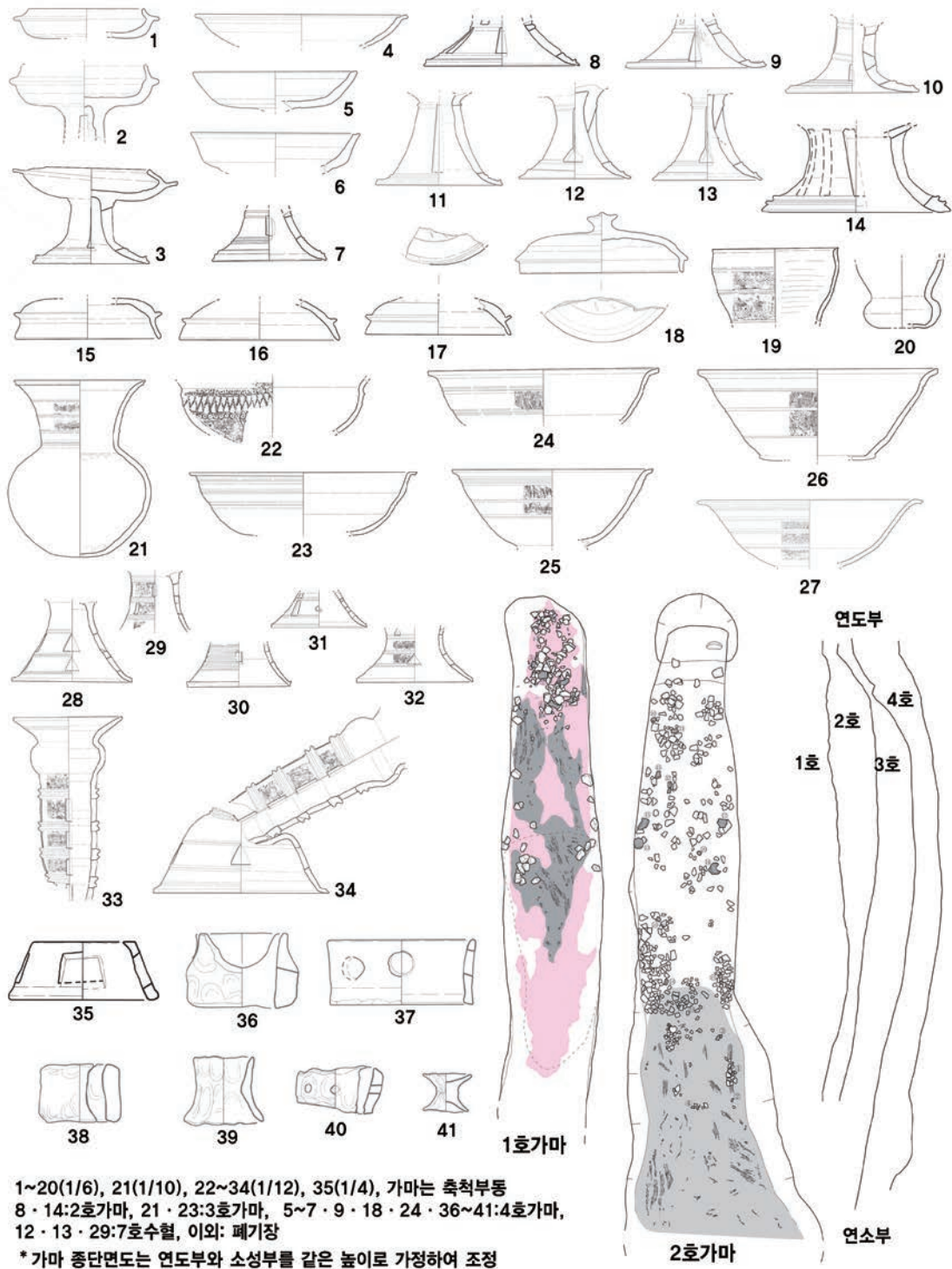
2) 생산 기종의 구성

가마와 폐기장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대체로 도질토기로, 고배와 개가 가장 많고 발형기대, 호류, 대호, 컵형토기류, 통형기대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배는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는데, 무개식고배는 고식도질토기 단계의 영향이 잔존하는 것과 소가야양식 무개식고배와 유사한 것이 많다. 유개식고배는 구연부가 길게 내경하고 드림턱이 강조되고 배신하부를 평탄하게 처리한 것이 많은데, 가야의 일반적인 유개식고배와 크게 차이는 없다. 대각은 일단투창, 이단 교호투창, 이단일렬투창 등이 있지만 이단일렬투창이 적다. 일단투창에는 투창의 형태에 따라서 삼각투창, 세장방형투창, 변형화염형투창^[6]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세장방형투창 중에는 다 투창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으며, 제형을 띠고 있는 것도 있다. 변형화염형투창은 7호 수혈에서 출토되었다.

단경호는 구연부 아래에 돌대를 돌리고 구연단을 뽕족하게 처리한 점이 공통적이다. 경부의 형태는 ‘C’자인 것과 직선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지만, 동체부의 全形은 불명이다. 잔존하는 동체부편 중 타날이 있는 것은 2점으로 평행타날과 격자타날이다. 외부에 타날 흔적이 없이 내박자흔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타날 후 의도적으로 지웠거나 무문타날을 이용했다고 생각된다. 장경호는 수량이 많지 않지만, 모두 무개식으로 경부가 곡선적이면서 2단 구획한 것과 직선적이면서 3단 구획한 것으로 구분된다.

기대류 중에서는 발형기대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소가야의 수평구연발형기대와 유사한 구연부를 가지면서, 수발부를 3~4단 구획한 후 파상문을 시문한 것이 가장 많다. 주목되는 것은 폐기장 H층에서 나온 발형기대인데, 수발부가 깊고 둥글며 구연이 바깥쪽으로 길게 뻗어 나가는 형태를 가진 것으로, 죽관문과 삼각문으로 구성된 압인문을 동체부에 시문하였다. 이는 4세기 후반 함안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무파수노형기대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발형기대와는 계통을 달리 한다. 통형기대는 2점이 확인되었는데, 수발부는 장경호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통부의 두터운 ‘M’자형 돌대가 특징이다. 보고자는 4세기 후반 김해나 함안의 통부와 지산동 32~34호분 묘사유구와 유사한 수발부를 가졌다고 지적하였지만, 유사한 수발부가 김해 능동 가-21호 석곽묘와 다호리 B-1호분에서도 확인되므로, 잠정적으로 김해 내지는 함안과의 관계로 판단하고자 한다.

[6] 아라가야의 화염형투창의 계보를 잇는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우선 ‘변형화염문투창’으로 명명한다.



도면 2. 함양 신관리 유적 가마 및 출토유물

3) 소성방식

신관리 유적의 소성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서에서도 상술되어 있고, 필자도 간략하게 다룬 바 있다.^[7] 신관리 유적에서 확인된 소성방식의 특징은 전용 이기재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출토된 이기재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원통형과 왕관형으로 나누어지고, 투창의 유무나 그 형태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기재의 규격을 고려하면 대체로 개와 개의 중첩 소성이나 유개식고배와 개의 세트 소성 등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왕관형은 원저를 가진 호류의 이상재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폐기장에서 출토된 유물에서는 전용 이기재의 출토량에 비해 잔존하는 소성 흔적은 적은 편이다. 이는 실패품이라는 성격 탓도 있겠지만, 이기재를 사용한 적재방식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이상재로는 대호 저부나 고배를 놓았던 토기 파편, 가마 벽체 파편 등을 사용하였는데, 일부는 대호 내부에서 토기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산청 어서리 유적의 생산기술 (경남문화재연구원, 2008, 『산청 어서리 유적』)

1) 가마의 구조

어서리 유적에서는 1기의 가마만 조사되었다. 하부가 삭평되어 연소실의 구조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다. 보고자는 반지하식으로 보고했으나, 측벽의 피열 상태나 후술할 연도부의 구조를 참고하면 지하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면형태는 연도부가 둥글게 처리된 세장방형에 가깝고, 소성실 상면각도는 15°지만 연도부 부근에서 22°로 급격하게 바뀐다. 단면 형태는 직선적인데, 각도 변화로 인해 소성실 후반부와 연도부 직전에서 각각 1번씩 꺾어진다. 연도부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올라간다. 소성부 상면은 1매 밖에 없고, 피열 상태도 매우 약한 편으로 조업량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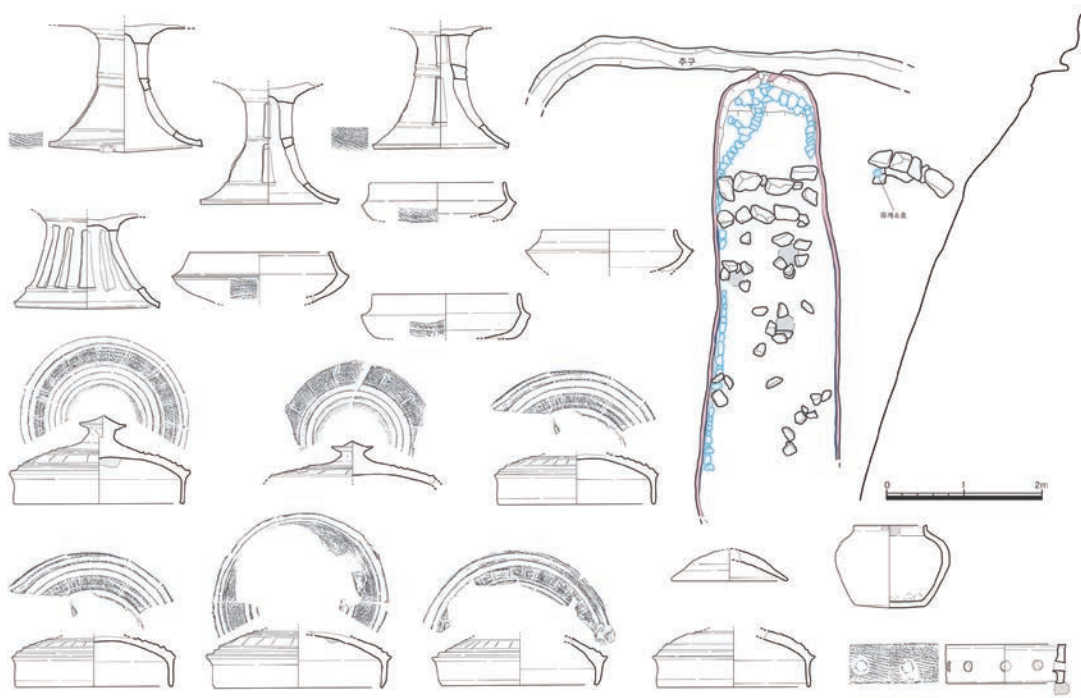
이 가마의 가장 큰 특징은 연도부에서 소성부까지 측벽을 따라서 구를 설치하고 그 위에 토기편을 덮어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가마 내부의 배수를 위한 것으로 보는 편이 일반적이지만, 보고자는 가마 내 물이 모이는 곳에 설치되지 않았고 폭이 좁고 한 쪽 방향에만 설치한 점을 근거로 배수 시설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외에 소성부와 연도부의 경계에 할석을 2열로 배치하여 구획하거나 가마 외곽에 주구를 설치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발굴조사에서는 1기만 조사되었지만, 가마의 북쪽에 해당하는 능선부에서 가마 조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수혈과 굴립주가 확인되었고, 주변에서 가마 조업의 부산물

[7] 조성원, 2014, 「삼국시대 영남지역 도질토기 생산과 유통」, 『영남고고학』69, 영남고고학회.

조성원, 2017, 「영남지역 삼국시대 토기 적재방식 예찰 - 소성흔을 통한 적재방식의 검토」,

『2017년 토요회·한식토기연구회 공동연구회』, 토요회·한식토기연구회.



도면 3. 산청 어서리유적 가마 및 출토유물

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물이 채집되고 있는 점 등에서 보다 대단위의 가마군이 분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8]

2) 생산토기의 구성과 소성방식

본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고배와 개가 가장 많다. 고배는 장방형의 투창을 일렬로 배치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단 다투창 고배의 대각이 1점 확인되었다. 이단일렬투창고배의 경우에는 1조 돌대로 단을 구획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2조 돌대로 구획한 것이다. 특히 2조 돌대로 구획한 것은 대각 끝부분에 평행 타날 흔적이 남아 있는 공통성을 보인다. 출토된 배신은 구연부가 직선적이면서 직립하듯이 올라가고 배신을 직선적으로 처리한 것과 구연부가 내경하면서 배신을 'L'자 형태로 처리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개는 구연부가 비교적 길고 직선적으로, 개신부를 침선을 3단 구획한 후 최하단에 점열문을 시문하고 있다. 꼭지는 파손된 것이 많으나, 잔존하는 것을 볼 때 끝을 뾰족하게 처리한 보주형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지만, 수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특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8] 후술하겠지만, 어서리 유적에 인접해서는 생초·하촌리·평촌리 유적과 같은 대규모 소비유적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어서리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흡사한 것이 소비유적에서 확인된 바 없지만,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규모 생산유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소성방식은 출토유물이 부족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가마 내부에 남겨진 석재를 통해 원저의 호류는 석재를 둥글게 만들어 정치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배의 경우 대각에 부착된 가마 상면 혹은 벽체편의 흔적으로 미루어보아 정치소성 했던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개의 경우 내면에 부착된 이물질로 보아 도치소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기재의 사용 여부인데, 이 유적에서 이기재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1점만이 확인되었다.^[9] 원형투창을 가진 고리 형태의 이 유물은 규격에서도 이기재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나, 끝부분에 가마 벽체와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이상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대가야양식권에서 보이는 소형 원통형기대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서는 전용 이기재나 이상재의 사용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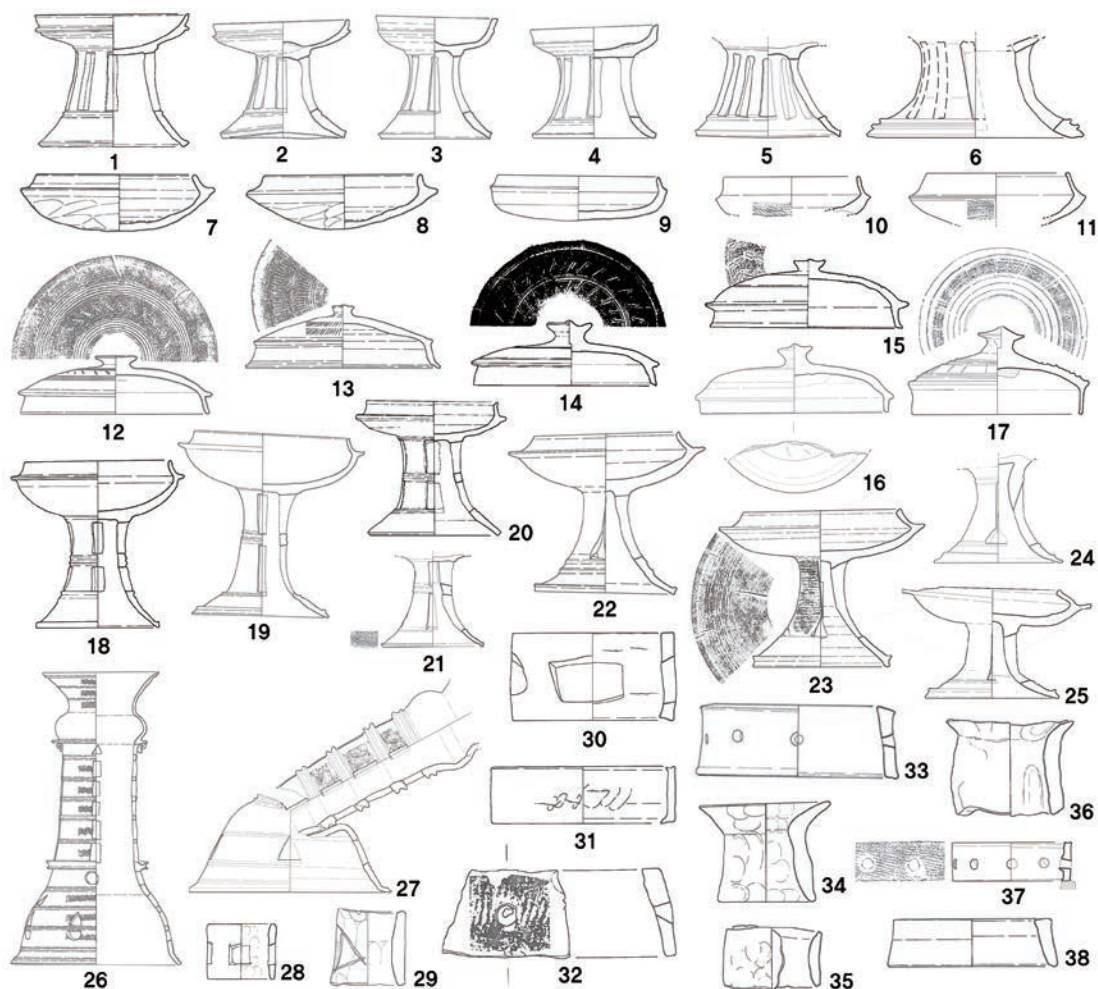
이상의 생산유적을 통해 본 남강 상류역의 생산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두고 싶다. 우선 가마구조에서는 평면과 단면 형태, 내부시설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가마의 연도부 제작방식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진주 상촌리 유적과 양산 호계리 유적의 지하식 가마에서도 확인되므로, 공인의 계통이나 입지에 따른 기술구현의 차이가 아닌 구조에 따른 특징으로 생각된다. 반면 생산 기종의 구성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우선 신관리 유적에서는 5세기 가야의 대표적인 기종이 대부분 생산되고 있었으며, 대호도 활발하게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와 장경호는 아라가야, 발형기대는 소가야, 통형기대는 아라가야 혹은 금관가야, 다투창고배는 대가야 등 다양한 대양식권과의 관련성이 엿보인다. 반면 어서리 유적에서는 주로 고배와 개, 개배류가 중심이고, 이것들은 대가야양식권과 어느 정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신관리에서는 전용 이기재를 이용한 소성이 진행되고 있었던 반면, 어서리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기재를 이용한 소성은 현재까지 자료로 보는 한 주로 소가야·아라가야·신라양식권^[10]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산 토기의 양식적 측면과 함께 고려해보면, 각 유적의 토기제작 공인은 계통을 달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11]

그러나 이 두 공인집단이 각각 관련있는 대양식권에 완전히 귀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신관리에서 출토된 고배의 변형화염문투창이나 소가야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발형기대

[9] 보고자는 대가야의 소형기대를 고려해서인지, 기대로 보고하였다.

[10] 여기서 신라양식권은 자료가 확보된 경주·경산을 의미한다. 후기가야 때 신라양식권으로 편입되는 낙동강 하류역에서는 지금까지 전용 이기재의 흔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1.(영)지4호, 2.지64호, 3.지98호 4.지140호, 7·8.송1A-1호, 9.(영)지34호, 12·19.복93, 13·22. 무2-55, 14.지30-2, 15.도10호, 18.도14, 20.지30부락, 23.가좌1-5호, 26.능가-21, 28.경산 옥산동 11호가마, 29. 상64, 30.신당동 1호, 31. 지44, 32. 화산리3~4호 회구, 33.지70, 34. 옥수동27호 5·6·10·11·17·21.어서리, 16·24·25·27·35~38.신관리 (축척 1~25:1/6, 26~27:1/12, 27~37:1/4, 지:지산동, 송:송학동, 복:복천동, 무:무촌, 도:도항리, 상:상촌리)

도면 3. 산청 어서리유적 가마 및 출토유물

배신의 무타날, 어서리 출토 개의 개신부 구획 돌대와 형태, 고배 대각 하단의 타날문 등은 각 공인들이 모방 내지는 고안해 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가 재래적인 생산기술과 관련이 있는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 자료가 소성 상태를 제외하면 제작요소에서 문제점은 거의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부터 도질토기 생산에 관여했던 공인집단이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 【11】 신관리의 경우, 보고자는 이기재의 사용을 근거로 소가야와 아라가야의 관계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원통형 이기재는 대체로 유개고배의 세트소성 혹은 개의 중첩소성에 사용하는 것이고, 신관리 출토 개는 아라가야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아라가야 양식권과의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의 다른 형태 이기재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III. 소비유적을 통해 본 토기의 생산과 유통

토기의 유통을 검토하기 위해서 남강 상류인 경호강과 그 하위 수계에 있는 분묘유적 출토품을 정리해 두고 싶다. 분묘유적은 대표적인 소비유적으로 유통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남강상류의 분묘유적을 수계와 위치별로 분류하면 경호강 중하류의 금서천-정곡천 수계, 경호강 상류의 초곡천-임천수계, 남강 최상류의 위천 수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위천 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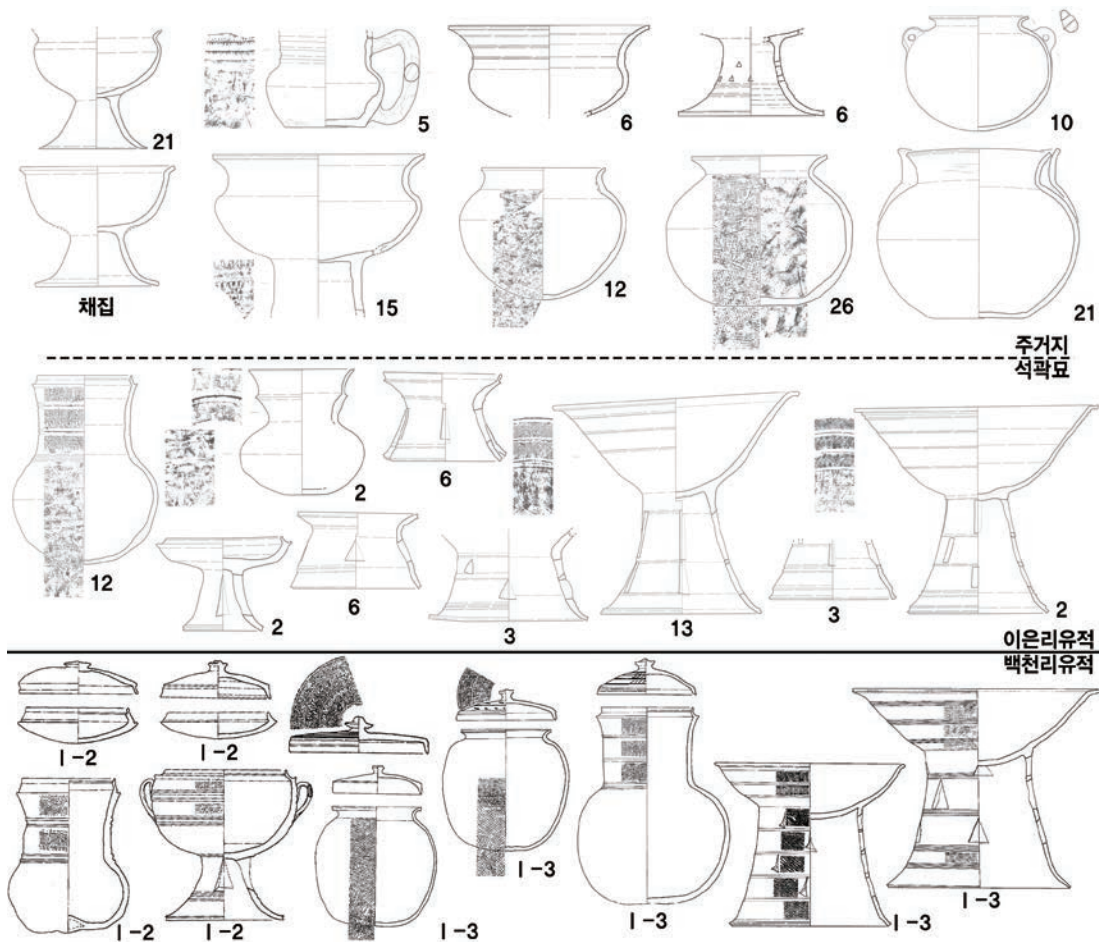
위천 수계에서 확인된 소비유적은 위천이 남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함양 백천리 유적과 구룡천이 위천에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함양 이은리 유적이 대표적이다. 후술하겠지만, 이은리 유적과 위천을 사이에 두고 그 對岸에는 앞서 언급한 신관리 유적이 자리 잡고 있다. 모두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친 분묘가 확인되었는데, 이은리에서는 4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취락유적도 조사되었다.

먼저 이은리 유적의 취락 출토 토기를 살펴보면, 고배, 단경호를 중심으로 발형토기, 꺾형토기, 노형기대 등이 확인된다. 고배의 경우, 남강과 섬진강 일대에서 확인되는 완형고배^[12]로, 이 일대까지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경호는 승문타날단경호, 소문양이부단경호, 격자타날단경호 등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는데, 이 중 승문타날단경호는 함안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것과 동체부에 타날문을 가지고 귀가 부착된 것이 함께 출토된다.^[13] 노형기대도 함안에서 주로 출토되는 무파수노형기대와 기형 및 문양이 흡사하다.

분묘에서는 고배, 개, 개배, 장경호, 저평통형기대, 발형기대 등이 출토되었다. 고배는 수량이 적지만, 삼각투창에서 소가야적 요소를 보이고 있고, 2호 석곽묘에서 공반된 발형기대, 광구호 역시 소가야양식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발형기대로 추정되는 대각편은 소가야의 대각단처리방식과 유사하다. 저평통형기대와 유개식 장경호는 대가야양식에 해당하지만, 그 중 일부는 토착공인에 의해서 제작되었거나 인근 지역에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소형 발형기대나 저부에 격자타날이 남은 단경호, 개배 등은 여러 대양식권의 그것과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개는 단추형의 꼭지에 기고가 낮고 개신부가 둥글게 처리된 점에서 아라가야

【12】 하승철, 2013, 「소가야지역 4~5세기 목곽묘 연구」, 『慶南研究』 8,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3】 상세하게 설명할 여유는 없지만, 와질 소성이면서 평저에 가까운 승문타날을 가지는 것이 4세기 남강과 섬진강 유역에서 생산 유통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5. 위천 수계 출토 유물 (축척부동)

양식과의 관계가 엇보이지만, 유충문과 같은 문양이 전혀 시문되지 않는 점은 토착적인 요소일 것이다.

백천리 유적^[14]에서는 총 21기의 분묘가 조사되었지만, 그 중 1호분만 보고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기 보고된 1-1~3호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배류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 유개식장경호, 발형기대가 대부분 대가야양식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발형기대 중 일부는 전면에 걸쳐서 평행타날문이 남아 있고, 투창의 형태 역시 대가야양식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외에 소가야양식에서 주로 확인되는 개도 1점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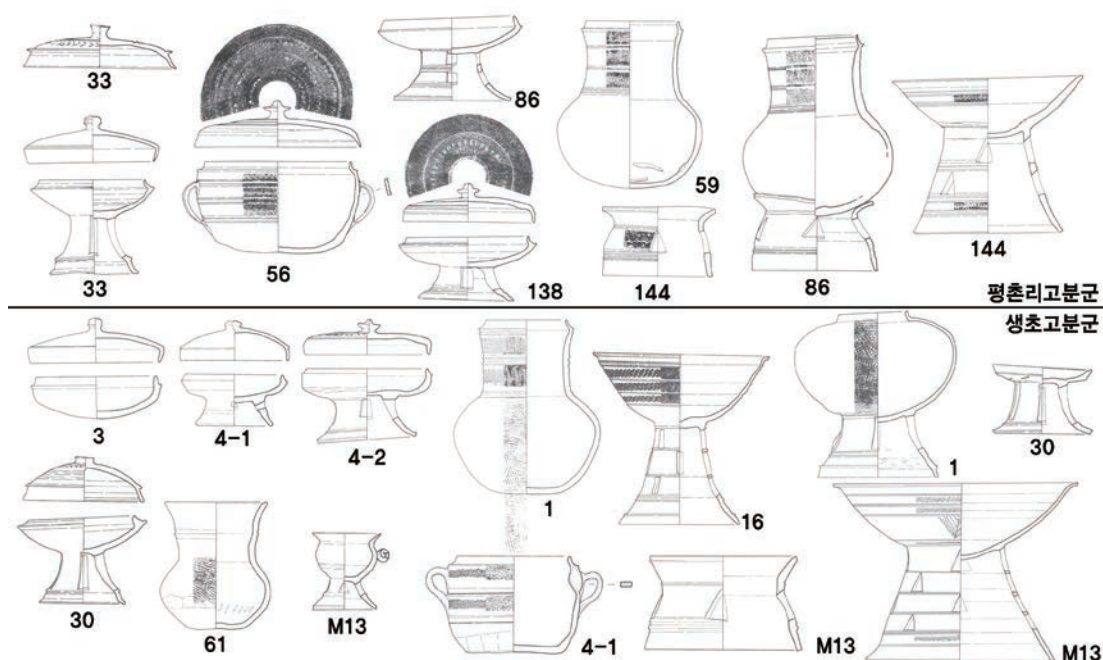
【14】 백천리 유적에도 분묘와 거의 동시기에 해당하는 취락유적이 일부 조사되었으나, 분묘출토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여기서는 생략한다.

2. 초곡천-임천 수계

초곡천과 임천수계에는 산청 생초 유적, 하촌리 유적, 평촌리 유적 등이 대표적이고, 인접 해서는 어서리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세 유적 모두 5세기 후반에서 6세기가 중심이다. 하촌리 유적에서는 4~6세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취락유적이 확인되어, 분묘유적과 함께 이 일대의 토기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보를 엿볼 수 있다.

하촌리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는 대체로 연질 혹은 와질소성의 발, 옹, 시루 등이 많지만, 도질토기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4세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양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고식도질 토기 내륙양식과의 관련을 엿볼 수 있는 통형고배와 무파수노형기대, 컵형토기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무파수노형기대의 경우 압인문을 이용한 시문이 특징적이다. 이외에 완형고배도 출토되고 있다. 5세기 전반의 토기문화는 분명하지 않지만, 5세기 후반부터 6세기까지는 삼각투창고배와 개에서 소가야양식, 개·저평통형기대·통형기대 등에서는 대가야양식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경남문화재연구원 조사 107호 수혈에서 출토된 변형화염문투창고배로 대각단의 처리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신관리 출토품과 유사하다.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IB-12호에서 출토된 통형기대 역시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M자형 돌대를 가진 점에서 신관리 것과 유사성이 있다.

평촌리 유적에서는 분묘 183기에서 다양한 도질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출토된 도질토기는 대체로 대가야양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소가야양식에 해당하는 것도 적지 않다. 대가야양식 중에서는 고배류, 개배류, 유개식장경호, 파수부완 등 비교적 다양한 기종이 확인되며, 특히 개배와 유개식장경호는 소성상태나 방식에서 대가야양식의 핵심양식권과 거의 흡사하다. 하지만 유개식장경호 중에는 드림턱 바로 아래 돌대를 돌리거나 동체부에 타날문을 남



도면 6. 초곡천-임천 수계 출토 유물(축척부동)

기는 등 핵심양식권에서 보이지 않는 독특한 속성^[15]을 가진 것도 존재한다. 또한 저평통형기대 역시 대가야양식과 유사하지만, 구연부를 꺾어서 형성하거나 투창의 모양과 배치, 문양요소 등에서 대가야의 핵심양식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확인된다. 소가야양식은 대가야양식에 비해서 수량은 적은 편으로, 개배·무개식삼각투창고배·대부호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개는 개신부에 회전목리조정을 하고, 전체적인 형태가 소가야양식 핵심양식권 출토품과 크게 차이 없다.

생초 유적은 초곡천-임천 수계의 최고급의 분묘유적으로 평촌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대가야양식과 소가야양식을 띠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대가야양식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토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발형기대가 추가되고 고배 출토량이 증가하는 등 기종의 다양성이 확인된다. 물론 유개식장경호·저평통형기대도 다수 출토되는데, 토착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소가야토기는 광구호·유개식 일단장방형투창고배대부호·수평구연발형기대 등이 출토되었지만, 수량은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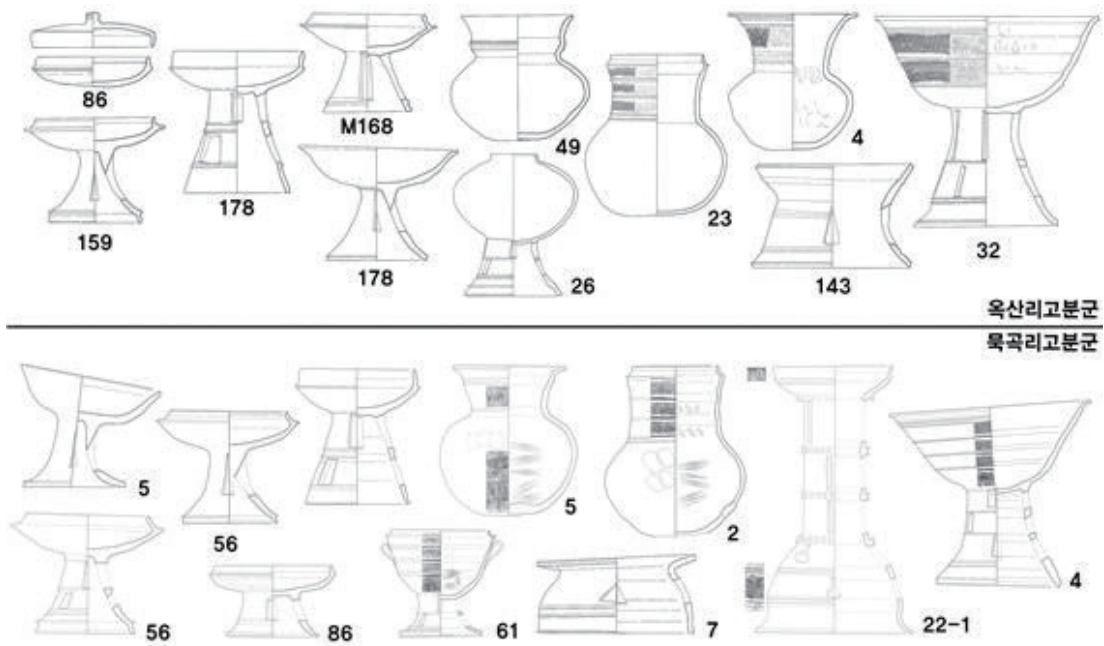
3. 금서천-정곡천 수계

산청 옥산리 유적과 목곡리 유적이 대표적이다. 옥산리 유적은 금서천이 경호강에 합류하는 지점의 대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곡리는 그 남쪽의 정곡천이 합류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옥산리 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를 살펴보면,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에는 주로 소가야양식과 관련된 삼각투창고배가 다수 확인되며, 늦은 시기에는 발형기대도 출토된다. 부분적으로 아라가야양식 혹은 대가야양식과 관련되는 것도 소량 확인된다. 특히 소가야양식과 관련된 자료들 중에는 형식학적으로 이른 단계에 속한 것이 있는 점은 남강 상류의 다른 유적과 큰 차이이다. 그러나 5세기 후반에는 대가야양식과 관련된 토기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유개식장경호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앞서 살펴본 초곡천-임천수계의 유개식장경호와 마찬가지로 드림턱 바로 아래 돌대를 돌린 것과 동체부에 타날 문양을 남긴 것도 확인된다. 또한 저평통형기대도 대가야양식과 유사하지만, 토착적인 요소를 가진 것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고배나 호류에는 지속적으로 소가야양식과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발형기대와 같은 대형품은 대가야양식이 거의 유통되지 않았던 것 같다.^[16] 이외에 178호에서는 창녕식 고

【15】 유개식장경호의 드림턱 아래 돌대와 동체부 타날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경상대학교, 2006, 『산청 생초 유적』.

【16】 미보고 자료이지만, 부산대학교 조사 구간 1차 II-36호에서는 대가야양식의 통형기대가 출토된 바 있다(국립김해박물관, 1999, 『가야의 그릇받침』, p.59). 이를 참조하면, 미보고 자료 내에 대가야양식의 대형품이 경호강 하류-정곡천 수계에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유물은 하부의 형태나 전체적인 완성미에서 대가야양식 중심부의 것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 토착공인의 모방제작품으로 추정된다.



도면 7. 금서천-정곡천 수계 출토 유물(축척부동)

배가 1점 출토되었다.

목곡리 유적의 토기 양상도 옥산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유적 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속하는 분묘에서는 유, 무개식 삼각투창고배, 수평구연호 등 소가야양식과 관련된 토기들과 발형기대·통형기대 등과 같이 소량의 토기가 아라가야양식이나 금관가야양식과 연관된 토기들도 출토된다. 그런데 5세기 중후반부터는 유개식장경호·저평통형기대와 같이 대가야양식과의 관련된 토기가 증가한다. 물론 이 중에는 보고자가 지적했듯이^[17] 토착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옥산리 유적에 비해서 늦은 시기까지 소가야양식의 영향하에 있는 토기들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는 점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7】 경남대학교박물관, 2013, 『산청 목곡리 유적』.

IV. 남강상류의 토기 생산과 유통의 흐름

1. 고식도질토기 단계의 생산과 유통

현재 남강 상류에서 4세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생산유적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고, 소비유적인 함양 이은리, 산청 하촌리, 옥산리 정도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토착적인 요소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역시 완형고배이고, 이와 함께 격자 혹은 승문타날을 가진 단경호, 컵형토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완형고배는 함양 화산리, 이은리 등 경호강 최상류에서부터 남강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4세기 남강 상류 일대의 토착토기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하지만, 이 토기가 특정 공인집단이 생산한 후 남강수계를 따라서 일정 범위에 유통되었는지 아니면 분포 범위 내의 각 집단이 동일한 토기를 생산해서 유통·소비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생산유적에 대한 자료가 추가되거나 완형고배 내에서의 지역적 속성을 찾아내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이 시기 남강 상류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보면, 동 시기의 김해, 함안 지역과 같은 핵심 양식권에 비해 소성 상태가 좋지 않다. 아마도 도질토기의 생산기술이나 체계가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았거나 기존의 와질토기 생산 방식에서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고식도질토기 단계의 남강 상류 토기생산은 외부 공인의 영향·공인의 이동 내지는 제작기술의 전달·보다는 토착공인의 점진적 기술 발전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재래의 기술로 제작하기 어려운 단경호와 기대류 등이 함안의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남강 상류역의 생산체계는 기존의 공인집단과 그 체계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유통은 토착공인에 의해 생산된 제품과 외부에서 유입된 일부 기종이 필요에 따라서 유통되는 것으로 보고 싶다.

그러나 외부 양식권에서 유통된 토기가 남강 상류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위천 수계의 이은리 유적이나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화산리유적 등에서는 통형고배가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초곡천-임천 수계의 경호강 상류의 하촌리에서는 통형고배를 비롯해 함안과 관련된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고 있다. 물론 이들 중 일부가 토착공인에 의한 모방 생산품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산정보의 유통이 초곡천-임천 수계를 한계로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5세기 전~중반의 생산과 유통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는 이른바 ‘전환기 변동’^[18]이고, 가야 각지에서 토기생산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후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양식, 진주-고성-산청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소가야양식, 함안을 중심으로 하는 아라가야양식 등 핵심양식권과 대양식권이 형성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금서천-정곡천 수계와 초곡천-임천수계의 자료를 통해서 추정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금서천-정곡천 수계의 옥산리와 묵곡리 유적에서는 삼각투창고배와 수평구연발형기대 등과 같은 소가야양식의 이른 시기 자료가 확인된다. 이것이 소가야지역에서 제작, 유통된 것인지 금서천-정곡천 수계의 토착공인에 의해서 제작, 유통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지역성을 보이는 소가야 양식권의 토기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5세기 전반의 어느 시점에 소가야양식권에 속한 지역에서 제작기술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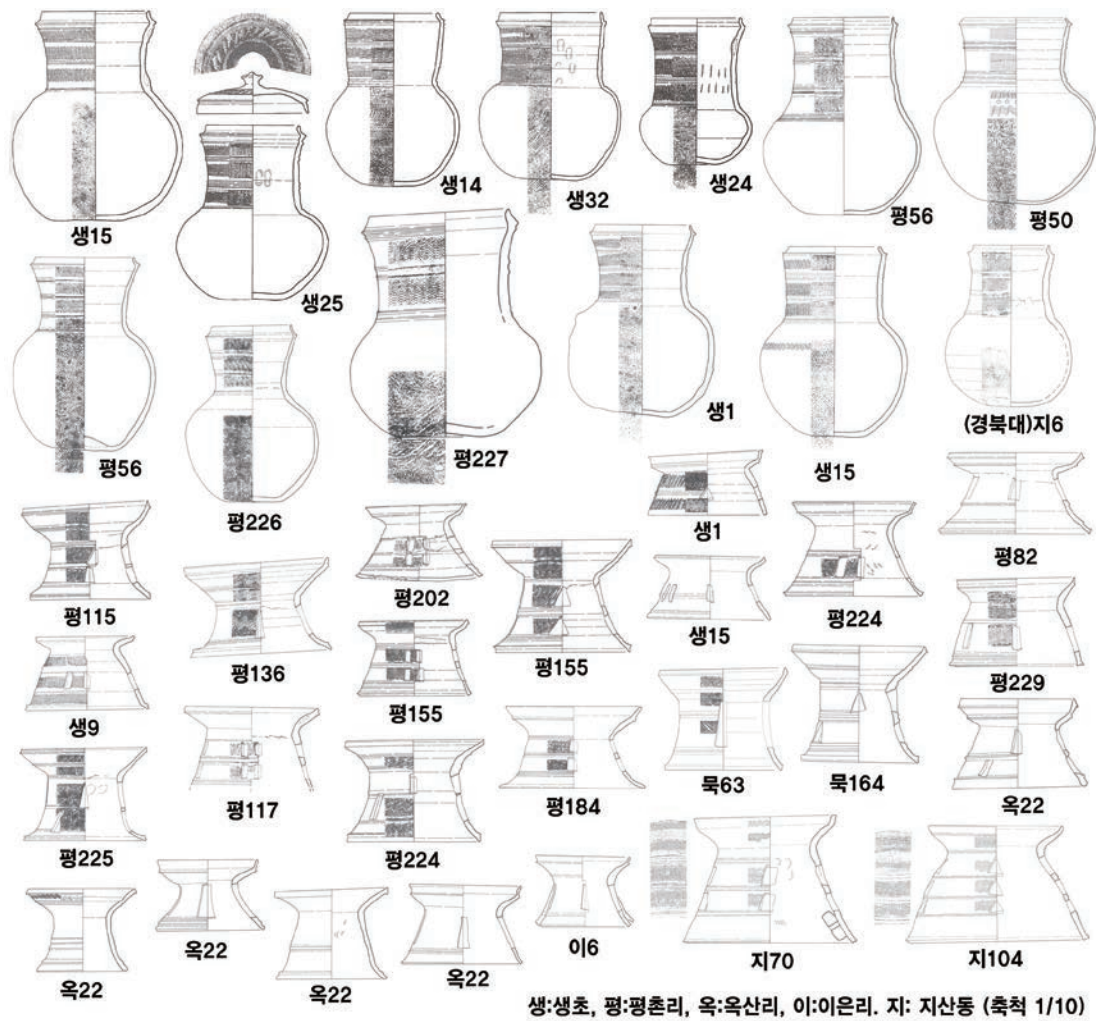
하지만 초곡천-임천 수계와 위천 수계에서는 이러한 양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한 단계 늦은 5세기 중반의 생산유적인 함양 신관리, 산청 어서리 유적에서는 소가야양식권의 영향을 받은 토기도 생산되지만, 주로 아라가야양식권과 대가야양식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토기가 생산되고 있다. 특히 신관리 유적에서는 특히 신관리 유적에서는 전용 요도구가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기존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생산기술도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기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소가야양식권과 아라가야양식권에서 확인되지만, 주로 개의 소성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아라가야양식권에서의 생산기술 유통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5세기 전·중반에는 남강 상류역 내에서도 소가야양식권의 관계가 깊어지는 경호강 중하류와 대가야양식권·아라가야양식권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경호강 상류 등으로 생산과 유통권의 지역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3. 5세기 후반~6세기의 생산과 유통

5세기 후반 이후의 생산유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분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소비유적 자료가 급증한다. 먼저 위천 수계의 백천리·이은리와 초곡천-임천 수계의 생초·평촌리 유적은 대가야양식권의 토기가 중심이고 소가야양식권 토기가 소량 출토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5세기 전·중반에 보이는 생산과 유통권의 공통성이 대가야양식권을 매개로 하여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가야양식권의 토기 중 일부는 토기 자체의 유입일 가능성이 있지만, 유개식 장경호와 저평통형기대와 같이 소비량이 많은 것의 경우는 대가야의 핵심양식권과 세부적인

[18] 박승규, 2010, 『가야토기 양식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도면 8. 추정 남강 상류일대의 토착 토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모방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방된 유개식장경호 중 드림턱 하부에 돌대를 1조 돌린 것은 초곡천-임천수계에서 주로 확인되는 반면, 동체부에 타날을 남기는 것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므로 수계 단위의 모방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러한 점은 특정 형식을 설정하기 어려운 저평통형기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시기에 정치적 계층적 유통-소비패턴이 나타나는 점이다. 각 수계의 중심분묘라고 할 수 있는 백천리와 생초에서는 대가야양식권의 발형기대와 다양한 기종이 부장되는 반면, 하위분묘인 이은리와 평촌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가야양식권의 토기량과 기종이 많고 대가야양식권의 토기는 유개식장경호와 저평통형기대로 한정되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중심분묘는 타 지역과의 대외교섭을 주도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통된 토기나 그것을 모방한 토기가 많이 부장될 것 같지만, 초곡천-임천수계와 위천수계에서는 하위분묘에서 그러한 양상이 뚜렷한 편이다. 이는 중심분묘나 상위계층이 사용하는 토기가 집단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양식권의 토기와 그것을 모방한

토기를 주로 소비하지만, 하위집단 혹은 하위계층의 유통-소비패턴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대신 분묘 제사에 사용되는 토기 기종의 유통-소비를 조정함으로써 계층성을 표현했던 것은 아닐까.

이 시기 금서천-정곡천 수계의 옥산리와 묵곡리에서는 대가야양식권의 토기가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대가야양식권 토기의 대부분은 남강 상류에서 주로 소비되던 유개식 장경호와 저평통형기대이고, 이 중 일부는 동체부 타날이나 형태적 요소에서 대가야양식의 핵심양식권이 아니라 남강 상류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초곡천-임천 혹은 위천 수계의 생산품이 2차적 유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19] 또한 소가야양식권 토기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가야 양식권의 생산-유통을 기반으로 하면서 주변 지역 생산품의 유통과 소비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앞서 언급했듯이 남강 상류는 각 수계마다 소비유적이 분포하고 있고, 대양식권이 교차하고 있는 곳으로 토기의 생산과 유통을 검토하는데 매우 적합한 대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지역은 대가야양식권이나 소가야양식권의 확장과 쇠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유통의 측면에서만 검토되고 있었다. 물론 생산유적이 그다지 조사되지 않아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되지만, 대양식권에 매몰되어 지역양식권을 무시한 경향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계별로 그룹을 나누어 정리하였지만, 역시 많은 점에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재래의 토기양식의 설정과 그것이 대양식권에 어떻게 잠식되어 가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생산과 유통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연구 목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또한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관찰과 공부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행의 연구성과를 간과한 것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을 약속하면서 해량을 구하고 싶다.

자료수집 및 도면 작성에 있어서 이후정, 이정민, 김나연의 도움을 받았다.

[19] 생산유적이 분명하지 않지만, 역으로 초곡천-임천유적의 소가야양식권 토기도 금서천-정곡천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경남대학교박물관, 2013, 『산청 묵곡리 유적』.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8, 『산청 어서리 유적』.
- , 2011, 『산청 하촌리 유적Ⅱ』.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산청 평촌리 유적Ⅰ』.
- , 2007, 『산청 평촌리 유적Ⅱ』.
- , 2011, 『산청 하촌리 유적』.
- 경상대학교박물관, 2006, 『산청 생초고분군』.
- , 2006, 『산청 옥산리 유적 — 石槨墓』.
- , 2006, 『산청 옥산리 유적 — 石槨墓』.
- , 2009, 『산청 생초 M12 · M13호분』.
- 국립김해박물관, 1999, 『가야의 그릇받침』.
- 김지연, 2013, 『小加耶樣式 土器의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박승규, 2010, 『가야토기 양식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 , 2015, 「대가야토기의 생산체계와 유통」, 『대가야 문물의 생산과 유통』.
- 박천수, 2010, 『가야토기-가야의 역사와 문화』, 진인진.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6, 『함양 백천리 1호분』.
- 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함양 신관리 유적』.
- , 2016, 『함양 이은리 유적』.
- 이성주, 2003, 「伽耶土器 生産·分配體系」,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 이희준, 2017,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 조성원, 2014, 「삼국시대 영남지역 도질토기 생산과 유통」, 『영남고고학』69, 영남고고학회.
- , 2017, 「영남지역 삼국시대 토기 적재방식 예찰 — 소성흔을 통한 적재방식의 검토」, 『2017년 토요화·한식토기연구회 공동연구회』, 토요화·한식토기연구회.
- 하승철, 2013, 「소가야지역 4~5세기 목곽묘 연구」, 『慶南研究』8,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 2015, 『小加耶의 考古學的 研究』, 慶尙大學校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토론문】

「남강 상류 가야토기의 생산과 유통」 토론문

박승규(가야문화연구원)

남강 상류는 경호강으로도 불리며 임천, 위천, 초곡천, 금서천 등 여러 지천이 나뉘어지고 있으며, 발표문의 지역 범위는 산청군 소재지로부터 상류 쪽에 해당된다. 종래 학계에 널리 알려진 유적으로는 남원 월산리고분군과 두락리와 유곡리고분군, 함양 백천리고분군, 산청 생초고분군과 평촌고분군 및 묵곡리고분군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남강을 따라 소가야와 함안의 아라가야 및 백제권과 이어지는 교통로에 해당된다. 수계로는 남강 상류 임천유역의 운봉고원으로 이어지고, 육로로는 거창 무릉리고분군과 합천 반계제고분군을 거쳐 대가야 중심지인 고령으로 연결된다. 5세기 후반에 대가야토기의 확산이 이루어진 곳으로 주목받았으며, 최근의 토기가마 발굴조사를 통해 소가야토기 생산유적의 실상을 일부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

발표문은 남강 상류의 토기가마 발굴자료인 함양 신관리유적과 산청 어서리유적을 통해 토기 생산기술을 유적별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이어 수계별 소비유적에 해당하는 고분 출토 토기를 통해 위천과 초곡천 및 금서천을 중심으로 토기 유통양상을 살피고 있다. 마지막으로 토기 생산과 유통의 흐름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다룸으로써 남강 상류 가야토기 생산과 유통의 일단을 논하고 있다.

발표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기가마 발굴자료가 희소한 현 상황에서 토기가마의 구조를 비롯한 생산기술을 추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더하여 고분군이라는 특수한 소비지를 통해 유통을 논하고 있는데 이 역시 쉽지않은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 행해진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통해 남강 상류 가야토기의 생산과 유통의 흐름을 시기별로 논하고 있으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토기가마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토기가마의 발굴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남강 상류 가야토기의 생산과 유통을 소지역 단위의 연구를 통한 상향식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소지역 단위의 연구에 더하여 토기 생산과 유통의 경계 지점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 점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다.

토론자로서 맡은 책무에 따라 다음 몇 가지의 사항에 대해 질의코자 한다.

1. 신관리유적과 어서리유적 토기가마와 이 유적에서 생산된 토기에 대한 인식 문제로서,

발표자는 두 유적의 가마 구조가 차이가 있고 또 생산도구인 이기재와 이상재의 사용문제와 생산 토기의 시간성 및 계통적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두 유적은 함양군과 산청군에 각기 위치하고 있으나 거리상으로는 10km정도 떨어져 있고 남강 수계 및 육로를 통해 서로 이어지는 인접지의 가마유적으로서 하나의 권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적이다. 구조적으로 세장한 평면형태와 경사도를 동일하게 보여주고, 가마 바닥의 이상재로는 돌과 토기편 등을 사용하는 점에서 유사한 양상이다. 또 어서리유적에서는 (전용) 이기재가 다수는 아니지만 1점이 출토하였고 초본류 등의 이기재가 일반적이므로 두 토기가 마가 생산기술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특히 어서리유적은 가마유적의 중심부가 아직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인 가마구조와 생산기술 등 생산체계에서는 양 유적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생산토기에 있어서도 양 유적의 토기 자료는 5세기 2/4분기 전후의 전환기 양식으로 부터 소가야양식으로 이행되는 단계의 자료로서 상호 유사한 양상이며, 아직 대가야양식의 토기는 나타나지 않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발표자는 가마구조와 생산토기의 차이 만 이 아니라 “...(중략)...생산 토기의 양식적 측면과 함께 고려해보면, 각 유적의 토기제작 공인은 계통을 달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인 계통까지 언급하고 있어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생산 토기의 계통 추적 문제로서, 발표문에서는 생산토기의 계통을 대양식권 또는 핵심 양식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세히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계통 추적이 양식론적 측면(실은 형식적 측면에 해당되지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대의 토기 생산기술의 전파와 수용에 따른 유통권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다. 이러한 소비지 출토 토기를 대 양식권 또는 핵심양식권으로 계통 추적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였는지에 대해 보 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남강 상류 가야토기의 생산과 유통의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4세기대는 완형고배 와 통형고배의 존재유무에 의한 생산과 유통권의 지역 경계를 언급하고 있고, 5세기 전~중반 에는 남강유역 중 경호강 상류권과 경호강 하류권으로 나누어 상류권은 아라가야양식권과 대 가야양식권에 해당되고 하류권은 소가야양식권에 해당된다고 한다. 또 5세기 후반~6세기 전 반에는 대가야양식권과 소가야양식권에 해당되면서 정치적 계층적 유통-소비패턴이 나타나 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4세기에 있어서 특정 토기 한 기종의 존재를 통해 지역 경계를 언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 여지며, 5세기 전~중반의 경호강 상류권을 아라가야 및 대가야양식권으로 인식하는 점은 재 고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5세기 전~중반의 경호강 상류권을 대가야양식권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산청 어서리유적의 토기 자료가 대가야양식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 토기 자료가 대가야양식권으로 보는 발표자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언급해 둔다.

제3부

영·호남 경계의 가야사 위치 및 성격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발표 7】

영·호남 경계지역 가야 정치체의 성격

백승옥(국립해양박물관)

I. 머리말

II. 연구 현황과 사료

III. 영·호남 경계지역 가야의 성격

IV. 맺음말

I. 머리말

역사 연구는 소설과 달리 신빙성있는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이루어진다. 이 점을 전제로 할 때 이번 주제의 시간적 범위는 5~6세기대가 중심이며, 공간적 범위는 호남 동부지역이 된다. 『日本書紀』에 보이는 任那 四縣(上哆唎, 下哆唎, 婆陀, 牟婁)과 己汶, 帶沙(이하 2地)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지만, 『일본서기』가 임나 지역으로 인지하는 범위 내, 백제와 가야의 경계지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구 대상 지역이 동북아 전체의 영역에서 보면 좁은 지역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한국(『三國史記』), 중국(『梁職貢圖』, 『翰苑』), 일본(『일본서기』, 『新撰姓氏錄』, 『續日本後記』)의 삼국에서 만든 문헌에 모두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의 視野를 동북아 전체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提起한다.

동북아의 역사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서로 연동되어 진행되어 왔다. 중국 대륙의 선진문화는 한반도를 거쳐 일본열도에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정치체들은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였다. 그 속에서 통합과 분열의 굴곡도 있었다. 각각의 정치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공간적 위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임나 4縣과 2地 또한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존재였을까? 본고의 연구 목적이다.

II장에서는 연구 현황과 사료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위치 비정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술한다. 다만 그동안 4縣 2地에 대한 연구 부진의 원인이 연구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지적하고자 한다. II장 2절에서는 사료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주요

사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일본서기』 대외관계기사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임나 4현과 2지의 구체적 모습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4현 2지의 주변상황과 지형적 특성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2절에서는 임나 4현에서의 ‘縣’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볼 것이다. 3절에서는 「繼體紀」 7년(513) 11월조 기사에 주목했다. 이에는 2地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있는 각국들의 모임이 보인다. 내용 분석을 통해 이를 기문, 대사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로 파악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논의를 진행시키다가 좀 더 섬세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는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을 받아 향후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II. 연구 현황과 사료

1. 현황과 시각

고대 호남동부지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지명비정의 문제이다. ② 백제 또는 대가야가 이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③ 이 지역의 역사적 성격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①에 대한 관심은 일제강점기 일인학자들에 의해 비롯되었다.^[1] 『일본서기』에 의하면 임나 4현은 애초 日本의 官家인 것을 百濟에 할양하는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2지 또한 왜가 백제에 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에서는 이들 지역의 위치에 따라 임나일본부의 관할 지역이 정해지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4현은 전라도 지역에, 2地는 섬진강유역으로 비정되어 왔다. 최근 한국학계는 4현의 경우 여수, 순천, 광양 등지의 전남 동부지역으로, 2지는 전북 동부(기문·남강, 금강, 섬진강의 상류)와 경남 하동(대사)으로 봄이 대세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이견은 있다.^[2]

②에 대한 연구는 문헌사학과 고고학자들 모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백제의 이 지역

[1] 津田左右吉, 1913, 「任那疆域考」, 『滿鮮歴史地理研究1-朝鮮歴史地理-』,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64, 『津田左右吉全集』第11卷, 岩波書店. 今西龍, 1919, 「加羅疆域考」, 『史林』제4권 제3·4호; 1920, 「加羅疆域考補遺」, 『史林』제5권 제1호; 1922, 「己汶伴跋考」, 『史林』제7권 제4호. 이상 모두 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에 실려 있음. 鮎貝房之進, 1937, 「日本書紀朝鮮地名攷」, 『雜攷』第7輯 下卷.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2] 자세한 연구사와 위치비정에 대한 정리는 백승옥, 2007, 「己汶·帶沙의 위치비정과 6세기 전반 대 加羅國과 百濟」,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을 참조.

진출과 관련해서는 주로 문헌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3] 대가야의 진출과 관련해서는 고고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4] 이러한 연구 경향은 현존 자료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③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1970년대 이 지역 발굴이 이루어진 이후 전영래의 연구가 있었지만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5] 최근 광장군의 활발한 연구와 이동희, 김재홍의 연구가 있다.^[6] 자료의 영세성이 연구 부진의 1차적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자료 부족만을 말하기 보다는 연구 시각에 대한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가야사 연구의 주류는 가야를 단일연맹체로 보는 시각에서 연구되어졌다. 가야 전기에는 김해의 구야국이 중심이 된 가야연맹체,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중심이 된 가야연맹체라 하여 전·후기 모두 단일 연맹체로 보는 것이다.^[7] 이 설의 애초 주창자는 이병도였

[3] 이영식, 1995, 「백제의 가야진출 과정」, 『한국고대사논총』 7. 백승충, 2000,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百濟研究』 제31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주성지, 2003, 「웅진시대 백제의 蟾津江 水系 진출」, 『慶州史學』 제22집. 정재운, 2008,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위가야, 2016, 「백제의 기문·대사 진출과정에 대한 재검토 - 513년 국제회의의 실상을 중심으로」, 『史林』 58. 세한 연구사와 위치비정에 대한 정리는 백승옥, 2007, 「己汶·帶沙의 위치비정과 6세기 전반 대 加羅國과 百濟」,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을 참조.

[4] 李熙濬, 1995, 「토기로 본 大伽耶의 圈域과 그 변천」, 『加耶史研究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 2017,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朴天秀, 1996, 「대가야의 국가형성과 발전」, 『석오 윤용진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윤용진교수 정년논총간행위원회. 金世基, 1995, 「大伽耶 墓制의 變遷」, 『加耶史研究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영식, 1995, 「백제의 가야진출 과정」, 『한국고대사논총』 7. 백승충, 2000,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百濟研究』 제31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주성지, 2003, 「웅진시대 백제의 蟾津江 水系 진출」, 『慶州史學』 제22집. 정재운, 2008,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위가야, 2016, 「백제의 기문·대사 진출과정에 대한 재검토 - 513년 국제회의의 실상을 중심으로」, 『史林』 58. 세한 연구사와 위치비정에 대한 정리는 백승옥, 2007, 「己汶·帶沙의 위치비정과 6세기 전반 대 加羅國과 百濟」,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을 참조.

[5] 전영래, 1874, 「任實 金城里 石槨墓群」, 『全北遺蹟調查報告』 제3집, 서경문화사 ;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천관우선생환력기념한국사논총』, 정은문화사.

[6] 광장군, 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 2000, 「湖南 東部地域 高塚의 分布相과 그 意味」, 『百濟研究』 제31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2018,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 『가야고분군』 III,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4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김재홍, 2012,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 『한국상고사학보』 제78호 ; 2018,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분의 위세품과 그 위상」, 『호남고고학보』 제59호. 이동희, 2004, 「전남동부지역 가야계 토기의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46집 ; 2011, 「全南 東部地域 加耶文化의 起源과 變遷」, 『百濟文化』 제45집.

다.^[8] 가야를 연맹체로 보는 견해의 주 근거는 『삼국유사』 오가야조였다. 이후 가야 단일연맹 체설은 한국학계의 정설로 정착되었으며, 현행 국사 교과서들 대부분 이 설에 의해 가야를 설명하고 있다.^[9]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호남 동부 지역과 같은 곳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가야일 것이라는 생각조차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가야는 결코 단일 연맹체 상태로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었다.^[10] 함안 안라국(아라가야)의 경우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여 존재하고 있었음이 문헌과 고고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11] 또한 포상팔국이 연합하여 (남)가라국을 공격하는 사건은 단일연맹체설로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단일 연맹체론을 주장하는 거의 유일한 근거는 모두 가야라는 단일한 이름으로 불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新羅末의 정치적인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서기』에서 ‘任那’로 표현된 가야지역은 古代 日本 중심주의 藩國史觀에 의해 왜곡, 윤색된 것이기 때문에 이의 용례로서 가야 단일연맹체설의 근거로 할 수는 없다.

신라에도 백제에도 속하지 않고 그 사이에 있으면서 보통의 國對國의 관계로 존재했던 국들이 후대에 加耶諸國으로 인식된 것이다. 가야 제국은 개별 각국별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임나 4현과 2지 등에 대한 역사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지배 복속되는 역사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역사에서 작은 존재는 작은 존재대로 의미가 있으며, 변경의 역사는 변경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들의 역사도 중시되어야 한다. 삼국에 가야를 포함한 4국 시대의 주장은 가야 단일연맹체설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주장은 가야사 붐을 형성하기 위한 흥행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역사의 진실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7] 김태식,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 2014, 『사국시대의 한일관계사 연구』, 서경문화사 ; 2019, 「가야의 공간적 범위 재론」,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8] 李丙燾, 1948, 『朝鮮史大觀』, 同志社 ; 1959, 『韓國史 古代篇』,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9] 백승옥, 2019,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부도에 실린 가야 영역 지도의 검토」,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참조.

[10] 백승옥, 2003, 『加耶 各國史 研究』, 해안출판사 ; 2014, 「加耶諸國의 존재형태와 ‘加耶地域國家論」, 『지역과 역사』 제34호 ; 이영식, 2016, 『가야제국사연구』, 생각과종이 ; 백승옥, 2019,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부도에 실린 가야 영역 지도의 검토」,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참조.

[11] 남재우, 2003, 『安羅國史』, 해안.

2. 사료의 성격

4현과 2지에 대한 기록은 한중일 삼국의 문헌에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 있다. 사료가 작성된 연대 순서로 보면 ①『梁職貢圖』(6세기 전반), ②『翰苑』(660), ③『日本書紀』(720), ④『新撰姓氏錄』(815), ⑤『續日本後記』(869), ⑥『三國史記』(1145)의 순이다. 이 가운데 ①과 ②는 중국 측 기록이고, ③~⑤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⑥은 고려 김부식이 찬술한 것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③만이 유일하게 4현과 2지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게 실려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서가 고대 일본 중심주의 번국사관에 의해 만들어져, 그 내용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자칫 오류의 난맥에 휘말릴 수 있다. 왜곡 날조된 사료 속에서 史實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梁職貢圖』는 梁武帝(502~549) 때에 蕭繹(후의 梁元帝)이 직접 그리고 그 序를 지었다. 편집 시기는 그가 荊州刺史로 있었던 시기(526~539)로 추정된다. 가야사와 관련하여서는 백제 옆에 있었던 소국들의 위치와 성격이 문제의 초점이다. 사신도 속에는 “보통 2년(521)에 백제 왕 부여 용이 사신을 보내(普通二年(521)其王餘隆遣使)~”라는 제기가 있어 사신도가 521년 양에 온 백제 사신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旁小國으로 가야 제국의 이름이 보인다. 그 중에 “上己文”도 보인다. 이로 보아 상기문은 521년까지 존재했었던 소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翰苑』은 唐 고종 顯慶 5년(660) 張楚金(?~689)이 찬술하고 雍公觀가 注를 붙인 類書의 初寫本이다. 『宋史』와 『崇文總目』 등 송대의 여러 書目에서 확인되는데 온전하게 전하지 않는다. 본래 30卷 분량이지만, 그 마지막 卷으로 여겨지는 蕃夷部 1卷만이 일본 福岡縣 太宰府天滿宮에 전해온다. 이는 전장 15.86m에 달하는 墨書의 卷子本으로, 9세기 平安初期의 鈔本으로 알려져 있다.^[12]

『한원』의 이용에서 가장 중시해온 것은 『高麗記』·『括地志』·『隋東蕃風俗記』 등 전하지 않는 引用文獻의 내용이다. 본고와 관련하여 번이부 백제조에 보이는 ‘基汶河’도 『괄지지』의 인용에서 보인다. 660년경 동이 지역의 최신정보에 기초해 작성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특히 ‘기문’이라는 국명이 ‘기문하’라는 하천(강)과 관련된 점은 중요하다.

『新撰姓氏錄』은 헤이안(平安) 시대 초기인 815년에 천황의 명으로 편찬된 일본 고대 씨족의 일람서이다. 平安京과畿内に 사는 1,182씨족을 그 출신별로 각각 皇別(황실의 자손), 神別(일본 신의 자손), 諸蕃(도래인의 자손)으로 분류해 그들의 조상과 그 씨족명의 유래 및 가문의 분기를 기술했다. 본고와 관련해서 ‘任那國의 東北에 上·中·下の 三己汶地가 있다’는 점과 ‘地方은 삼 백리, 土地는 비옥하고 人民 또한 많다.’ 등의 기록은 중요하다.

[12] 윤용구, 2018, 「해제-“翰苑”의 편찬과 蕃夷部」, 『譯註 翰苑』,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pp.6~8.

『續日本後記』는 일본 文德天皇이 先代 仁明天皇의 역사가 아직 정리되기 전에 藤原良房 등 5인의 신하에게 撰修를 명하여 만들어진 것이다.^[13] 일본 六國史 중 하나이다. 仁明天皇 단대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833년부터 850년 사이의 역사이다. 모두 20권으로 貞觀 11년(869)에 완성된다. 본고와 관련하여서는, ‘吉田宿禰高世의 시조가 나라의 명에 따라 三己汶의 땅에 가서 살았다.’, ‘그 땅은 마침내 백제에 예속되었다.’ 정도의 내용이다. 기문의 땅이 백제에 예속되었다는 기록은 『일본서기』의 내용과 일치 한다. 이 『續日本後記』 또한 고대 일본 중심주의에 의거해 찬술된 것이다.

『삼국사기』 악지 가야금조에는 가야금곡 12곡명이 보인다. 우륵이 지은 12곡 중에서 중국 南朝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伎樂인 사자기, 보기의 두 곡을 빼 놓고는 모두 당시의 지명과 대응된다.^[14] 우륵이 지었다고 하는 12곡은 우륵이 새롭게 창작했다기 보다는, 5~6세기 당시 가야국들의 國歌와 같은 곡들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와 관련하여, 上·下奇物은 上·下己汶으로 볼 수 있다. 達己는 哆唎와 관련지어 현재의 전남 여수시와 여천군 돌산읍 지방의 옛 음악으로 보는 견해와 達己를 達己로 읽어 帶沙(하동)으로 비정하기도 한다.^[15] 우륵이 신라 진흥왕(재위 534~572)에게 귀순한 점으로 보면 12곡이 존재했던 시기는 6세기 전반대로 보인다. 이로 보면 기문국은 6세기 전반대까지는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언급한 사서들에서는 본고의 주제가 되는 임나 4현과 기문 대사 관련기사의 내용이 매우 단편적이다. 구체적 내용은 대부분 『일본서기』에 실려 있다. 다음의 제시 사료인 계체기 6년 12월조부터 23년조까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는 흠명기까지도 이어진다. 『일본서기』는 왜 이러한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사료 1) 백제가 사신을 보내 調를 바쳤다. 별도로 表를 올려 任那의 國, 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 四縣을 청했다. 哆唎國에 파견된 사신(守; 미코토모찌)인 穗積臣押山이 주청해서 말하기를 “이 4현은 백제의 땅에 가깝고 日本에서는 먼 곳입니다. 조석으로 통행하기 쉽고 닭과 개의 주인도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백제에게 주어 한 나라로 만들면 보전의 책임 이것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중략) 表를 올린대로 임나 4현을 주었다.^[16]

[13] 坂本太郎, 1970, 『六國史』, 吉川弘文館, pp.252~257.

[14] 田中俊明, 1990, 「于勒十二曲と大加耶連盟」, 『東洋史研究』48-4, 京都大文學部, p.13.

백승충, 1992, 「于勒十二曲의 해석문제」, 『韓國古代史論叢』3, 韓國古代社會研究所, p.469.

[15] 田中俊明, 1990, 앞의 논문.

[16] 『日本書紀』卷17, 繼體 6년(512) 12月조,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 下哆唎 娑陀 牟婁 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 合爲同國 固存之策 無以過此 (中略) 依表賜任那四縣.”

백제가 왜(일본)의 官家인 임나 4현을 줄 것을 청하자 이를 허락하는 내용이다. 고대 일본 중심주의 번국사관이 적용된 상태의 내용이다. 고대 일본 중심주의 藩國史觀이란 일본을 중심에 놓고 주변 제국들은 번국으로 설정한 것이다.^[17] 『일본서기』의 전반적 내용 구성은 ①神話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 것과 ②對外關係, ③일본 내의 사정을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한반도 제국들은 천황의 내관가로 설정하여 매년 調를 바치는 대상이 된다. 이에 위의 사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제가 사신을 보내 調를 바쳤다.’라는 내용이 등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백제뿐 만이 아니었다. 고구려, 신라, 임나 모두가 해당되었다. 이러한 번국사관은 『일본서기』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관통된다.

神功皇后의 삼한 정벌 기사가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후 삼한 지역은 천황의 지배지로서 천황의 裁可에 의해 통치되는 대상이다. 이른바 임나일본부는 그 중심에 있다. 특히 임나지역에 대한 지배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대부분의 기사는 임나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기록되고 있다. 임나 지배의 마지막은 孝德紀 大化 2년(646)조에 보이는 ‘마침내 임나의 調를 그만두게 하였다(遂罷任那之調)’로 끝맺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임나 4현의 백제 할양은 임나 지배에 있어서 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서기』 찬자의 이러한 설정은 후대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창안한 학자들에 의해서 임나의 쇠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18] 그러나 『일본서기』의 내용이 모두 창조된 소설과 같은 것은 아니다. 史實과 虛構가 착종되어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실성 있는 기본 사료가 바탕이 된 부분도 結構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역사성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첫째는 이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기년은 안정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웅략기 이후 연대에 대해서는 믿는 입장이다. 특히 계체기의 내용 중에 『삼국사기』 기록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년에 있어서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19] 둘째, 지명이나 국명, 인명 등 고유명사의 표기는 인정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서기』 한반도 관계기사의 기초 자료가 『백제본기』임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셋째,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임나 4현과 2지 지역

[17] 이에 대해서는 송완범, 2009, 「‘일본 율령국가’와 ‘일본 중심주의’—“일본서기”를 중심 소재로 하여, 『동아시아 세계의 일본사상—‘일본 중심적 세계관’ 생성의 시대별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18] 末松保和, 1949, 앞의 책.

[19]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법흥왕 9년(522) 춘3월조에는 “加耶國王이 사신을 보내 請婚하므로, 왕이 伊滄 比助夫의 누이동생을 보내었다(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滄比助夫之妹送之).”라는 기록이 있다. 이른바 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기사이다. 관련하여 『日本書紀』卷17, 繼體天皇 23年(529) 3月條에는 결혼 파탄기사가 보인다. 또한 『삼국사기』의 ‘比助夫’는 『新增東國輿地勝覽』권29, 고려현 建置沿革條에 인용되어 있는 최치원의 「釋順應傳」에 보이는 比枝輩와 동일인물이다. 이러한 정황은 계체기 기사의 연대는 물론 그 내용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음을 웅변한다.

을 두고 반파와 백제의 다툼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백제가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때 倭의 개입 여부와 정도에 대해서는 검토의 대상이다.

임나 4현과 2지는 주로 계체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계체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서기』의 한반도 관계기사가 집중적으로 보이는 곳이 계체·흙명기이다. 특히 계체기는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반도 관계기사로 채워져 있다. 6년 하 4월조의 임나 4현 할양기사로부터 시작해서 기문대사 관련기사(7년 6월, 11월, 同是月, 8년 3월, 9년 2월, 동 시월, 4월, 10년 5월, 9월조 기사 등), 근강모야신의 남가라 지역에서의 활동 기사(21년 6월, 23년 3월, 4월, 24년 9월, 10월조 기사), 가라국 동향 기사(23년 3월, 4월, 9월조 기사)등이다. 문제는 이들 기사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허구의 한반도 남부 지배 像을 엮어냄에 있어서, 한반도계 사서(아마도 백제계 사서인 『백제본기』가 중심)와 家傳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내에 전해져 오는 기록들을 혼합시켜야 함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계체기에 보이는 穗積臣押山, 대반금촌대련, 물부련, 근강모야신 등과 같은 씨족들은 『일본서기』 성립 당시, 왕권과 씨족들의 결합관계를 정당화 시키는 과정에서 정리된 것이다. 각 씨족들은 그들의 조상대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천황에 봉사했음을 그들의 家傳을 통하여 정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姓이 사여되었으며, 姓의 사여와 『일본서기』의 성립은 씨족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20]

천황과 제 씨족들 간의 관계, 당시 집권 세력과 각 씨족들 간의 관계 등이 사료 결구와 취사 여부에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서로의 견제 속에서 내용이 정리되었을 것이다. 이 점은 허구 한반도의 結構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서기』 분석을 통한 史實 추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III. 영·호남 경계지역 가야의 성격

1. 주변상황과 지형적 특성

5세기 중엽 이후 6세기 대 중국 대륙의 역사는 남북조시대(439~589)로서 분열의 시대였다. 반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통합이 활발히 진행된 시대였다. 500년에 등극한 新羅 智證王은 즉위 4년에 國號와 尊號를 정하고 그 다음해에는 喪服法을 제정 반포하였다.^[21] 514년에는 신라 중흥의 王이라고 하는 法興王이 왕위에 오른다. 신라는 이때부터 年號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는 당시 신라의 획기적 성장을 상징하는 것이다. 517년의 兵部設置,^[22] 520년의 율령반포와

[20] 長谷部將司, 2004, 『日本古代の地方出身氏族』, 岩田書院, pp.21~29.

[21]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4年(503), 5年 4月條.

공복제 실시,^[23] 521년 남조 梁에의 사신 파견,^[24] 528년^[25] 내지 535년^[26]의 佛敎 公認 등은 그동안 신라가 내부적으로 쌓은 역량이 비로소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쪽 가야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다. 524년 무렵에 이미 남가라 지역을 장악했으며,^[27] 540년대가 되면 탁기탄, 탁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 무렵 가라국은 522년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어 친신라적인 노선을 취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결렬된다.^[28] 이는 기본적으로 신라의 가야 진출 야욕 때문이었다.

백제 또한 6세기대가 되면 가야 서남부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한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수도 漢城이 함락된 후 熊津으로 천도한 백제는 무령왕과 성왕 대에 이르러 중흥의 시기를 맞이한다. 북쪽으로는 구토회복에 힘쓰는 물론 남방으로의 진출도 모색되어 졌다. 그런데 5세기 후엽 이래 6세기 전반 대에도 고구려의 남쪽으로는 압박은 계속되었다. 이에 백제와 신라는 對고구려 군사동맹을 맺어 남북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백제는 중국 南朝의 諸國과 交聘하면서 우호를 다지는 한편 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친선책을 펼친다. 백제는 倭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경에 접한 가야제국을 점령해 간다. ‘任那4縣’과 己汶·帶沙로의 잠식도 이러한 과정인 것이다. 『일본서기』 계체기에 의하면 원래 백제의 땅이었던 己汶을 伴跋가 차지하자 백제는 倭의 힘을 빌려 기문과 대사를 차지한다. 반파는 이에 대해서 반발하였지만 결국 2地는 백제에 귀속되고 만다.^[29]

반파는 처음에는 가라국과 별개의 나라였지만 후에 가라국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520년대 후반이 되면 가라국과 백제는 직접 접하게 되었다.^[30] 529년 무렵 帶沙(=多沙=하동)까지 진출했던 가라국은 그 지역을 백제에게 빼앗기게 된다. 백제는 더욱 남진하여 531년 무렵에는 현 진

[22] 『위의 책』卷4, 新羅本紀4 法興王 4年(517)條.

[23] 『위의 책』卷4, 新羅本紀4 法興王 7年(520)條.

[24] 『위의 책』卷4, 新羅本紀4 法興王 8年(521)條.

[25] 『위의 책』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5年(528)條. 『삼국유사』에는 법흥왕 14년에 이차돈이 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6] 李基白, 1976, 「新羅 初期佛敎와 貴族勢力」 『震檀學報』 40 ; 1978, 『新羅時代의 國家佛敎와 儒敎』 pp.82~86.

[27]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1年(524)條. 『日本書紀』卷17, 繼體 21年(527) 하6월조.

[28] 『日本書紀』卷17, 繼體 23年(529) 3월조.

[29] 『日本書紀』권17, 繼體紀 6년(512) 12월조, 동 7년(513) 6월조, 동 8년, 9년조.

[30] 반파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현재 학계의 대세는 반파를 가라국의 이칭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의 근거는 빈약하다. 필자는 반파를 원래 경북 성주지역에 존재한 가야국이었지만 521년(양직공도 기준) 이후 541년(伴跋 既殿奚·加羅 古殿奚) 사이에 고령의 가라국에 복속된 것으로 본 바 있다. 백승옥, 2007, 「己汶·帶沙의 위치비정과 6세기 전반대 加羅國과 百濟」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도서출판 서울기획, p.222.

주지역까지 진출한다.^[31]

이러한 신라와 백제의 가야로의 잠식과정 속에서 당시 가야 제국 가운데 최강국인 가라국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4세기 중엽 이후 친백제적이었던 洛東江 以西의 가야제국은 5세기 후반이 되면 고구려의 압력에 의한 신라와 백제의 對加耶 지역 힘의 공백을 틈타 백제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다. 建元 원년(479년)에 加羅國王 荷知는 南齊에 건사하여 輔國將軍本國王을 제수 받는다.^[32] 이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라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하다. 『三國史記』 卷3, 照知麻立干 18年(496년)條에 보이는 “加耶國이 꼬리가 다섯 척 되는 흰 뿔을 보냈다”라는 기사는 당시 가야제국의 주축이었던 加羅國이 신라와 연계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백제 영향력의 일시 공백기를 틈타 신라와 밀착하여 우호관계를 수립함으로써 對百濟 牽制 및 자립책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야제국의 자립책은 529년대까지 이어진다.^[33] 그러나 이러한 가야의 노력들은 自主化가 아니라 오히려 신라로 복속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529년 안라에서 개최된 안라고당회의는 안라국 주동의 회의였다. 이미 신라에 복속된 남가라, 탁기탄, 탁순의 복건과 가야제국의 자존책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 회의에 가라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가야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힘의 구심체가 없었음을 보는 주는 것이다. 541년과 544년 백제의 수도 사비에서 열리는 회의에 안라국과 가라국 사신을 비롯한 가야제국의 대표들이 모이지만 실효는 없었다.^[34] 가야부흥을 위한 회의였지만 백제의 야욕만 확인될 뿐 가야제국의 복건과 자존을 위한 방안은 모색되지 않았다.

전북 동부 지역은 한반도에 있어서 팽창과 통합의 시기에 각국들 간에 虎視眈眈의 요지였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 지역 어느 곳을 己汶으로 비정하고 있음이 대세이다. 그런데 지명의 비정은 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한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基文河’가 기문 지역을 곁에 두고 흘렀을 것이고, 제 기록들에서 上·(中)·下己汶을 말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료가 말하는 기문의 존재는 지형의 특이성을 상상케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지형적 특성에 대해서는 소개한 바 있기 때문에^[35] 본고에서는 기문하에 대해서만 약간 언급하고자 한다.

【31】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25년(531) 12월 分註, “師進至于安羅 營乞毛城”에서 乞毛城의 위치를 현 진주지역 주변으로 비정한다.

【32】 『南齊書』 東南夷傳 加羅國條; 加羅國은 三韓의 한 계통이다. 建元 원년(479년, 신라 照知麻立干 1년)에 국왕 荷知가 사신을 보내와 방물을 바쳤다. 이에 詔書를 내렸다. 널리 헤아려 비로소(조정에) 올라오니, 멀리 있는 夷가 두루 德에 감화됨이라. 加羅王 荷知는 먼 동쪽 바다 밖에서 폐백을 받들고 관문을 두드렸으니, 輔國將軍本國王의 벼슬을 제수함이 합당하다.

【33】 『日本書紀』 卷17, 繼體 23년(529) 3월조.

【34】 『日本書紀』 卷19, 欽明 2년(541년) 4월조, 동, 欽明 5년(544) 11월조.

사료 2) “括地志에 말하기를 ‘熊津河는 나라의 동쪽경계로부터 나오고 서남으로 흐르고 나라의 북쪽을 가로질러 흐르는 것이 백리이다. 또 서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강폭이 넓은 곳은 30보이다. 물이 지극히 맑다. 또 基汶河가 나라에 있는데 源이 나라 안에 있다. 源은 나라의 南山으로부터 나오고 동남쪽으로 흘러 大海에 이른다. 그 水族은 중국과 같다.”^[36]

사료 3) “任那國에서 아뢰기를 저희들의 나라 東北에 三己汶地가 있는데 上己汶과 中己汶과 下己汶이다. 地方은 삼백리인데, 土地는 비옥하고 人民 또한 많다. 그런데 이 땅을 두고 新羅國과 더불어 서로 다투지만 서로 간에 능히 잘 다스리지 못하고 싸우기만 하니 백성들이 겨우 생만 유지할 뿐이다. 저희가 청하는 것은 장군으로 하여금 이 곳을 다스리게 하여 貴國(倭)의 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37]

사료 4) “右京人 左京亮 從5位上 吉田宿禰書主, 越中介 從5位下 吉田宿禰高世 등에게 興世朝臣의 성을 주었다. 시조 鹽乘津은 倭人이었는데, 후에 나라의 명에 따라 三己汶의 땅에 가서 살았다. 그 땅은 마침내 백제에 예속되었다. 鹽乘津의 팔세손인 達率 吉大尙과 그의 아우 少尙 등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잇달아 우리 조정에 왔다. 대대로 의술을 전수하였고 아울러 文藝에 통달하였다. 자손은 奈良京 田村里에 거주하였으므로 吉田連의 성을 주었다.”^[38]

【35】곽장근, 2018,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 『가야고분군』Ⅲ,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4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김재홍, 2012,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 『한국상고사학보』제78호 ; 2018,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분의 위세품과 그 위상」, 『호남고고학보』제59호.

【36】『翰苑』蕃夷部 百濟條. “括地志曰‘熊津河出國東界 西南流經國北百里 又西流入海 廣處(處)三百步 其水至清 又有基汶河在國 源出其國 源出其國南山 東南流入大海 其中水族與中夏同’.”

【37】『新撰姓氏錄』, 左京皇別下. “吉田連~ 任那國 奏曰臣國東北有三巴汶地[上巴汶·中巴汶·下巴汶]地方三百里土地人民亦富饒與新羅國相爭 彼此不能攝治 兵丈相尋 民不聊生 臣請將軍令治此地即爲貴國之部也”.

【38】『續日本後紀』권6 仁明天皇 承和4年(837) 6월 己未條. “右京人左京亮從五位上吉田宿禰書主 越中介從五位下同姓高世等 賜姓興世朝臣 始祖鹽乘津 大倭人也 後順國命 往居三己汶地 其地遂隸百濟 鹽乘津八世孫 達率吉大尙 其弟少尙等 有懷土心 相尋來朝 世傳醫術 兼通文藝 子孫家奈良京田村里 仍元賜姓吉田連” 번역은 崔根泳 등 편역, 『日本 六國史 韓國關係記事 譯註』, (財)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330쪽을 참조하였다.

사료 2의 기문하와 관련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강을 대부분 섬진강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최근 곽장근은 이를 남강으로 이해해 기문의 위치를 남강 상류지역인 운봉고원의 남원 유곡리, 두락리고분군과 연계하여 비정하고 있다.^[39]

당시 백제인들의 방향 감각이 어느 정도 정확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백제의 수도에서 보았을 때 섬진강과 남강 모두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보면 섬진강은 거의 남쪽으로만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반면 남강은 남으로 흐르다가 진주 부근에서 동쪽으로 흘러 경남 의령 지정면과 함안 대산면 사이에서 낙동강 본류와 만난다. 그 후 동으로 흐르다가 삼랑진에서 다시 남으로 흘러 부산과 김해 사이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상, 중, 하의 三己汶은 지리적으로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문의 비정에 있어서 소국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유적이 2~3개 붙어 있는 지역을 후보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縣’의 존재형태

다음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가야의 ‘縣’이다.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임나 4縣은 繼體紀 6년(512) 12월조에서는 “任那國 上哆唎 下哆唎 娑陀 牟婁 四縣”, 또는 “此四縣”, “任那四縣”의 형태로 보인다. 그에 앞선 3년 2월조에는 “任那日本縣邑”으로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任那는 좁은 의미에서는 가야의 개별국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서는 가야 전역을 의미한다.^[40] 위 계체기 6년 12월조에서의 임나 4현은 ‘임나의 나라인 상다리 등등의 4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 ‘國’과 ‘縣’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 (上)哆唎國이라 해야 할지 (上)哆唎縣이라 해야 할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동일 사료 안에서 “哆唎國”의 표현도 있고 “此四縣”, “任那四縣” 등 縣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國이라면 독립된 정치체로 볼 수 있을 것이고, 縣이라면 어떠한 국에 속해 있는 지역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縣이라면 과연 가야의 어느 나라에 속한 현이었을까?

가야 제국 가운데 縣을 가진 나라가 있었다. 『삼국사기』 가야금조에는 우륵의 출신지로 “省熱縣”이 등장한다.^[41] 우륵이 대가야인이라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가라국(=대가야)에 縣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사료이다.

[39] 곽장근, 2015,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百濟文化』 52, p.13.

[40] 『일본서기』권19, 흠명기 23년 춘정월조.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二十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別言加羅國 安羅國 斯二岐國 多羅國 卒麻國 古嵯國 子他國 散半下國 乞漉國 稔禮國 合十國].”.

[41] 성열현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백승옥, 2007b, 「加耶 ‘縣’의 성격과 省熱縣의 위치—于勒의 출신지에 대한 재검토」, 『韓國民族文化』 30,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표 1. 5·6세기 전반 시기 가야 주변정세

시기	내용	출전
433	羅·濟同盟 結成	新羅本紀 訥祗麻立于 17年 7月條
450	高句麗 邊將 掩殺 事件	// 34年 7月條.
468~474	신라 대 고구려 방어를 위한 築城	新羅本紀 慈悲麻立于 11, 13, 14, 16, 17年條.
475	고구려 백제 한성을 점령함, 백제 웅진 천도	高句麗本紀 長壽王 63년조
507	大伴金村 越前에서 男大迹王을 맞이해 즉위시킴 → 繼體天皇	繼體紀 원년조
509	任那의 日本縣邑에 있는 百濟 백성들을 백제로 옮김	// 3년조
512	任那 4縣을 백제가 차지함	// 6년 12월조
513~515	伴跋가 百濟와 己汶·帶沙를 두고 각축 결과 백제가 차지함	// 7~9년조
513	百濟, 斯羅, 安羅, 伴跋, 倭 회의 개최	// 7년 11월조
521	新羅 중국 梁에 遣使(梁職貢圖 백제 사신도 참조)	新羅本紀 법흥왕 8년조
522	가라-신라 결혼동맹(계체기 23년조 참조)	// 9년조
527	筑紫國造 磐井의 亂	繼體紀 21년조
529. 3	백제 다사진 점령으로 加羅-신라와 결당(가라왕이 신라왕녀와 결혼) → 신라인들의 對加耶 간첩활동에 대해 결혼 동맹 파탄	// 23년조
//	가야(남가라, 탁기탄)의 復建과 안라국의 自存과 독립을 위한 안라 고당회의 개최, 이 회의에서 백제사신 홀대 당함	// 是月條
529. 9	안라는 倭(毛野臣으로 상징)의 횡포를 막고자 함. 倭 세력의 축출을 위해 신라와 백제에 군사 요청.	// 9월조
531	백제 안라 주변의 乞乞城 진주	// 25년조
532	남가라(=금관가야) 신라에 복속	신라본기
537	신라가 임나를 침공함으로 倭가 大伴大連金村의 아들인 狹手彦을 임나에 보냄	宣化紀 2년조
538	백제 사비 천도	삼국사기
539	繼體 사후 야마토정권은 安閑·宣化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欽明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으로 분열, 전자를 지지한 大伴金村, 후자를 지지한 蘇我稻目.→ 2朝 병립.	『일본서기』
540	大伴金村 가야문제로 인해 실각	흥명기 원년조
541	* 安羅 次旱岐 夷吞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 卒麻의 旱岐, 散半奚의 旱岐의 兒, 多羅의 下旱岐 夷他, 斯二岐의 旱岐의 兒, 子他의 旱岐 등과 任那日本府 吉備臣 백제에 감 → 1차 사비회의 * 백제 성왕 下部 中佐平 麻鹵, 城方 甲背味奴 등 加羅에 파견 任那日本府와 會盟케함.	흥명기 2년 4월조
544	日本(府)吉備臣, 安羅의 下旱岐 大不孫과 久取柔利,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와 率麻君과 斯二岐君과 散半奚君의 아들, 多羅의 二首位 訖乾智, 子他의 旱岐, 久嗟 旱岐 백제에 감 → 2차 사비회의	// 5년 11월조

아래 기사는 『일본서기』 기사이지만 『삼국사기』에도 동일 기사가 나오고 있어 비교적 신빙성 높은 사료이다. 이에도 가라국의 縣이 보인다.

사료 5) “가라왕이 신라왕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드디어 아이를 가졌다. 신라가 처음 왕녀를 보낼 때 100인을 함께 보내어 그녀의 종(從)으로 삼았다. (가라는) 그들을 받아들여 여러 縣에 나누어 두었다.”^[42]

이 기사를 통해 보면 加羅國에 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군현제 실시는 당시 주변 삼국의 縣制 실시 상황으로 보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43] 그러나 縣의 존재는 文字 행정이 실시되었음을 의미함으로 사회 발전 정도의 추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라국 권역 내에서 ‘下部思利利’, ‘二得知’ 명문이 있는 토기나, 加耶碑의 존재 등으로 보아 가라국이 문자 행정을 실시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가라국에는 현이 존재했으며, 문제의 임나 4현은 가라국의 현으로 추정한다. 이를 백제가 차지하는 과정이 계체기에 실린 것이다. 위의 사료 5)에서 가라국이 왜 신라인들을 여러 현에 흩어져 살게 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이들 신라인들이 가라의 지역 내에 살면서 신라를 위한 정치적 행동(간첩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가라로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들을 흩어져 살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縣보다는 그 상위의 州나 郡에 안치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縣에 안치했다는 것은 그 상위의 주나 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가라의 縣制는 진정한 의미의 군현제가 실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독립된 지역 집단이 어떠한 國으로 편성되지는 않은 채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지역 조직 같은 것이 ‘縣’의 실체였을 가능성이 높다.^[44]

임나 4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론하진 않겠다. 다만 위치 비정을 위한 전제만 몇 가지 제시한다.

첫째는 『일본서기』가 ‘임나의 나라’, ‘반파의 나라’라고 표현한 점을 중시해야 한다. 『일본서기』가 염두에 두는 임나는 좁은 의미의 경우 김해 등 가야 제국 가운데 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흠명기 23년조의 ‘總言 任那’ 지역 내를 의미 한다. 이 점을 유의해서 생각해 보면, 초기 일본학자들이 본 충청도 지역은 물론 東潮 등이 주장하는 영산강 유역으로도 보기 어렵다.

둘째는 이들 지역에 결국은 백제가 진출한다는 점이다. 백제의 남진 루트와 관련된 곳이며 4현→기문, 대사로의 진격 루트를 감안한 가야 서쪽 경계지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계체기 7년(513)의 모임에 참가하는 국들, 즉 백제, 안라, 신라, 반파 제국들간의 이

[42] 『일본서기』권17, 계체기 23년 3월조. “加羅王 娶新羅王女 遂有兒息 新羅初送女時 并遣百人爲女從 受而散置諸縣.”

[43] 백승옥, 2007b, pp.12~13.

[44] 백승옥, 2007b, p.17.

해관계가 있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왜국의 조정에서 왜왕의 조칙을 듣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는 허구이며, 가야의 어느 장소에서 행해진 회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한다.

한편, 기문국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사료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다음의 사료에서 면모의 약간은 볼 수 있다.

사료 6) “보통(普通) 2년(521)에 그 왕 여룡이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말하기를 -(중략)- 백제 인근의 소국에는 반파(叛波)·탁(卓)·다라(多羅)·전라(前羅)·사라(斯羅)·지미(止迷)·마련(麻連)·상기문(上己文)·하침라(下枕羅)가 있다.”^[45]

위 기사에서 눈에 띄는 나라로는 반파와 상기문이다. 이들은 모두 小國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으니 앞서 살펴본 縣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傍小國의 의미는 521년 당시 梁에 遣使했지만 백제 사신을 따라갔던 나라들을 말한다.^[46]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8년(521)조에 신라가 梁에 사신을 보냈다고 되어 있다. 당시 신라로서는 대단한 일일 수 있지만 단 한 줄의 내용으로 그치고 있다. 이 또한 백제에 依賴한 견사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기문 또한 마찬가지로 이 당시 백제에 의뢰하여 자국의 사신을 중국에 보냈을 것이다. 이는 비록 자신들의 기록을 단 한 줄도 남기지 못한 소국이었지만, 중국과의 교류를 할 정도로 성장된 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문국은 521년까지 그 독자성을 유지한 국임을 알 수 있다. 계체기에는 513년에 백제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위의 기록이 사료의 취사성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존중해야 할 것이다.

3. 513년 安羅 국제회의의 眞相

아래에서는 繼體紀에 보이는 회의 개최 양상을 통해 2지를 둘러싼 각국들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2지의 성격에 대한 일면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료 7) 백제가 姐彌文貴將軍과 州利卽爾將軍을 穗積臣押山(『百濟本記』에 의하면 ‘왜의 意斯移麻岐彌’라고 한다)에게 달려 보내 오경박사 段楊爾를 바쳤다. 따로 주청하여 “伴跋國이 신의 나라인 己汶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얹드려 바라건대 천은으로 판단하여 본래의 소속으로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하였다.^[47]

[45] 『梁職貢圖』百濟國使臣圖經. “普通二年(521)其王餘隆遣使奉表云 -(中略)-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

[46] 李鎔賢, 1999, 「‘梁職貢圖’百濟國使條의 ‘傍小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7 참조.

사료 8) 조정에서 백제의 姐彌文貴將軍, 斯羅의 汶得至, 安羅의 辛已奚, 賁巴委佐, 반파의 既殿奚, 竹汶至 등을 나란히 세우고 은칙을 받들어 선포하고, 己汶, 帶沙를 백제국에 주었다. 이 달에 반파국이 즈지를 보내 珍寶를 바치고 기문의 땅을 달라고 하였으나, 끝내 주지 않았다.^[48]

앞의 사료 7에 의하면, 백제가 姐彌文貴將軍과 州利卽爾將軍을 倭에 보내 본래 자신의 땅인 己汶을 伴跛國이 빼앗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어 사료 8의 기사에는 倭가 백제, 斯羅(新羅), 안라, 반파의 諸臣들을 朝廷에 불러서 己汶과 帶沙를 백제국에 주었다고 하고 있다. 이 또한 고대 일본 중심주의 번국사관이 개입되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사실 추구의 실마리도 있다.

이 기사들을 통해 볼 때 2지에 대한 귀속 문제를 多國이 모여 논의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정작 당사국인 기문과 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사는 계체기 29년조와 흥명기 2, 5년조에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신라와 백제의 가야 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열린 회의로는 529년 安羅高堂會議와 백제 수도 사비에서 열린 541년과 544년의 두 차례를 합해 도합 세 차례의 회의에만 관심을 가졌었다.^[49] 그러나 계체기 7년(513) 11월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기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4국 사신들이 안라국에 모여 회의를 한 것으로 본 바가 있다.^[50] 최근 위가야 또한 이 기사를 왜를 포함한 5국이 왜의 조정이 아닌 안라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보았다.^[51] 원 사료를 『일본서기』의 찬자가 임나지배사관에 입각하여 개변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사료 9) “이 달에 近江毛野臣을 安羅에 보내 조칙으로 신라에 권하여 南加羅, 喙己吞을 다시 건립하도록 했다. 백제는 將軍君尹貴, 麻那甲背, 麻鹵 등을 보내 안라에 가서 조칙을 듣도록 하였다. 신라는 번국의 관가를 깨트린 것을 두려워하여 大人을 보내지 않고 夫知奈麻禮, 奚奈麻禮 등을 보내 안라에 가서 조칙을 듣도록 하였다. 이에 안라는 새로이 高堂을 짓고 칙사를 인도하여 올라가는데 國主는 뒤따라 계단을 올라갔고 국내의 대인으로서 미리 당에 오른 사람은 하나들이었으

[47] 『日本書紀』卷17, 繼體 7년(513) 6월조, “百濟遣姐彌文貴將軍 州利卽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 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願 天恩判還本屬.”.

[48] 『日本書紀』卷17, 繼體 7년(513) 11월조, “於朝廷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 伴跛既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帶沙賜百濟國 是月 伴跛國 遣戡支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

[49] 백승옥, 2004, 「‘安羅高堂會議’의 성격과 安羅國의 위상」, 『지역과 역사』 14, 부산경남역사연구소.

[50] 백승옥, 2004, 위의 논문, p.27.

[51] 위가야, 2016, 앞의 논문.

며 백제사신 將軍君 등은 당 아래에 있었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두세 번 당위에서 모의했는데 장군 군 등은 뜰에 있는 것을 한탄했다.”^[52]

사료 10) “安羅의 次早岐 夷吞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 卒麻의 早岐, 散半奚의 早岐의 兒, 多羅의 下早岐 夷他, 斯二岐의 早岐의 兒, 子他의 早岐 등과 任那日本府 吉備臣[이름자를 잃었다]이 백제에 가서 조서를 들었다. 백제 성명왕은 임나 한기들에게 “일본천황이 말씀한 바는 오로지 임나를 다시 건립하라는 것이오. 이제 어떤 계책을 써서 임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겠소.”^[53]

사료 11) “백제가 사자를 보내 日本府臣과 任那執事를 불러 말하기를 (중략) 지금 일본부의 臣 및 임나국의 집사가 와서 칙언을 받들어 듣고, 같이 임나의 일을 모의하라”고 하였다. 일본의 吉備臣, 安羅의 下早岐 大不孫과 久取柔利,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와 率麻君과 斯二岐君과 散半奚君의 아들, 多羅의 二首位 訖乾智, 子他의 早岐, 久嗟의 早岐가 백제에 갔다. 이에 百濟의 聖明王이 조서를 대략 보이고 말하기를 (중략) 임나의 나라를 일으키고 계승시켜 오히려 옛날과 같이 길이 형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중략) 바라는 바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서 강적(고구려)을 타파하려는 것이다. (중략) 북적(고구려)은 강대하고 우리는 약하다. (중략) 그러나 이제 돌아가서 삼가 일본대신〔임나에 있는 일본부의 대신을 말한다〕·안라왕·가라왕에게 말하여 함께 사신을 보내 천황에게 같이 상주하겠습니다.”^[54]

【52】『日本書紀』권17, 계체기 23년(529) 3월조, “是月 遣近江毛野臣 使于安羅 勸新羅 更建南加羅·喙己吞 百濟遣將軍君尹貴 麻那甲背麻鹵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新羅恐破蕃國官家 不遣大人 而遣夫智奈麻禮 奚奈麻禮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於是 安羅新起高堂 引昇勅使 國主隨後昇階 國內大人 預昇堂者一二 百濟使將軍君等 在於堂下 凡數月再三 謨謀乎堂上 將軍君等恨在庭焉”.

【53】『日本書紀』卷19, 欽明 2년(541년) 4월조, “安羅次早岐夷吞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早岐 散半奚早岐兒 多羅下早岐夷他 斯二岐早岐兒 子他早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關名字] 往赴百濟 俱聽詔書 百濟聖明王謂任那早岐等言 日本天皇所詔者 全以復建任那 今用何策 起建任那”.

【54】『日本書紀』卷19, 欽明 5년 (544) 11월조, “百濟遣使 召日本府臣任那執事曰 (중략) 今日日本府臣及 任那國執事 宜來聽勅 同議任那 日本吉備臣, 安羅下早岐大不孫 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率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 子他早岐 久嗟早岐 仍赴百濟 於是 百濟王聖明·略以 詔書示曰 (中略) 欲冀興繼任那之國 猶如舊日 永爲兄弟 (중략) 唯庶克濟多難 殲撲強敵 (중략) 北敵強大 我國微弱 (중략) 今願歸以敬諮日本大臣 (謂在任那日本府之大臣也) 安羅王 加羅王 俱遣使 同奏天皇 此誠千載一會之期 可不深思而熟計歟”

표 2. 6세기 전반 加耶 復建을 위한 국제회의의 양상

연도	장소	참가국(참가자 직위, 이름)	목적	결과	출처
513	安羅	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 賁巴委佐) 伴跋(既殿奚, 竹汶至) 倭(穗積臣押山)	己汶, 帶沙의 귀속문제	백제 귀속	繼體 7년 11월조
529	安羅	安羅(國主, 國內大人) 百濟(將軍尹貴, 麻那甲背, 麻鹵) 新羅(夫智奈麻禮, 奚奈麻禮) 倭(近江毛野臣?)	신라에 복속된 南加羅, 喙己吞의 복건	백제 사신 홀대	繼體 23년 3월조
541	百濟	安羅(次早岐 夷吞奚, 大不孫, 久取柔利) 加羅(上首位 古殿奚) 卒麻(早岐) 散半奚(早岐의 아들) 多羅(下早岐 夷他) 斯二岐(早起의 아들) 子他(早岐) 任那日本府(吉備臣)	임나 복건. 친신라 성향의 임나일본부 성토, 가야 지역에 백제 郡領과城主 주둔 필요 강조	백제 입장 강조	欽明 2년 4월조
544	百濟	安羅(下早岐 大不孫, 久取柔利) 加羅(上首位 古殿奚) 散半奚(君의 아들) 多羅(二首位 訖乾智) 子他(早岐) 久嗟(早岐) 日本(吉備臣)	임나 복건책 논의	백제 성왕 재건책 강조	欽明 5년 11월조

이들 기사를 보면 모두 이미 멸망한 임나 지역의 복건을 위한 회의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보면 계체기 7년 11월조(사료 8)와 동일하다. 그 형태도 모두 천황의 勅을 받아 이루어진다. 이를 알기 쉽게 표를 만들어 보면 <표 2>와 같다.

계체기 7년(513) 11월조에 보이는 내용에서 일본의 藩國史觀을 벗겨내면, 이는 기문, 대사의 귀속 문제를 두고 열린 多者間 국제회의로 볼 수 있다. 이 회의가 개최된 경위에 대해서는 앞의 사료 7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伴跋國이 己汶을 차지하자, 백제가 기문은 본래 자기의 땅이라고 해서, 그 귀속 여부 문제를 두고 개최되는 것이다. 기문이 본래 백제 땅이라는 주장은 백제 측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 아마도 의례적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반파가 차지하고 있으며 백제가 갖고 싶어 하는 곳이다. 회의 개최의 주동자는 議案의 당사자인 백제 아니면 반파일 가능성이 높다. 회의 결과 2지가 백제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백제가 개최를 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료의 원 출처가 백제계 사료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 검토의 대상은 회의가 열린 장소의 문제이다. 『일본서기』에서는 왜에서 열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계체 6년(512) 12월조 기사(사료 1의 후반부 기사)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왜 조정 내에서 임나 4현 할양 문제는 매우 중시된 사안이었다. 그리고 왜 조정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는 당시 왜의 중신인 物部大連麿鹿火(모노노베노오무라지아라카히)와 그의 妻 사이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니와, 大兄皇子(나중의 安閑天皇)까지 동원되어 4현 백제 할양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다.^[55] 또한 흙명기 2년에 보이는 흙명과 신하들 사이에서의 대화 내용, 즉 옛 계체천황 때의 4현 할양은

【55】『日本書紀』卷17, 繼體 6년(512) 12월조(하반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56] 이러한 분위기의 왜 조정 내에서 2지의 백제 할양을 승인하는 회의가 개최되었을 리가 없다. 4현과 2지는 동일 선상에서 논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회의 개최 측인 백제가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자국간의 회의 장소로서 왜는 거리상으로도 불편한 곳이다.

그러면 회의의 장소는 어디일까? 백제와 반파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개최지로서 가능성은 낮다. 신라 또한 거리상 적당치 않거니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 개입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결국 중립적 입장에 있는 안라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회의에서 각국의 입장은 달랐다. 반파와 백제는 말할 필요 없이 2地の 점유권이 목표였다. 안라의 경우 중립적 입장이 강했지만, 백제의 4현 2지 잠식은 향후 자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내심 반대 의견을 가졌을 수도 있다. 529년 안라고당회의에서 반백제적 입장을 고수하는 점에서 추측할 수 있다.

신라의 경우, 중립적이라 해도 백제의 주장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향후 가야 남부 지역으로의 진출 야욕 때문이었다. 실제 신라는 이 시기 이후 가야 남부 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한다. 백제는 이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신라의 513년 회의 참석 의도는 향후 전개할 남진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엿보는 것이었을 것이다. 백제의 4현 2지에 대한 점령과 신라의 가야 남부 지역 점령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倭의 향방이다. 이는 백제와 왜 사이에서 실무적 활동을 했던 인물인 穗積臣押山(호즈미노오 미오시아마)의 행적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는 왜의 사신으로 백제에 왔다가 그 다음에는 哆唎國守로 나타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인물을 허구의 인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57]

그러나 사료 7의 ‘穗積臣押山(『百濟本記』에 의하면 倭(委)의 意斯移麻岐彌라고 한다.)’라는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사 작성 시 『백제본기』를 기초 사료로 한 증거이다. 왜의 사신이 백제와 임나지역에 왔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穗積臣押山이다. 注의 『백제본기』가 이를 보증해 준다. 그러면 그가 온 목적이 궁금해진다.

백제 측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료라는 점에서 倭의 회의 참석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왜 측 사신으로 회의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는 穗積臣押山이다. 계체 6년(512) 4월조에 의하면, 그는 축자국 말 40필을 가지고 백제에 사신으로 온 인물이다.^[58] 그리고

^[56] 『日本書紀』卷19, 欽明 2년조.

^[57] 백승충은 임나 4현 할양 기사에서 (下)哆唎國守 穗積臣押山の 내용은 사실성을 갖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백승충, 2012, 「계체·흠명기 ‘임나(국) 4현 할양’ 기사의 성격」, 『지역과 역사』31호, 부경역사연구소, p.107.

^[58] 『일본서기』권 17, 계체기 6년 하 4월조.

12월조에 의하면, ‘哆唎國守’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리국수에서 守를 『일본서기』는 ‘미코토모치’라 읽고 있다. 즉 哆唎國守는 哆唎國의 王이거나 首長이 아니라 倭가 哆唎國에 보내 사신인 것이다.

이는 이후 흙명기에 등장하는 ‘임나일본부’와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의 인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제까지 임나일본부에 대해서는 주로 흙명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들의 행적 추적을 통해 보아 임나일본부들은 대개 반백제 친신라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穗積臣押山の 경우 친백제적 성향을 띠고 있다. 더 나아가 임나 4현의 백제 귀속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왜 조정 내의 실력자인 大伴大連金村(오도모노오무라지카나무라)과도 친연성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계체 7년 6월에 왜로 돌아가는데, 이때의 내용으로 보아 그의 원래 파견 목적은 五經博士의 교체와 관련있는 것 같다(사료 2 참조). 즉 선진문물의 수입과 관련된 업무가 그의 본업이었다고 보여 진다.

그런 그가 백제의 4현 2지 장악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백제의 외교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가 표현한 ‘流言(백제가 뇌물을 주었다는)’은 실제 있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4현의 백제 할양은 穗積臣押山과 大伴大連金村 2인에 의해 무리하게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大伴大連과 穗積臣押山이 4현의 백제 할양과 관련하여 백제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백제 외교 활동의 실질적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穗積臣押山の 행적으로 보아 513년 안라에서 개최된 회의에도 참석했을 가능성은 높다. 그의 회의 참석은 백제의 외교적 노력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결국 백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회의의 결과가 백제 측의 의도대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서도 추측되는 일이다. 이로 보면 백제의 4현 2지 장악은 외교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지 할양과 관련하여 반파 또한 왜 측에 외교적 노력을 쏟지만 실패하고 만다.^[59] 이는 결국 백제와 왜 사이의 전통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백제 외교의 승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백제의 이러한 노선 선택은 신라에의 의식과 사료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북쪽의 ‘強敵’ 고구려를 의식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59] 『일본서기』권 17, 계체기 7년 11월-是月조.

IV. 맺음말

가야사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의 경우, 시각에 따라 결과는 물론 관심의 유무도 달라진다. 가야를 단일연맹체로 볼 경우 해명되지 않는 부분은 물론 볼 수 없는 부분도 많다. 어떠한 시각과 연구의 접근 방법이나에 따라 4현 2지로 대표되는 영·호남 경계지역 가야 정치체들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가야사 연구에 임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일본서기』의 한반도 관계기사는 虛構와 史實이 동시에 結構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로 사용할 경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체기 임나 4현 할양기사와 기문, 대사 관련기사도 고대 일본 중심주의 藩國史觀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任那 4縣에서 ‘縣’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다. 현재의 자료로서는 가야 제국 가운데 縣을 가진 나라는 加羅國이 유일하다. 『삼국사기』에서의 ‘省熱縣’, 『일본서기』에서의 ‘諸縣’ 등이다. 이에 임나 4현은 가라국의 현으로 보았다. 그러나 가라의 縣制는 진정한 의미의 군현제가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독립된 지역 집단이 어떠한 國으로 자립하지 않은 채,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지역 조직 같은 것이 ‘縣’의 실체였을 것이다. 이를 백제가 차지하는 과정이 『일본서기』 계체기에 실린 것이다.

『일본서기』 계체기 7년(513) 11월조에 보이는 諸國들의 모임을 기문, 대사의 귀속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국제회의로 보았다. 그 개최지는 왜가 아니라 안라로 보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신라는 향후 진행할 남진 정책을 위해 백제의 주장을 반대하기 어려웠다. 왜는 백제의 외교적 노력에 의해 4현과 2지의 백제 귀속에 찬동했다. 결국 513년 안라 국제회의에서 기문, 대사 2지의 백제 귀속 결정은 백제 외교력이 발휘된 결과였다.

이곳에서 정작 기문, 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양직공도』의 내용으로 보아, 기문은 남조 梁에 遣使할 정도의 국력을 유지한 채 521년까지 존속된 小國이었음을 알 수 있다. 4현과 2지는 백제와 가야(임나)의 경계에 위치했다. 6세기 전반 한반도는 통합의 시대였다. 그러나 自存의 능력이 없는 소국들은 결국 주변 강국에 복속되고 만다. 통합이 진행되고 있던 시대에 그 동력이 없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곽장근, 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 , 2000, 「湖南 東部地域 高塚의 分布相과 그 意味」, 『百濟研究』제31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 2018,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 『가야고분군』III,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4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今西龍, 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 김재홍, 2012,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 『한국상고사학보』제78호.
- , 2018,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분의 위세품과 그 위상」, 『호남고고학보』제59호.
- 김태식, 1996,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시고」, 『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 백제연구소.
- , 2014, 『사국시대의 한일관계사 연구』, 서경문화사.
- , 2019, 「가야의 공간적 범위 재론」,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고 한국학연구원.
- 노중국, 2018, 「4~6세기 나제동맹의 성격과 의미」, 『나제동맹』,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 백승옥, 2003, 『가야 각국사 연구』, 해안출판사.
- , 2004, 「『安羅高堂會議』의 성격과 安羅國의 위상」, 『지역과 역사』14, 부산경남역사연구소.
- , 2007a, 「己汶·帶沙의 위치비정과 6세기 전반 대 加羅國과 百濟」,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 2007b, 「加耶 ‘縣’의 성격과 省熱縣의 위치 — 于勒의 출신지에 대한 재검토」, 『韓國民族文化』30,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 , 2010, 「변·진한 및 가야·신라의 경계 — 역사지도의 경계 획정을 위한 試考」, 『韓國古代史研究』58, 한국고대사학회.
- , 2011, 「辰·弁韓의 始末과 内部構造」, 『博物館研究論集』17, 부산박물관.
- , 2014, 「加耶諸國의 존재형태와 ‘加耶地域國家論」, 『지역과 역사』제34호.
- , 2017, 「가야의 왕릉급 고분에 대한 역사적 해석」, 『韓國古代史研究』88, 한국고대사학회.
- , 2018, 「가야와 주변국」, 『가야사 총론』,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1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 2019,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부도에 실린 가야 영역 지도의 검토」,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백승충, 2000,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百濟研究』제31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 2012, 「계체·흙명기 ‘임나(국) 4현 할양’ 기사의 성격」, 『지역과 역사』31호, 부경역사연구소.
- 선석열, 2018 「가야와 주변국」, 『가야사 총론 —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1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송완범, 2009, 「‘일본 율령국가’와 ‘일본 중심주의’ — “일본서기”를 중심 소재로 하여」, 『동아시아 세계의 일본사상 -일본 중심적 세계관 생성의 시대별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 양숙자, 2018,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분포 현황조사의 성과와 과제」, 『2018 가야문화유산 최신조사 성과 자료집』,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유우창, 2017 「6세기 加羅의 對羅·濟관계」 『韓國古代史研究』88.

- 윤용구, 2018, 「해제-“翰苑”의 편찬과 蕃夷部」, 『譯註 翰苑』,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 위가야, 2016, 「백제의 기문·대사 진출과정에 대한 재검토 - 513년 국제회의의 실상을 중심으로」, 『史林』58.
- 이동희, 2004, 「전남동부지역 가야계 토기의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46집.
- , 2011, 「全南 東部地域 加耶文化의 起源과 變遷」, 『百濟文化』제45집.
- 이영식, 1995, 「백제의 가야진출 과정」, 『한국고대사논총』7.
- , 2016 『가야제국사연구』, 생각과종이.
- 李鎔賢, 1999, 「‘梁職貢圖’百濟國使條의 ‘傍小國」, 『朝鮮史研究會論文集』37.
- 전영래,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천관우선생활력기념한국사논총』, 정은문화사.
-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加耶琴だけが残った』, 吉川弘文館.
- , 2019, 「日本書紀의 ‘任那’－가야사의 공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鮎貝房之進, 1937, 「日本書紀朝鮮地名攷」, 『雜攷』第7輯 下卷.
- 정재윤, 2008,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 조명일, 2018, 「호남 동부지역 제철 및 봉수 최신 조사 성과」, 『2018 가야문화유산 최신조사 성과 자료집』,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주보돈, 2011,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 , 2018, 「6세기 전반 나제동맹 관계의 향방」, 『신라와 백제, 소통과 갈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주성지, 2003, 「웅진시대 백제의 蟾津江 水系 진출」, 『慶州史學』제22집.
- 坂本太郎, 1970, 『六國史』, 吉川弘文館.
- 홍성화, 2014, 「己汶, 帶沙 지명 비정에 대한 일고찰」, 『史叢』82.

【토론문】

「영·호남 경계지역 가야 정치체의 성격」 토론문

곽장근(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 역사전공)

발표자는 『三國史記』, 『梁職貢圖』, 『翰苑』, 『日本書紀』, 『新撰姓氏錄』, 『續日本後記』 등의 문헌을 비판적 시각으로 정리 분석한 뒤 上哆唎, 下哆唎, 婆陀, 牟婁로 알려진 任那 四縣과 己汶, 帶沙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영·호남 경계지역 가야 정치체의 성격을 조명하기 위해 연구 현황과 시각, 사료의 성격, 그리고 주변상황과 지형적 특성, ‘縣’의 존재형태, 513년 안라 국제회의의 진상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셨습니다. 513년 기문, 대사의 귀속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諸國들의 모임을 안나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로 평가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변·진한과 가야에 큰 해안을 갖고 줄곧 가야사의 복원을 위해 부단히 천착해 온 발표자의 열의와 신념이 담긴 결과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6세기 전반을 한반도 통합의 시대로 설정하고 임나 4현과 기문, 대사는 백제와 가야(임나)의 경계에 위치한다고 본 내용은 발표자의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논지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발표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안을 질의함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문의 위치 비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표자는 『양직공도』에 등장하는 상기문을 521년까지 존속하였던 가야 소국으로 비정하였고, 『신찬성씨록』의 ‘任那國의 동북에 上·中·下의 三己汶地가 있다’는 점과 ‘지방은 삼 백리, 토지는 비옥하고 인민 또한 많다.’ 등의 내용도 중요하게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악지 가야금조의 上·下奇物을 上·下己汶으로 보았습니다. 문헌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뒤 상, 중, 하의 三己汶은 지리적으로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문의 비정에 있어서 소국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가야의 수장층 분묘유적이 2~3개 붙어 있는 지역을 기문의 후보지로 비정해야 한다는 고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기문의 위치 비정 및 백제와 기문의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임나 4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표자는 『삼국사기』의 ‘省熱縣’, 『일본서기』의 ‘諸縣’ 등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뒤 가야 제국 중 加羅國이 縣을 가진 유일한 나라로 평가한 뒤 임나 4현을 가라국의 현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라의 縣制는 진정한 의미의 군현제로 실시되지 않았지만 독립된 지역 집단이 어떠한 國으로 자립하지 않은 채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지역 조직 같은 것이 ‘縣’의 실체였을 것으로 견해를 개진하셨습니다. 임나 4현의 위치를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수, 순천, 광양 일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래에는 가라를 대가야로 비정하고 고령에서 임나 4현까지 섬진강루트를 이용한 것으로 본 주장이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대간을 비롯하여 남북으로 뻗은 많은 산줄기를 넘어야하고, 거리상으로도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고, 섬진강유역으로 백제의 진출을 감안한다면 당시 교통로의 필수조건인 경제성과 신속성,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령을 출발해 합천과 삼가, 단성을 거쳐 낙남정맥 돌고개재를 넘어 하동을 비롯하여 여수, 순천 광양까지 도달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었을 개연성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기문, 대사를 두고 백제와 갈등관계를 보인 반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표자는 반파가 처음에는 가라국과 별개의 나라였지만 후에 가라국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520년대 후반이 되면 가라국과 백제는 직접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파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현재 학계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반파를 가라국의 이칭으로 본 주장을 반박한 뒤 경북 성주지역에 존재한 가야국을 반파국으로 비정하고 521년(양직공도 기준) 이후 541년(伴跋 既殿奚·加羅 古殿奚) 사이에 고령의 가라국에 복속된 것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반파는 기문, 대사를 두고 백제와 513년부터 515년까지 3년 전쟁을 치르면서 봉후제를 운영한 것으로 문헌에 묘사되어 있는데, 당시의 봉후(수)가 발견되고 있는 곳이 전북 동부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삼국시대의 봉수는 100여 개소 이상으로 여러 갈래의 봉수로가 복원되었고, 모든 봉수로의 출발지와 최종 종착지도 확인되었습니다. 경북 성주지역에서 삼국시대 봉후(수)의 존재여부와 함께 반파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반파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반파의 복속 주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표자는 伴跋 既殿奚가 加羅 古殿奚로 다시 등장하는 문헌에 근거를 두고 반파가 521년(양직공도 기준) 이후 541년 사이에 고령의 가라국에 복속된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삼국시대의 봉수를 기준으로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계통 정치체를 반파로 비정한다면, 장수지역에서는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부터 가야계 분묘유적에서 백제토기가 갑자기 등장하고 백제묘제의 수용도 파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반파의 복속 주체를 백제로 추론할 수 있는데, 반파가 적대적인 백제에 복속되자 伴跋 既殿奚가 加羅로 망명하였을 개연성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호남 동부지역의 잠재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순천 운평리로 상징되는 전남 동부지역은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북 동부지역은 4세기 말엽부터 가야토기가 처음 등장하여 대가야와 소가야, 아라가야, 비화가야 등 대부분 가야토기가 혼재되어 한마디로 ‘가야토기 박물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토기와 신라토기, 고구려토기, 마한계 토기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동신발, 중국제 청자인 계수호와 수대경, 철제초두, 편자 등 백제와 관련된 위세품과 위신제도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이제까지 대가야의 변방이자 지방으로만 널리 회자된 호남 동부지역에서 가야와 백제,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발표 8】

일본에서 본 영남·호남 경계지역의 가야

— 『일본서기』에 있어서 가야의 범위

다나카 도시아키(시가현립대학)

번역 : 강은영(전남대학교)

- I. 『일본서기』의 「任那」는 「加耶」가 아니다.
- II. 『일본서기』가 주장하는 「任那官家」變遷觀
- III. 『일본서기』를 통해 본 가야의 범위

고대 일본이 가야의 경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일본서기(日本書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일본서기』에는 본래 가야의 1국인 금관국을 가리키는 「임나(任那)」가 많이 보이고, 이것이 「가야(加耶)」를 가리킨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임나(任那)」는 「가야(加耶)」로 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I. 『일본서기』의 「任那」는 「加耶」가 아니다.

『일본서기』에는 「임나」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218회). 「임나」는 본래 가야의 1국인 금관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 그 외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일본서기』만의 독자적이고 특수한 사용법이며, 『일본서기』의 주장과도 관련 있다.

그 외의 사용법이란, 대가야(고령)를 가리킨 경우, 가야의 몇 개의 국을 합쳐서 부르는 경우, 임나의 「미야케(官家)」(miyake) 즉 천황의 직할지를 가리키는 경우, 그리고 대략 가야로 볼 수 없는 지역에 대해 부르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용법으로 이용된 「임나」를 자의적으로 「가야」로 치환하여 가야의 범위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 예를 들면, 계체기(繼體紀)의 「임나4현(任那四縣)」은 가야의 4현이 아니다. 당연히 가야의 범위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자의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본래의 의미인 금관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임나」라는 단어가 『일본서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崇神紀 65년조(「임나」의 용례로서 첫 번째. 이하 같음)이다.

가을 7월, 임나국이 소나갈질지(蘇那曷叱知)를 보내어 조공하였다. 임나는 축자국(筑紫國)에서 2천 여리 떨어져 있고,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秋七月、任那国遣蘇那曷叱知令朝貢也。任那者去筑紫国二千余里。北阻海。以在鷄林之西南

위 사료의 「任那」는 금관국(金官國)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에 대해 대가야국(고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繼體紀 23년(529) 여름 4월조(25번째)의 다음 기사이다.

임오 삭 무자(7일), 임나왕 기능말다간기(己能末多干岐)가 와서 조공하였다[기능말다란 아마도 아리사등(阿利斯等)을 말한 것이다].
壬午朔戊子(7日), 任那王己能末多干岐来朝。【言己能末多者, 蓋阿利斯等也。】

이 임나왕(任那王) 기능말다간기(己能末多干岐)에 대해서는 기능말다(己能末多)를 이능말다(己能末多)의 오기로 보아 대가야의 異腦王(『新增東國輿地勝覽』권29·高靈縣·建置沿革條 所引 崔致遠『釋順應傳』)에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분주에서는 아리사등(阿利斯等)을 가리킨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아리사등은 이 기사 직전인 계체기 23년 3월조의 소위 변복사건에 등장하는 대가야왕의 칭호이기 때문에 분주도 대가야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내조(來朝)」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임나왕」이 대가야왕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欽明紀 12년(551) 是歲條(146번째 예)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백제의 성명왕이 친히 백성과 2국의 병사를 거느리고[이국은 신라·임나를 이른다], 고려를 토벌하여 한성의 땅을 획득하였다. 또한 진군하여 평양을 쳤다. 모든 6군의 땅은 마침내 고지를 회복한 것이다.
百濟聖明王, 親率衆及二国兵【二国謂新羅·任那也】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 遂復故地.

위 사료의 「임나」는 소위 임나부흥회 뒤에 친백제적(親百濟的)인 길을 선택한 대가야 및 대가야연맹의 제국(諸國)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가야연맹제국은 백제와 신라의 항쟁 속에서 백제 편에 서서 싸웠고, 백제가 패배한 뒤, 562년에 신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가야멸망의 기사로 잘 알려진 흠명기 23년(562)조(158~160번째 예)의 기사는 몇 개의 국을 합쳐서 부르는 사례이다.

봄 정월, 신라가 임나관가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어떤 책에서는 21년에 임나가 멸망했다고 한다. 통틀어 임나라고 하고, 별도로 가라국(加羅國)·안라국(安羅國)·사이기국(斯岐國)·다라국(多羅國)·줄마국(卒麻國)·고차국(古嵯國)·자타국(子他國)·산반하국(散半下國)·갈찬국(乞漣國)·임례국(稔禮國) 등 모두 10국이다].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漣國·稔禮國, 合十國】.

위의 「임나」는 10국을 합쳐 부르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모두 가야의 국(國)이라고 해도 좋다. 실제로 이 시점까지 남아 있던 가야의 제국(諸國)이다. 금관국은 이미 멸망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雄略紀 21년(477) 봄 3월조(12번째 예)는 전혀 가야로 볼 수 없는 지역에 대해 호칭하는 사례이다.

(웅략) 천황이 백제가 고구려에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구마나리(久麻那利)를 문주왕에게 사여하여 그 나라를 구원하고 부흥시켰다. 이때 사람들이 모두 “백제국(百濟國)이 비록 무리들은 이미 죽거나 창고 아래에 모여 근심하였는데 실로 천황을 의지하여 다시 그 나라를 세웠다”고 말하였다[문주왕은 개로왕의 모제(母弟)이다. 일본구기(日本舊記)에는 구마나리를 말다왕(末多王)에게 주었다고 하지만 아마도 이는 잘못된 것이다. 구마나리는 임나국의 하다호리현(下嗚呼唎縣)의 별읍(別邑)이다].

天皇聞百濟為高麗所破, 以久麻那利賜汶洲王, 救興其國. 時人皆云, 百濟國, 雖屬既亡, 聚憂倉下, 實賴於天皇, 更造其國【汶洲王蓋鹵王母弟也. 日本旧記云, 以久麻那利, 賜末多王. 蓋是誤也. 久麻那利者, 任那國下嗚呼唎縣之別邑也】.

여기에 보이는 「구마나리(久麻那利)」는 백제 중기의 왕도 웅진(熊津)을 가리킨다. 백제는 475년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왕도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도 살해되어 일단 멸망하였지만, 그 뒤 문주왕이 웅진에서 백제를 부흥하였다. 이는 위의 기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477년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웅략이 부흥시킨 것은 아니다.^[1] 이 점은 제쳐두고, 여하튼 분주에서 「구마나리는 임나국 하다호리현의 별읍이다(久麻那利者, 任那國下嗚呼唎縣之別邑也)」고 하였다. 「하다호리현(下嗚呼唎縣)」에 대해서는 소위 임나4현의 하나인 「하다리(下嗚唎)」와 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웅진이 「임나국의 하다호리현의 별읍」이라고 하

[1] 田中俊明, 2009, 「백제(百濟) 문주왕계(文周王系)의 등장과 무녕왕(武寧王)」, 『백제연구』 49,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는 점이다. 「별읍」의 의미가 문제이지만, 웅진에 「임나국의 하다호리현」과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웅진에 가까운 곳이 과연 가야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의하면, 가야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광의와 협의 2 종류로 파악된다. 하나는 경상남도 근처를 가리킨다고 보는 이해이고, 광의는 경상북도까지 포함하여 보는 이해이다. 그러나 어느 쪽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어느 쪽으로 볼 것인가는 모두 그 나름의 근거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이해방식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쪽도 경상남도 근처는 가야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 위에서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다를 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 위에서 앞의 「임나」 용례를 고려해 본다면, 이는 「가야」의 범위를 일탈해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과 같은 용례에 덧붙여 「임나의 관가」를 의미하는 용법이 있는데, 이는 특히 『일본서기』의 주장과 관련되어 있고, 독자적인 내용이며, 또한 신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II. 『일본서기』가 주장하는 「任那官家」變遷觀

이른바 「임나4현」의 할양 기사를 살펴보자. 繼體紀6년(512)조(18~20번째 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겨울 12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조(調)를 바쳤다. 별도로 표(表)를 올려 임나국의 상다리(上哆唎)·하다리(下哆唎)·사타(娑陀)·모루(牟婁) 4현을 요구하였다. 다리국수인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이 아뢰기를 “이 4현은 백제에 근접해 있고,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통하기 쉽고 닭과 개의 소리도 구별하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지금 백제에게 주어서 같은 나라로 합치게 한다면, 굳게 지키는 대책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설령 나라를 주어 합치게 하여도 후세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데, 하물며 따로 떨어져 있다면 몇 년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반금촌대련(大伴大連金村)은 이 발언을 받아 뜻을 같이하여 상주하였다. 이에 물부대련추록화(物部大連鹿火)를 선직사(宣勅使)로 삼았다. 물부대련(物部大連)이 바야흐로 난파관(難波館)으로 막 향하여 백제 사신에게 칙을 전하고자 하였다. 그 처가 간곡히 청하기를, “무릇 주길대신(住吉大神)이 처음으로 바다 저쪽의 금은이 가득한 나라 고구려·백제·신라·임나 등을 태중에 있던 예전천황(饗田天皇)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후(太后) 식장존희존(息長足姫尊)은 대신(大臣) 무내숙네(武内宿禰)와 함께 나라마다 처음으로 관가(官家)를 설치하고 해표(海表)의 변병으로 삼았습니다. 그 유래는 오래 되었고, 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분할하여 다른 나라에 주는 일이 있으면 원래의 구역과 다르게 됩니다. 후세까지 비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련이 답하여 “이치에 합당한 말이나, 천황의 칙명에 어긋난

다.”고 하였다. 처는 간절히 충고하여 말하기를 “병을 칭하고 알려서는 안 됩니다.”고 하였다. 대련은 그 충고에 따랐다. 이로 말미암아 다시 사자를 보내어 칙을 알리고, 하사품과 제지(制旨)를 전하고, 표(表)에 따라 임나 4현을 주었다. 대형황자(安閑)는 다른 일이 있어 나라를 내릴 때 관여하지 않았고, 늦게 선칙(宣勅)을 알았다. 놀라 이를 고치고자 하였다. 명하여 말하기를 “태중지제(胎中之帝, 應神) 이래 관가를 두었던 나라를 가볍게 번국(蕃國)의 요청에 따라 쉽게 줘버려도 되는 일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일응길사(日鷹吉士)를 보내어 백제 사신에게 칙을 바꾸어 알렸다. 사자가 대답하기를 “아버지 천황이 편의를 살펴서 칙명을 내려 끝났습니다. 아들인 황자가 어찌하여 천황을 칙을 어기고 마음대로 고쳐서 명령하려고 합니까. 이는 반드시 거짓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 지팡이로 때리는 것과 작은 지팡이로 때리는 것 중 어느 쪽이 아프겠습니까.”라고 하고, 마침내 돌아갔다. 이에 어떤 이가 소문을 내어 말하기를 “대반대련과 다리국수 수적신압산이 백제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였다.

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叻喇·下叻喇·娑陀·牟婁, 四郡. 叻喇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郡, 近連百濟, 遠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 合為同國, 固存之策, 無以過此. 然縱賜合國, 後世猶危. 況為異場, 幾年能守. 大伴大連金村, 具得是言, 同謨而奏. 廼以物部大連龜鹿火, 宛宣勅使. 物部大連, 方欲發向難波館, 宣勅於百濟客. 其妻固要曰, 夫住吉大神, 初以海表金銀之國, 高麗·百濟·新羅·任那等, 授記胎中嘗田天皇. 故大后息長足姬尊, 與大臣武內宿祢, 每國初置官家, 為海表之蕃屏, 其來尚矣. 抑有由焉. 縱削賜他, 違本區域. 綿世之刺, 詎離於口. 大連報曰, 教示合理, 恐背天勅. 其妻切諫云, 稱疾莫宣. 大連依諫. 由是, 改使而宣勅. 付賜物并制旨, 依表賜任那四郡. 大兄皇子, 前有緣事, 不聞賜國, 晚知宣勅. 驚悔欲改. 令曰, 自胎中之帝, 置官家之國, 輕隨蕃乞, 輒爾賜乎. 乃遣日鷹吉士, 改宣百濟客. 使者答啓, 父天皇, 圖計便宜, 勅賜既畢. 子皇子, 豈違帝勅, 妄改而令. 必是虛也. 縱是實者, 特杖大頭打, 孰與特杖小頭打痛乎, 遂罷. 於是, 或有流言曰, 大伴大連, 與叻喇國守穗積臣押山, 受百濟之賂矣.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임나4현」의 땅이 본래 일본 천황의 「미야케(官家)」였지만, 백제가 그 땅을 사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다리국수 수적신압산이 거기에 거들어 말을 해줬으며, 게다가 대반대련금촌(大伴大連金村)이 찬성하게 됨으로써 백제에게 사여하게 되었다. 이를 전달할 사신으로 임명되었던 물부대련추록화(物部大連龜鹿火)는 그 처가 말렸기 때문에 사퇴하고, 대신 다른 인물이 난파관(難波館)에 있는 백제 사신에게 전하였다. 그 후, 이 일을 알게 된 대형황자(大兄皇子)가 반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백제사신에게 전달시켰지만, 백제사신은 아버지 천황이 결정한 일을 아들인 황자가 이제 와서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부정하며 귀국하였다. 대반대련(大伴大連)과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은 백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필자는 『일본서기』의 주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실제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점과는 당연히 별개의 문제이다.

이 기사에서 「임나4현」의 땅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문제인데,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주길신(住吉神)이 「고구려·백제·신라·임나 등」을 태종의 응신천황에게 주었고, 어머니인 신공황후가 그곳을 「미야케(官家)」로 삼고, 「번병(藩屏)」으로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구려·백제·신라·임나는 모두 「미야케(官家)」이고, 일본의 「번병(藩屏)」이기 때문에 독립국이면서 일본에 종속되어 일본의 방어를 위해 수비를 하는 나라로서 취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일관적인 것은 아니다. 이후에도 신공황후의 시대에 정한 경역이라는 주장은 반복되지만,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태종천황 때의 미야케(官家)라는 말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계체기 23년 여름 4월조(25번째 예)의 기사이다.

여름 4월 임오 삭 무자, 임나왕 기능말다간기가 내조하였다[기능말다(己能末多)는 아마도 아리사등(阿利斯等)을 말한 것이다]. 대반대련금촌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무릇 해표의 제번(諸蕃)은 태종천황이 내관가(內官家)를 둔 이래, 본토를 버리지 않았습시다. 그로 인하여 그 땅에 봉건하는 것은 참으로 도리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신라가 원래 주어진 봉토의 경계를 무시하고 빈번하게 국경을 넘어 내침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천황에게 주상하여 신의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알렸다. 대반대련은 요청에 따라 천황에게 주상하였다.

夏四月壬午朔戊子, 任那王己能末多干岐來朝【言己能末多者, 蓋阿利斯等也】. 啓大伴大連金村曰, 夫海表諸蕃, 自胎中天皇, 置內官家, 不棄本土, 因封其地, 良有以也. 今新羅, 違元所賜封限, 數越境以來侵. 請, 奏天皇, 救助臣國. 大伴大連, 依乞奏聞.

여기에서도 역시 임나·신라가 태종천황 이래의 「내관가(內官家)」였고, 「번(蕃)」이었다고 한다. 「번(蕃)」은 번(藩)이고, 번병(藩屏)이다. 이 점은 상기의 「임나4현」 할양기사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미야케(官家)」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일본서기』에 신라와 관련한 기사로는 앞에서 「임나」라는 용어가 『일본서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사례로서 들었던 崇神紀65년조에 「계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신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의 사례가 된다. 그리고 그에 이어진 기사가 垂仁紀2年 是歲條이다.

이 해, 임나인 소나갈질지(蘇那曷叱智)가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아마도 선황의 시대에 내조하여 아직 돌아가지 못했던 것일 것이다. 때문에 소나갈질지를 후하게 대접하고, 붉은 비단 1백필을 임나왕에게 주었다. 그러나 신라인이 그것을 도중에 차단하고 빼앗아 버렸다. 2국의 원한은 이때에 처음으로 생겼다.

是歲, 任那人蘇那曷叱智請之, 欲歸于國. 蓋先皇之世來朝未還歟. 故敦賞蘇那曷叱智. 仍齎赤絹一百疋, 賜任那王. 然新羅人遮之於道而奪焉. 其二國之怨, 始起於是時也.

송신(崇神)은 그의 치세 68년에 죽었고, 이듬해에 수인(垂仁)이 즉위하였기 때문에 소나갈질지(蘇那曷叱智)가 온지 5년째의 일이다. 여기에 신라가 등장하고, 「임나」와 대립하는 세력으로

서 기술되어 있다. 『일본서기』에서는 신라는 대립하는 세력으로서 「임나」는 가까운 세력으로
서 묘사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다. 그 후 垂仁紀 3년 춘3월조에 천일창(天日槍·아메노히보코)의 내
일(來日) 기사가 있다.

신라왕자 천일창이 와서 귀순하였다.

新羅王子天日槍內歸.

천일창(天日槍)이 와서 최종적으로 다지마(但馬)에 정착할 때까지의 이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다만 이는 신라와 관련된 기사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신라와의 관계를 기록한 것은 아
니다. 천일창(天日槍) 전설에 이어 신라와 관련한 기사가 仲哀紀 8년 秋9월조인데, 중애(仲哀)가
구마소(熊襲)를 토벌하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구마소를 토벌하지 말고 금과 은의 나라인
신라를 쳐야 한다는 신탁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의심한 중애(仲哀)는 곧이 구마소를 쳐서 이기
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중애는 붕어한다. 이에 이어서 신공황후가 등
장한다. 神功攝政前紀 9년 2월조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중애) 9년 봄 2월에 중애가 즈쿠시(筑紫) 가시히노미야(櫛日宮)에서 붕어하였다. 그 때에 황후는
천황이 신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아 빨리 붕어했음을 애도하고 재앙을 내린 신을 알아 재보(財
寶)의 나라를 찾고자 하였다.

春二月, 足仲彥天皇崩於筑紫櫛日宮. 時皇后傷天皇不從神教而早崩, 以爲, 知所崇之神, 欲求
財寶國.

이렇게 하여 다시 몸속에 아이를 임신한 신공(神功)에 의한 신라침공이 이루어진다. 그 4월
에 바다를 바라보고 서쪽 정벌을 맹세한 뒤, 9월에 제국(諸國)에 명령하여 배를 모아 병사를 훈
련시키고, 10월조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한다.

(9년) 겨울 10월 기해삭 신축(3일), 화이진(和珥津)에서 출발했다. 이때 풍신(風神)이 바람을 일으
키고, 해신(海神)은 파도를 치게 하였으며, 바다 속의 큰 고기들이 모두 떠올라 배를 떠받쳤다.
이에 큰 바람이 불어 범선(帆船)이 파도를 타고 나아가니 노를 젓는 수고로움 없이도 신라에 도
착했다. 이때 배를 따라온 파도(潮浪)가 멀리 나라 안에까지 미쳤다. 이 일로 인하여 천신지기
(天神地祇)가 모두 도와준 것을 알았다. 신라왕은 전전궁궁하여 몸 둘 바를 몰랐다.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 말하기를, “신라의 건국 이래 일찍이 바닷물이 나라 안까지 들어왔다는 일은 들은
바가 없다. 천운이 다해 나라가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군(船師)이 바다를 메우고, 깃발(旌旗)들이 햇빛에 빛나고, 북과 피리 소리가 일어나 산천
을 모두 진동시켰다. 신라왕은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뜻밖의 군사들이 나타나 장차 신
라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라 여기고 두려워 전의를 상실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내가 들

으니 동쪽에 신국(神國)이 있는데, 일본(日本)이라고 한다. 또한 성왕(聖王)이 있는데 천황(天皇)이라고 한다. 반드시 그 나라의 신병(神兵)일 것이다. 어찌 군사를 내어 방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백기(素旆)를 들어 항복하였다. 흰 줄(素組)을 스스로 목에 매었다. 도적(圖籍)을 받들어 왕선(王船) 앞에서 항복하였다. 인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기를, “지금 이후부터 길이 건곤(乾坤)과 함께 복종하여 사부(飼部)가 되겠습니다. 저 배의 키가 마를 사이 없이 춘추로 말뚝(馬梳)과 말채찍을 바치겠습니다. 또한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꺼리지 않고 해마다 남녀의 조(調)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거둬 맹세하여 말하기를, “동쪽에서 떠오른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는 일이 없는 한, 또 아리나례하(阿利那禮河)가 거슬러 역류하고 강의 돌이 하늘에 올라가 별이 되는 일이 없는 한, 춘추로 조공을 거르거나 태만하여 말뚝과 말채찍을 바치지 않는다면 천신지기에 벌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라왕을 죽이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황후가 말하기를, “처음에 신의 가르침을 받들어 장차 금은의 나라를 얻으려고 하였다. 또 3군에 호령하여 ‘스스로 항복하여 오는 자는 죽이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이미 재국(財國)을 얻었다. 또한 사람들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였고, 이내 결박을 풀어 사부(飼部)의 일을 맡겼다. 마침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 중보(重寶)의 공간을 봉인하고 도적문서(圖籍文書)를 거두었다. 그리고 황후가 가지고 있던 창을 신라왕문(新羅王門)에 세우고, 후세에 표시로 삼았다. 고로 그 창은 지금도 신라왕의 문 앞에 세워져 있다. 이에 신라왕 파사매금은 즉시 미질기파진간기(微叱己知波珍干岐)를 인질로 삼아 금은채색(金銀彩色) 및 능라검견(綾羅縑絹)을 80척의 배에 실어 관군을 따라가게 하였다. 이로써 신라왕은 항상 배 80척의 조공선을 일본에 바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연유이다. 이에 고구려(高麗)와 백제 두 나라 왕은 신라가 도적(圖籍)을 거두어 일본국에 항복하였다는 것을 듣고 몰래 그 군세를 엿보게 하였다.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스스로 영외로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지금 이후부터는 길이 서번(西蕃)이라 일컫고 조공을 그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내관가(內官家)로 정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삼한(三韓)이다. 황후가 신라에서 돌아왔다.

冬十月己亥朔辛丑, 從和珥津發之. 時飛廉起風, 陽侯舉浪, 海中大魚, 悉浮扶船, 則大風順吹, 帆舶隨波. 不勞櫓楫, 便到新羅. 時隨船潮浪, 遠逮國中. 即知, 天神地祇悉助歟. 新羅王, 於是, 戰戰兢兢厝身無所. 則集諸人曰, 新羅之建國以來, 未嘗聞海水凌國. 若天運盡之, 國爲海乎. 是言未訖間, 船師滿海, 旌旗耀日, 鼓吹起聲, 山川悉振. 新羅王遙望以爲, 非常之兵, 將滅己國. 警焉失志. 乃今醒之曰, 吾聞, 東有神國. 謂日本. 亦有聖王. 謂天皇. 必其國之神兵也. 豈可舉兵以距乎, 即素旆而自服. 素組以面縛. 封圖籍, 降於王船之前. 因以, 叩頭之曰, 從今以後, 長與乾坤, 伏爲飼部, 其不乾船舵, 而春秋獻馬梳及馬鞭. 復不煩海遠, 以每年貢男女之調. 則重誓之曰, 非東日更出西, 且除阿利那禮河返以之逆流, 及河石昇爲星辰, 而殊闕春秋之朝, 怠廢梳鞭之貢, 天神地祇, 共討焉. 時或曰, 欲誅新羅王. 於是, 皇后曰, 初承神教, 將授金銀之國. 又號令三軍曰, 勿殺自服. 今既獲財國. 亦人自降服. 殺之不祥, 乃解其縛爲飼部. 遂入其國中, 封重寶府庫, 收圖籍文書, 即以皇后所杖矛, 樹於新羅王門, 爲後葉之印. 故其矛今猶樹於新羅

王之門也。爰新羅王波沙寐錦，即以微叱己知波珍干岐爲質，仍齎金銀彩色及綾羅縑絹。載于八十艘船，令從官軍。是以，新羅王，常以八十船之調，貢于日本國。其是之緣也。於是，高麗百濟二國王，聞新羅收圖籍，降於日本國，密令伺其軍勢。則知不可勝，自來于營外，叩頭而款曰，從今以後，永稱西蕃，不絕朝貢，故因以，定內官家屯倉。是所謂之三韓也。皇后從新羅還之。

이처럼 신라는 싸우지 않고 항복하였고, 금후(今後)의 복속을 맹세하였으며, 80척의 배로 재물(財物)을 실어 보냈다. 이를 들은 고구려·백제의 왕도 항복해 와서 조공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내관가둔창(內官家屯倉)」을 정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응신(應神)을 임신한 채로 출정했던 신공(神功)이 신라·고구려·백제의 「미야케(官家)」를 획득한 경위이다. 이에 따르는 한, 신라왕은 (신공의) 군세를 보고 백기를 들어 항복하였고, 또한 고구려·백제는 이 소식을 듣고 싸우지 않은 채 항복하였으며, 조공을 맹세했다는 것이지, 그 땅을 제압하여 획득했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임나」는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고, 언제 「미야케(官家)」가 되었는지 그 유래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일찍이 신공황후의 「신라정벌」, 또는 「삼한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내용이지만, 말할 것도 없이 현재 학계에서 이를 역사적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후대에 조작된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황후가 몸소 원정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은 사이메이(齊明)가 멸망 후의 백제 부흥군 구원을 위해 규슈(九州)까지 출정했던 사실이 모델이 되었고, 덴무(天武)·지토(持統) 시기에 천황 중심의 율령국가가 형성될 때, 신라를 「번국(蕃國)」시하여 일본의 아래에 위치 지우려는 관념도 성립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반영되어 이와 같은 전승적인 기사가 만들어졌다고 이해되고 있다. 다만 일단 이러한 전승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속일본기』권18, 천평승보4년(752) 6월조에 신라왕자 김태림 일행이 왔을 때에 다음과 같은 일이 기술되어 있다.

임진(17일), … 이날, 신라사신을 조당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조서를 내려 말씀하시길, 「신라국이 와서 조정(朝廷)을 받드는 일은 기장족원황태후(氣長足媛皇太后)가 그 나라를 평정한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번병(蕃屏)이 되었다. 그런데 전왕 승경과 대부 사공 등은 언행이 태만하여 항례(恒例)를 잃었다. 따라서 사신을 보내어 죄를 묻으려 한 사이, 지금 그 나라의 왕 현영(景城王)이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몸소 조정에 올 것을 바랐다. 그렇지만 국정을 돌아보아야하기 때문에 왕자 태림 등을 보내어 대신 입조하게 하였고, 아울러 조(調)를 바쳤다. 짐은 이로써 가상히 여기고 위로하니 관위를 올려주고 물건을 내린다」고 하셨다. 또 조서를 내려 말씀하시길, 「지금부터 이후, 국왕은 친히 와서 언사(辭)를 주상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을 보내어 입조하게 한다면, 반드시 표문(表文)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였다.

壬辰(一七日)、……是日。饗新羅使於朝堂。詔曰。新羅國來奉朝廷者。始自氣長足媛皇太后平定彼國。以至於今。爲我蕃屏。而前王承慶·大夫思恭等。言行怠慢。闕失恒禮。由欲遣使問罪之間。今彼王軒英。改悔前過。冀親來庭。而爲顧國政。因遣王子泰廉等。代而入朝。兼貢御調。朕所以嘉歆勤款。進位賜物也。又詔。自今以後。國王親來。宜以辭奏。如遣余人入朝。必須令齎表

이처럼 이후에도 「삼한정벌」은 반복적으로 「회상」되고, 언급되게 된다. 몽고습래(蒙古襲來) 때에 『하치만구도훈(八幡愚童訓)』이 만들어졌는데, 츠카모토 아키라(塚本明)^[2]에 따르면, 이는 몽고습래 후 얼마 되지 않아 성립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시미즈하치만사(石清水八幡社)의 신관(神官)이 이국격퇴로 완수한 신덕(神德)을 강조하고, 막부의 은상(恩賞)을 얻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며, 후반에는 몽고 군세와의 전쟁 양상이 극명하게 묘사되는데, 전단(前段)은 이국습래(異國襲來)의 전사(前史)로서 신공황후의 「출정」담이 기술되어 있다. 이후에도 약간은 변용되면서 이러한 전승이 일반에 확산되게 된다. 히데요시(秀吉)의 침략 때에도 근대의 한일합병론(韓日合併論) 때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임나4현 할양」의 전제로서 「임나관가(任那官家)」의 성립을 확인하였지만, 신공이 제압한 것도 또한 항복해 온 것도 아닌 「임나」가 「미야케(官家)」가 된 것이다. 신라·고구려·백제에 대해서는 조공하게 된 것이 「미야케(官家)」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후, 삼국의 「미야케(官家)」가 등장하는 일은 없다. 「미야케(官家)」는 「임나」에만 존재했던 듯하다. 神功紀에는 49년 조에 소위 가라7국 평정기사가 있다.

49년 봄 3월, 황전별(荒田別)과 녹아별(鹿我別)을 장군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구저(久氐) 등과 함께 군사를 정돈하여 바다를 건너가 탁순국(卓淳國)에 이르러 신라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때 어떤 이가 말하기를, “군사의 수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사백(沙白)·개로(蓋盧)를 보내어 군사를 증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곧 목라근자(木羅斤資), 사사노궤(沙々奴脆)[이 두 사람의 성은 알 수 없다. 다만 목라근자는 백제의 장군이다]에게 명령하여 정병을 이끌고 사백·개로와 함께 가도록 하였다. 그 후 모두 탁순에 집결하여 신라를 공격하여 깨트리고 비자논(比自嫩[林])·남가라(南加羅)·번국(旆[喙]國)·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 가라(加羅) 7국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古奚津)에 이르러 남만(南蠻) 침미다례(枕弥多礼)를 무찌르고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왕 초고(肖古)와 왕자 귀수(貴須) 또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그때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지(布弥支)·반고(半古) 4읍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에 백제왕 부자와 황전별, 녹아별 목라근자 등은 함께 의류촌(意流村)에 모였다[지금은 주류수기(州流須祇)라고 한다]. 서로 보며 기뻐하고 예를 두텁게 하여 보냈다. 다만 천웅장언(千熊長彦)과 백제왕은 백제국에 가서 벽지산(辟支山)에 올라 맹약하였다. 그리고 다시 고사산(古沙山)에 올라서 함께 반석 위에 앉았다. 그때 백제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만일 풀을 갈아서 자리를 만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또한 나무로 자리를 만들면 물에 떠내려 갈 것 같아 두렵습니다. 따라서 반석에 앉아서 맹약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금부터는 천추만세에 끊임없이 항상 서번(西蕃)이라 칭하며 행마다 조공하겠

[2] 塚本明, 「神功皇后傳説と近世日本の朝鮮觀」, 『史林』79卷6號, 史學研究會, 1996.

습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천웅장언(千熊長彦)을 데리고 백제의 도읍에 이르러 더욱 두터이 예우하고 구저(久氏) 등을 팔려서 보냈다.

冊九年春三月, 以荒田別·鹿我別為將軍. 則與久氏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国,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 奉上沙白·蓋盧, 請增軍士. 即命木羅斤資·沙々奴跪【是二人, 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領精兵, 與沙白·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 平定比自嫩·南加羅·旆国·安羅·多羅·卓淳·加羅七国. 仍移兵, 西廻至古奚津, 屠南蛮忧弥多礼,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会. 時比利·辟中·布弥支·半古, 四邑, 自然降服. 是以, 百濟王父子及荒田別·木羅斤資等, 共会意流村. 【今云州流須祇】相見欣感. 厚礼送遣之. 唯千熊長彦與百濟王, 至于百濟国, 登辟支山盟之. 復登古沙山, 共居磐石上. 時百濟王盟之曰, 若敷草為坐, 恐見火燒. 且取木為坐, 恐為水流. 故居磐石而盟者, 示長遠之不朽者也. 是以, 自今以後, 千秋萬歲, 無絶無窮. 常称西藩, 春秋朝貢. 則將千熊長彦, 至都下厚加礼遇. 亦副久氏等而送之.

위의 사료에서는 신라를 격파함으로써 비자논[발](比自嫩[体])·남가라(南加羅)·번[탁]국(旆[喙]国)·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라(加羅) 7국을 평정한 것, 그리고 백제왕이 재차 「서쪽의 번(蕃)」으로서 영원히 조공할 것을 맹세한 것 등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평정했다고 하는 가라7국이 「임나관가(任那官家)」가 되었다는 일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물론, 그와 같이 보려고 하는 견해는 있는데, 『일본서기』에서는 이를 신공황후가 정한 경역으로 「미야케(宮家)」가 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앞선 神功攝政前紀 9년조의 「신라정벌」 때이다.

그렇다면, 그 후의 「할양」은 큰 비약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서기』에서는 전후 일관적이지 않아, 완결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다만 이러한 비약을 더욱 의식하지 않고, 신공황후 때에 주길신(住吉神)이 준 나라들로서 「관가(官家)」를 상정하고, 그 속에 「임나4현」의 땅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역사학적인지 어떠한지 라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나4현」 할양기사에 대해 일찍이 『일본서기』가 전하는 대로 일본의 천황이 한반도에 미야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사에 대해서도 기록된 대로 미야케의 일부인 「임나4현」의 땅을 이 때 백제에게 사여하였다고 인정해 왔다. 그러나 직할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게 되었고, 이 기사도 거의 사실을 전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이해가 변하였다.

이 기사에 이어지는 계체 7년~10년 조에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백제가 「본래 백제의 기문(己汶)」의 땅을 천황(계체)에게 요구하고, 천황도 이를 인정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일찍이 이것이 사실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가 있다. 즉 기문(己汶)은 백제의 영지도 왜와 관련한 지역도 아니고, 독립된 나라로, 그 상태에서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諸國連合(필자는 대가야연맹이라 부른다)에 참가하고 있었던 점 및 백제가 그곳에 진출하려 했기 때문에 맹주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여 연합제국이 그에 대항했지만, 결국은 백제 앞에 굴복하게 되었고, 기

문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그것과 대비한다면, 그에 앞선 「임나4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는 백제가 실력으로 그 땅을 영유하게 되었던 것을 『일본서기』적인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명확히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사를 분석한 결과, 「임나4현」은 백제가 512년에 획득한 지역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획득해 온 지역이고, 「현(縣)」이라는 용어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오히려 「국(國)」으로 인식해야 할 넓이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III. 『일본서기』를 통해 본 가야의 범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서기』의 「임나」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일본서기』 독자의 사용방법이고, 적어도 가야로 치환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라는 점은 확실하다. 따라서 『일본서기』의 「임나」 사료를 가야 사료로서 이해하여 가야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다만 개별적으로 가야를 생각하는 사료가 되는지 어떠한지를 확인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일본서기』를 통해 본 가야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상기와 같이 백제는 513년부터 기문(己汶)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더 나아가 다사(多沙)로 남하하였다. 이 기문·다사가 가야의 나라들인 점은 『일본서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재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필자가 주장하는 대가야연맹과 관련한 사료로서의 우륵12곡이다.

이 기문·대사가 백제의 최초 가야진출이고, 즉 가야의 서쪽 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그보다도 서쪽 세력으로서 나타나는 「만해(滿奚)」가 중요하다. 계체기 8년에 다음 기사가 있다.

8년 …… 3월, 반파는 자탄(子呑)·대사(帶沙)에 성을 쌓아 만해(滿奚)와 연결하고, 봉수와 척후를 위한 저각을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하였다. 또한 이열비(爾列比)와 마수비(麻須比)에 성을 쌓고 마차해(麻且奚)·추봉(推封)과 연결하여 군사와 병기를 모아 신라를 핍박하였다. 남녀를 포로로 삼고 마을을 노략질하니, 습격을 받은 곳은 살아남은 자가 드물었다. 포악하고 사치스러우며 사람을 괴롭히고 마구 학살하니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八年……三月，伴跋築城於子呑·帶沙，而連滿奚，置烽候邸閣，以備日本。復築城於爾列比·麻須比，而緮麻且奚·推封。聚士卒兵器，以逼新羅。駭略子女，剝掠村邑。凶勢所加，罕有遺類。夫暴虐奢侈，惱害侵凌，誅殺尤多。不可詳載。

여기에서는 「반파(伴跋)가 자탄(子呑)·대사(帶沙)에 축성하여 만해(滿奚)와 연계하고, 일본에 대비하였다」는 기사와 「이열비(爾列比)와 마수비(麻須比)에 성을 쌓고 마차해(麻且奚)·추봉(推封)과 연계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는 기사이다. 필자는 전자의 기사에 대해 백제의 기문침공 때

의 반파 즉 대가야의 처치로 파악하였다. 즉 대가야연맹에 속하는 자탄(子呑)·대사(帶沙)에 축성하여 방어라인을 만들고, 나아가 이를 만해(滿溪)로 까지 확장시켜 기문에서 침공해 오는 백제에 대해 일보 물러서서 방어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물론 「일본에 대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제에 대비하다」로 해야 할 것을 개변한 것이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이 때 신라와의 사이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나중에 대가야·신라간의 혼인동맹이 파탄난 뒤의 기사가 혼입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다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이열비(爾列比)·마수비(麻須比)라는 연맹제국(連盟諸國)에 축성하고, 이를 마차해(麻且奚)·추봉(推封)으로까지 확대하여 방어라인을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만해(滿溪)」는 섬진강보다도 서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탄은 거창이고, 대사는 하동이다. 특히 그 성(城)이라는 것은 섬진강가에 있는 고소성(姑蘇城)을 가리키는 것을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거창에서 섬진강 동쪽의 하동지방까지 연결한 라인이고, 이를 연장시킨 곳에 「만해(滿溪)」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해(滿溪)」는 후자의 예에서도 보더라도 대가야연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실로 「연계」세력이다.

후자의 예로는 이열비(爾列比)·마수비(麻須比)에 축성하고, 더 나아가 마차해(麻且奚)·추봉(推封)으로까지 확대한 방어라인이라는 것인데, 이열비(爾列比)·마수비(麻須比)는 전영래에 의하면, 각각 의령·삼가에 해당한다. 필자도 세부적으로는 다른 의견이지만 거의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그곳에다가 축성하여 연계했다는 마차해(麻且奚)·추봉(推封)에 대해서는 마차해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추봉은 현풍설과 밀양설이 있다. 현풍설은 옛 이름 「추량화(推良化)」, 밀양은 「추화(推火)」를 각각 근거로 하여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어느 쪽도 버리기 어렵다. 다만, 신라의 행동에 대항하여 축성하고, 연계하였다는 상황 속에서 생각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만일 밀양설이 맞는다면, 신라의 북상을 차단하고 넓은 횡적 연계를 고려했던 것이 된다. 그 경우, 밀양은 오히려 신라에 정복되지 않고 독립한 세력으로서 남아 있었는지 어떠한지가 문제가 된다. 『일본서기』의 흠명기(欽明紀)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가야세력의 하나로서 보이는 졸마(卒麻)가 밀양의 남쪽인 김해군 생림면(生林面)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밀양이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다. 필자는 밀양설이 낫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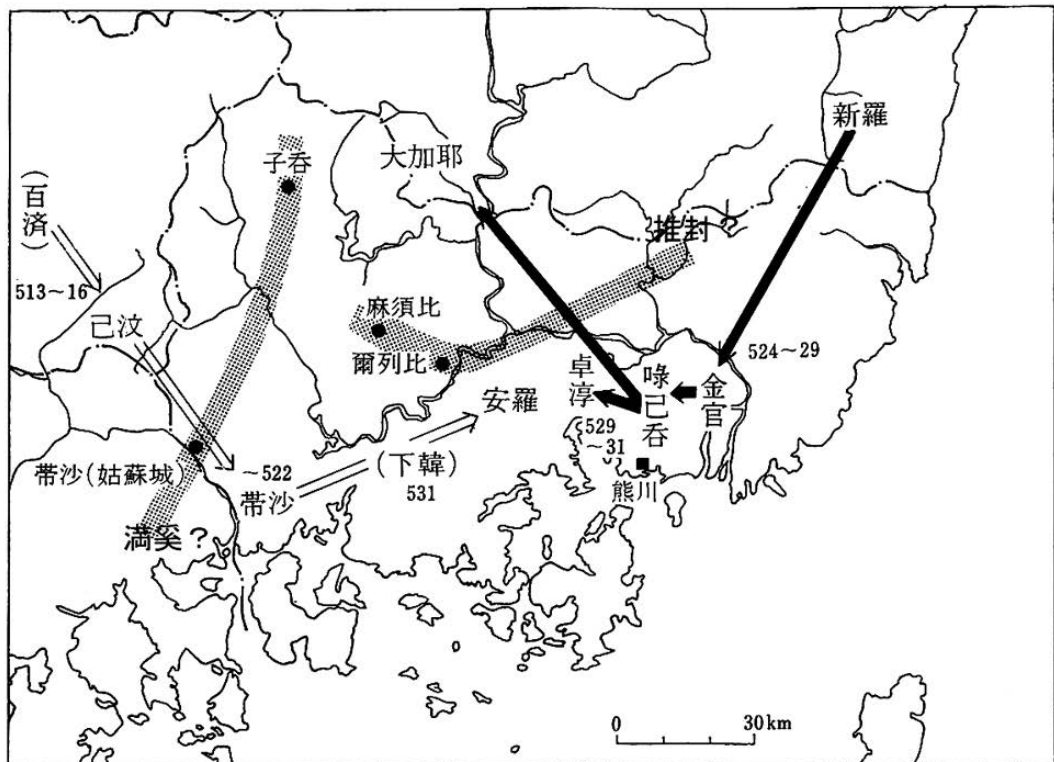
필자는 이들 지명에 대하여 대가야가 축성한 이열비(爾列比)·마수비(麻須比)는 연맹 속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는 연맹 밖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맹 밖의 독립된 세력이었던 마차해(麻且奚)·추봉(推封)도 신라와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로 대가야는 이들과 연계를 도모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만해(滿溪)」는 대가야연맹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들과 연계하여 백제와 대항하던 세력이고, 또한 위치적으로는 섬진강보다도 서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유카 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은 일찍이 광양의 마로(馬老)로 비정하고 있다.

이 「만해(滿溪)」를 가야세력으로 볼 수도 있다. 대가야연맹에 속하지 않더라도 가야의 국·

지역으로서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기사를 바탕으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필자의 생각으로는 가야의 서쪽 끝은 기본적으로 기문·다사이고, 만해로까지 확대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임나4현」은 이것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차치하더라도 가야의 범위를 생각하는데 유효한 기사라고는 말할 수 없다.



백제·신라의 가야 침공도

숫자는 침공 연대, 빗금 부분은 대가야 연맹의 방어라인 ●은 그 축성지, ■는 관련 지명.

【発表 8】

日本からみた嶺南・湖南境界地域の加耶 『日本書紀』における加耶の範囲

田中俊明(滋賀県立大学)

- 一 『日本書紀』の「任那」は、「加耶」ではない
- 二 『日本書紀』の主張する「任那官家」変遷観
- 三 『日本書紀』を通して見た加耶の範囲

古代の日本が加耶の境界をどのように考えていたかを追究するのは、『日本書紀』がどのように記しているかを確認することであるが、『日本書紀』には、ほんらい加耶の1国である金官国を指す「任那」が多く見られ、それを「加耶」を指すものととらえて、考えようとするところがある。しかしそれは正しい方法ではない。「任那」は、「加耶」に置き換わることばではないからである。

一 『日本書紀』の「任那」は、「加耶」ではない

『日本書紀』には「任那」という語が多く登場する(218回)。「任那」とは、ほんらい、加耶の1国である金官国を指すことばである。それを、それ以外の意味で使うのは、『日本書紀』のみの、独自で特殊な使い方であり、『日本書紀』の主張とも関わる。

それ以外の用法とは、大加耶(高霊)を指す場合、加耶のいくつかの国を合わせて呼ぶ場合、任那の「官家」(miyake)すなわち、天皇の直轄地を指す場合、そしておよそ加耶と見ることのできな地域に対して呼ぶ場合である。そのような用い方をされた「任那」を、恣意的に「加耶」に置き換えて、加耶の範囲を考えようとするのは、そもそもおかしいのである。例えば、継体紀の「任那四県」であるが、それは加耶の四県ということではない。当然、加耶の範囲で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考え方自体が、恣意的なものである。

例をあげよう。

ほんらいの意味である金官国を指しているのは、「任那」という語が『日本書紀』に最初にあらわれる崇神紀65年条(「任那」用例としての第1例。以下、同じ)である。

秋七月、任那国遣蘇那曷叱知令朝貢也。任那者去筑紫国二千余里。北阻海。以在鷄林之西南(秋七月、任那国が蘇那曷叱知を遣わし朝貢してきた。任那とは筑紫国から二千余里離れており、北のほうで、海を隔てている。鷄林(=新羅)の西南にある。)

これは金官国を指しているとみておかしくない。

それに対して、大加耶国(高靈)を指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のは、継体紀23年(529)夏4月条(第25例)の次の記事である。

壬午朔戊子(7日)、任那王己能末多干岐来朝。【言己能末多者、蓋阿利斯等也。】

(壬午朔戊子、任那王の己能末多干岐が来朝した【己能末多というのは、おそらく阿利斯等のことである】。)

この任那王の己能末多干岐については、己能末多が己能末多の誤りではないかとみて、大加耶の異脳王(『新增東国輿地勝覧』巻29・高靈県・建置沿革条所引崔致遠『釈順応伝』)にあてる考えがある。注に阿利斯等を指すと推定しているが、阿利斯等とは、この記事の直前の、継体紀23年3月条のいわゆる変服事件に登場する大加耶王の称号であり、注も、大加耶王にあたると考えているのであろう。ここで「来朝」したというのは認めがたいが、この「任那王」が大加耶王を指しているという可能性は十分にある。

欽明紀12年(551)是歳条(第146例)に、

百濟聖明王、親率衆及二国兵、【二国謂新羅・任那也。】往伐高麗、獲漢城之地。又進軍討平壤。凡六郡之地、遂復故地。

(百濟の聖明王がみずから民衆と二国の兵を率いて【二国とは新羅・任那をいう】、高麗を討伐に出て、漢城の地を獲得した。さらに軍を進めて平壤を討ち、およそ六郡の地で、遂に故地を取り戻した。)

とあるが、この「任那」は、いわゆる任那復興会議のあと、百濟寄りの道を選んだ大加耶および大加耶連盟の諸国を指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大加耶連盟諸国は、そのために、百濟と新羅との抗争において百濟側に立って戦い、百濟が敗れたあと、562年に新羅の攻撃を受けて滅亡することになる。

いくつかの国をあわせて呼ぶ場合の例として、加耶滅亡の記事として知られる欽明紀23年(562)条(第158～160例)がある。

春正月、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廿一年、任那滅焉。総言任那。別言加羅国・安羅国・斯二岐国・多羅国・卒麻国・古嵯国・子他国・散半下国・乞浪国・稔礼国、合十国】。

(春正月、新羅が任那の官家を滅ぼした【ある本には、廿一年に任那が滅ん

だとある。まとめて任那と言ひ、個別には、加羅國・安羅國・斯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浪國・稔禮國と言ふ。合わせて十国である】。)

これは、10国を合わせて呼ぶものである。これらの国々は、すべて加耶の国と言ってよい。実際に、この時点まで残っていた加耶の諸国である。金官国はすでに滅んでおり、ここには含まれていない。

およそ加耶と見ることのできな地域に対して呼ぶ場合は、雄略紀21年(477)春3月条(第12例)である。

天皇聞百済為高麗所破、以久麻那利賜汶洲王、救興其国。時人皆云、百済国、雖属既亡、聚憂倉下、実頼於天皇、更造其国【汶洲王蓋鹵王母弟也。日本旧記云、以久麻那利、賜末多王。蓋是誤也。久麻那利者、任那国下哆呼喇県之別邑也】。

(雄略天皇は百済が高麗に破れたのを聞いて、久麻那利を汶洲王に賜与し、その国を救援し復興させた。時の人がみな言った。百済国は、滅んでしまったとはいえ、倉下に集まって憂え、実に天皇に頼ってあらためてその国を造った、と【汶洲王は蓋鹵王の母弟である。日本旧記には、久麻那利を末多王に賜ったというが、それは誤りであろう。久麻那利とは、任那国の下哆呼喇県の別邑である】。)

ここにみえる「久麻那利」とは、百済中期の王都熊津を指す。百済は475年に高句麗の攻撃を受けて王都漢城が陥落し、蓋鹵王も殺され、いったん滅亡したのであるが、そのあと文周王が、熊津で百済を復興した。それは、この記事が示すように477年のこととみるのが妥当であるが、現実には雄略が復興させたわけではない(田中「百済文周王系の登場と武寧王」『百済研究』49輯)。その点はさておき、注で「久麻那利者、任那国下哆呼喇県之別邑也」としている。この「下哆呼喇県」については、いわゆる任那4県の1つである「下哆喇」と同じとみる意見もあるが、それがどうあれ、熊津が「任那国の下哆呼喇県の別邑」であるとしているのである。「別邑」の意味が問題ではあるが、熊津が「任那国の下哆呼喇県」とそれほど離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を示唆する。

それが具体的にどこかは明確ではないが、熊津に近いところは、果たして加耶地域と言えるのかどうか。『三国史記』『三国遺事』に従えば、加耶の空間的な範囲については、広狭2種のとらえかたがある。1つは、慶尚南道あたりを指すという理解であるが、広く慶尚北道までふくむ、という理解である。しかし、どちらもまちがいはない。

どちらのみかたにも、ともにそれなりの根拠があるが、ここでは詳述しない。しかし、このふたつの理解は、かならずしも対立するものではない。どちらも慶尚南道あたりは加耶であるとみとめるのであり、そのうえでそれがどこまでひろがるのか、が異なるのである。

さて、そのように考えた上で、先の「任那」用例を考えてみれば、それは「伽耶」の範囲を逸脱している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

以上のような用例に加えて、「任那の官家」を意味する用法があるのであるが、それが特に『日本書紀』の主張と関わるものであり、独自な内容であり、また信用できないものである。それについて、次章で考える。

二 『日本書紀』の主張する「任那官家」変遷観

いわゆる「任那四県」割譲記事を見てみる。継体紀6年(512)条(第18～20例)に、

冬十二月、百濟遣使貢調。別表請任那国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四県。哆唎国守穂積臣押山奏曰、此四県、近連百濟、遠隔日本。旦暮易通、鶏犬難別。今賜百濟、合為同国、固存之策、無以過此。然縱賜合国、後世猶危。況為異場、幾年能守。大伴大連金村、具得是言、同謨而奏。廼以物部大連麁鹿火、宛宣勅使。物部大連、方欲発向難波館、宣勅於百濟客。其妻固要曰、夫住吉大神、初以海表金銀之国、高麗・百濟・新羅・任那等、授記胎中誉田天皇。故太后息長足姫尊、與大臣武内宿祢、毎国初置官家、為海表之蕃屏、其来尚矣。抑有由焉。縱削賜他、違本区域。綿世之刺、詎離於口。大連報曰、教示合理、恐背天勅。其妻切諫云、称疾莫宣。大連依諫。由是、改使而宣勅。付賜物并制旨、依表賜任那四県。大兄皇子、前有縁事、不関賜国、晚知宣勅。驚悔欲改。令曰、自胎中之帝、置官家之国、輕随蕃乞、輒爾賜乎。乃遣日鷹吉士、改宣百濟客。使者答啓、父天皇、図計便宜、勅賜既畢。子皇子、豈違帝勅、妄改而令。必是虚也。縱是実者、特杖大頭打、孰與特杖小頭打痛乎、遂罷。於是、或有流言曰、大伴大連、與哆唎国守穂積臣押山、受百濟之賂矣。

(冬十二月、百濟は使者を派遣して貢調させた。そして別に表文を送ってきて、任那国の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の四県を要求した。哆唎国守穂積臣押山が奏して言った。「この四県は、百濟とは近く連らなっており、日本とは遠く隔っております。朝や暮れに百濟とは通じやすく、鶏や犬も区別しがたい距離であります。今、百濟に賜わって、ひとつの国に合わせたならば、そもそもそれを存続させる策としてはそれ以上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たとえ賜わって国を合わせても、後世にはなお危険もあります。まして合わさないままにしておけば、いったい何年守ることができましょうか」と。大伴大連金村がこの発言を受けて、賛成の意を表明した。そこで物部大連麁鹿火を宣勅使に宛てた。物部大連は難波館に向かって出発し、百濟の客に勅

を宣べようとした。しかしその妻が強く諫めて言った。「そもそも住吉大神は、最初、海表の金銀の国である高麗・百済・新羅・任那等を胎中嘗田天皇(応神)に授記されました。そのため大后息長足姫尊は、大臣武内宿祢とともに、国ごとに初めて官家を置き、海表の藩屏とされたのです。その由来は古いもので、その理由もあるのです。もしそれを削って、他の国に賜うようなことがあれば、もとの区画と異なることになります。のちの世にまでそしりをうけつづけることでありましょう」と。大連が答えて言った。「教え示すことは理にかなっているが、天皇の勅に背くことを恐れる」と。その妻が懇切に諫めて言った。「病氣と称して、宣べてはいけません」と。大連は諫めに従った。そのため、改めて使者を送って、勅を宣べ、賜物および制旨を与え、表によって任那の四県を賜わった。大兄皇子(のちの安閑)は別の仕事があって、国を賜うときに関与しておらず、遅くに宣勅を知った。驚き悔やみ、改めたいと思った。そこで命令して言った。胎中帝(応神)以来、官家を置いている国を、軽々しく蕃国の要請に従って、容易に賜わってよいのか」と。そして日鷹吉士を派遣し、改めて百済の客に宣べた。使者が答えて言った。「父天皇が便宜を計って、勅し賜わって、すでにおわりました。子である皇子がどうして帝勅を違えて、妄りに改めて命令しようとするのでしょうか。必らずやこれは偽りでしょう。もしそれが本当ならば、大きな頭の杖で打つのと、小さい頭の杖で打つのと、どちらが痛いでしょうか」と。遂に帰っていった。この時になって、あるものが流言して言った。「大伴大連と哆唎国守穂積臣押山とは、百済の賄賂を受け取った」と。

とあるとおりである。

ここに記されているのは、「任那四県」の地がもともと日本の天皇の「官家」であったが、百済がその地を賜与して欲しいと要求し、哆唎国守穂積臣押山がそれに口添えをし、さらに大伴大連金村が賛成したことにより、百済に賜与することになった。そのことを伝える使者に任命された物部大連麿鹿火は、その妻が止めたので辞退し、かわりのものが難波館にいる百済の使者に伝えた。その後、そのことを知った大兄皇子が反対し、自分の意見を百済使に伝えさせたが、百済使は、父の天皇が決めたことを子の皇子がいまさら改めることができようか、と拒否し、帰国した。大伴大連と穂積臣押山は、百済から賄賂を受け取っていたという流言が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

ここでわたしは、『日本書紀』の主張がどうであったのかについて追究したい。現実がどうであったかということとは、当然、別である。

この記事で、「任那四県」の地がどのようなところであるとされているのかであるが、下線部のように、住吉神が、「高麗・百済・新羅・任那等」を胎中の応神天皇に授けたもので、母である神功皇后はそこを「官家」とし、「藩屏」としたのである、という。

そうであれば、高麗・百濟・新羅・任那が、すべて「官家」であり、日本の「藩屏」ということであるから、独立国であり、日本に従属して日本の防禦のための守備をする国としての扱い、ということになる。

しかしその考えが一貫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その後も、神功皇后の時代に定めた境域であるという主張は繰り返されるが、内容が一致しないようにみえる。

胎中天皇のときの官家の語がみえる次は、先にもあげた継体紀23年夏4月条(第25例)の次の記事である。

夏四月壬午朔戊子、任那王己能末多干岐来朝。【言己能末多者、蓋阿利斯等也。】啓大伴大連金村曰、夫海表諸蕃、自胎中天皇、置内官家、不棄本土、因封其地、良有以也。今新羅、違元所賜封限、数越境以来侵。請、奏天皇、救助臣国。大伴大連、依乞奏聞。

(夏四月壬午朔戊子、任那王の己能末多干岐が来朝した【己能末多というのは、おそらく阿利斯等のことである】。大伴大連金村に伝えて言った。「そもそも海表の諸蕃は胎中天皇が内官家を置いてから、本土を放棄してはいません。そのため、その地に封建するのはまことに理由のあることであります。ところが新羅は、もともと賜わった境界と違って、しばしば境を越えて来侵します。天皇に奏上してわたしの国を救助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に要請いたします」と。大伴大連は要請に従って天皇に奏聞した。)

ここでもやはり、任那・新羅が、胎中天皇以来の「内官家」であり、「蕃」であるとしている。「蕃」は、藩であり、藩屏である。その点は、上記の「任那四県」割讓記事と同じである。

では、このような「官家」がどのようにして始まるのか。

『日本書紀』における新羅に関わる記事としては、先に、「任那」という語が『日本書紀』に最初にあらわれる例としてあげた、崇神紀65年条に、「鷄林」と記しているのが新羅であり、それが最初ということになる。そしてそれにつづく記事が、垂仁紀2年是歳条であり、

是歳、任那人蘇那曷叱智請之、欲歸于国。蓋先皇之世来朝未還歟。故敦賞蘇那曷叱智。仍齎赤絹一百匹、賜任那王。然新羅人遮之於道而奪焉。其二国之怨、始起於是時也。

(任那人の蘇那曷叱智が、国に帰りたいと要請した。おそらく先の天皇の時代に来朝してまだ帰っていなかったのであろう。そのため蘇那曷叱智を厚くもてなし、赤絹一百匹を任那王に賜わった。しかし新羅人がそれを途中で遮って、奪ってしまった。二国の怨みはこの時に初めて起こった。)

とある。崇神はその68年に死に、次の歳に垂仁が即位したことになるから、蘇那曷叱智がやってきて5年目のことである。ここには新羅が登場し、「任那」と対立する勢力として記されている。『日本書紀』では、新羅は対立する勢力として、「任那」は親しい勢力として描かれるのが基本である。

そのあと、垂仁紀三年春三月条に、天日槍(あめのひばこ)の来日記事がある。

新羅王子天日槍来帰。(新羅王子の天日槍がやって来て帰順した。)

とあり、天日槍がやって来て、最終的に但馬に定着するまでの移動について記している。

ただし、これらは、新羅に関わる記事とはいえるが、新羅との関係を記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

天日槍伝説につづく、新羅に関わる記事が、仲哀紀八年秋九月条であり、仲哀が熊襲を討とうとしたが、何もない熊襲を討たず、金銀の国新羅を討つべきであるとの神託があった。しかしそれを疑った仲哀は、強いて熊襲を討って、勝たずに帰った、とある。そしてその翌年に仲哀が崩じている。

これを承けて、神功皇后が登場するのである。神功摂政前紀九年二月条に、

九年春二月、足仲彦天皇崩於筑紫橿日宮。時皇后傷天皇不從神教而早崩、以為、知所崇之神、欲求財宝国。

(〔仲哀の〕九年春二月に、仲哀が筑紫橿日宮(かしひのみや)で崩じた。その時に皇后は、天皇が神の教えに従わないで早く崩じたことを悼み、崇った神を知り、財宝の国を求めたい、と思った。)

こうしてあらためて、体内に子を身ごもった神功による新羅侵攻がなされるのである。その四月に、海に臨んで、西征を誓ったあと、九月に諸国に命令して船を集め、兵士を訓練させ、一〇月条に、

冬十月己亥朔辛丑、從和珥津発之。時飛廉起風、陽侯拳浪、海中大魚、悉浮扶船。則大風順吹、帆船随波。不劳■(木+虜)楫、便到新羅。時随船潮浪、遠逮国中。即知、天神地祇悉助歟。新羅王、於是、戦々慄々■(がんだれに昔厝)身無所。則集諸人曰、新羅之建国以来、未嘗聞海水凌国。若天運尽之、国為海乎。是言未訖之間、船師満海、旌旗耀日。鼓吹起声、山川悉振。新羅王遥望以為、非常之兵、将滅己国。■(龍の下に言讐ショウ)焉失志。乃今醒之曰、吾聞、東有神国。謂日本。亦有聖王。謂天皇。必其国之神兵也。豈可拳兵以距乎、即素旆而自服。素組以面縛。封囟籍、降於王船之前。因以、叩頭之曰、從今以後、長與乾坤、伏為飼部。其不乾船■(施木へん。夕柁)、而春秋献馬梳及馬鞭。復不煩海遠、以每年貢男女之調。則重誓之曰、非東日更出西、且除阿利那礼河返以之逆流、及河石昇為星辰、而殊欠春秋之朝、怠廢梳鞭之貢、天神地祇、共討焉。時或曰、欲誅新羅王。於是、

皇后曰、初承神教、將授金銀之國。又号令三軍曰、勿殺自服。今既獲財國。亦人自降服。殺之不祥、乃解其縛為飼部。遂入其國中、封重寶府庫、收圖籍文書。即以皇后所杖矛、樹於新羅王門、為後葉之印。故其矛今猶樹於新羅王之門也。爰新羅王波沙寐錦、即以微叱己知波珍干岐為質、仍齎金銀彩色及綾・羅・■(かとりぎぬ縑)絹、載于八十艘船、令從官軍。是以、新羅王、常以八十船之調貢于日本國、其是之緣也。於是、高麗・百濟二國王、聞新羅收圖籍、降於日本國、密令伺其軍勢。則知不可勝、自來于營外、叩頭而款曰、從今以後、永稱西蕃、不絕朝貢。故因以、定內官家屯倉。是所謂之三韓也。皇后從新羅還之。

(冬十月己亥朔辛丑(三日)、和珥津から出発した。その時、風の神が風を起こし、海の神が波を起こし、海中の大魚がすべて浮かんで船を助けた。それで大風が吹いて、帆船が波に従って進み、勞せずに新羅に到着した。時に隨船・潮浪、遠く國の中に速(およ)ぶ。即ち知る、天神地祇の悉く助けたるを。新羅王是に於て戰々慄々として身を厝くに所無し。則ち諸人を集めて曰わく、新羅の建国以來、未だ嘗て海水の國に凌(のぼ)るを聞かず。天運尽きたるが若くして、國、海と為らんとするや、と。是の言未だ訖わらざるの間、船師海に満ち、旌旗日に耀やく。鼓吹声を起こし、山川悉く振う。新羅王遙かに望みて以為く、非常之兵、將に己國を滅ぼさんとす、と。讐(おそ)れて志を失す。乃ち今醒めて曰わく、吾れ聞く、東に神國有り。日本と謂う。亦た聖王(ひじりのきみ)有り。天皇と謂う。必らず其の國の神兵ならん。豈に兵を挙げて以て距ぐ可けんや、と。即ち素旆(しろきはた)あげ自ら服す。素組(しろきくみ)して以て面縛す。圖籍を封じ、王船之前に降る。因りて叩頭して曰わく、今從り以後、長く乾坤(あめつち)と與に伏して飼部と爲らん。其れ船柁(ふねかじ)を乾さず、春秋に馬梳(うまはたけ)及び馬の鞭を獻じ、復た海の遠きを煩さず、年毎に男女之調を貢がん、と。則ち重ねて誓いて曰わく、東日の更に西に出づるに非ずは、且た阿利那礼河(ありなれがわ)の返りて以て逆流し、及び河石の昇りて星辰と為なるを除き、殊に春秋之朝を欠き、怠りて梳鞭(くしとむち)之貢を廢めば、天神地祇、共に討たん、と。時に或るもの曰わく、新羅王を誅せんと欲す、と。是に於て皇后曰わく、初め神の教を承けて、將に金銀之國を授けんとす。又た三軍に号令して曰わく、自ら服するを殺す勿れ、と。今既に財國を獲たり。亦た人自ら降服す。之を殺すは祥ならず、と。乃ち其の縛を解き飼部と為せり。

遂に其の國中に入り、重寶府庫を封じ、圖籍文書を収む。即ち皇后の杖ける所の矛を以て、新羅の王の門に樹て、後葉之印と為す。故に其の矛、今猶お新羅王之門に樹てり。爰に新羅王波沙寐錦(はさむきむ)、即ち微叱己知波

珍干岐(みしこちはとりかんき)を以て質と為し、仍りて金銀彩色及綾羅・縑絹を齎らし、八十艘船に載せて、官軍に従わしむ。是を以て、新羅王、常に八十船之調を以て日本国に貢る、其れ是の縁なり。是に於て、高麗・百濟二国王、新羅の図籍を収めて日本国に降れるを聞き、密かに其の軍勢を伺わしむ。則ち勝つべからざるを知り、自ら営外に来たり、叩頭して款じて曰わく、「今より以後、永く西蕃と称し、朝貢を絶たず」と。故に因りて以て、内官家屯倉(うちつみやけ)を定む。是れ所謂る三韓なり。皇后、新羅より還る。)

とある。このように、新羅は、戦うことなく降伏し、今後の服属を誓い、八〇艘の船で財物を載せて送った。これを聞いた高麗・百濟の王も、降ってきて朝貢するようになり、そのため「内官家屯倉」を定めた、という。

これが、応神を妊娠したまま出征した神功が、新羅・高麗・百濟の「官家」を獲得した経緯である。これによる限り、新羅王は、軍勢を見て白旗をあげて降り、また高麗・百濟はそれを聞いて戦わないで降り、朝貢を誓った、というのであり、それらの地を制圧して、獲得し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また「任那」は、そこには登場しておらず、いつ「官家」になったのか、由来が記されていないことになる。

なお、かつて神功皇后の「新羅征伐」、または「三韓征伐」といわれたものは、以上のような内容であるが、言うまでもなく、現在の学界でこれを史実としてとらえようという考えはない。後代になって造作された話とされている。特に、皇后がみずから遠征軍を指揮しているのは、斉明が滅亡後の百濟の復興軍救援のために九州まで出征した事実がモデルとなっており、天武・持統期の天皇中心の律令国家が形成される時に、新羅を「蕃国」視し、下に位置づける観念も成立し、そうしたことが反映して、そのような伝承的記事が作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のである。

ただし、いったんそのような伝承ができあがると、例えば、『続日本紀』卷一八・天平勝宝四年(七五二)六月条に、新羅王子金泰廉一行がやって来た際、

壬辰(一七日)、……是日。饗新羅使於朝堂。詔曰。新羅国来奉朝庭者。始自氣長足媛皇太后平定彼国。以至于今。為我蕃屏。而前王承慶・大夫思恭等。言行怠慢。闕失恒礼。由欲遣使問罪之間。今彼王軒英。改悔前過。冀親来庭。而為顧国政。因遣王子泰廉等。代而入朝。兼貢御調。朕所以嘉歆勤款。進位賜物也。又詔。自今以後。国王親来。宜以辞奏。如遣余人入朝。必須令齎表

(壬辰(一七日)、……是の日。新羅使を朝堂に饗す。詔して曰わく、「新羅国、来たりて朝庭に奉ることは、氣長足媛皇太后の彼の国を平定せし自り始まり、以て今に至るまで、我が蕃屏と為る。而れども前王承慶・大夫思恭ら

は言行怠慢にして恒の礼を闕失せり。由るて使を遣わし罪を問わしめんと欲するの間、今彼の王軒英(景德王)前の過ちを改め悔いて、親ら庭に来ることを冀う。而れども国政を顧みんが為に、因りて王子泰廉らを遣わし代わりて入朝せしめ、兼ねて御調を貢る。朕、所以に嘉歎し勤款し、位を進め物を賜わらん」と。又た詔して、「今自り以後、国王親ら来たりて宜しく辞を以て奏すべし。如し余人を遣わして入朝せしめば、必らず須く表文を齎らしむべし」と。)

とあり、そのことが述べられている。その後も、このように、それが繰り返し「回想」され、述べられることになる。

蒙古襲来の時に、『八幡愚童訓』が作られているが、塚本明「神功皇后伝説と近世日本の朝鮮観」(『史林』七九卷六号、一九九六年)によれば、それは蒙古襲来後間もなくの成立と考えられており、石清水八幡社の神官が異国撃退に果たした神徳を強調し、幕府の恩賞を得る目的で作成したものとされており、後半には蒙古勢との合戦の様子が克明に描かれるが、前段は異国襲来の前史として、神功皇后の「出征」譚が詳細に記されている。

その後も若干は変容しつつ、そうした伝承が、一般に広がっていくことになる。秀吉の侵略の際にも、近代の日韓併合論の際にも、繰り返し、登場するのである。

さて、「任那四県割讓」の前提としての「任那官家」の成立を確認したのであるが、神功が制圧したわけでも、また降伏してきたわけでもない「任那」が、「官家」と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新羅・高麗・百濟については、朝貢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が、「官家」になったことを意味しているようであるが、それ以後、この三国の「官家」が登場することはない。「官家」は、「任那」にのみ存在したかのようである。

神功紀には、その後、49年条にいわゆる加羅七国平定記事がある。

卅九年春三月、以荒田別・鹿我別為將軍。則與久氐等、共勒兵而度之、至卓淳国、將襲新羅。時或曰、兵衆少之、不可破新羅。更復、奉上沙白・蓋盧、請増軍士。即命木羅斤資・沙々奴跪【是二人、不知其姓人也。但木羅斤資者、百濟將也。】領精兵、與沙白・蓋盧共遣之。俱集于卓淳、擊新羅而破之。因以、平定比自嫩・南加羅・旆国・安羅・多羅・卓淳・加羅七国。仍移兵、西廻至古奚津、屠南蛮枕弥多礼、以賜百濟。於是、其王肖古及王子貴須、亦領軍来会。時比利・辟中・布弥支・半古、四邑、自然降服。是以、百濟王父子及荒田別・木羅斤資等、共会意流村。【今云州流須祇。】相見欣感。厚礼送遣之。唯千熊長彦與百濟王、至于百濟国、登辟支山盟之。復登古沙山、共居磐石上。時百濟王盟之曰、若敷草為坐、恐見火焼。且取木為坐、恐為水流。故居磐石而盟者、示長遠之不朽者也。是以、自今以後、千秋萬歳、無絶無窮。常称西藩、春秋朝貢。則將千熊長彦、至都下厚加礼遇。亦副

久氏等而送之。

(春三月、荒田別・鹿我別を将軍として、百済からの使者である久氏らとともに兵をととのえて渡り、卓淳国にいたり、新羅を襲おうとした。そのときにあるものがいった。「兵衆が少なければ、新羅を破ることはできません。さらにまた沙白盖盧を奉じて軍士を増すことを要請いたします」と。そこで木羅斤資・沙沙奴跪【このふたりはその姓がわからない。ただし木羅斤資のみは百済の将である】に命じ、精兵をひきいて、沙白盖盧とともに派遣した。ともに卓淳に集い、新羅を撃って破った。その結果、比自嫩・南加羅・旆国・安羅・多羅・卓淳・加羅の七国を平定した。そこで兵を西に移して、古奚津にいたり、南蛮の枕弥多礼を攻取して百済に賜与した。ここで、百済王の肖古および王子の貴須がまた軍をひきいて来会した。ちょうどそのとき、比利・辟中・布弥支・半古の四邑(または、比利・辟中・布弥・支半・古四の〔五〕邑)がみずから降伏してきた。そこで、百済王父子および荒田別・木羅斤資らがいっしょに意流村に会し、たがいに見て喜び、厚くもてなして送らせた。ただ千熊長彦と百済王は、百済国にいたり、辟支山に登って盟した。また、古沙山に登り、磐石のうえで、百済王が盟していった。「……磐石の上で盟するのは、長く朽ちることがないことを示すものです。そこで、いまからのち、千秋万歳まで絶えることなく、常に西蕃と称し、春秋に朝貢いたします」と。そこで千熊長彦をつれて都下にいたり、厚く礼遇し、また久氏らをつけて送った。)

ここには、新羅を撃破したこと、それによって、比自嫩・南加羅・旆国・安羅・多羅・卓淳・加羅の七国を平定したこと、そして百済王があらためて、「西の蕃」として、永遠に朝貢することを誓ったこと、などを記している。

ここで平定したという加羅七国が、「任那官家」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まったく記されていない。もちろん、そのように見ようという意見はあるが、『日本書紀』として、これを、神功が定めた境域であり「官家」となったというように記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ある。あくまでも、先の神功摂政前紀9年条の「新羅征伐」の時である。

とすれば、その後の「割譲」は、大いに飛躍があるのではなかろうか。『日本書紀』として、前後一貫しておらず、完結的に受け取ることもできない。ただ、そうした飛躍をことさら意識しないで、神功の時に、住吉神が授けた国々として、「官家」を想定し、そのなかに、「任那四県」の地も含まれていたということにしているのである。

なお、歴史的どうかと言うことにもふれておく必要があるだろう。「任那四県」割譲記事について、かつては、『日本書紀』が伝えるままに、日本の天皇は、朝鮮半島にミヤケを持っていた、と考えていたため、この記事についても、記されているとおり、ミヤケの

一部である「任那四県」の地をこのとき百済に賜与した、と認めてきた。しかし、直轄地を持っていたこと自体が疑われるようになり、この記事も、およそ事実を伝えたものとは異なる、というように理解が変わってきた。

この記事につづく継体七年～一〇年条には、ほぼ似たようなかたちで、百済が「もと百済の己汶」の地を天皇(継体)に要求し、天皇もそれを認めた、と記している。わたしはかつて、それが事実とは大きく異なるもの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ことがある。すなわち、己汶とは、百済の領地でも倭と関わる地でもなく、独立した国であり、その状態で、大加耶を中心とする諸国連合(わたしは大加耶連盟と呼んでいる)に加わっていたということ、および、百済がそこに進出してこようとしたため、盟主大加耶を中心にして、連合諸国がそれに対抗したが、結局は、百済の前に屈することになり、己汶が奪い取ら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たのである。

そして、それと対比すれば、それに先立つこの「任那四県」についても、現実には、百済が実力で、その地を領有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日本書紀』的な表現で記している、と明確に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た。そして、この記事进行分析した結果、「任那四県」とは、百済が五一二年に獲得した地域、というものではなく、そこに至るまでに長い期間にわたって、獲得してきた地域であり、「県」という語から得られる一般的イメージとは異なって、むしろ「国」とも認識すべき広さを持っているものとみななければならない。

三 『日本書紀』を通して見た加耶の範囲

以上見てきたように、『日本書紀』の「任那」は、ほんらいの意味から離れて、『日本書紀』独自の用い方をしており、少なくとも、加耶を置き換えた語ではないことは確かである。従って、『日本書紀』の「任那」史料を、加耶史料ととらえて加耶のことを考えることは正しくないのであり、ただ個別に加耶を考える史料となるのかどうかを確認しつつ、用いる必要があるのである。

では、『日本書紀』を通して見た加耶とは、どのように考えられるか。上記のように、百済は513年から己汶を攻撃し始め、さらに多沙へと南下していく。この己汶・多沙が加耶の国々であることは、『日本書紀』のみを通して確認できないが、ほかの材料を通し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それは例えば、わたしが言う、大加耶連盟に関する史料としての于勒一二曲である。

この己汶・多沙が、百済として最初に加耶進出であり、つまり加耶の西端にあた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その場合、それよりも西側の勢力としてあらわれる「満奚」は重要である。継体紀8年の次の箇所である。

八年……三月、伴跋築城於子吞・帶沙、而連滿奚、置烽候邸閣、以備日本。
復築城於爾列比・麻須比、而絙麻且奚・推封。聚士卒兵器、以逼新羅。駭略
子女、剝掠村邑。凶勢所加、罕有遺類。夫暴虐奢侈、惱害侵凌、誅殺尤多。
不可詳載。

(八年……三月、子吞・帶沙に築城し、満奚に連らね、日本に備えた。また
爾列比・麻須比に築城して麻且奚・推封と連係させ、士卒・兵器をあつめて
新羅にせまった。子女・村邑を略奪し、残すものがなにもなかった。その暴
虐ぶりはつまびらかに載せることができない。)

ここには「伴跋が子吞・帶沙に築城して、満奚と連係し、日本に備えた」という記事と、「爾列比・麻須比に築城して麻且奚・推封に連係し、新羅にせまった」という記事である。わたしはこの前者の記事について、百済の己汶侵攻に際しての伴跋すなわち大加耶の処置ととらえた。つまり、大加耶連盟に属する子吞・帶沙に築城して防御ラインをつくり、さらにそれを満奚にまでのぼし、己汶から侵攻してくる百済に対して、一步下がったところで、防ぎ止めようとしたものと考えた。もちろん「日本に備えた」とあるのは、「百済の備えた」とすべきものを改変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いっぽう後者については、このときに、新羅との間で戦端が開かれてはおらず、のちに大加耶・新羅間の婚姻同盟が破綻したあとの記事が混入しているものととらえ、ただし述べているのは、前者と同様に、爾列比・麻須比という連盟諸国に築城し、それを麻且奚・推封にまでのぼして防御ラインをつくったものととらえた。

さてここにみえる「満奚」であるが、それは蟾津江よりも以西で考える必要がある。子吞は居昌であり、帶沙は河東である。特にその城というのは、蟾津江沿いにある姑蘇城を指す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が、いずれにしても、居昌から蟾津江東側の河東地方へと結ぶラインであり、それを延長させたところに「満奚」があったと考えなければならぬためである。そして、その「満奚」は、後者の例からみても、大加耶連盟に属しているのではなく、まさに「連係」勢力である。

後者の例では、爾列比・麻須比に築城し、それをさらに麻且奚・推封にのぼした防御ラインということであるが、爾列比・麻須比は、全榮来によれば、それぞれ宜寧・三嘉にあてている。わたしも、細部に異論はあるが、ほぼそれでよいと考える。

そこに築城して連係したという麻且奚・推封であるが、麻且奚はわからないものの、推封は、玄風説と密陽説がある。玄風説のほうは古名「推良火」、密陽のほうは「推火」をそれぞれもとにしてあてているのであるが、これだけであれば、どちらもすてがたい。ただ、新羅の行動に対抗して、築城し、連係したという状況のなかで考えるべき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もし密陽説がただしければ、新羅の北上をさえぎって、おおきく横の

連係を考えたということになる。そのばあい、密陽がなお、新羅に征服されないで独立した勢力として残っていたかどうかが問題となる。『日本書紀』の欽明紀で、最後まで残っていた加耶諸国のひとつとしてみえる卒麻が、密陽の南の金海郡生林面であるとすれば、ここで密陽が登場してもふしぎではない。わたしは密陽説でよいと考える。

わたしは、これらの地名について、大加耶が築城した爾列比・麻須比は、連盟内に属するものであるが、それ以外は、連盟外のものであると考える。連盟外の独立した勢力であった麻且奚・推封も、新羅と対抗していたもので、それゆえに大加耶はそれと連係をはかろうとしたのである。

ということで、「満奚」は、大加耶連盟に属してはいないが、それと連係して、百済と対抗する勢力であり、かつ位置的には蟾津江よりも西側で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鮎貝房之進は、つとに光陽の馬老にあてている。

この「満奚」を、加耶勢力とみることも可能である。大加耶連盟に属していなくても、加耶の国・地域としては存在しうるからである。しかしこれらの記事をもとに断言できるわけではない。

結局、わたしの考えでは、加耶の西端としては、基本的に、己汶・多沙であり、満奚にまで広げた考えても問題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任那四県」は、それがどこにあったかは別にしても、加耶の範囲を考える上で有効な記事とはいえない。

「일본에서 본 영남·호남 경계지역의 가야」 토론문

이동희(인제대학교)

1. 임나(任那)의 개념과 용례

발표자는 ‘임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임나라는 것은 본래 가야의 1국인 금관국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 외의 용법으로는 대가야(고령)를 가리키는 경우, 가야의 몇 개국을 합쳐서 부르는 경우, 임나의 미야케(官家) 즉 천황의 직할지를 가리키는 경우, 그리고 가야라고 볼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부르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용법으로 이용된 ‘임나’를 자의적으로 ‘가야’로 치환하여 가야의 범위를 생각하려는 것은 잘못되었다. 예를 들면 계체기의 ‘임나사현(任那四縣)’은 가야의 4현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중 일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김태식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즉, “『日本書紀』에서 사료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계체기 및 흘명기로부터 시작하여 효덕기까지 ‘임나’는 대개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임나에 대한 대다수의 용례(195회)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서 임나는 가야 전역에 대한 총칭으로 쓰였다. 반면에 『日本書紀』의 웅략기, 현종기까지는 임나의 용례가 20회 정도로 적지만 그 가리키는 범위가 달라서 주로 충청남도과 전라도(즉, 백제지역)를 가리키고 있다.”(김태식 2002:65)

그런데, 발표자는 웅략기 21년(477년)조의 가야로 볼 수 없는 지역(백제지역)에 대한 기사를 예로 들면서, “계체기의 임나사현은 가야의 4현이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요컨대, 신빙성이 인정되는 다수 용례를 통해 볼 때, 6세기대의 ‘임나’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소국들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식 2002:66-67). 따라서 계체기 6년조(512년)의 임나사현은 가야의 4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임나사현은 기문과 대사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으므로 기문·대사와 가까운 지역이다. 기문이 백제와 대가야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던 남원일대이고 대사가 하동이라고 한다면, 임나사현도 기문·대사와 인접해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섬진강 하구의 서안, 즉 전남동부권에 해당한다(김영심 1997).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임나사현(任那四縣)과 임나일본부설

발표자는 “가야의 서쪽 끝은 기문·다사이고, 만해(滿溪)로까지 확대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임나사현’은 이것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차치하더라도 가야의 범위를 생각하는데 유효한 기사라고는 말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영남·호남 경계지역의 가야’를 논할 때 임나사현(任那四縣) 위치만큼 중요한 사안이 없는데 이에 대해 발표자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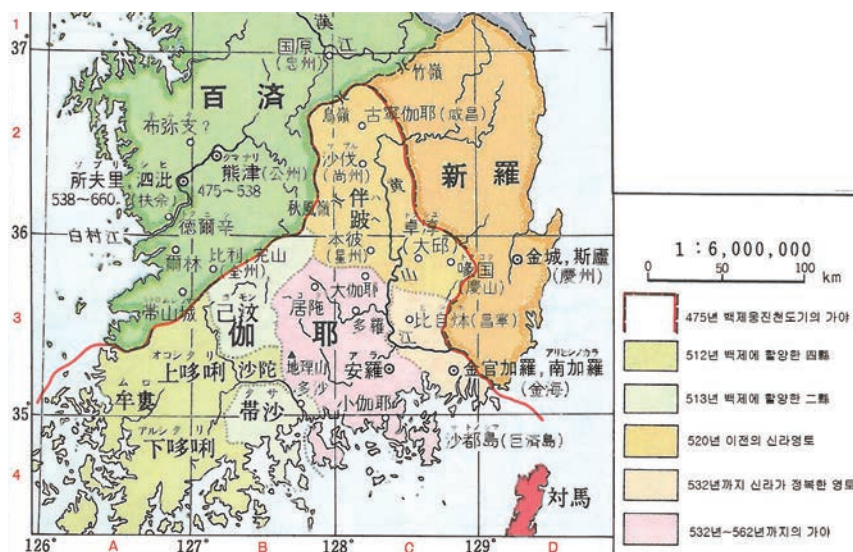
그런데, 발표자는 종래 ‘任那四縣’을 末松保和(1949)와 거의 동일하게 영산강유역으로 비정한 바 있다(田中俊明 2009).

스에마쓰의 견해는 任那日本府說과도 연동되어 있다. 즉, 일제강점기에 일본관학자들에 게 있어, ‘任那四縣’할양 기사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의 주요 근거자료 중 하나이므로, 임나사현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의 야마토왜가 4세기후반에 한반도 남부지역에 진출하여 백제·신라·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중엽까지 직접지배했다는 설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관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설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도굴수준의 발굴조사를 시행한 것이 가야고분이다.

이 학설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날조한 식민사관의 하나인 타율성이론의 대표적 산물로서 남선경영론(南鮮經營論)과 궤를 같이 한다.

<日本書紀>의 6세기초 기록에는 임나사현을 백제에 할양했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이는 일본의 왜곡된 史觀이 반영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백제가 가야영역을 영역화했다는 것으로 파



지도 1. <日本史年表·地圖>에서의 任那四縣 位置 비정(吉川弘文館, 2010, 東京)

악하고 있다.

임나사현에 대해 한국고대사학계에서는 섬진강서안의 전남동부권(순천·광양·여수)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이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한 것이 순천 운평리고분군 발굴조사의 가장 큰 성과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제강점기 관학자들로부터 최근까지 ‘임나사현’을 영산강유역에 비정하는 견해가 대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나’ 즉 가야의 영역을 영산강유역까지 확대해 보고 있다(지도 참조). 지도 1은 일본 학계에서 아직도 임나일본부 학설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임나’와 ‘가야’를 동의어로 본다면, 임나사현 영역내에서는 가야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호남지역에서 가야와 관련된 유적·유물은 호남동부권에 한해서 출토되고 있을 뿐, 호남서부권의 영산강유역은 가야와 무관한 웅관묘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日本書紀>에서 ‘임나사현’ 기사가 나오는 6세기초엽에 하나의 ‘縣’단위가 오늘날의 시군단위를 넘어서지 않으므로 임나사현을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호남동부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임나사현 가운데 모루(牟婁)와 사타(沙陀)는 백제시대 당시에 광양과 순천의 지명인 ‘마로(馬老)’ 및 ‘사평(沙平)’과 음이 유사하여 연결지어 볼 수 있다. 여수에도 백제시대 ‘달암산성’이 있어 임나사현의 하나로 여수반도에 비정되는 ‘다리’라는 지명과 연결지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임나사현으로 비정되는 순천·광양·여수는 광양만권으로 같은 생활문화권을 이루어왔다.

발표자께서는 임나사현의 위치에 대해서 여전히 영산강유역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임나사현과 임나일본부설을 연동해서 본 과거 학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발표자께서는 ‘만해(滿溪)’를 광양지역의 가야세력으로 기술하면서도, 만해를 임나사현의 하나인 ‘모루(牟婁)’와 동일시하는 한국 학계의 견해(김태식 2008, 이동희 2014)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도 광양을 포함한 여수·순천지역을 임나사현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3. 순천 운평리 유적, 그리고 가야의 서남쪽 끝

발표자는 대가야계 고총과 관련 유물이 다수 발견된 순천 운평리유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발표자가 제시한 대가야연맹의 방어라인이나 대가야연맹의 영역에도 순천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운평리 고분군은 전남동부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일한 가야계 고총고분군이다. 3차례 조사에서 직경 10~20m의 봉토분 5기, 토광목곽묘 15기, 석곽묘 25기를 발굴하였는데, 4~5세기대의 재지 토광묘와 5세기말엽~6세기전엽의 대가야계 석곽묘·석실묘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M2·3·4호분에서 출토된 대가야계 위세품은 5세기말~6세기초엽의 전남동부지역과 대가야와의 정치·관계(간접지배 혹은 상하연맹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이처럼 순천 운평리고분군은 백제가 전남동부권을 장악하기 직전인 기원후 500년을 전후

한 시기의 순천지역 지배층 무덤이다. 즉, 전남동부권에 존재하는 대가야계 고분군으로서, 대가야와 연맹체를 이루고 있던 임나사현(任那四縣:사타·모루·상다리·하다리)의 하나인 ‘사타’(沙陀)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섬진강 서안의 전남동부권에서 대가야계 문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순천 운평리 고분군을 임나사현의 하나인 ‘사타’의 지배층고분으로 보고 있다.

임나사현의 하나인 순천 ‘사타국’의 지배층 무덤에서는 왜계 유물이 아니라 대가야계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임나사현’은 순천·광양·여수 등의 전남동남부권에 비정되며, 5세기 말~6세기초엽 후기가야의 맹주국인 고령의 대가야와 연맹관계를 맺고 있던 가야(임나)의 4개 고을일 뿐이다.

순천 운평리고분군의 발굴성과는 임나일본부설의 중요 논거 중 하나인 임나사현의 위치와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일본관학자들이 주장한 바 있는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이다.

요컨대, 순천 운평리고분군에서 대가야계 문물이 다수 발견되었고, 여수·광양에서도 가야계 고분이나 유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야의 서남쪽 끝은 여수·순천·광양 일대(임나사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과 함께, 순천 운평리세력과 대가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 김영심, 1997, 『백제지방통치체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권)』, 푸른역사.
- , 2008, 「호남동부지역의 가야사」, 『전남동부지역의 가야문화』(제36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이동희, 2014, 「전남동부지역 가야문화」, 『가야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 田中俊明, 2009, 『古代の日本と加耶』, 山川出版社.



【발표 9】

기문(己汶)과 반파(伴跛)의 역사적 위치와 성격

김재홍(국민대학교)

I. 머리말

II. 기문의 위치와 성격

III. 반파의 위치와 성격

IV. 대가야의 국가적 성격

V. 맺음말

I. 머리말

일반적으로 가야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않고 다양한 나라가 연맹을 형성하여 분리된 상태로 신라에 멸망당하였다고 이해되고 있다. 여러 국가가 모여 연맹을 구성하였다는 점은 맞으나 분리된 상태가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설명은 재고를 요한다. 600년 가량 여러 나라가 자율적으로 발전하면서 연맹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작은 소국이 가야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중앙집권국가를 이룬 고구려, 백제, 신라와 비교하면 분리된 소국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삼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수백 년 이상 존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 역사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삼국유사』에서는 가야를 5~6개의 통합된 가야로 기록하고 있으나 『삼국사기』에는 駕洛國, 大加耶, 阿羅, 蒲上八國 등 다양한 가야의 소국을 실고 있다. 가야의 소국은 『일본서기』에 더 많이 보이고 6세기대에 10~13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야 전시기를 통해서는 더 많은 가야 소국을 추출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국내 사서인 『삼국사기』와 외국 사서인 『한원』, 『일본서기』, 『양직공도』 등에서 가야의 중요한 소국으로 ‘기문’과 ‘반파’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측 사서에서는 잊혀진 가야 소국인 기문과 반파가 살아 있는 역사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서기』에서는 백제와 반파가 기문을 두고 서로 차지하려 싸우는 기사가 나온다. 사료의 맥락상 백제와 가야의 일원인 반파가 싸우는 것으로 보아 기문지역은 대략 전북 동부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장수, 임실, 남원 등지로 추정된다. 그러나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백제와 가야의 영역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문을 특정 지역과

정치체로 비정하는 연구는 다양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백제와 닮음을 벌이는 반파의 위치와 정치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반파라는 용어가 나오는 사료는 모두 외국계 사료로서 국내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행위가 보이는 것은 『일본서기』의 기사이다. 여기에서 반파는 호남 동부지역에서 백제와 기문을 두고 대립하거나 신라와 경쟁하기도 한다. 따라서 반파를 호남 동부지역에 비정하여 남원 운봉이나^[1] 장수로^[2] 보거나, 낙동강유역의 고령이나^[3] 성주로^[4]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반파의 가야 정치체는 고령의 대가야와 성주의 성산가야로 비정하기도 하며, 호남 동부지역의 독자적인 정치체인 기문국으로 간주하기도 있다.

기문과 반파는 그 위치와 국가적 성격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외국 사서에 국명만 나오거나 내용이 간략하여 그 전모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역사 지리학적인 방법을 도입하거나 고고학 자료를 지역사 연구와 결합하여 새로이 규정할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기문과 반파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작성되었다.

II. 기문의 위치와 성격

1. 사료로 본 기문

최근 전북 동부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이 대가야 문화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백제문화권으로 설정되었던 전북 동부의 장수, 임실, 남원 등지에서 대가야계 유적이 발견되면서 이 지역에 있던 가야와 그 문화권에 대한 비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의 정치체를 독자적인 가야인 장수가야=반파나 운봉가야=기문,^[5] 남원=반파,^[6] 장수=상기문·임실=중기문·운봉=하기문으로^[7] 보기도 하지만 대가야의 영역으로^[8] 간주하기도 하였다. 아직 추론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문과 반파의 위치를 선정하고 그

[1] 전영래, 1985, 「백제남방경역의 변천」, 『천관우선생환력기념 한국사논총』, 정음문화사.

[2] 곽장근, 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 곽장근, 2011,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63, 한국고대사학회.

[3] 김태식, 1993, 『加耶聯盟史』, 일조각.

[4] 백승옥, 2003, 『加耶 各國史 研究』, 혜안.

[5] 곽장근, 2011, 앞의 논문.

[6] 전영래, 1985, 앞의 논문.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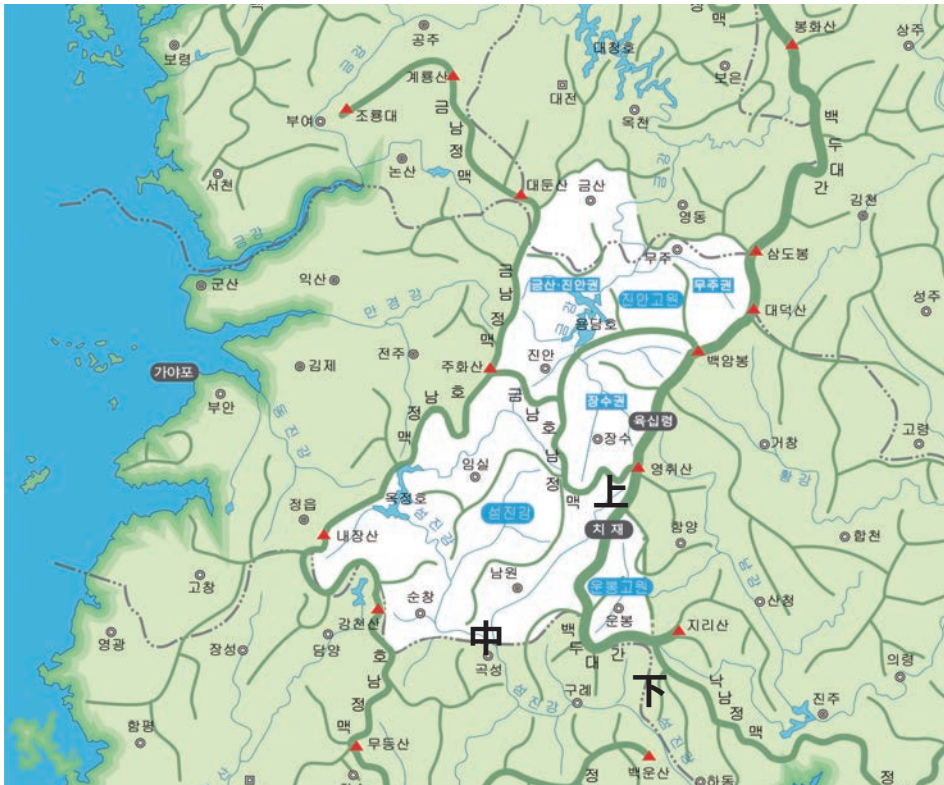
기문은 국내 사료인 『三國史記』 지리지에도 보이고 외국 사료에도 비교적 빈번하게 출현하는 지역 및 국가명이지만, 다른 가야 소국에 비해 관심이 적었다. 국내외 사료에 나오는 기문을 분석함으로써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 A-① 旁小國有 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梁職貢圖》百濟國使, 521년).
 A-② 于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已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獅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曰爾赦 十二曰上奇物(『三國史記』 권32, 잡지1, 樂, 加耶琴).

사료 A-① 중국 양나라의 《梁職貢圖》 백제국사조에는 521년경에 백제 주변의 소국에 대하여 모두 9개의 나라가 열거되어 있다. 이는 신라인 斯羅를 기준으로 앞에는 叛波(고령의 대가야)·卓(창원)·多羅(합천의 다라국)·前羅(함안의 아라가야) 등 가야계통의 국가를 기록하고 뒤에는 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 등과 같이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었으나 백제의 행정구역으로 편제하지 않은 지역을 기술하고 있다. 上己文은 다음에 나오는 下枕羅으로 보아 (하)탐라와 대응하여 (상)기문이라는 의미와 그 자체가 국명이나 지명으로 볼 수 있다. 상기문은 아래의 침라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위의 기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521년경에 백제에 통합된 기문의 소국이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사료 A-②에서는 가야 가실왕(嘉實王)이 우륵으로 하여금 가야금 12곡을 짓게 한 내용이 나온다. 대략 5~6세기 대가야의 정치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2곡에는 당시 대가야 소속의 10개 소국과 더불어 보기(3곡)와 사자기(8곡)인 기예 2개를 포함하고 있다. 기예를 기준으로 대가야를 구성하는 소국은 3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3곡인 보기 앞에 있는 1곡인 下加羅都, 2곡인 上加羅都는 각각 남가야의 도읍인 김해(또는 합천)와 대가야의 도읍인 고령을 가르키고 있다. 4곡 達已(여수), 5곡 思勿(사천), 6곡 勿慧(순천)는 대가야 남부지역에, 9곡 居烈(거창), 10곡 沙八兮(초계), 11곡 爾赦(부림)은 북부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7곡 下奇物도 대가야지역의 남쪽에서, 12곡 上奇物은 북쪽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물은 상·하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넓이가 넓어 대가야지역의 남쪽에서 북쪽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상, 하 기물의 지역(소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다.

- [7] 김재홍, 2012,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 『한국상고사학보』78, 한국상고사학회; 김재홍, 2018,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분의 위세품과 그 위상」, 『호남고고학보』59, 호남고고학회.
 [8] 김태식, 1993, 앞의 책; 박천수, 2006, 「대가야권의 성립과정과 형성배경」, 『토기로 본 대가야』, 대가야박물관.



삽도 1. 기문의 위치(상, 중, 하)

기문(기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① …… 又有基汶河在國 河出其國 源出其國南山 東南流入大海 其中水族與中夏同(『翰苑』百濟傳).

B-② …… 臣國東北有三己汶地(上己汶 中己汶 下己汶) 地方三百里 土地人民亦富饒 與新羅國相爭 …… (『新撰姓氏錄』左京皇別下 吉田連).

B-③ …… 始祖塩乘津 大倭人也 後順國命 往居三己汶地 其地遂隸百濟 …… (『續日本後紀』 권6, 仁明天皇 承和 4年(837) 6月 己未).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사료 B-① 『한원』에 나오는 基汶河가 주목된다, 기문하는 그 내용으로 보아 지금의 섬진강을 가르키므로 기문을 섬진강 중상류역으로 비정하는 견해도^[9] 있다. 그러나 우륵 12곡에 나오는 상, 하 기물로 보아 섬진강 중상류역으로만 한정하기에는 기물(기문)은 더 넓은 지역으로 보인다. 이 경우 주목되는 것이 금강, 섬진강, 남강의 발원지이며, 그것

[9] 박천수, 2016, 「대가야 연구 서설-소국에서 영역국가로」, 『가야고고학개론』,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진인진.

이 장수나 남원이라는 지역으로 모인다는 사실이다. 기문하는 하나의 하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하천의 시작하는 지점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적 시점에서 기문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자연지리관을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문은 3개 강의 상류역을 가르킬 수 있다.

이 경우 주목되는 사료가 일본측 사료이다. 사료 B-② 『신찬성씨록』에는 三己汶地=上己汶·中己汶·下己汶가 나오고, 사료 B-③ 『속일본후기』에도 三己汶이 보인다. 이로 보아 기문은 상, 중, 하 3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국으로 기능한 것은 상, 하 2개의 소국일 가능성이 있다. 사료에는 이 지역에 존재하였던 정치체를 기문이라고 하였다.^[10]

여러 사료를 정리하면 기문은 己文, 基汶, 己汶, 奇物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상·중·하의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소국명으로는 상기문과 하기문이 있었다. 이를 만족시키는 지역이 지금의 섬진강, 금강, 남강의 상류지역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다. 이 지역 중에서 고총이 소재하고 있는 곳은 장수분지와 남원 운봉고원이다. 대가야의 입장에서는 장수분지를 上으로, 남원 운봉고원을 下로 인식하여 각각 상기문과 하기문으로 설정하였다. 점령한 섬진강 중상류역은 상·하 기문의 가운데인 中 기문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기문에는 고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심집단이 소국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장수지역의 가야를 상기문, 운봉고원의 가야를 하기문으로 지칭하였으며, 중기문은 임실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 양직공도에 백제에 속한 (상)기문으로 나오는 지역은 상·중기문을 지칭하였으며, 운봉고원의 하기문은 6세기 중엽까지도 대가야의 소국으로 존재하였다. 이 지역의 기문은 대가야권에 속하는 정치체였으나, 지역국가명인 기문을 사용할 정도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11]

2. 고고학자료로 본 기문국의 발전

전북 동부지역에서 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발전은 대가야문화의 성립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대가야문화가 출현하는 시기는 5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된다. 남강 상류역의 남원 아영지역 출토품과 금강 상류역의 장수 삼고리고분군에서 출토된 통형 대각에 아치형 투창을 가진 고령산의 고배형기대를 고령 지산동 30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12]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장수지역과 운봉지역에서 먼저 대가야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이 지역의 집단이 대가야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후 5세기 후

[10] 김재홍, 2017, 「고대국가를 바라보는 시각, 자율과 통합」, 『한국상고사학보』98, 한국상고사학회.

[11] 김재홍, 2012, 앞의 논문: 2017, 위의 논문.

[12] 박천수, 2006, 앞의 논문, p.92.



삽도 2. 장수 삼고리고분군

반부터 이 지역은 본격적으로 대가야문화권에 들어가게 된다. 장수 三峰里고분군, 東村里고분군과^[13] 남원 운봉의 月山里고분군, 斗洛里고분군은 대가야고분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장수와 운봉의 지역집단은 대가야고분문화를 받아 들여 고총을 축조하면서 해당지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 대가야문화의 영향으로 소국의 성장이 촉진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가야 정치세력에 포함되어 지역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으로^[14] 진한의 소국이 신라에 통합되면서 해당지역에서 고총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장수지역의 가야는 5세기 중엽에 등장하여 6세기 초엽까지 대가야의 소국으로 존재하였다. 남원 운봉지역의 가야도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여 대가야가 멸망하는 시점까지 대가야권의 소국으로 성장하였다. 문화적으로는 대가야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영향권에 들어갔으나 소국 지배층은 소국의 지배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이 지역 동부에서 고총이 발생하는 시점과 더불어 섬진강 중상류역과 금강 상류역에서도 대가야고분문화가 나타난다. 남원 건지리·행정리·입암리·고죽동, 임실 금성리, 장수 삼고리·호덕리, 진안 황산리 등지에서 가야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진안 황산리고분과 장수 삼고리고분은 벽석의 축조방법, 고분의 배치상태 등 유구의 속성과 三足器를 비롯한 백제토기가 함께 부장된 점에서 서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금강 상류역의 대가야권에서는 백제고분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진안지역을 경계로 북쪽의 백제문화와 남쪽의 대가야문화로 지역권이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가야계 유적으로는 진안의 황산리 고분군, 장수의 삼고리·삼봉리·동촌동고분군,

[13] 전상학, 2017,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호남고고학보』57, 호남고고학회.

[14] 이희준, 2003, 「합천댐 수몰지구 고분자료에 의한 대가야 국가론」,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해안.

임실의 금성리·석두리고분군, 남원의 월산리·두락리고분군 등이 있다. 장수에 있는 산성과 봉수를 운영한^[15] 가야를 상기문으로 비정할 수 있다. 진안과 장수 지역은 사료상의 상기문에 속하며, 금강 상류역에 해당한다. 임실 지역은 사료상의 중기문에 속하며, 넓게 보아 섬진강 상류역에 비정된다. 중기문에는 고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심 집단이 소국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중기문은 섬진강 유역인 구례, 곡성 등의 일부 지역도 포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중기문에는 가야계 고분뿐만 아니라 백제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어 여러 세력이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전남 곡성 방송리고분군에서 수습된 금귀걸이는 그 형태가 한성기 석촌동 출토품과 유사하지만 하트형드리개와 쇠사슬을 유환으로 연결하고 하트의 테두리를 각목으로 감싸는 등에서 발전된 형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백제 한성기 석촌동 출토 금귀걸이의 영향을 받아 대가야문화권에서 제작한 것으로 백천리 금귀걸이와 형태상 유사하다.^[16] 남원 운봉 지역은 사료상의 하기문으로 남강 상류역에 속하며, 기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국가(소국)였을 것으로 보인다.

III. 반파의 위치와 성격

1. 사료로 본 반파와 그 위치

반파는 사료 B-①〈梁職貢圖〉百濟國使조에서 기문과 더불어 실려 있으며 한자로 叛波를 사용하고 있다. 부정적인 한자어의 사용으로 보아 백제의 관점에서 반파를 바라보고 있다. 양직공도의 내용은 『梁書』에도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521년경의 사실로 추정된다. 521년경 가야의 주요 국가로는 叛波(가라)·卓(탁순)·多羅(다라)·前羅(아라) 등이 나온다. 이 중에서 반파가 가장 앞에 언급된 것으로 보아 가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국으로 판단된다. 물론 양직공도의 국가 순서가 국력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지리적인 원근에 따른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백제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나라임을 알 수 있다.

반파의 다른 예는 『日本書紀』 계체기에도 보인다.

[15] 광장근, 2011, 앞의 논문 ; 조명일, 2012, 「금강 상류지역의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 『호남고고학보』41, 호남고고학회.

[16] 박천수, 2006, 앞의 논문, p.92.

C-① 백제가 姐彌文貴將軍, 州利卽爾將軍 穗積臣押山[백제본기에 의하면 왜의 意斯移麻岐彌라고 한다]에게 딸려 보내 오경박사 段楊爾를 바쳤다. 따로 주청하여 “伴跛國이 신의 나라인 己汶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천은으로 판단하여 본래의 소속으로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하였다.^[17]

C-② 조정에서 백제의 姐彌文貴將軍, 斯羅의 汶得至, 安羅의 辛已奚), 賁巴委佐), 伴跛의 既殿奚·竹汶至 등을 나란히 세우고 은칙을 받들어 선포하고, 己汶·대사(帶沙)를 백제국에 주었다. 이달에 반파국이 즈지를 보내 보물을 바치고 기문의 땅을 달라고 하였으나 끝내 주지 않았다.^[18]

C-③ 반파는 子吞·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에 연결하고 烽候와 邸閣을 만들어 일본(왜)에 대비했다. 또 爾列比·麻須比에 성을 쌓아 麻且奚·推封에까지 뻗치고, 사졸과 병기를 모아서 신라를 핍박했다. 자녀를 약취하고 촌읍을 약탈하였다. 흉적이 가는 곳에 남는 것이 드물었다. 무릇 포악하고 사치스럽고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살상이 너무 많아 상세히 적을 수가 없었다.^[19]

C-④ 백제사자 문귀장군 등이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이에 조칙을 내려 物部連[이름을 잃었다]을 딸려서 돌아가게 하였다[백제본기에는 物部至至連이라고 쓰여 있다]. 이 달에 沙都嶋에 이르러 전해 들으니 伴跛人이 한을 품고 독을 머금어 강한 것을 믿고 포악하다 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물부련이 수군 5백명을 거느리고 帶沙江으로 직행했다. 문귀장군은 신라로부터 떠났다.^[20]

【17】 “百濟遣姐彌文貴將軍 州利卽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 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願 天恩判還本屬”(『日本書紀』 권17, 계체기 7년 6월, 513년).

【18】 “於朝廷 引列百濟 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 及賁巴委佐 伴跛既殿奚 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 帶沙賜百濟國 是月 伴跛國遣戡支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日本書紀』 권17, 계체기 7년 11월, 513년).

【19】 “伴跛築城於子吞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復築城於爾列比 麻須比 而緇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駭略子女 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日本書紀』 권17, 계체기 8년 3월, 514년).

【20】 “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 仍勅副物部連[闕名] 遣罷歸之[百濟本記云物部至至連] 是月 到于沙都嶋 傳聞伴跛人 懷恨銜毒 恃強縱虐 故物部連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自新羅去”(『日本書紀』 권17, 繼體紀 9년(515) 춘 2월조).

C-⑤ 이 달에 物部伊勢連父根·吉士老 등을 보내 다사진을 백제왕에게 주었다. 이에 가라왕 이 칙사에게 “이 항구는 관가를 둔 이래 신이 조공할 때 기향하는 곳입니다. 어찌서 쉽게 이웃 나라에 주십니까. 원래 지정한 경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칙사 부근 등이 이로 인하여 눈앞에서 주는 것이 어려워서 大嶋로 물리가고, 따로 錄史를 보내 扶余에게 주었다. 이 때문에 가라(加羅)가 신라와 결당하여 일본을 원망하였다. 가라왕이 신라 왕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드디어 아이를 가졌다.^[21]

위 사료 C는 연대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C-①~④는 계체 3(513)~5년(515)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고 C-⑤은 계체 23년(529)조에 실려 있다. 계체기 23년조의 기사는 계체기 7·8·9년조에 걸치는 일련의 사건을 회고의 형식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나오는 사건은 510년대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계체기 7·8·9년조의 기사는 백제나 그에 동조하는 왜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계체기 23년조의 것은 가야나 그에 동정적인 왜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22]

위 사료에는 반파에 대한 용어로 伴跛國, 伴跛, 伴跛人 등으로 나오고 있으며 한자어로 절름발이라는 의미의 跛를 사용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반파는 국가 명으로 보이며 주변 국가에서 반파의 주민을 반파인으로 부르고 있다. 위 사료에서 반파와 반파인은 일반 주민을 약탈하고 물건을 빼앗는 凶勢, 즉 흉악한 존재로 나오고 있다. 반파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주체는 경쟁 상대국인 백제로 추정된다.

반파와 경쟁을 하거나 싸우는 존재는 백제(C-①), 신라(C-③)와 왜(C-④)가 있다. 왜는 백제의 요청으로 바다를 건너 반파와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백제는 반파와 기문 및 대사를 사이에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파는 子吞·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에 연결하고 烽候와 邸閣을 만들어 일본(왜)에 대비하고 있다. 기문은 전북 동부지역인 장수, 임실, 남원으로 비정할 수 있다면, 이 지역과 관련하여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 대사는 섬진강 하구의 하동으로 비정하고 있다. 기문과 대사를 섬진강, 금강, 남강의 상류로 비정하고 대사를 섬진강 하구로 설정한다면, 이 지역을 두고 백제와 경쟁한 반파는 호남 동부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남원 월산리 고분군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반파를 월산리 고분군이 조영된 남원으로 비정하고 후에 고려의 대가야에 병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23] 또한 최근에 장수 동촌리와 삼봉리 등에서

[21] “百濟王謂下哆唎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恒避嶋曲[謂海中嶋曲崎岸也 俗云美佐祁] 每苦風波 因茲濕所齎 全壞无色 請以加羅多沙津 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 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 吉士老等 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請勅使云 此津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車取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 因斯難以面賜 却還大嶋 別遣錄史 果賜扶余 由是 加羅結儻新羅 生怨日本 加羅王 娶新羅王女 遂有兒息” 『日本書紀』 권17, 계체기 23년(529) 춘 3월조.

[22] 김태식, 1993, 앞의 책, p.102.

[23] 전영래, 1983, 앞의 논문, pp.73~79.

고충이 발굴조사되면서 장수지역을 반파로 판단하고 있다.^[24] 반파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기문과 대사를 고려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연구성과이다.

그런데 사료 C-③에서 반파는 爾列比·麻須比에 성을 쌓아 麻且奚·推封에까지 진출하여 신라를 압박하고 있다. 반파는 신라의 촌락을 습격하여 그 주민을 빼앗고 있다. 이로 보아 반파는 가야의 동쪽에 있는 신라와도 접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반파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위의 2가지 조건인 가야의 서쪽에서 백제와 접하고 그 동쪽에서 신라와 접하여 경쟁하는 국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위치에 있는 국가를 상정하여야 한다.

사료 C-⑤에는 多沙津(대사)을 사이에 두고 경쟁한 상대로 가라와 가라왕이 나오고 있다. 반파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가라가 나오고 있으며, 가라는 고령에 있었던 대가야를 지칭하고 있다. 반파는 가라, 즉 대가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심지는 고령으로 추정할 수 있다.^[25] 반파라는 용어는 『日本書紀』 중에서 체계기의 한정된 시기인 7·8·9년인 513년~515년 사이에만 나오고 있다. 당시 가야인들이 널리 사용한 국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사료에서는 반파 대신에 가라라는 국명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가야인들은 가라를 국명으로 선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반파=가라=대가야로 환치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반파와 가라는 고령에 있는 소국을 일컫는 국가명이지만 반파국이 주변 소국으로 영향력을 넓히면서 가야 북부와 서부를 아우르는 加羅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반파가 발전하면서 가라로 국명을 바꾸었다고 할 수 있으나, 반파와 가라는 동일한 실체를 가진 국가였다. 좁은 의미에서 반파와 가라는 고령지역을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의 반파와 가라는 가야 북부와 서부를 아우르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고령의 소국은 반파로, 가야 북부와 서부를 포괄하는 국가로는 가라나 대가야를 사용하고자 한다. 가라와 대가야에는 좁은 의미의 반파와 기문, 임나사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지칭한다.

따라서 사료 C에 보이는 반파는 좁은 의미의 고령 지역에 있는 소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북부와 서부의 소국을 아우르는 가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료에 보이는 반파와 반파인에는 전북 동부지역의 장수, 남원, 임실에 있었던 기문국의 주민도 포함하여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와 기문 및 대사를 두고 전쟁을 벌인 반파에는 좁은 의미의 고령에 있던 반파 뿐만 아니라 가라를 구성하고 있었던 가야 소국의 군대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반파의 위치를 어디로 비정하는 것이 중요한 논점이 아니라 반파와 가라, 기문의 국가적 성격을 어떻게 위치지우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4] 박장근, 2011, 앞의 논문.

[25] 김태식, 1993, 앞의 책, p.102.



삽도 3. 남원 월산리 M5호 발형기대와 통형기대

2. 고고학 자료로 본 반파(가라)의 확대

대가야문화권 지역에서는 대가야의 묘제, 토기, 장신구, 마구, 농공구 등을 함께 부장하며, 공동의 매장 의례를 공유하고 있다. 고령에 중심을 둔 대가야양식토기는 남강, 황강 등 영남지역을 지나 호남 동부지역에까지 분포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도 대가야양식토기가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며,^[26]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경에 대가야토기를 모방한 토기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대가야양식토기는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에 황강과 남강 상류역에서 출현하다가 점차 범위를 넓혀 남강 중하류역, 섬진강, 금강 상류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섬진강 수계에서는 남원 서부, 임실, 곡성, 하동, 광양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금강 수계에서는 장수, 진안 등지로 나아가고, 남강 수계에서는 운봉지역으로 확대된다. 대가야양식토기가 출토되는 지역은 대가야의 영향권에 들어온 대가야의 정치적인 범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기문 등 소국의 정치력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영역의 확대로 설명할 수 없다.

대가야양식토기는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를 지표로 하며, 고배·개배·장경호·단경호·기대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장경호·단경호+발형기대, 통형기대는 고분에 부장된 위세품으로 기능하였다. 통형기대는 향아리모양의 윗부분과 뱀 모양의 세로띠로 장식하고 아랫부분은 볼록한 종모양이며 전체적으로 투창을 뚫어 장식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소형 통형기대와 고리모양 기대도 대가야양식토기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발형기대는 상대적으로 대각의 너비가 넓어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松葉文을 중심으로 문양을 배열하고 있다.

[26] 조인진, 2001, 「전북 동부지역 석곽묘 출토 토기 연구—장경호와 기대를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대가야 귀걸이는 공구체인 셋장식을 연결하고 그 아래 사슬모양의 연결고리를 사용하여 심엽형, 원추형, 산치자형, 낙하산형, 삼익형, 공구체 등의 드리개를 드리운 것이다. 이것은 대가야문화권의 중심지인 고령에서 대부분 제작하였을 것이나 그 기술로 현지에서 일부 제작한 장신구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가야 이식은 고령과 합천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함양 백천리 1호, 월산리고분, 장수 봉서리고분, 곡성 방송리고분, 순천 운평리고분 등 다른 지역의 대가야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대가야문화권에서 동일한 계통의 금귀걸이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대가야 왕이 장신구를 하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가야문화권에서 장신구는 고령과 합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27] 신라는 지방 소국의 干支 등의 세력에게 관모 등 장신구를 하사하여 지방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가야도 이를 권역 내의 다른 소국 卑岐와의^[28] 관계에서 이용하고 있다.

대가야의 특징적인 무기 및 무구의 위세품은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 은장 오각형환두대도, 금동장 투구 등을 들 수 있다.^[29] 대가야산 장식 환두대도의 특징은 환두 내 용봉문 장식을 일체식으로 제작한 백제와 달리 따로 주조하여 부착하고, 환두는 백제산 대도와는 달리 鍍金하지 않고 金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30] 전북 동부지역의 기문에서도 대가야와 관련된 장식 환두대도가 발견되었다. 남원 월산리 M1-A호에서 출토된 금은상감환두대도는 거북등무늬는 은으로, 꽃무늬와 물결무늬는 금으로 새김하였다.

철제모형농공구는 실용적인 농공구와 달리 그 규격이 10cm 이하의 농공구로서 주로 고분에 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31] 대가야문화권에서 철제모형농공구는 고령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함양, 합천, 남원, 장수, 임실, 순천 등의 지역에서도 출토되었다. 형식별 출토상황은 지산동과 쾌빈동에서 따비·철서·철부·낫의 4종류, 본관동에서 철서·낫의 2종류, 합천 반계제에서 철부·낫의 2종류, 함양 백천리에서 낫의 1종류, 남원 월산리에서 따비·철서·철부·낫의 4종류, 남원 두락리에서 철부·낫 등의 2종류, 장수 삼고리에서 철부의 1종류, 임실 금성리에서 철부·낫 등의 2종류, 순천 운평리에서 철부·낫 등의 2종류가 출토되었다. 각 유적별로 주류를 이루는 형식은 지산동과 월산리에서 4개가 모두, 본관동에서 철서, 반계제에서 철부, 백천리에서 낫, 삼고리에서 철부, 운평리에서 철부와 낫 등으로 형식별로 뚜렷한 지역색을 나타내고 있다.

【27】 이한상, 2016, 「가야의 장신구」, 『가야고고학개론』,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진인진.

【28】 이글에서는 가야 소국의 수장을 ‘한기(卑岐)’라는 사료상의 용어를 사용한다. 수장은 일본에서 조어한 용어로서 우리 역사에 적응할 경우에 일반성만 부각되고 가야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가야의 한기는 신라에서는 ‘간지(干支)’나 ‘간(干)’라고 불렀다.

【29】 유영춘, 2017,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호남고고학보』57, 호남고고학회.

【30】 박천수 2016, 앞의 논문.

【31】 김재홍, 2011, 『한국 고대 농업기술사 연구 — 鐵製 農具의 考古學』, 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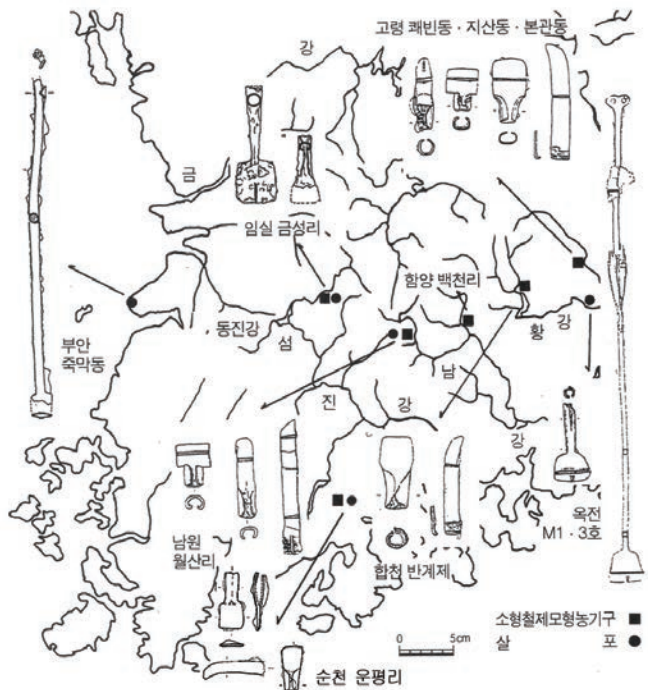
IV. 대가야의 국가적 성격

1. 대가야의 국가적 결속

대가야양식토기는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에 황강과 남강 상류역에서 출현하다가 점차 범위를 넓혀 남강 중하류역, 섬진강, 금강 상류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섬진강 수계에서는 남원 서부, 임실, 곡성, 하동, 광양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금강 수계에서는 장수, 진안 등지로 나아가고, 남강 수계에서는 운봉지역으로 확대된다. 이 지역에서 위세품과 관련하여 남원 월산리 M1-A호 발형기대, 월산리 M4호 장경호와 발형기대, 월산리 M5호 단경호와 발형기대·장경호와 발형기대·통형기대, 월산리 M6호 발형기대, 두락리 1호 발형기대·통형기대, 두락리 3호 발형기대가 출토되었다.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 부장석곽에서는 발형기대 13점이 출토되었으며, 주석곽에서는 발형기대와 세트를 이루는 장경호 8점, 단경호 5점이 출토되어 부장석곽의 발형기대와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통형기대와 발형기대는 주로 대가야와 관련된 지역에서 출토되는 위세품으로 대가야 정치 권역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32] 이것은 두락리 1호의 예와 같이 무덤 내외에서 주로 제의와 관련된 유구에서 많이 발견된다. 출토 지역은 대가야문화권 내에서 동일한 제사의식을 거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가야권의 결속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철제 농공구이다. 백제의 중앙과 지방의 세력관계를 잘 보여 주는 자료가 금동관이지만 대가야지역에서는 금동관의 사여를 통한 대가야권의



삽도 4. 대가야 철제 농공구의 분포와 교통로

확장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대신 농공구인 철제모형농공구와 살포의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다. 철제모형농공구와 살포는 전체적으로 보아 대가야권역에 해당하거나 그와 관련이 깊은 지역에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철제모형농공구와 살포가 출토된 지역은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아갈 때에 거쳐야 하는 요충지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 대가야가 백제, 신라, 중국, 왜 등과 교류하기 위해서 교통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었다. 신라를 제외하고 중국, 백제, 왜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 남원을 거쳐야 하였으며, 남원 동부에는 하기문이 존재하였다. 당시 기문이 차지하는 대외교류상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당시 대가야의 대중국·백제·왜교섭은 이 루트 상에 있는 소국 埴岐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교통로상에 위치하는 요충지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에서 철제모형농공구와 살포가 출토되고 있다.

대가야 소국 한기층의 무덤에서 고령지역의 철제모형농공구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대가야의 중심지인 반파의 한기(왕)와 그 주변 소국의 한기들이 농경의례를 같이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대가야에서 행하던 농경의례를 중요 교통로상의 요충지에 있던 한기층이 동일하게 거행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대가야는 각 소국을 묶어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 기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서 출토된 살포와 철제모형농공구는 대가야 대왕과 일정한 관계 아래에서 소유되거나 무덤에 부장되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가야 국가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대가야가 영향권 내의 소국을 통제하는 방식의 하나는 대외교류에서 얻어진 물품을 소국의 한기에게 사여하여 통제하고 있다. 대가야의 영향권에 있었던 지역의 고분에서는 중국 남조와 관련된 천계호,^[32] 쇠자루술, 청동거울 등이 확인되었으며, 백제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유국리와 두락리 32호의 금동신발, 남원 두락리 M5호분에서 출토된 은제 목걸이와 은제 구슬, 유리 구슬, 탄목 구슬 등이 있다. 특히 중국제 청자계수호와 쇠자루술 등이 출토된 남원 월산리고분군은 대가야계고분이고 대가야권에 해당하는 지역집단의 무덤이므로 대가야가 월산리 지역집단을 매개로 서해안을 통하여 중국 남조와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가야의 반파국이 외교와 교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대가야의 왕(반파의 한기)이 기문국의 한기에게 사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대가야왕 하지가 남조에 조공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5세기 후반 가라왕 하지가 남제와 교류를 할 때에 남원에 있던 가야 소국인 기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대가야 왕이 기문국에게 요구하였던 역할은 대외교류창구였던 것이다.

[32] 박천수, 1999, 「기대를 통하여 본 가야세력의 동향」, 『가야의 그릇받침』, 국립김해박물관.

[33] 유영춘, 2017,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호남고고학보』57, 호남고고학회.

2. 대가야의 국가적 성격

대가야 내의 소국으로 주목되는 존재가 사료에 나오는 반파(좁은 의미의)와 기문이다. 그 외에 사타(순천), 모루(모루), 상다리(여수), 하다리(돌산도) 등^[34] 남해안 지역도 대가야의 지역 집단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기문과 같은 소국인 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곤란하지만 자율성을 가진 지역집단이나 소국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는 반파를 대가야와 일치하는 존재로 부각시키고 기문은 호남 동부지역의 소국으로 추정하였다. 한편으로는 반파나 기문 등의 소국에 주목하기 보다는 모두 대가야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고대국가의 성장과정을 논하였다.

그런데, 사료와 고고학 자료를 검토하면, 기문은 반파국의 고분문화와 동일한 대가야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으나, 지역 내에서는 재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전북 동부지역은 국가적으로 반파가 주도하는 대가야의 일원이지만 내부적으로 기문이라는 자율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대가야 내에서 반파국의 한기는 대가야의 대왕이나 왕이었지만, 기문국의 한기는 대가야의 소국 한기로 기능하였다. 기문국의 한기는 군사와 외교적인 면에서 대가야의 일원이었으나 지역 내 지배는 자율적으로 행하였다. 기문의 한기는 대가야의 지역 한기이면서 기문을 다스리는 독자적인 한기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대가야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기문과 그 한기는 어떠한 변화를 겪었을 것인가는 정확히 알기 힘들다. 그러나 2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기문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문국의 한기는 자율적인 통치를 그대로 인정받은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기문국의 한기는 대가야의 왕도인 고령으로 가서 대가야 왕인 한기의 아래에 次擧岐로 편입되고 기문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인정받는 경우이다. 이것은 금관국의 구형왕과 왕자들이 신라의 지배층인 진골 귀족으로 편입되고 옛 금관국을 식읍으로 받아 일정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와 동일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는 신라의 지배방식으로 바로 대가야의 지배방식으로 대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추정에 불과하지만 기문국의 한기는 기문국을 독자적 통치하였을 것이며, 가라국과는 대외관계나 군사 부분에서 공동 보조를 맞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6세기대 사료에 나오는 가야를 구성한 여러 나라는 <양직공도>(521년), 『일본서기』 흠명기(541년, 544년), 계체기(562년)에 나오고 있다. 양직공도에는 가야의 여러 나라로 叛波·卓·多羅·前羅를 들고 있다. 당시 사료로 보아 가야 여러 나라를 모두 언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 국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반파는 가라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가라·전라(아라)·다라의 주요 국가가 나오며, 다른 하나의 국가로 卓이 보인다. 탁은 다른 사료에는 卓淳으로 나오는 나라로서, 창원에 위치한 소국으로 보고 있다. 탁순은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하여 대외 교류를 통해 발전한 국가였으므로 백제의 의해 가야의 주요 소국으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양직공도에

[34] 전영래, 1985, 앞의 논문.

가야의 주요 국가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521년 단계에 가야는 더 많은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대외적으로 인식된 주요 국가는 가라·안라·다라·탁순으로 상정할 수 있다.

562년 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될 시점에 기록된 가야는 10국이 일본서기에 나온다. 가야 전체를 임나라 부르고 개별적인 국가로 加羅國, 安羅國, 斯二岐國, 多羅國, 卒麻國, 古嵯國, 子他國, 散半下國, 乞滄國, 稔禮國 등 모두 열 나라이다.^[35] 6세기 전반에 멸망한 남가라, 탁기탄, 탁순을 포함하면 13개의 나라를 상정할 수 있다.

562년 멸망 시점에 10개국에서 걸손국·임례국을 제외한 8국은 흠명기 2년(541)과 5년(544)에 열린 사비회의에 참석한 8개국과 겹치고 있다. 사비회의에 나오는 국가는 安羅, 加羅, 卒麻, 散半奚, 多羅, 斯二岐, 子他, 久嗟 등이며 안라를 맨 앞에 세우고 있다. 540년대와 560년대에 보이는 가야 국명은 동일하지만 국명을 나열하는 순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순서의 맨 앞에 가라를 세우느냐 아니면 안라를 세우느냐의 차이가 보인다. 그런데 가야 국명은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가라, 안라, 다라 등과 같이 ‘羅’를 어미로 하는 국가군과 나머지 국가군을 구별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명의 차이에 지나지 않고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일본서기 흠명기 2년(541)과 5년(544)에 열린 사비회의의 참석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비회의의 참석자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표 1. 사비회의 참석자

국명	연대	欽明紀 2년(541) 4월	欽明紀 5년(544) 11월
安羅		次旱岐 夷吞奚 · 大不孫 · 久取柔利	下旱岐 大不孫 · 久取柔利
加羅		上首位 古殿奚	上首位 古殿奚
卒麻		旱岐	君
散半奚		旱岐의 兒	君의 兒
多羅		下旱岐 夷他	二首位 訖乾智
斯二岐		旱岐의 兒	君
子他		旱岐	旱岐
久嗟		—	旱岐

540년대 사비회의에 참석한 국가 중에서 ‘羅’군에 속하는 가라, 안라, 다라는 참석자로 旱岐가 나오지 않고 次(下)旱岐, 上首位, 二首位가 참석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군에서는 旱岐=君, 한기(군)의 兒 등이 참석하고 있다. 가야의 여러 나라도 국가의 성격면에서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가라, 안라, 다라는 다른 국가군과 달리 한기층이 분화되어 있었고 상수위나 이수위 등과 같은 관제가 있었던 것이다.

‘羅’군계열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한기나 아들이 참여하고 있다. 卒麻에서는 旱

[35]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滄國·稔禮國, 合十國.]” (『日本書紀』 권19, 흠명기 23년(562) 춘 정월조).

岐나 君, 散半奚는 한기나 군의 아들, 斯二岐는 한기의 아들이나 군, 子他와 久嗟는 한기가 참석하고 있다. 한기와 君은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졸마, 산반해, 사이기의 예로 보아 동일한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 각 소국의 한기로 보인다. 한기의 한자식 표현인 君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목되는 것이 한기나 군의 아들(兒)이 회의에 산반해와 사이기를 대표하여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대 사회에서 다음 왕위 계승권자인 태자(왕자)가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등 국가 활동에 전면에서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초고왕의 아들인 근구수왕이 왕자 시절에 대고구려전쟁을 진두 지휘한 예가 있으며,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이 왕자 시절에 관산성 전투를 지휘한 것도 동일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 다음 한기 계승권자의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이와 같이 비‘羅’군계열 국가에서는 한기나 그 아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羅’군계열 국가군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안라에는 大不孫·久取柔利 등이 541년에 次旱岐로, 544년에 下旱岐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차한기와 하한기는 동일한 표현으로 보인다. 가라에는 上首位 古殿奚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상수위가 있었고, 다라에는 下旱岐 夷他, 二首位 訖乾智가 있어 한한기와 이수위의 존재가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羅’군계열 국가에는 차(하)한기, 상수위, 이수위 등의 관제가 있었다.

‘羅’군계열 국가에서는 차한기의 존재로 보아 한기도 있었을 것이며, 가라, 안라, 다라의 지배자는 한기였을 것이다. ‘羅’군계열 국가에는 한기층으로 한기, 차한기 등으로 분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한기는 한자어로 君 등으로 표현되었다. ‘羅’군계열 국가에서는 왕인 한기가 있었으며 그 아래에 한기층이 차한기, 하한기 등으로 분화되고 있었다. 특히 가라에 속하였던 여러 소국의 수장들도 각각 한기로 칭해졌을 것이다. 한기는 고구려의 ‘加’나 ‘兄’, 신라의 ‘干’이나 ‘干支’와 같이 소국 수장의 칭호를 계승하고 있다. 또한 ‘羅’군 국가에서는 한기 계열과 더불어 수위 계열의 관제가 있었다. 수위는 고구려의 ‘使者’나 신라의 ‘舍人’과 연결되는 관제로서 실무적인 관제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수위는 가라의 경우 반파국 시절부터 반파 한기에 속하였던 관제로 존재하였다. 이에 비해 한기는 수국이나 읍락의 수장층을 국가 내로 편제할 경우에 수여된 관제로 보인다.^[36]

이 시기에 가야도 새로이 국제 무대에 등장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되었는데, 加羅王(대가야의 왕) 荷知가 479년 남제에 견사하여 ‘輔國將軍本國王’으로 제수되었다.^[37] 가라왕 하지가 제수받은 보국장군은 남조의 3品 장군호로서 고구려, 백제, 왜 보다는 낮은 등급이지만 처음 남제에 조공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지는 남제로부터 본국왕, 즉 가라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경우 그 동안 주목하지 않은 것이 가라왕이 고령의 반파국 한기(왕)로 인정받은 것인지 아니면 기문국, 임나사현 등을 포괄하는 가라왕으로 인정받은

[36] 田中俊明, 1992,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노중국, 1995, 「대가야의 정치·사회구조」, 『가야사연구』, 경상북도; 백승욱, 2003, 『加耶 各國史 研究』, 혜안; 田中俊明, 2009, 『古代の日本と加耶』, 山川出版社.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견해에서는 백제를 따라 고령의 대가야가 遣使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남제에 견사한 것을 보고 있다.^[38] 이 경우 고려하지 않은 것이 대가야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기문국 등의 소국의 역할이다. 대가야, 즉 반파의 한기인 가라왕이 중국 남조로 견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북 동부 지역을 거쳐 가야 하였다. 이때 이 지역에 있었던 기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였다. 기문국은 백제-왜-대가야(반파)를 연결하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가라국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기문국의 협조 아래 남제에 조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기문국이 대가야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대가야 왕인 하지가 남제로부터 인정받은 본국왕, 즉 가라왕은 기문국, 임나사현 등을 포함한 가라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라국(반파국) 한기인 하지는 남제로부터 반파국, 기문국, 임나사현을 포함한 가라국, 즉 대가야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넓은 의미의 가라국의 왕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이 사료 C-⑤에 나오는 加羅와 加羅王이다. 계체 23년(529)의 기사는 대가야의 입장에서 서술된 내용으로 반파의 국명을 가라로, 반파 한기를 가라왕으로 표현하고 있다. 양직공도나 일본서기 흠명기에 백제의 입장에서는 가라를 반파로, 가라왕을 반파 한기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가야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국내적으로 가라의 왕은 가라왕으로 불리웠지만 대외적으로는 한기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백제의 입장에서는 가라왕을 인정하지 않고 반파의 한기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는 신라의 예에도 보인다. 신라 국왕은 <광개토대왕릉비>에서 고구려의 ‘太王國土’에 대하여 ‘新羅土內’, ‘寐錦土內’라고 표현되듯이 고구려와 비교하여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고구려에서는 신라 국왕을 왕이라 부르지 않고 매금이나 마립간 등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 국내에서 신라 국왕은 신라식 왕호로서 마립간(매금), 중국식 왕호로서 왕을 칭하였으며 둘을 합쳐 매금왕(울진봉평리신라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상대에 따라 왕의 칭호를 달리하였던 것이다.^[39]

따라서 가라왕은 백제 입장에서는 반파의 한기로 인정되었으며, 국내에서 대가야의 영향권 내에 있는 각 소국의 한기 위에 존재하는 왕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대가야의 왕은 반파 한기이자 가라 왕으로 불리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가라왕의 아래에는 한기층이 분화되어 있었다. 가라왕이 한기이자 왕인 것은 다른 사료에도 나온다. 『일본서기』 신공기 62년조에 ‘加羅國王己本旱岐’가 보이는 데, 반파의 한기인 己本은 자신의 칭호로서 한기와 더불어 왕을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라(반파) 한기이자 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파가 주변 가야 소국에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가라라는 국호를 선호하게 되었고 주변 여러 가야를 연결한 대가야 연맹도 가라라고 호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가라국왕인 己本도 기본적으로 반파의 한기였던

[37]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南齊書』 권58, 열전39, 東南夷傳 加羅國條, 479년).

[38] 박천수, 2018, 『가야 문명사』, 진인진.

것이다. 기문국의 한기는 대가야연맹 내에서 소국의 한기로 위치지워지고 있었다.

대가야 계통 토기인 장경호의 ‘大王’이란 명문과 합천 저포리 단경호의 아가리 부분에서 확인되는 ‘下部’란 명문이 그런 실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 모두 6세기 전반경 가라(대가야)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가야에서도 ‘下部’라는 명문으로 보아 하위 단위 정치체로서 부를 편제하였으며, ‘大王’이라는 명문으로 보아 내부 지역의 여러 한지를 통합한 (大)王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

V. 맺음말 — 가야사의 위치지움

가야는 일반적으로 고구려·백제·신라처럼 하나의 통일된 왕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채 조그만 국가의 형태로 나누어져 연맹체의 형태로 뭉쳤다가 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끝내는 신라에게 하나하나 점령당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가야가 연맹체의 단계를 지나 영역국가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는 견해가 문헌사와 고고학의 양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많은 가야 고고학 연구자들이 대가야의 성장과 발전을 신라와 동일한 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다. 신라와 동일한 수준의 힘을 가진 대가야가 무력을 기반으로 다른 가야지역을 정복하여 고대국가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단지 가야의 발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가야가 삼국과 마찬가지로 고대국가로 전환하는 시점에 신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다. 이를 단지 신라와 가야의 역학관계에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야는 기본적으로 하천이 흐르는 소분지를 끼고 소국을 세운 기반 위에서 성립하였다. 신라와 달리 소국의 자율성이 강한 기초 위에서 성립하여 지역 문화가 발전하였으며, 이것이 가야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반파, 기문, 임나사현과 가라(대가야)와의 관계도 이러한 시각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대가야는 고령의 반파가 양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가야 서부와 북부에 있었던 기문, 임나사현 등 다양한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가야의 이러한 자율성이 무너지고 신라와 같은 통합을 추구하는 시점에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소국과 소국과의 사이에 어느 국에도 속하지 않는 空地가 존재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낙랑, 북방, 왜 등의 다양한 세력들과 교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여야 남해안지역에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전방후원분, 낙랑계 유물의 분포, 북방계 유물 등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삼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지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종족이나 지역인 예, 마한, 경북 북부, 호남 동부지역의 제집단도 기존의 통합과 성장이라는 시각보다는 자율과 통합이라는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39】 김재홍, 2014, 「金冠塚 출토 ‘尙斯智王’銘大刀와 피장자」, 『한국상고사학보』86, 한국상고사학회.

참고문헌

- 곽장근, 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 , 2011, 「전북 동부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63, 한국고대사학회.
- 김재홍, 2011, 『한국 고대 농업기술사 연구—鐵製 農具의 考古學』, 고고.
- , 2012,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 『한국상고사학보』78, 한국상고사학회.
- , 2017, 「고대국가를 바라보는 시각, 자율과 통합」, 『한국상고사학보』98, 한국상고사학회.
- , 2018, 「전북 동부지역 가야 고분의 위세품과 그 위상」, 『호남고고학보』59, 호남고고학회.
- , 2014, 「金冠塚 출토 ‘尙斯智王’銘 大刀와 피장자」, 『한국상고사학보』86, 한국상고사학회.
- 김태식, 1993, 『加耶聯盟史』, 일조각.
- 노중국, 1995, 「대가야의 정치·사회구조」, 『가야사연구』, 경상북도.
- 박천수, 2018, 『가야 문명사』, 진인진.
- , 1999, 「기대를 통하여 본 가야세력의 동향」, 『가야의 그릇받침』, 국립김해박물관.
- , 2006, 「대가야권의 성립과정과 형성배경」, 『토기로 본 대가야』, 대가야박물관.
- , 2016, 「대가야 연구 서설-소국에서 영역국가로」, 『가야고고학개론』,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진인진.
- 백승옥, 2003, 『加耶 各國史 研究』, 혜안.
- 유영춘, 2017,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호남고고학보』57, 호남고고학회.
- 이한상, 2016, 「가야의 장신구」, 『가야고고학개론』,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진인진.
- 이희준, 2003, 「합천댐 수몰지구 고분자료에 의한 대가야 국가론」,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 임영진, 2012, 「중국 육조자기의 백제 도입배경」, 『한국고고학보』83, 한국고고학회.
- 전상학, 2017,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호남고고학보』57, 호남고고학회.
- 전영래, 1985, 「백제남방경역의 변천」, 『천관우선생환력기념 한국사논총』, 정음문화사.
- 조명일, 2012, 「금강 상류지역의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 『호남고고학보』41, 호남고고학회.
- 조인진, 2001, 「전북 동부지역 석곽묘 출토 토기 연구-장경호와 기대를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 田中俊明, 1992,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 , 2009, 『古代の日本と加耶』, 山川出版社.

「기문(己汶)과 반파(伴跛)의 역사적 위치와 성격」 토론문

박천수(경북대 고고인류학과)

반파의 위치에 대해 남원 월산리고분군을 발굴한 후 남원으로 비정하고 후에 고령의 대가야에 병합된 것으로 보거나, 최근 장수 동촌리와 삼봉리 등에서 고총이 발굴조사되면서 장수 지역을 반파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반파는 가야의 동쪽에 있는 신라와도 접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이며, 그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가야의 서쪽에서 백제와 접하고 그 동쪽에서 신라와 접하여 경쟁하는 국가인 점을 들어 대가야로 비정하였다.

반파를 대가야로 보는 발표자의 견해는 타당한 견해로 본다. 토론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1. 발표자는 기문을 상·중·하의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소국명으로는 상기문과 하기문이 있었다. 이를 만족시키는 지역이 지금의 섬진강, 금강, 남강의 상류역이며, 행정구역 상으로는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다. 장수지역의 가야를 상기문, 운봉고원의 가야를 하기문으로 지칭하였으며, 중기문은 임실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기문은 대가야권에 속하는 정치체였으나, 지역국가명인 기문을 사용할 정도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기문의 위치에 대해서 양직공도가 만들어진 530년대에는 상기문만이 보이는 점에서 기문은 크게 상하로 구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하기문인 남원분지는 이미 백제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상기문만이 남아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己汶은 남강수계의 월산리, 두락리고분군이 위치하는 남원 아영지역을 중심으로, 금강수계의 장수 동촌리고분군이 위치하는 장수지역, 섬진강수계의 임실 금성리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남원분지일대로 보았다(박천수 2018). 즉 기문은 2지역 또는 3지역이라하여도 하기문은 남원분지로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2. 남원 월산리M5호분에서는 중국 남조산의 청자 계수호가 출토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계수호의 이입 과정과 배경이다. 박순발은 묘제와 토기양식이 대가야 계통임을 인정하면서도 고령지역에서의 출토 예가 없기 때문에 공반된 철제 초두와 함께 백제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백제 중앙정권이 대가야의 정치적 영향하에 있었던 남원지역의 수장에게 사여한 것으로 보았다(박순발 2012).

그런데 백제지역 출토 계수호의 부장 시기가 천안시 용원리9호분은 4세기 후엽, 공주시 수촌리 5세기 전엽이지만, 월산리 M5호분 출토품은 5세기 후엽인 점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중국 남조산 도자기가 출토된 지역이 모두 백제 영역내에 속하지만, 이 지역만이 대가야 권역에 포함된다.

그래서 토론자는 백제지역 출토 계수호의 연대가 4세기 후엽-5세기 전엽인 점, 중국 남조산 도자기가 출토된 지역이 모두 백제 영역내에 속하나, 이 지역만이 대가야 권역에 포함된 점에서 대가야 왕권에 의해 이 지역 수장에게 사여된 것으로 본다. 이는 부장 시점이 479년 대가야의 南齊 遣使가 이루어진 직후인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475년 漢城이 함락에 의해 일시기 멸망에 빠진 백제가 과연 이 시기 남원지역 수장에게 이를 사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백제와 남조와의 교섭이 단절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삼국사기』 문주왕 2년(476년), 사신을 송에 보내어 조공하려 하였으나 고구려가 길을 막아 가지 못하고 돌아왔으며, 『삼국사기』 동성왕 6년(484년), 추 7월 남제에 조공하려 하였으나 서해 가운데에서 고구려병을 만나 가지 못하였다. 백제와 남조의 교섭이 재개되는 것은 49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다.

필자는 월산리M5호분 출토 중국 남조산의 청자 계수호는 대가야의 남제 전사 또는 직전의 남조와의 교섭에 이입된 것으로, 동아시아세계에 대가야가 등장했음을 웅변하는 문물로 본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3. 발표자는 기문지역은 대가야권에 속하는 정치체였으나 지역 국명을 사용할 정도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고려 대가야세력이 이 지역 집단을 매개로 중국 남조와 교류한 것으로 보았다(김재홍 2017).

한편 기문에 대하여 남원 월산리와 두락리고분군을 중심으로 장수 삼봉리·동촌리고분군, 함양 상백리고분군·백천리고분군, 산청 중촌리고분군의 중대형 고총은 임천강을 중심으로 하나의 분포권을 형성하는 점을 들어 남원 월산리·두락리를 중심으로 남강 중유역을 포괄하는 영역 국가로 보거나, 나아가 전남과 경남에 속하는 섬진강 중상류역의 가야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토론자는 이 고분군들은 같은 수계에 속하지만 지형상으로 독립된 단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남강중류역의 諸정치체는 남원 두락리고분군 조영세력을 중심으로 여러 분지의 정치체가 하나의 단위로서 결집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가야와 각각 개별적인 상하 관계하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본다. 두락리고분군의 규모의 탁월성은 역시 이곳이 가진 전략적 위치에 대한 대가야의 관심과 후원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토론자는 그간 이 지역을 백제 신라의 중앙과 지방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고고자료뿐만 아니라 문헌사료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영유를 다투고 있는 주

체가 어디까지나 대가야와 백제인 점에서 백제와 대가야 사이에 위치한 독자적인 가야인 장수가야, 운봉가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발표자는 문헌사료에서도 기문의 위상은 높지 않다고 본다. 즉 기문은 고려시대인 후대의 인식이나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 비화가야와 달리 ‘모 가야’로서 호칭되지 않은 점에서 가야의 유력국으로 볼 수 없다. 이는 합천의 옥전고분군 축조 집단인 다라국이 ‘모 가야’로 불리지 못한 것과 같다. 그래서 기문도 ‘모 가야’로 불리지 못한 다라국, 탁순국, 탁기탄국 등과 같은 소국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재홍, 2017, 「위세품으로 본 전북가야의 위상과 성격」,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박순발, 2012,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고분군」,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무사』, 국립전주박물관·전북문화재연구원.
 박천수, 2018, 『가야문명사』, 진인진.

2019년 가야사 기획학술심포지엄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2019년 7월 11일 인쇄

2019년 7월 11일 발행

총괄 박종익, 임승경

편집·교정 강동석, 전용호, 양숙자, 이은지, 신종우, 민경선, 이희준, 김지연

발행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文化財廳 國立加耶文化財研究所)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51430 慶尙南道 昌原市 義昌區 龍池路 256)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56 Yongji-ro Uichang-gu, Changwon City, Gyeongsangnam-do, 51430 Republic of Korea

Tel. 055-237-8067 Fax. 055-237-8069

www.nrich.go.kr/gaya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文化財廳 國立羅州文化財研究所)

58264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58264 全羅南道 羅州市 榮山浦路 263-23)

Na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63-23 yeongsanporo, Naju City, Jeollanam-do, 58264 Republic of Korea

Tel. 061-339-1121 Fax. 061-339-1139

www.nrich.go.kr/naju

디자인·인쇄 아논컴퍼니

발간등록번호 11-1550110-000054-01

ISBN 978-89-299-1577-3 93910 비매품

